

요한계시록

초안

〈 일러두기 〉

1. '각주'의 성구 표시

-
-
-
-

2. 내용의 균형 문제

-
-
-
-

3. 내용의 보충과 지적

- 초안으로 출간하였으므로 내용의 보충과 지적을 요청합니다.

□ 요약목차

서론

- I. 예수님 재림 (1장) 1

본론

- II. 교회의 종류 (2-3장)
III. 영계의 모습 (4장)
IV. 성경의 전개 (5-9장)
V. 준비의 신앙 (10-12장)
VI. 승리의 신앙 (13-18장)
VII. 말세를 정리 (19-21장)

결론

- VIII. 영생의 모습 (22장)

부록

1. 총공회 말세론
2. 요한계시록 장별 정리

□ 세부목차

서론 : 존재론, 계시론

- I. 예수님 재림 (1장) 1
 - 1. 계시록과 예수 그리스도 (1:1)
 - 1) 이름의 의미
 - 2) 예수의 계시
 - 3) 그리스도의 계시
 - 4) 종말의 계시
 - 2. 말씀과 증거 (1:2-4상)
 - 1) 말씀
 - 2)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 3) 계시의 복
 - 4) 교회론
 - 3. 삼위일체 하나님 (1:4하-6)
 - 1) 삼위일체 하나님
 - 2) 축복과 인사
 - 4. 계시 (1:7-8)
 - 1) 재림
 - 2) 재림의 성격
 - 3) 영존의 주님
 - 5. 교회 (1:9-20)
 - 1) 자격 준비
 - 2) 아시아의 일곱 교회
 - 3) 교회의 모습
 - 4) 주님의 모습
 - 5) 주님의 위로
 - 6) 심판의 주님
 - 7) 교회의 사명
 - 8) 교회와 교역자의 관계

본론

- II. 교회의 종류 (2-3장)
 - 1. 에베소교회(2:1-7)
 - 2. 서머나교회(2:8-11)
 - 3. 버가모교회(2:12-17)
 - 4. 두아디라교회(2:18-29)
 - 5. 사데교회(3:1-6)
 - 6. 빌라델비아교회(3:7-13)
 - 7. 라오디게아교회(3:14-22)

III. 영계의 모습 (4장)

IV. 성경의 전개 (5-9장)

V. 준비의 신앙 (10-12장)

VI. 승리의 신앙 (13-18장)

VII. 말세를 정리 (19-21장)

결론

VIII. 영생의 모습 (22장)

부록

- 1. 총공회 말세론
- 2. 요한계시록 장별 정리

서론

1. 존재론
2. 계시론

서론

계시록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 모습으로 표시하고 있다. 존재론으로 간단히 살펴본다.

1. 존재론

1) 존재 순서

엡1:4, 하나님만 계신 시기에 '목적'을 정했고

요1:1, 목적을 위해 성자가 '창조'를 맡았고

창1:1, 성자가 말씀의 이름으로 창조를 '완료'했다.

2) 존재 의미

출3:14,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존자'이다.

요1:1, 성자 하나님은 자존자 하나님을 알리는 책임을 '말씀'으로 표시한다.

롬1:20, 창조된 만물은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한다.

2. 계시론

계시록의 계시는 구원론적 계시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1) 구원론적 계시

요1:18,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요1:18, 독생자 예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계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2) 삼위일체와 계시

자존의 존재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셨는지는

창1:1은 역사의 첫 순간으로 삼위일체를 볼 수 있고

요1:1은 영원 전으로 삼위일체를 볼 수 있고

엡1:4은 그보다 더 영원 전인데 삼위일체를 볼 수 있다.

이 점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¹⁾

1) 삼위일체는 창조 이전 하나님 혼자 계시던 자존의 세계에서부터 원래 삼위일체라고 말하면 맞다. 그런데 만일 영원 전에 목적을 정한 그 목적 이전도 삼위일체였는지를 재론한다면 단정하기 어려워진다. 삼위일체의 역할을 보면 '목적'을 위해 삼위일체로 역사를 시작했다 보인다. 완전자이므로 삼위일체로 계시 수도 있고 삼위일체를 초월할 수도 있어 보인다. 굳이 교리적 확정이 필요하다면 불변의 하나님이므로 목적 이전도 삼위일체다.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나 '말씀'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확실히 목적 단계이며, '말씀'은 드러낸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이므로 목적 때부터 존재했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하다.

I . 예수님 재림

1장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1)
2. 말씀과 증거 (1:4상)
3. 삼위일체 하나님 (1:4하-6)
4. 계시 (1:7-8)
5. 교회 (1:9-20)

I. 예수님 재림

(요한계시록 1장)

- ▶ 계시록의 전체 내용 : ① 계시 ② 삼위일체 하나님 ③ 교회
- ▶ 계시록 계시의 내용 : 하나님의 구원 계시

□ 1장의 위치

계시록 전체의 서론이며 22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총론으로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계1:1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1)

계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1) 이름의 의미

- 예수 : 기본구원의 역사
- 그리스도 : 건설구원의 역사
- 계시 :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위해 열어 보여 주심

□ 예수 그리스도

마1:19, 마1:21, 예수는 구원,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한 제사장 선지자 왕의 기름부음을 뜻한다.

계1:1, 계시는 보여 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구원을 보여 준다. 계시록은 말세 전부를 보여 주며, 우리의 현실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²⁾의 계시다.

(1) 주인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주인, 주체를 설명하고 있다.

- 계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 1위 하나님이 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2) 전달

하나님이 성자에게 주신 계시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 하나님이 천사를
-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했다.
-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3) 내용

요한이 받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 계시다.

- 예수의 계시 :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여 준다.
- 그리스도의 계시 :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 준다.
- 만물을 통해 예수와 그리스도를 열어 보인다.
- 시간적으로 이 모든 계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4) 대상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우리에게
- 예수 이름으로 사죄 칭의 확신 소망의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을 보

2) 그리스도 : 기름부음을 받았다는 뜻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의 3가지 직책을 포함한다.

여 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장 선지 왕으로 길러가는 데 필요한 것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5) 성격

‘예언’의 말씀

- ‘예언’은 일어날 일을 먼저 알린다는 뜻이나
- 성경에서는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것
- 즉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계시의 뜻이 포함된 넓은 의미로 쓰인다.

(6) 약속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2) 예수의 계시

현실의 모든 만물은 예수의 구원을 나타내며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낸다. 마1:21³에서 예수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고 죄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 (1) 사죄 : 말씀을 어긴 죄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죄의 구원을 이루고
- (2) 칭의 : 제 뜻대로 산 불의의 죄에서 주님 뜻으로 사는 칭의의 구원을 이루고
- (3) 화친 : 혼자 살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화친의 구원을 이루고
- (4) 소망 : 세상만 보는 절망의 죄에서 천국만 소망하는 구원을 이

3)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루게 한다.

3) 그리스도의 계시

현실의 모든 만물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자라게 한다. 그리스도란 '기름부음'이라는 뜻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의 3가지 직책이다.

- (1) 제사장 : 만물과 그 운영은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 면으로 자라게 하고
- (2) 선지자 :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면으로 자라게 하고
- (3) 왕 :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며 보호하는 왕의 면으로 자라게 한다.

4) 종말의 계시

(1) 속히 될 일

① 시기

- 재림 : 계시록의 사건들은 역사 세계의 종말에 발생할 것으로 주님의 최종 재림 때의 사건으로만 보기 쉽다.
- 현실 : 각 사람의 평생의 단번뿐인 매 현실이 실제적 종말이다.

② 이유

매 현실의 종말은 단 한 순간도 비거나 늦어지지 않고 매 순간 속히 될 일이며, 역사적 종말도 역사적으로 보면 속히 닥칠 일이다.

③ 재촉

계시록은 '속히' 8회, '곧' 3회, '가까움'과 '도적같이' 각 2회, '지

체' 1회의 기록을 통해 빠르게 전개될 일이라고 계속 재촉한다.

(2) 예언의 말씀

- ① 목적 : 보여 주시려고
- ② 대상 : 그 종들에게,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 ③ 방법 : 그 천사를
- ④ 내용 : 지시하신 것이라

예언이란 미리 알리는 것이며 또한 먼저 알게 되는 것이다. 매 현실의 만물은 우리에게 주신 계시며, 매 현실의 만물의 움직임은 예언이다.

(3) 단번의 결정

- ① 주님의 재림도 단번이고 매 순간의 역사도 돌이킬 수 없다.
- ② 우리의 매 현실은 보이지 않는 재림이며 단번의 결정이다.
- ③ 그 현실에 해당된 심신의 요소, 기능, 실력은
영생과 영멸로 나뉜다.

계1:2

2. 말씀과 증거 (1:2)

계1: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1) 말씀

- (1) 협의 : 문서계시 성경

볼 수 없는 마음을 남에게 전할 때 ‘말’이라 한다.

요1:1에서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범위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 만물을 창조한 것,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스스로 외부에 알리는 이 모든 일이 2위 성자의 역사임을 나타낸 말씀이다.

(2) 광의 :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고 증거했다는 것은 성경만이 아닌 하나님이 나타낸 모든 계시의 세계를 다 보고 증거했다는 넓은 범위를 뜻한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1:2)

(1) 권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셨고 읽을 수 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실상이다.

(2) 순서

존재 가치와 위치의 순서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3) 내용

하나님이 만물과 계시록에 계시하신 모든 것을 요한이 보고 증거한 것이다.

계1:3

3) 계시의 복 (1:3)

계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1) 읽는 자 : 성경과 만물로 계시를 읽는 자

만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모든 피조물과 그 활동을 통해 예수의 구원과 그리스도로 자라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만물을 읽는 자', '만물을 통해 계시를 읽는 자', '성경 속 계시를 읽는 자'가 된다.

(2) 듣는 자 : 양심으로 성령의 계시를 듣는 자

모든 현실의 만물과 그 움직임에 넣어 두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령이 양심의 귀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알려 주신다. 양심으로 성령의 계시를 듣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3) 지키는 자 : 예수와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자

모두에게 성경과 만물로 보여 주는 계시와 개별적으로 성령이 들려주는 계시는 자기가 현실에서 실행할 과제이다. 계시를 지키는 자는 읽고 들어 알게 된 그것으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사람이다.

□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천국 준비의 기회는 단번이다.

천국의 복은 현실에서 마련한다.

계1:4

4) 교회론 (1:4상)

계1: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1) 인사의 대상 : 아시아 7 교회

- 구약 : 가나안만 신앙 범위다.
- 신약 : 땅끝까지 모두 복음의 범위다.
- 가나안 바로 북쪽이 아시아다.
- 오늘의 소아시아, 터키를 말한다.
- 북쪽은 험한 곳이다.
- 복음은 주시는 기회를 따라 전하지만 어려운 곳이 우선이다.
- 아시아
- 우리의 아시아는 오늘 내게 주어진 나의 다음 노력할 곳과 대상이다.
- 사람은 안일욕의 본능으로 쉬운 곳을 찾으나 복음은 더 어려운 곳을 찾는다.
- 불신 가정의 가족이 가나안 주변이라면 특히 강경한 사람이 아시아다.
- 내 속의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옛사람도 아시아다.
-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바로 다음 단계, 범위, 대상이다.
- 7 교회 : 성경의 7은 하나님의 완전을 뜻한다. 7 교회는 내게 맡긴 모든 복음의 범위다.

(2) 전파 사명⁴⁾ : 편지하노니

- ‘게시’ ‘보이시려고’ ‘보내어’ ‘말씀’ ‘증거’ ‘예언’ ‘편지’는 전달을 의미한다.

4) 자존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택하고 은혜를 주시는 목적에서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최종 모습을 엡1:23에서 ‘교회’로 정했고, 이를 이루기 위해 오늘 이 땅에서는 ‘교회’를 시대마다 지역마다 운영한다. 교회는 그 범위에 따라 개인 교회, 가정 교회도 있다. 일곱 교회란 모든 종류의 교회를 뜻한다.

- 보고 받은 은혜를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신앙 세계의 본성이다.

3. 삼위일체 하나님

1:4하-7

1) 삼위일체 하나님 (1:4하)

계1:4하

4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광

(1) 삼위일체 : 하나님

① 자존 :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⁵⁾

② 시간

시간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세계를 시간으로 구분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표시할 수 있으나 그것에 다 담을 수는 없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시간을 만든 창조자로 시간 자체의 존재를 넘어서는 분이다.

5) 성자와 성령은 성경에 표시가 명확하다. 그러나 성부와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별이 어렵다. 성자는 창조를 맡고 세상에 와서 직접 역사를 했기 때문에 쉽고, 성령은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구별이 쉽다. 그러나 성부, 삼위일체는 이 땅 우리 기준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2선에 계시니 구별이 어렵다. '아버지'라고 명확하게 표시하면 쉬운데 그렇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어렵다. '이제도 계시고...' 이런 표현은 성부에게도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 바로 이 표현 뒤에 '일곱 영'으로 성령이 나오고 '충성된 증인'으로 성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라는 표현은 성부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성자는 성부를 보여 주는 일 외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존 세계를 보이는 일도 맡고 있어 성자가 나왔다고 그 앞을 성부로만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한 부분이 성부라는 점에서 4절의 '이제도 계시고...'라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자존 세계로 보인다.

(2) 성령 : 보좌 앞 일곱 영

성령을 ‘일곱 영’이라 할 때는 숫자가 아니라 역사적인 ‘전면’ ‘전체’ ‘모두’를 말한다. 하나님의 역사 전부를 7일 창조 단위에 담았다. 성령은 전면으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 역사를 한다.

계1:5

(3) 예수 그리스도 (1:5)

계1:5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① 대속의 주님

4-5절에 ‘충성된 증인’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로 2위 성자를 표현한다.

- 충성 : 빠짐없이 다 바쳤다는 뜻이다.
- 증인 : 볼 수 없는 하나님과 그 목적을 전부 증거하였다.

② 부활의 주님

- 죽은 자들 가운데서 : 인간의 죄값인 사망에서,
- 먼저 나시고 : 죄 없이 죽고 부활하셨다. 모든 택자가 주님의 뒤를 이어가도록 마련된 것이므로 ‘먼저’라 하였다.

③ 만왕의 주님 :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 세상 모든 두목이나 최고들 그 위의 절대자로 표시했다. 우리의 구원과 양육의 면을 책임진 주님을 이렇게 표시한 것은 구원의 책임자가 이런 능력과 위치를 가졌고 우리도 그렇게 길러간다는 소망까지 담았다.

계1:6

2) 축복과 인사 (1:6)

계1: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 은혜와 평강

① 은혜

세상에 없는 하늘의 것,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값없이
처음 받으면 ‘은혜’가 된다.

② 평강

그 은혜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면 ‘평강’이 된다.

③ 자세 : 축복

신앙의 세계에서는 상대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 전 소
망의 마음으로 축복부터 해야 한다. 우리는 6복음을 가진 사람, 복
음으로 상대할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를 내
려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잘 보전하기 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런 자세와 노력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다.

(2) 감사와 찬양

① 찬송 내용

■ 찬양 :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능력과 그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

■ 감사 :

감사는 받은 은혜와 평강에 대한 사운이 된다. 주님은 우리의 감사

6) 마10:11에서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머물 곳을 찾고, 그리
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고 했다. 여기 계1:6의 은혜와 평강
이 바로 그런 인사의 실례다.

가 이어질 때 더 많은 것을 주신다.

■ 영광 :

우리가 찬송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 된다.

■ 창조 목적 :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절대자 완전자이신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와 찬송뿐이다.

■ 세상의 습관적이고 의도적인 인사치레가 아닌 전지의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심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송만이 영광이 된다. 주님의 능력은 전능이며 주님의 수고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룬 완전이다.

② 근거

■ 대속의 주님 :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 구원의 주님 :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3) 우리 구원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빌고 주님에게는 영광을 돌리고 그의 능력을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 이유 :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영광과 찬송의 깊이의 실체는 우리의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는 실체를 바로 알고 바로 평가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전능의 절대자가 모든 것을 쏟은 것이 실체라는 것이다.

② 목적 : 그의 피로

하나님처럼 온전한 우리를 만들기 위해 타락과 구원의 순서를 주셨다. '그의 피로'라는 것은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말로 피는 생명이다. 생명을 바쳤다는 것은 생명과 그 생명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이다.

③ 해방 :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 죄의 해결

죄의 해결이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우리의 타락을 죄로만 표시했으나 그 죄는 말씀을 어긴 죄, 내 마음대로 산 불의, 하나님과 원수 된 불목, 하늘의 소망을 버리고 세상만 보고 산 절망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이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할 대속으로 해결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되신 주님이 죄에 붙들린 우리를 해방했다.

■ 이유와 목적 : ‘나라와 제사장’

-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 자존의 하나님을 닮은 완전의 존재로 만들고자 한 이 세계가 ‘나라와 제사장’이다. 타락 없이 만들면 아무리 완벽해도 우리는 인형일 뿐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겪어 보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완벽해져 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보고 다시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 이것이 ‘나라와 제사장’이다.

- 나라

‘나라’란 통치를 받는 모습이다. 허무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고는 이를 수 있는 것은 없고 완전자에게 붙들리는 것이 바로 나라다. 하나님은 통치하고 우리는 잘 따르는 관계가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 목적의 완성이다.

- 제사장

‘제사장’이란 통치를 받는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다. 나와 내게 맡긴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는 위치와 역할을 제사장이라 한다.

- 하나

한 분 하나님은 나 하나만을 목적대로 만들지 않고, 나와 택자 전부

가 하나 된 하나를 원했다. ‘택자들의 하나 된 하나’로 목적 대상을 정한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닮은 자유의 우리 인성이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4) 축복 - 세세토록 잇기를!

■ 영생

이 땅에서는 기본만 준비한다. 세상이 끝나고 영계로 옮겨지면 그곳에서 영원한 우리의 영생은 시작이 된다. 이 땅의 훈련 기간에 겪은 고생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이 끝날 시점만 생각하기 쉽다. 주님은 이 땅의 고난의 끝나는 시점만이 아닌 영계에서 영원히 시작될 그 목적을 위하여 영원한 희생을 시작했다. 이 땅의 많은 고난을 겪은 노년의 중요한도 ‘세세토록’을 잊지 않았다.

(5) 아멘

이 소원, 이 찬양, 이대로 이루어지고 영원히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담은 성경의 표현이다.

계1:7

4. 계시 (1:7-8)

1) 재림 (1:7)

계1:7

볼찌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1) 계시 내용 :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① 이유

부활하신 주님은 전능인데 왜 구름을 타야 할까?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행1:9),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1:11),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계1:7)고 했으니 승천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고 재림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전능자시니 구름을 타지 않고 올 수도 있으나 우리를 위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② 의미

왜 하필 구름인가?

사도행전1:9에서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했다. 현재의 과학은 하늘 구름 그 위에 대기 측정기를 고정으로 띄우고 대기를 항상 측정하고 있다. 지금은 구름이 가릴 것도 없게 되었고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사도행전1:9의 의미는 무엇일까?

■ 대격변

말세 마지막에 구름 타고 나타날 때는 구름이 가리고 말고 할 것도 없는 대 격변으로 올 것이다.

■ 매 현실이 말세

오늘 매 현실이 말세이며 모든 현실에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온다. 주님은 마28:20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항상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 마음에 덮인 것이 없으면 매 현실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것이다.

그러나 고후3:14-15에서는 모세의 글을 읽을 때도 수건이 마음을 덮어 알지 못했다 하셨다. 구름 자체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나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 마치 수건이 가려진 것 같이 구름에 가려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매 현실이 종말적 기회가 되고 매 순간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내 속의 심안이 가려져 구름에 싸여 있는 것 같이 잘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③ 근거

- 개별 심판 :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 전체 심판 :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2) 계시록의 계시

① 매 현실마다 오시는 주님

계1:1에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구체적으로 구름 타고 매 현실마다 오시는 주님을 말한다.

② 하늘의 세계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한 하늘의 세계에 있다. 부활의 주님은 이 땅에 붙들린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③ 부활의 신령한 주님

신령한 주님은 역사의 마지막 재림 때는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오늘은 이 땅에 속했던 주님이 아닌 부활 승천한 신령한 주님으로 매 현실마다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의 심령이 구름으로 표현한 신령한 세계를 보려 하지 않고 땅의 것만 보려 하면 구름이라는 하

늘의 세계에 속한 주님을 보지 못한다.

④ 말세의 계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계1:1에서 계시록을 적어 주시며 다급하게 보여 주실 내용을 계시라 한다. 또한 쉽 없이 보여 주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와 그리스도, 즉 예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세에 보여 주실 계시다.

⑤ 위치

부활 후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나 부활로 신령한 몸의 주님이 되셨다. 땅에 속한 위치에서 오시기 전의 하늘 하나님의 위치로 복위하셨다. 아버지 하나님 우편의 그 위치, 그 자격, 그분이 오늘도 현실마다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 주님이 우리 구원의 표준이며 우리의 목표다. 또한 그 모습은 교회가 닮아가야 할 대상이다. 계1:12~20에 기록되어 있다.

(3) 계시의 효력

① 현실은 주님 영접의 기회

부활의 주님은 매 현실마다 미리 알리시며 우리에게 오신다. 매 현실에서 부활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으면 인격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고, 행위가 주님과 같으면 행위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② 기회 박탈

우리 자체가 이 땅에 붙들려 모든 족속들처럼 별별 이유와 형태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의 구원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 기회는 끝나게 된다. 오신 주님을 모시지 못한 이들은 애곡할 것이며, 세상에 붙들려 사느라 주님을 찌르며 맞서 싸운 이들도 자기 현실에서 자기가 주님을 상대로 찌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을 영접할 기회는 한 번뿐이며 두 번의 기회는 없다.

2) 재림의 성격

(1) 그를 찌른 자들

① 분리 처리

우리는 개별적, 요소적, 기능적으로 주님을 맞아야 한다. 주님을 배척한 개인의 요소와 기능은 별도로 분리되어 처리된다.

② 기회는 한 번

중생된 자는 개개인적으로 매 현실에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 굳이 보지 않으려고 수건을 덮어 쓸 사람도 있다. 기능적으로도 매 현실에서 주님을 보고 닮고 배우고 모셔야 한다. 만일 실패하면 그 능력과 기회는 다시 가질 수 없다.

(2) 땅의 모든 족속

① 기회

모든 현실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어떤 면에든지 주님을 모실 기회 이면서 또 배척할 기회가 된다. 배척하면 다시는 모실 기회가 없게 된다. 매 순간이 주님을 모시느냐 배척하느냐로 심판의 결과를 맺게 된다. 믿는 사람의 평생은 항상 두 길이다.

② 영접 실패

‘모두가 애곡하리라’ 했으니 모두가 매 현실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느끼지도 영접하지도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계1:8

3) 영존의 주님 (1:8)

8. 주 하나님은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 알파와 (오메가)⁷⁾

① 시작의 주님, 마지막의 주님

목적은 정하기 전에도, 창조 전에도, 이 땅 위에 초림 때도, 매 현실의 재림 때도 또 영원무궁 훗날까지도 주님은 늘 변치 않는 절대자, 완전자, 영원불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는 주님의 시작과 뒤가 달라 보여도 주님은 다르지 않다. 이제 이 말씀의 위치는 8절이며 이후 요한이 또 다시 주님을 새롭게 아는 상황이 전개된다. 주님은 늘 같은 주님인데 요한이 자랐고 눈이 더 밝아져 더 새롭게 되어 주님을 새롭게 더 잘 알게 된 것이다. 주님이 변해서가 아니다. 요한도 주님 생전과 부활 직후에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배척했고 제자들과 그 시대와 함께 주님을 무시하여 애곡한 시기도 있었다.

② 불변의 주님

창조와 타락과 초림과 부활 승천과 오늘 매 현실의 주님은 불변의 하나님입니다. 매 현실마다 우리는 늘 변하고 변한 우리가 주님을

7) 알파와 오메가 :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A)와 끝 글자(Ω)를 나타낸 말.

달리 보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초림의 주님은 쉽게 배척했고 또 재림의 주님은 실감하지 못하여 또 실패한다.

(2) 시공초월

- ① 이제도 있고 : 매 현실은 주의 재림이다.
- ② 전에도 있었고 : 초림의 주님, 창조 전과 목적을 정하기 전의 주님이다.
- ③ 장차 올 자요 : 역사적 재림의 주님, 영원무궁 훗날까지의 주님이다.

(3) '전능'한 자시더라

절대자, 완전자, 영원불변의 하나님이다.

■ 예수 그리스도

- 예수 : 지옥 갈 우리를 천국으로 돌려놓은 구원의 주님
- 그리스도 : 믿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길러가는 성장 과정

계1:9

5. 교회 (1:9-20)

1) 자격 준비 (1:9-10)

계1:9-10

9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니

10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1) 요한, 이름 (1:9)

① 예수님 제자 ② 가장 사랑 받은 제자 ③ 야욕을 가진 사도 ④ 실패한 사도였으나 ⑤ 오순절 회개로 평생 구원의 사랑만 전한 노종이다.

(2) 경력, 자격 (1:9)

예수의 구원만 전하다 환란을 겪고, 예수님께 완전히 통치받는 예수의 나라가 되었다.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 온 참음의 생활 끝에 세상과 교회로부터 배척당한 사도다.

(3) 위치, 형편 (1:9)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담긴 말씀과 대속의 주님을 증거하다 몰린 마지막 위치가 밧모섬이다. 평생을 바쳐 증거한 결과로 더 이상 전할 곳이 없는 상태의 형편이 된 때다.

계1:10

(4) 주일의 은혜 (1:10)

① 주의 날

주의 날 즉 주일에 밧모섬에서 평생에 전한 주님을 다시 만나 은혜를 받는다. 평생을 초인적으로 살아온 요한이지만 매 현실에서 재림의 주님을 모시고 참 교회가 되는 대변화를 다시 받는다. 이 변화를

위해 준비된 날이 주일이다.

② 성령에 감동

지난날과 방향을 되돌아보도록 성령이 붙으시고, 이때 매 현실에서 재림의 주님이 사할 대속의 결실이 맺도록 오시는 모습과 또 그 주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

(5) 나팔 소리

① 방향 전환

‘뒤에서 나는’이란 지난날의 방향과는 정반대를 뜻한다.

② 명백한 증거 :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명백하고 공개적 증거를 뜻한다. 듣지 못할 수 있는 작은 소리도 아니며 혼동되는 내용도 아닌 누구든지 듣지 않을 수 없는 큰 음성의 증거이다.

계1:11

2) 아시아의 일곱 교회 (1:11)

계1:11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 교회 - 주님의 기관

① 이유

주님은 전능자라 직접 말씀을 주셔도 되지만 교회라는 계통을 통해 구원을 전하게 하고 또 우리를 기르신다.

② 계통

이때 교회는 간판을 붙여 모이는 유형 교회가 아닌 무형의 참 교회를 말한다. 부모가 아이를 만들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아이를 만들 때 그 부모를 기관이라 한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기관이며 계통이다.

(2) 아시아

① 시작 : 이스라엘

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이다.

② 다음 : 아시아

그 다음으로 전해지는 지역이 아시아다.

③ 순차적

행1:8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고 했다. 건너뛰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다음 단계를 하나씩 순종하며 나가라는 것이다.

(3) 일곱 교회

① 대상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말기는 각자의 모든 사역 대상이 일곱 교회다. 동시에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르시고 기르시는 모든 교회가 일곱 교회다.

② 입장

먼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대상으로 한 계시록을 받

아 기록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사도 요한과 일곱 교회의 입장이 되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다.

③ 과제

기록 당시는 그 이름과 순서 그대로 과제가 주어졌으나 오늘 우리에게는 시공을 초월한 복합적 과제로 주어진다.

④ 실상

개인 교회, 가정 교회, 큰 범위의 교파, 시대적 교회 모두는 이 일곱 교회의 형편과 장단점을 자기의 모습으로 알고 살펴야 하며 바르게 나가야 한다.

3) 책에 기록

(1) 성경의 명백성

①정확성

계시록을 포함하여 모든 성경은 그림이 없다. 글보다 그림이 쉽지만 전하는 과정에 내용이 변한다.

②자유성

계시와 모든 성경 내용은 주님이 직접 알려도 되나 우리를 길러 가는 과정에 필요하여 기록으로 주셨다. 우리의 말씀 연구 노력은 자유성의 성장과 말씀을 자기 것으로 명확하게 삼게 한다.

③객관성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불러 유기적 교회와 주님의 몸으로 함께 자라

게 하여 그 목적을 이루게 한다. 이를 위해 모두가 알아야 할 내용 즉 진리는 공동과 공통으로 주시고 또 기록을 통해 객관화 시켰다. 각자의 개별성은 성령이 감화와 감동으로 인도한다.

(2) 내용의 공통성

① 필요성

요한이 보게 되는 계시록의 모든 계시를 일곱 교회 모두에게 보냈다. 교회별로 장단점이 다르고 형편과 신앙이 다르지만 일곱 교회의 상황 모두가 자기 교회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모든 계시는 어떤 교회라도 항상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다.

② 동일성

시대와 장소와 환경이 다르고 받은 은혜와 사명이 달라도 교회와 교인이 알아야 할 내용은 항상 같다. 오늘의 장점이 내일의 단점이 되고 오늘 없던 일이 내일 생길 수도 있으며 오늘의 일이 내일 또 반복될 수도 있다.

계1:12

3) 교회의 모습 - 나타나신 주님

계1:12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1) 요한

요한은 갈릴리 출신으로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다. 제자들 중에 주님을 제일 가까이했고 많은 굴곡이 있었으나 행2:1의 오순절 이후

다시는 실수 없이 평생을 주님 위해 매진했고 노년에는 빛모섬으로 쫓겨 왔다. 비록 완전은 아니지만 요한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알았고 부활의 주님도 봤다.

(2) 새 현실의 주님

그러나 주일날 성령에 붙들려 다시 본 새 현실의 주님은 지난날 봤던 주님과 또 다른 주님이었다. 다른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또 다른 면과 더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평생 새 현실에서 지난날 알던 주님과 아주 다른 주님처럼 새롭게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

(3) 방향 전환 : '몸을 돌이켜'

10대, 20대, 결혼 후의 우리는 한 분 어머니를 다른 어머니로 점점 알아간다. 우리는 아이를 낳고 그 자식이 성인이 되는 30대와 50대를 지나는 그때마다 과거 알던 어머니와 아주 다른 차원의 어머니를 알아가는 것과 같다.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실제 그렇게 보게 된 것을 '몸을 돌이켜'라 한 것이다.

(4) 교회의 원형인 주님

요한이 본 예수님은 교회의 원형이므로 교회가 머리로 삼고 닮아야 하며 그렇게 되어야 하는 실체다. 강아지는 개가 되고 망아지는 말이 된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원형이 되고, 교회의 성질 내용 요소 전부가 예수적이며 그리스도적이라야 한다. 13절부터의 예수님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만물을 만들었고, 만물은 그런 모습을 만들도록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으니 이것이 계시다.

계1:13

(5) 교회의 주관자 주님

① 기존 지식

밭모سم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의 요한은 주님이 교회를 관리한다는 것은 알았다.

② 직접 관리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그렇게 일일이 직접 관리하시는 그 세밀한 세계까지는 알지 못했다.

③ 일곱 금 촛대는 일곱 교회

■ 위치와 역할

1:20에서 일곱 촛대를 일곱 교회라 했다. 일곱 금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 전부를 뜻한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빛으로 세상과 피조물에게 영원히 그 빛을 밝히는 위치에 있다.

금 촛대인 교회의 위치와 역할은 불변의 금처럼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한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역할과 위치를 지킬 때만 교회며, 이 면을 잃거나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관리를 하고 계신다.

4) 주님의 모습 (1:13-16)

계1:13-16

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16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것 같더라

(1) 발에 끌리는 옷 : 주님의 행위

① 희생

주님의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는 제사장적인 희생의 걸음이다.

② 신중

발에 끌리는 옷은 활동이 어렵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성전 안에서 조심스러운 행동을 위해 발에 끌리게 한다. 주님은 완전자이나 우리를 위해 모든 행동을 삼갔다.

③ 교회의 행위

개인이든 가정 단위든 교회는 제사장처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 희생하며 신앙의 걸림이 되지 않도록 만사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2) 가슴에 금띠를 띠고

① 가슴

가슴은 몸의 중앙이며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다. 엡6:14에서 가슴을 방어하기 위해 갑옷 위에 흉배를 덧붙인다.

② 금

금은 불변이다.

③ 띠

띠는 힘을 모은다.

④ 뜻

가슴에 금띠를 띤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중심과 심중에 불변으로 역사하는 힘을 모으라는 것이다.

계1:14

(3)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① 머리

주님의 머리는 주님의 생각이며 사상이다.

② 흰 양털 : 성결

주님이 오신 동기도 오셔서 가진 모든 마음도 항상 성결이었다. 털은 몸에서 돌아난 것이다. 주님에게 속한 모든 것은 말씀과 꼭 같으니 희고, 아버지의 뜻과 꼭 같으니 성결이며, 아버지와 동행하며 영생의 소망뿐이었으니 모든 것이 깨끗했다.

③ 목표와 방향

희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조사하고 검토해도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 진리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다. 꼭 같은 흰색의 성결이지만 털은 안에서 점점 자라 솟아 난 것이고, 눈은 위에서 내려 덮은 것이다. 내 안에서 신앙의 하나 된 생명의 성장으로 점점 깨끗해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 조성된 환경 때문에 되었든, 주님의 것과 주님에게 속한 것은 성결하지 않은 것이 없다. 성결은 교회가 노력하며 가야할 방향이며, 우리가 모든 현실마다 이

룩해야 하는 목표다. 우리의 생각, 행동, 결정, 처신, 인격 모두를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볼 때 어느 한 곳도 깨끗지 않은 것이 없어야 한다. 주님이 성결함을 보인 것은 교회도 우리도 성결하라는 것이다.

(4) 눈은 불꽃 같고

① 전지

불꽃 같은 눈이란 모든 것을 밝히고, 바로 보며, 가린 것이 없이 다 아시는 전지의 주님을 말한다.

② 직시

믿는 사람은 자기 속의 장점은 물론 단점과 잘못을 볼 수 있어야 한다.

③ 지혜

유혹과 위협과 속임이 어떻게 자기를 혼든다 해도 그 현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④ 전부

겔1:18과 계4:6에 눈이 가득했다는 말씀처럼 한 면이 아닌 모든 면으로 바로 봐야 한다.

계1:15

(5)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① 희생의 고난

주님의 걸음걸음은 전부가 고난이었고 고난 아닌 것이 없었다.

② 대속의 고난

구원을 위한 천국의 한 길과 죄 없이 죄를 이기는 대속의 걸음을 가려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는 고난을 피할 길은 없다.

③ 은혜의 고난

풀무는 쇠를 녹이는 가장 혹독한 환경이며 주석은 불을 통과할수록 더욱 빛이 난다. 이처럼 사람은 고난을 겪을수록 빛이 난다. 하나님 이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 그 고난을 담당하셨다.

④ 구원의 고난

주님의 걸음은 구원을 위한 고난의 걸음이었다. 믿는 사람도 자기를 고치며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려면 주님처럼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

(6)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① 자비의 말씀

주님의 음성은 자비로운 부르심이며, 가르치고 인도하는 은혜다. 생명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고 물소리란 생명을 주는 은총이다. 주님의 말씀은 때로는 설교, 때로는 비판, 때로는 책망도 있으나 알고 보면 말씀 전부는 자비만 넘친다.

② 구원의 말씀

믿는 사람도 어떤 상황에 누구를 대화를 해도 항상 상대의 구원을

돕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결과와 동기만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

계1:16

(7)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① 오른손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시한다.

② 소망의 존재

일곱 별은 20절에서 교회를 맡긴 하나님의 종들이며 별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속하지도 세상에 뒤섞이지도 않고 하늘 하나님의 세계에 붙들려 어두운 밤을 밝히며 방향을 제시하고 소망을 주는 존재다. 죄악 세상의 우리에게 주님이 그러했고 주변 지역에 교회가 그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각 교회의 책임자도 가정 교회도 그러해야 한다. 또 내 속을 볼 때 주님께 붙들린 나의 요소가 세상에 붙은 나의 다른 부분에게 하늘의 별이 되어야 한다.

③ 계통의 역사

내 속의 별 같은 성화 기능, 가정에 신앙의 인도자,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붙든 종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 다음 믿는 사람을 이끄는 방법으로 세상 끝날까지 늘 계통을 통해 역사한다. 부모를 통해 자녀를, 지도자를 통해 교인을, 작고 큰 범위를 막론하고 늘 체계 계통을 세워 나간다. 모든 인도자는 주님이 그 다음 사람을 이끌기 위해 앞에 세운 사람으로 목사며 부모며 선배들이다. 그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때로는 걸길을 간다 해도 주님은 그

런 면까지 모두 알고 계시며 또 필요해서 그렇게 배치시켰다.

마23:2에서 비록 탈선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해도 자기의 지도자로 세웠을 때는 그 지도자가 아닌 그 지도자를 세운 주님 때문에 그 지도자와의 관계를 조심하라 한다. 그들이 선 그 자리는 모세와 같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말은 듣지만 그들의 틀린 행동은 본받지 말라 한다.

가정교회 신앙의 호주, 일반 교회의 교역자, 각종 지도자, 내 속에 앞선 부분은 주님이 나를 길러 가는 계통이며 그 지도자 자체는 주님의 손발이므로 존중해야 한다.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부모를 통해 나를 기르시는 주님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지시는 따를 수 없다. 다윗이 사울을 상대하던 그 자세가 필요하다.

④ 주님을 투영

주님은 교회와 교회에 앞세운 사람을 직접 붙들고 역사하신다. 우리는 교회와 지도자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8)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① 성령의 검

엡6:17,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의 말씀은 그 마디마디 전부가 히4:12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②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의 이 면이 우리를 살피고 수술하여 살리며 말씀의 저 면이 죄와 사망을 꺾고 죽여 우리를 살린다.

(9)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① 해

주님의 모습은 세상을 비추며 굽어보고 세상을 이끄는 해와 같다. 해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한다.

② 얼굴

얼굴은 마음과 그 사람 전부를 나타내는 표시판이다.

③ 투영

주님을 낱알이 세부적으로 설명하며 동시에 전체적으로 그 얼굴은 하나님을 투영(投影)하고 있다.

계1:17, 18

5) 주님의 위로

계1:17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① 권위

요한은 요13:23에서 예수님의 품에 누워 주님에게 응석을 했다. 그

품의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황제의 어린 손주가 황제의 품에 안겨 멋모르고 마냥 치대는 것과 같다. 이런 요한이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로는 평생을 주님 앞에 충성했다.

② 요한의 충격

그러나 요한은 밧모섬에서 뒤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 다시 주님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 얼굴을 볼 때 죽은 자처럼 쓰러진다.

③ 주님을 연구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신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상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한다.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가 만만히 대해도 되는 낮은 존재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연구하여 주님 앞에 미리 엎드려 떨 수 있는 자기를 만들어야 한다.

④ 예비

우리를 통해 주님이 밖으로 전해질 때 우리가 주님을 가로막지 않고 주님을 그대로 잘 모시게 되면 우리를 상대하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훗날의 변화 되고 신앙으로 자라난 그런 빛을 자연스럽게 보게 된다. 신앙은 자라가는 것이다.

(2)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① 불변의 주님

주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웠을 때도 그 주님, 십자가에 죽을 때도 역시 그 주님, 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해서 그렇지 부활 후 승천하여

보이지 않을 그때도 주님은 꼭 같은 그 주님이다.

② 우리의 변질

주님은 불변의 완전자 절대자인데, 우리가 변덕과 변질이 되면서 주님을 좀 두려워하다가 만만히 여기는 죄를 짓는다.

③ 오른손

오른손은 주님의 능력의 역사와 처리를 말씀한다.

④ 위로

두려워 말라

⑤ 전능의 주님

우리는 한 없이 부족하고 약하나 주님이 전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나가신다.

6) 심판의 주님 (1:18)

계1:18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찌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 부활의 주님

‘곧 산 자라’는 주님의 부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는 주님의 죽음을 의미한다.

(2) 사망과 음부의 열쇠

① 열쇠

주님의 대속으로 주님이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이 닫힌다. 마16:19에서 주님은 천국의 열쇠를 가졌고 그 열쇠를 성령의 사람에게 맡긴 것처럼 계1:18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② 결정

영생과 영벌, 영원한 상과 영원한 심판으로 천국과 지옥의 영원 고정을 주님이 결정한다.

(3) 주님의 모습이 기준

① 기준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기준이다.

② 건설 구원

오늘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펼치는 예수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자기와 교회를 주님의 모습처럼 만들어 가는 것이 건설 구원이다.

③ 성패

■ 영생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요소와 관련 기능 전부는 천국 열쇠로 열린 천국의 영생이 될 것이다.

■ 영벌

주님이 보여 주신 주님의 모습과 차이가 나면 그 잘못 된 부분은

전부 영원히 지옥에 던질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성패다.

계1:19

7) 교회의 사명

계1:19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1) 우리의 사명

① 계시의 현실

주님은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 모든 만물과 그 운영 전부로 우리의 현실을 구성한다. 요한은 매 현실에서 우리가 예수의 4가지 구원과 그리스도의 3가지 자라 가는 면을 갖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 주셔서 보게 됐다.

② 변화의 기회

모든 것을 본 요한은 지금 자기에게 펼쳐지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속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③ 현실의 내막

또한 매 현실에서 계시를 바로 봤다면 이번 현실을 통해 이어지고 드러날 다음 현실을 알 수 있다. 매 현실은 각기 따로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다. 나무의 뿌리는 등치와 가지와 열매로 연결이 되고, 학생이 공부를 하면 학기 말과 시험과 그 시험에 따른 결과가 따라가는 것이다.

④ 지식의 중요성

하나님이 2위 성자 ‘말씀’의 이름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타락 후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는 과정에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 중생한 우리에게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빠진 세상과 현실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예수와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고려해 볼 것도 없다. 세상 전부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우리는 어떤 현실의 어떤 면에서도 어떤 존재로부터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알게 된 만큼 우리의 인격과 행위는 점점 그렇게 변화가 된다.

⑤ 현실의 내막

사업가는 만사를 돈으로 보고 돈을 마련한다. 화가는 만사를 그림으로 강도는 만사를 강탈할 대상으로 상대한다. 우리는 만사를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상대한다. 그리고 주님의 최후 재림을 중심으로 매 현실이 단번으로 왔다 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봤다. 또한 현실을 보며 그 안에 오신 주님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조처가 읽혀야 한다. 요한을 통해 기록해 주신 성경은 당시 요한이 본 것이나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의 내막이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봐야 한다.

계1:20

8) 교회와 교역자의 관계

계1:20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① 7별의 비밀

- 7별 : 7 교회의 사자를 뜻한다.
- 7 촛대 : 7 교회를 뜻한다.

② 교회를 길러가는 방법

교회를 길러가는 방법은 지도자와 교인의 관계이다. 서로 맞지 않는 부부, 내 속에 어울리기 어려운 나의 장단점, 한 교회에 교인과 교역자는 잘 맞아 은혜로운 때도, 아주 맞지 않아 고통스러운 때도 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배치시켜 놓으셨다.

타락을 통해 우리를 길러 가듯이 계시로 주신 주님의 모습은 명확하다. 그러나 그 계시를 앞에 두고 교역자와 교인이 서로 맞춰 보다 보면 서로가 탓을 할 수도 있으나 교역자의 눈으로 교인을 보고, 교인의 눈으로 교역자를 보다 보면 그 차이와 충돌을 통해 서로 고치고 배우며 제대로 잘 만들어지게 된다.

또 한 편으로는 서로 맞지 않는 이해 충돌이다. 겉으로는 사람들끼리 부족하고 잘못이 있어 전쟁이 벌어지나 그 배후와 내막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길러 가는 주님이 계신다.

③ 교회와 교역자의 비밀

- 단일

이것이 교회와 교역자의 비밀이다. 마지막으로 그 현실이 지나가고, 서로의 관계가 일단락이 되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신 뒤에 계산을 해 보면 교역자와 교회는 하나다. 교역자는 말이고 교회는 소가 될 수 없다. 처음에는 그렇게 만났다 해도 마지막에는 계시를 통해 하

나눔께서 둘을 하나로 만든다. 머리 가는 대로 몸이 가고 몸이 있는 곳에 머리가 있다. 한 개인도, 한 가정 교회도, 한 교회도 모두 마찬가지다.

2. 교회의 종류 (요한계시록 2-3장)

▷ 2~3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내용 중 교회의 현황과 7가지 형태로 설명

계시록 전체 내용은 항상 7가지 신앙의 종류와 관련되어 전개 적용됨

■ 7교회 신약시대 펼쳐질 계시

- ① 에베소교회 2:1-7 처음 사랑
- ② 서머나교회 2:8-11 지사 충성, 하나
- ③ 버가모교회 2:12-17 순교, 이름 굳게
- ④ 두아디라교회 2:18-29 음행
- ⑤ 사데교회 3:1-6 내면 죽음
- ⑥ 빌라델비아교회 3:7-13 진실, 열린 교회
- ⑦ 라오디게아교회 3:14-22 열심, 죽은 교회

■ 7 교회-일반적 상식

1. 교회

- 1) 정의: 하나님 진리 성도의 삼합
- 2) 종류: 개인교회 가정교회 사회교회 세계교회 역사교회
- 3) 종류: 가견적 교회 불가견적 교회

2. 7 교회 공통점

- 1) 사자에게 편지함

- 2) 귀 있는 자에게 성령이
- 3) 이기는 자에게 상급

3. 기록 형식

- 1) 찾아오신 주님
- 2) 신앙
- 3) 칭찬, 책망, 권면, 경고
- 4) 귀 있는 자는
- 5) 이기는 자는 상급

4. 교회별

- 1) 책망 없는 - 서머나교회
- 2) 칭찬 없는 - 라오디게아교회
- 3) 칭찬뿐인 - 빌라델비아교회
- 4) 칭찬과 책망 -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교회

■ 일곱의 의미

- ① 신약의 모든 교인, 모든 가정 교회, 모든 일반 교회 전부
- ② 매 현실 주님으로 배우고 고치고 자라 가야 하는 과정에 장단점, 교회가 조심해야 하거나 노력해야 하는 면, 심지어 교회의 주변 환경과 내면까지 세세히 알려 주기 위해 2장과 3장에 7개의 신앙 형태를 주셨고,
- ③ 이 7가지는 한 사람 속에 동시에 다 해당되면서 사람과 교회에 따라 어떤 면이 돋보이고 다른 면은 약화된 상황으로 전개된다.
- ④ 신약,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최후 마지막을 포함하여 어떤 현실에서든 지상(地上)의 교회가 일곱 교회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 ⑤ 예수와 그리스도의 구원 세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의 성도

와 교회를 부르시고 길러 가시고 연단하여 주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갈 터인데 그 과정에 일단 ‘교회’ 또는 ‘교인의 신앙’을 기준으로 본다면 7가지 교회들의 형편을 우선 살피며 자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피면 전부가 복음이 된다.

계2:1

1. 에베소교회 - 처음 사랑

2:1-7

계2: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 참고 : 처음 사랑을 잊은 교회

1) 찾아오신 주님 (2:1)

- (1)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 (2)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계2:2

2) 첫사랑의 의미

계2:3

3) 8가지 행위들의 관계

- (1) 행위
- (2) 수고
- (3) 인내
- (4)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함
- (5)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 (6) 참음
- (7)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 (8) 게으르지 아니한 것

계2:4

3) 대속의 은혜와 충성의 행위와 관계

- 처음 사랑을 버림에 대한 책망
- 대속의 은혜 버린 충성은 껌데기일 뿐

계2:5

4) 촛대의 본질 : 처음 사랑을 버림

(1) 권면

- 회개하여
- 처음 행위를 가지라

(2) 경고

- 회개치 아니하면
- 네 촛대를 옮기리라

계2:6

5) 주님과 같은 마음

-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함

계2:7

6) 이기면

-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

2. 서머나교회 - 4대관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2:8-11

계2:10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 참고: 1) 책망 없는 교회

2) 4대관이 주님과 같은 교회

계2:8

1) 주님과 사상 일치

대속의 사랑에 감격한 것이 발원이며 시작이라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주님과 사상 통일이다.

2) 찾아오신 주님

- 처음이요 나중이요
-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3) 신앙, 행위 - 4대관

- ① 처음이요 나중이요 : **시간**
- ② 죽었다가 살아나신 : **생사**
- ③ 네 환난과 : **교략**
- ④ 궁핍을 : **빈부**

2:10

4) 고난

-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
- 장차 받을 고난
-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 10일 동안 환난

5) 권면

- 두려워 말라
- 충성하면
-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6) 이기면

-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

7) 죽도록 충성

-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학교 공부하듯 하면 된다.
- 실제 자기가 바뀌어지는 것이 문제다.
- 이 과정에 필요한 것이 시험이다. 시련이다.
- 완전히 바뀌는 데 10일이 걸린다.
- 기한을 채워 주님과 하나 된 지식이 실제 인격과 언행에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의 단계다.

3. 버가모교회 - 순교 신앙, 그러나 그 자리에서 2:12-17

계2:13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
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
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 참고:

- 1) 사단의 위(位)
- 2) 안디바 순교
- 3) 니골라당의 교훈

2:12

1) 순교 소망

(1) 목표

대속에만 붙들려 모든 사상을 전부 주님으로 바꾸고 이제 10일의
기간에 준비하는 그 과정에 순생으로 준비하고 최후 순교를 목표로한

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선택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다. 주시면 순교, 받지 못하면 순교를 소망하며 주님을 맞는다.

(2) 날선 검

바로 이런 환경이므로 주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또한 그 말씀의 검으로 내 속에 옛 사람을 먼저 죽여야 한다. 내 속에 세밀히 살펴보면 죽일 것이 너무 많고 세밀하여 이 검은 수술의 칼이 된다. 또한 외부에서 사망의 박해가 올 때는 이 검이 나를 지켜 주실 줄 믿어야 한다.

2) 교회 환경

(1) 환경 비교

① 에베소 교회

전도를 처음 받은 환경이고,

② 서머나 교회

받은 말씀으로 자기를 바꾸는 학습의 기회다.

③ 버가모 교회

시험을 치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환경이다.

④ 비교

- 당연히 버가모 교회의 환경이 가장 혹독하다.
-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이 모든 세상을 틀어진 상태다.
- 예 : 로마 박해 시절, 천주교 탄압 시절, 최근의 공산국 독재 시

절이 그 예가 되고 또 한국의 쇠국 정치는 물론 시골의 마을과 집 안들이 믿는 첫 순간을 두고 보지 않고 박해할 때다. 자기 개인적으로는 남몰래 혼자 결정하면 되는데 평생을 좌우할 상황에 도저히 인간으로 포기할 수 없는 출세의 기회 주일 시험이 그런 것이다.

2:13

3) 소망의 위로

(1) 형편

사단의 위(位)가 있는 곳

(2) 순교 소망

안디바가 되면 좋겠다. 아니면 안디바를 소망하면 된다. 다음 기회를 주신다. 마지막, 최종 준비가 정말 되었을 때만 순교 기회를 주시지 두려워하는 이에게는 주지 않는다.

(3) 시험 금물

두려우면서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고 '설마 받아 주겠지' 라는 자세로 뛰어들면 주님을 시험하는 죄가 된다.

(4) 결말

따라서 신앙의 결말인 헌신과 순교는 필연적이다.

2:14

4) 더욱 치열한 시험

(1) 절정

① 유혹

에베소 서머나를 거쳐 버가모의 절정 환란에 다다르면 한편으로 생사 문제지만 한 편으로는 세상을 총동원하여 옆으로 우리를 비켜가도록 유혹한다.

② 어려움 (2:14-15)

발람과 니골라의 운동이 있어 더욱 어렵다.

③ 환란

한쪽에서 위협이, 한쪽에서는 유혹이, 양쪽에서 당기면 사람으로 통과하기는 어렵다.

(2) 신앙, 행위

- 믿음
-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
- 안디바 순교 때도 믿음을 지켰다.

(3) 권면 (2:16)

- 회개치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4) 이기면 (2:17)

- 감추었던 만나 주고
- 흰 돌 주고
-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리라

2:18

4. 두아디라교회 - 사업주의, 이세벨 용납

2:18-29

계2: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 참고:

- 1) 사업주의 교회
- 2) 자칭 선지자 이세벨
- 3)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
- 4) 사단의 깊은 것

1) 찾아오신 주님 (2:18)

- 눈 : 불꽃
- 발 : 주석

2) 교회와 사업주의

- 단계

(1) 덧

교회를 삼키는 덧은 많다. 신앙의 출발에는 대속의 감격을 식히고
섞어 버리려 한다.

(2) 세상 운동

그 다음에는 구원받는 감사만 있으면 모두가 같다고 WCC처럼 모이
고 보자는 운동을 통해 구원받은 후에 바꿀 주관과 잘못된 개성을
고칠 기회를 그냥 넘어가려 한다.

(3) 사단의 칼

이 단계까지 겨우 넘어서고 나면 생명을 뺏겠다는 사단의 칼이 보인다.

(4) 신앙의 자유

여기까지 다 넘어서고 나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준다. 마음껏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보인다.

2:19

3) 신앙

-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 사업주의 : 사업이 앞섬

4) 한국의 교회사

(1) 선교사

세계사가 그렇지만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는 한국의 선교사를 보면 처음에는 대속의 사랑에 감격한 선교사가 전도를 했고, 믿는 이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돌변하고 믿었다.

(2) 신신학

기독교 전파가 조금 자리를 잡자 벌써 성경을 기록 그대로 믿어야 하느냐는 신신학 문제가 스며들어 왔다. 복음의 뿌리를 노리며 복음 전체의 생명력이 썩도록 귀신이 손을 댄 것이다. 일제 신사참배 사건 전에 신신학 문제가 먼저 있었다.

(3) 신사참배 환란

이 단계를 넘어서자 신사참배의 사선이 닦였다.

(4) 혼동기

해방이 되고 교회의 혼동기를 조금 지나

(5) 부흥 발전기 : 사업주의

교회들이 안정기 부흥 발전기에 들어서자 활발하게 복음 사업을 시작했다. 고아원 병원 학교 사업을 펼쳤다. 안디바를 배출한 고려파도 대학교와 복음병원을 세워 마구 달려 나갔다. 모두가 사업주의 교회가 되었다. 당시는 이런 말의 위험성이라도 알았다.

(6) 현재 : 변질

지금은 사업을 잘할수록 더 좋은 교회라고 오로지 경쟁만 있지 그 위험성을 말하는 입이 없다. 그러다 보니 세상까지도 교회 너희가 왜 배고픈 이웃이 있는데 손을 놓고 있느냐며 질책을 하는 상황이 되었고 교회는 미안하다며 정신없이 불신 사회의 생물학적 사회의 구호단체라며 혼신을 다하고 있다. 이제는 불신 사회의 정치 단체를 넘어서고 어디까지 교회가 스스로 변신하며 변질이 되어 교회를 스스로 버렸는지 그 과정까지 다 잊어버린 듯하다.

2:20

8) 교회의 이세벨 (2:20)

(1) 책망

- 자칭 선지자 이세벨 용납

(2) 불신 사상

이 모든 과정을 보니 어느 틈에 불신 사상이 교회 안에 미모를 앞세워 여왕의 자리에 자리를 틀었다.

(3) 타락

교회가 평화의 시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긴장을 풀었고 그 순간 세상 중에서 교회가 시선을 줄 만한 미모를 귀신이 교회 내로 밀어 넣었다. 교회는 이세벨의 출신은 문제인 줄 아나 데려와서 달래면 선교가 될 줄 알았다.

(4) 잔당

이세벨은 교회를 먹기 위해 들어왔고 교회는 이세벨의 미모를 탐내며 전향을 시킬 수 있다고 끌어들었다. 한 우리 속에 뒤엉키고 나니까 미모가 신앙을 이겼다. 세상 중에 아름다움이 교회의 참 신앙을 이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으로 남아 있었고 아직도 꺾어 죽이지 못했던 잔당들이 신앙의 탈을 쓰고 끌어들었던 것이다. 북쪽의 남침 군대나 남쪽 내의 좌익 세력이 본질적으로는 한 편인데, 남한 내 암약하던 세력이 민족을 사랑하고 믿어 보자며 맹목적 통일론으로 대북 긴장감을 풀어 버리고 남침의 대로를 활짝 열어 놓은 셈이다.

(5) 탈선

세상은 그렇게 뒤엉키다 제 정신을 차리고 이기는 수가 있다. 교회는 이런 식의 탈선을 피한 사례는 없다.

(6) 사명

이럴 때 잠복한 세상이 교회를 끌어가는데 것을 명확히 알고 동요하지 않고 생명의 신앙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자기 위치와 사명을 지켜 내다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종자로 삼아 새 시대를 다시 만들게 된다. 이세벨과 이세벨에게 삼킨 기존의 모든 교회 형태와 역사는

전부 치워 버리고

2:24

이미 받은 것만 지켜 내고 주님이 다음 현실에서 새로 출발시킬 때만 기다리면 된다.

(7) 할 일

자기에게 일곱 별의 위치를 주고 사명을 맡기지 않은 현재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 맡기고 나를 새로 일곱 별로 세우고 새로 이어지는 복음 운동이 내가 생명 바칠 나의 농장이다.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철장으로 깨뜨려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9) 징계 (2:22-23상)

- 침상에 던짐
- 큰 환난 가운데 던짐
- 그의 자녀를 죽일 것

10) 주의 보응 (2:23하)

-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고
-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심

11) 권면 (2:24-25)

- 이세벨의 교훈 받지 않은 자
-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 너희에게 있는 것을
- 굳게 잡으라

12) 이기면 (2:26-29)

-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함
- 새벽별을 주리라

계3:1

5. 사데교회 - 행위 온전, 받은 것 들은 것, 흰옷 입고 주님 동행

3:1-6

계3:2

너는 일깨워 그 남은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1) 신앙 행위

(1) 찾아오신 주님 (3:1)

- 하나님의 7 명과 7 별을 가진 이

(2) 이름과 신앙의 비교 (3:1하-3:2)

①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자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는 두아디라의 덧을 빠져나온 새 시대의 새 생명인지 구별할 수 없다.

② 산 행위가 없음

③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없음

살았다는 신앙의 모습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을 주님이 직접 봐야 한다. 우리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내 속을 살필 수 있는 성령의 일곱 영의 역사와 참된 주님의 종인지를 살피는 일

곱 별을 가진 주님 앞에 서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려 하고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챙겨 봐야 한다.

계3:2

2) 성화 구원의 완전성

(1) 자격

두아디라 교회의 파괴된 잔재 속에서 건져 낸 몇 남은 이들, 그들이 라 해서 새 교회의 새로운 사명을 맡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님 앞에 '온전'이라야 한다.

(2) 영생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영계이며 구원은 영생의 영계 구원이다. 세상과 인간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생의 티끌 하나도 만들지 못한다.

(3) 전적 은혜

비록 먼지만 한 내 속의 의의 기능 하나라 해도 그것이 영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에 전적 맞아야 한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영원불변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4) 완전

① 교리적 구별

바로 이 점 때문에 기본구원은 물론 건설구원의 모든 기능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해야 한다. 하나님은 완전, 우리는 자라가기 때문에 온전, 비슷한 단어지만 교리적으로 조금 구별해 사용할 수 있다.

② 성화의 기능

인간끼리 볼 때, 남들과 비교할 때 더 나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완전이라 하는 것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가져갈 성화의 기능이 되고 요소가 되며 이력이 된다.

③ 온전

이렇게 되려면 그 순간 진리에 맞고 성령에 붙들려 온전히 붙들려야 한다. 주일에 물건 사지 않았고 예배를 드렸다는 정도로 온전이 아니라 주일에 물건을 사지 않는 내막과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이 형식적 출석에 그치지 않았느냐는 것까지 따져 봐야 한다. 그래서 1절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 정도는 넘어섰지만 주님이 실제 내면을 들여다볼 때 실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계3:3

3) 권면과 경고

(1) 권면 (3:3)

- 생각하라 :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 지키어 회개하라

(2) 경고 (3:3하)

- 일깨지 않으면
- 재림의 주님 : 도적같이 임할 것
어느 시에 임할지 모름

계3:4

4) 위로 (3:4)

-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 흰옷을 입고
- 주님과 함께 다닐 것

계3:5

- 5) 이기면 (3:5)
- 흰 옷을 입을 것
 -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음
 -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함

계3:7

6. 빌라델비아교회- 거룩과 진실 열린 문, 적은 능력 인내의 말씀
3:7-13

계3:7

빌라델비아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 참고:

- 1) 칭찬만 있는 교회
- 2)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

1) 교회의 능력

- (1) 찾아오신 주님 (3:7)
- 거룩하고 진실하사
 -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없는 분

(2) 출발

대속의 감격이 원인 된 에베소 교회로 출발하고,

(3) 점검

주님과 한 사상이 되었는지 사데 교회로 점검하고,

(4) 충성

죽도록 실제 충성한 버가모 교회가 될 때,

(5) 완전

자칫 그 내면의 완전을 원하는 주님 앞에 빈틈이 생길 수 있으니 사데 교회로 살핀 다음,

(6) 성공

이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진실로 정말 산 신앙이 되었다면 거룩과 진실로 달한 문이 없는 앞날로 질주하여 성공하면 된다.

(7) 조심

마지막으로 그 어느 시기 어떤 신앙이라 해도 미지근하여 대충 현상 유지로 만족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만 조심하면 된다.

(8) 부족과 능력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으로 부족하다. 그러나 그 진행과 뒤를 보면 폭발적 능력을 가졌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의 함정을 지나고야 갖는다.

계3:8

2) 안일주의

(1) 죽은 신앙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세상을 거치게 한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연단하고자 함인데 세상에 기대어 안주하면 이미 죽은 신앙이다.

(2) 착각

왜 세상에 안주하는가? 세상이 말하는 풍요로움을 가졌고 불신자가 봐도 좋아 보이며 세상 어느 지식과 사상으로 비교해도 지성적이 되면 세상도 인정을 하고, 이 순간 교회가 천국 문제를 해결한 줄로 착각을 한다.

(3) 안주는 금물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고난은 받아도 연단을 통해 천국이 실제 좋아진다. 교회에 박해가 없으면 교회는 저절로 세상 속에서 나은 생활을 하게 된다.

(4) 환란

귀신이 교회를 박해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머나 버가모 교회의 혹독한 환란을 주면서 한 편으로는 기회를 엿보다가

(5) 귀신의 전략

빌라델비아 교회 단계까지 나가 버리면 귀신의 최종 방법은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포용하며 때로는 마음껏 후원을 해 버린다.

(6) 풍요

오늘 우리의 환경은 역사 이후에 없던 신앙의 자유를 물질적으로까지 누리고 있다.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 위에 사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이렇게 겹쳤던 때가 있었던가? 주일을 지키라고

토요일부터 휴일을 만들고 주일에 출근을 요구하면 처벌을 하는 상황이며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사람에게 수입이 적지 않도록 국가가 생활비까지 주고 있다.

(7) 함정

오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함정에 몰살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인다. 안일주의, 이 땅에 만족하고 이 세상 깊숙이 교회가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다.

(8) 회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주저앉아 세상사는 데 지장 없다고 그것을 전부로 아는 것은 잘못이라고 일깨워 주고 있다.

3) 신앙, 행위 (3:8하, 10상)

-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 준행
-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
- 인내의 말씀 준수

4) 위로, 권면 (3:8-11)

- 열린 문을 두어 닫을 사람이 없을 것
-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들 중 몇을 주어 발 앞에 절하게
-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할 것
- 시험받을 때 시험의 때를 면케 할 것
- 내가 속히 임하리니
- 가진 것을 굳게 잡아
-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5) 이기면 (3:12)

- 하나님 성전의 기둥
- 결코 다시 나가지 않을 것
-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 기록
-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

7. 라오디게아교회- 완전히 죽은 교회

3:14-22

계3: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계3: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 참고:

- 1) 책망만 있는
- 2) 완전히 죽어 있는 교회

1) 찾아오신 주님 (3:14)

- 아멘
- 충성되고
- 참된 증인
- 창조주의 근본이신 이

2) 행위, 신앙 (3:15, 17)

-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함
-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
- 곤고, 가련, 가난, 소경, 벌거벗음

3) 권면, 책망 (3:15-18)

-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 금을 사서 부요케 하라

- 흰 옷을 입어 수치를 가리라
-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 열심을 내라
- 회개하라

4) 동거동행 (3:20)

-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5) 경고 (3:16)

-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6) 이기면 (3:21)

- 주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 주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3. 영계의 모습

4장

1. 영계, 하나님의 세계 (4:1-2)
2. 보좌의 모습 (4:3-5)
3. 보좌를 모신 운동들 (4:6-7)
4. 영원한 감사 (4:8-11)

3. 영계의 모습(요한계시록 4장)

▷ 4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중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의 위치와 모습을 기록

계시록 전체 내용의 모든 배경과 전개와 그 목표는 4장의 하나님의 이 세계

- ▶ 성경 내용 : 천국, 24장로, 4생물
- ▶ 계시 내용 : 우리의 영원한 모습

계4:1

1. 영계, 하나님의 세계

계4:1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1) 하늘의 모습

(1) 소망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과 목표와 우리의 전부는 세상 어디쯤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계시록 4장에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전부를 잠깐 열어 보였다.

(2) 영계의 중심

영계를 들여다보니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장로와 생물이 중심에 있다. 그 외에는 없어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물질계 우주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너무 많으나 기록할 분량 때문에 제일 핵심인 보좌와 주변만 적었다. 이곳이 영계의 중심이다.

(3) 단계

계시록 1장에서 '계시'와 '하나님'과 '교회'를 바로 알고, 2~3장에서 7가지 신앙의 단계와 형편을 알면, 그 다음 단계로 이 땅 위의 우리를 운영하고 있는 세상의 원인된 오늘 우리를 운영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중심을 보여 주며 오늘 세상 현실 생활에서 잘 살도록 내막을 알려 주고 있다.

(4) 준비

① 이유

왜 하늘나라를 봐야 할까? 우리가 갈 곳이니 그곳을 미리 보며 오늘을 그렇게 준비하고 만들어야 한다.

② 영생 결정

마6:10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빠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땅 위의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전부 하늘에서 결정한 대로 이 세상에서 진행된다. 또 이 세상에서 수행한 결과에 따라 나의 영생이 결정된다.

③ 마련

마16:19에서 보여 준 하늘나라에 전적 맞는 나를 만들 수도 있고, 미리 보기는 다 봤으나 실제로는 절반만 마련하고 갈 수도 있다. 세상에서 풀지 못하고 간 것은 영원히 다시 풀지 못한다. 오늘 24 장로의 위치와 능력과 그 영생을 마련한 것만큼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

(5) 천국 (4:1)

① 열림

- 하늘에
- 열린 문이 있는데
- 이리로 올라오라
-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② 미리 보임

천국을 (요한)에게 미리 보이셨다.

계4:2

2) 보좌

계4:2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1) 보좌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다.

(2) 주님의 위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변동 많은 이 땅 위의 임금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자 완전자 주권자, 주님의 본체는 볼 수 없으나 그 위치 그 자리 그 역할은 미리 심령의 눈으로 볼 수 있다.

(3) 천국 준비

세상은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다.

(4) 영계의 중심

천국의 중심 제일 높은 곳에 보좌가 있다. 누가 영계 영생의 제일 중심일까? 하나님이다.

(5) 오늘 세상

세상의 서민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는 것 속의 배후를 살피려 한다. 정권자의 마음에 따라 세상은 돌아간다. 오늘 세상은 하늘에서 이룬 그대로 이루어진다.

(6) 하늘의 세계

하늘이 어디며 누군가? 하나님의 세계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의 영물을 통해 세상에 전달되며 세상은 돌아간다.

(7) 하나님의 생각

① 목적, 예택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 전 자존의 세계에서 목적을 정하고 우리를 택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된 첫 생각이다.

② 예정, 창조

그 목적을 위해 순서를 예정했고 창조 이후 역사 세계 끝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창조 이후 역사 세계에 존재한 모든 것을 추려 영원한 영계가 무한히 펼쳐진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 하나님을 닮도록 오늘 세상을 펼쳐 간다.

③ 방법, 순서

어떤 방법 어떤 순서 어떤 내용일까?

■ 성경

계시록 5장에서 ‘책’으로 표시한 성경에 모두 기록했다. 성경이니 여러 말씀을 적었으나 그 속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

■ 순서

미리 적은 그 말씀에 따라 6장에서 일곱 인이 하나씩 펼쳐진다. 일곱째 인을 떼니 그 속에 다시 일곱 나팔의 역사가 들어 있고, 일곱째 나팔을 부니 그 속에 일곱의 대접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역사 순서로도 또 어느 한 시점에 중복적으로도 펼쳐진다.

■ 보좌에서 시작

오늘 우리와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환경과 움직임의 내용과 방향과 성질을 미리 기록했다. 이 전부가 하나님의 생각이다. 보좌에서 시작이 된다. 보좌를 미리 보는 것이 오늘 우리와 우리가 갈 그 나라를 미리 보는 것이 된다.

계4:3

2. 보좌의 모습

계4:3

앞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1) 벽옥 (碧玉)

(1) 색

벽옥은 파란색이다. 가장 보편적인 파란색은 하나님을 표시하는 하늘의 색이다. 맑은 하늘, 가림이 없는 하나님의 세계는 측량을 할 수 없다. 그냥 끝없는 세계며 하나님의 원래 세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색이다.

(2) 의미

그래서 벽옥이란 ‘맑은’ ‘섞인 것이 없는’으로 읽으면 된다.

(3) 모양

① 모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이다.

② 불변

그분은 원래 영원불변이다. 우리가 변해서 하나님을 달리 본다.

③ 영계

원래 하나님의 본체 그대로 보이는 곳이 영계다.

④ 왜곡

오늘은 흐리고 타락한 물질계 세상이라 왜곡되어 보인다.

⑤ 변질

하나님이 변색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질이 되었고 우리의 눈이 고장이 났다.

⑥ 생명의 역사

이런 왜곡과 변질과 변색이 없는 곳, 하나님이 하나님 그대로 청명하게 영원토록 계시는 곳이 영계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곳이다.

2) 홍보석 (紅寶石)

(1) 색

붉은색은 피 흘려 구원하신 희생이거나 생명을 앗아 가는 살육 그리고 그 살육의 원인이 되는 분노를 나타낸다.

(2) 의미

홍보석은 이 땅 위의 모든 죄와 사망과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말한다.

(3) 하나님의 세계

① 자체

하나님과 하늘나라 자체만 말한다면 좋은 면만 말하면 된다.

② 양면

그런데 오늘 땅 위에서 진행되는 만사의 원인자며 운영자며 결정자며 주권자인 하나님의 세계를 표시했으니 하나님에게는 벽옥과 홍보석 2가지가 동시에 보인다. 사랑과 진노, 은혜와 심판의 하나님의 이 모습이 죄 지은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다.

③ 공의

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징계도 없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는 징계로 나타난다.

④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의와 생명과 천국만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세계를 경험하도록 죄와 사망과 지옥도 동시에 주셨다.

⑤ 필요

4장의 보좌는 영계의 영원한 모습을 보이되 오늘 이 땅 위에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면으로 보였다.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의 양면을 동시에 주셨다.

3) 무지개

(1) 둘레

①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과 홍보석으로 표시했다.

② 돌레

그 하나님의 돌레, 그 보좌와 그 주권자를 사방을 두르고 있는 것이 무지개다.

③ 언약

창9:13에서 언약이라 했다. 벽옥과 홍보석의 양면 그것이 밖으로 향할 때는 늘 구원의 언약을 위해 불변의 언약으로 역사한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택하고 견인하여 반드시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그 약속은 변치 않는다.

④ 과정

다만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타락을 포함하여 이 땅 위에 발생하는 모든 일을 전부 진행 시키고 계신다.

⑤ 의심

오늘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고 그 영원불변이라야 할 구원 역사를 변경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뿐이다.

⑥ 불변

하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돌려 있다. 그 약속은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의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이 외부로 활동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은 약속한 대로 진행한다. 약속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

⑦ 현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매일의 모든 현실에 관련된 일이다.

⑧ 운영

하늘의 보좌에서 오늘 나의 마음과 내 주변의 사람과 모든 만물과 그 움직임이 전부 운영된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투명하게 그대로 전해지면서 잘못된 것은 모두 영원히 불태우기 위해 헤아리신다.

⑨ 계약

이 양면의 역사는 계약을 따라 펼쳐진다.

⑩ 조심

든든하고 감사하고 두렵고 조심할 것뿐이다.

4) 녹보석 (綠寶石)

(1) 색

푸른색은 식물의 대표적인 색이다.

(2) 의미

생명력을 말한다.

(3) 결과

하나님의 모든 계약은 하나님과 연결된 역사가 넘치는 결과를 맺는다.

(4) 주권 역사

이 땅 위에서 사람과 타락한 교회는 멋모르고 세상과 얽혀 살지만 참된 교회만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보좌의 주권 역사를 알아야 한다.

(5) 목격

하늘의 하나님의 역사는 제일 안에 벽옥과 홍보석이 있고 그 둘레에 계약의 역사가 있다. 요한은 그 계약의 역사가 생명의 짙은 결과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봤다.

(6) 진행

오늘도 이 땅 위에 발생하는 모든 일을 영안으로 살펴보면 이런 벽옥과 홍보석에 무지개가 돌렸고 녹보석으로 진행된다.

계4:4

5) 24장로 (4:4)

계4:4

또 보좌에 둘러 이십 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1) 24 보좌

① 위치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 24 개의 보좌들이 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이 보좌를 모시고 이 보좌를 위하고 이 보좌에서 나오는 은혜로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속성을 닮고 배우며 자라 나온 성도들의 자리다.

② 모습

계3:21에서 승리의 주님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모습이다.

③ 중심

크게 보면 보좌에 함께 앉았으나 히12:2에서 그 보좌를 더 정밀히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 주님의 보좌다. 마19:28의 우리 보좌들은 주님의 우편이 될 것이니 이것은 계통을 말하는 우측이다. 여기 본문의 보좌와 24 보좌의 관계는 중심 면에서 기록해 주신다.

④ 24 장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영계 모습이 왜 ‘장로’일까? 맡은 자기 식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면이다.

- 구약 : 12지파
- 신약 : 12사도
- 신구약 성도 전부
- 천국 시민

계4:5

6) 일곱 영 (4:5)

계4: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진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① 일곱 영

- 보좌 앞
- 일곱 등불 켜진 것
- 하나님의 일곱 영

② 역사의 종류

- 보좌

이 땅 위에 모든 역사를 진행하는 하늘의 하나님, 그 위치 그 목적 그 뜻이 원인이라는 면을 ‘보좌’라 했다.

■ 뇌성

성령의 역사가 번개처럼, 자비의 역사가 음성처럼, 진노의 역사는 뇌성으로 표시되었다.

■ 예정

이런 이 땅 위의 역사는 이 땅 위에서 인간끼리 충돌하다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예정에 따라 발생한다.

■ 인도

바로 이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일곱 등불 켜 것처럼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는 복잡하고 얽혀 있는 과정을 밝은 빛으로 인도한다.

계4:6

3. 보좌를 모신 운동들 (4:6)

계4: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1) 수정 같은 유리 바다

(1) 수정

수정은 계22:1에서 ‘맑다’고 했다.

(2) 유리

유리는 투명하다.

(3) 바다

이 세상에서의 바다는 빠지면 죽는 최악 세계지만 하늘나라의 바다란 은혜의 생명수가 넘치는 곳이다.

(4) 세상과 천국

① 세상

세상에서는 앞과 뒤, 안과 밖, 어제 오늘 내일이 각각 가려진다. 달라지고 바뀐다.

②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세계이며 불변의 나라다. 이 나라는 계22:15에서 거짓이 들어올 수 없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다. 진리 그대로 하나님께 맞는 것만 들어왔고 진리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땅 위에서 그렇게 준비된 것만 들어온다.

계4:7

2) 네 생물과 가득한 눈

계4: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1) 성경의 숫자

① 1

성경에서 전부를 표시할 때 1은 일원론으로 하나를 통해 전부를 말할 때가 있다.

② 2

둘은 양면으로 전부를 뜻한다.

③ 4

넷은 방향적으로 사방이 되어 전부가 된다.

④ 7

일곱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말한다.

⑤ 10

열은 인간의 만수다.

⑥ 12

열둘은 신구약의 택한 백성 전부를 계통으로 말할 때 사용한다.

(2) 네 생물

① 네

네 생물은 숫자의 4 대신 사방을 뜻하는 것으로 전부라는 뜻이다.

② 생물

생물은 생명체다.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이다.

③ 네 생물

네 생물은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역사를 맡은 영계의 존재들이다.

(3) 생명

① 하나님과 연결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과 연결된 운동과 그 존재 그 것만 천국으로 올려간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께 붙들려 모든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다.

② 눈이 가득

눈이 가득하다 했으니 봐야 할 것을 보는 면이 넘친다는 뜻이다. 오늘 볼 수 있어야 내일 영계에서 볼 수 있고 오늘 볼 수 있는 눈을 마련하지 못하면 천국에서는 마련할 수 없다.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면 보여야 하고, 볼 수 없다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다는 뜻이다.

③ 생물

내 속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인격과 활동과 요소가 생물이다.

④ 사망

하나님 없이 마련한 이력, 진리와 상관없는 지식, 내 멋대로 산 세월은 전부 죽은 것이니 영원히 사망이 던져지는 지옥에 보낼 자기 요소들이 된다.

(4) 겔10:12⁸)

① 눈이 가득

겔10:12에 하나님을 모신 천사에게 눈이 가득했다. 하나님께 붙들린 신령한 존재는 모두가 마찬가지다.

8) (겔10:12)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② 앞뒤에 눈이 가득

특히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했으니 시간적으로 과거를 보는 눈과 앞날을 보는 면을 말했다. 미련하고 복이 없으면 당하고도 모른다. 과거를 모르니 현재도 실패다. 현재를 모르니 미래를 아는 것은 더욱 어렵다. 진리의 사람은 주신 말씀과 과거를 비교하면 문제점도 복된 점도 바로 알게 된다.

③ 바른 지식

바로 알고 바로 연결된 요소는 하나님 앞에 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영원히 어두움에 던져진다.

(5) 위치

① 위치

이 생물들의 위치는 보좌 가운데와 주위라 했다.

② 거리

보좌와의 거리를 보면 24 장로들보다 더 가깝다.

③ 생명

생물은 신앙의 생명이니 장로들의 충성과 사명 안에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있다.

④ 사명과 충성

하나님께 붙들리고 연결이 된 생명이 사명과 충성을 위해 더 나아간 자리가 장로들의 자리다.

(6) 역사

생물의 역사들을 설명하고 있다.

① 사자

사자는 정복성을 말한다.

② 송아지

송아지는 순진한 순종을 말한다.

③ 사람의 얼굴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을 닮은 참사람의 인격을 말한다.

④ 독수리

독수리는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고 끝없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신앙의 향상성을 말한다.

⑤ 결과

이것이 살아 있는 신앙의 세계에서 저절로 나오는 결과다.

녹색 : 식물의 생명

흑색 : 사망

붉은색 : 피

수정 : 투명, 유리

금 : 불변

은 : 성결(대속)

주석 : 단련

계4:8

(7) 여섯 날개

계4:8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① 여섯 날개

■ 노력

생명의 역사는 어디서 어떤 일을 해도 늘 여섯 날개가 있다. 내면도 보고 또 바깥 주변의 관계된 것을 바로 보게 된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연습하고 노력하는 것이 생명의 신앙이 되는 길이다.

■ 스랍

여섯 날개는 사6:2⁹)에서 스랍이라는 천사를 통해 볼 수 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다.

② 관계

오늘 우리가 보면 천사는 하나님과 같다 할 정도다. 그것은 죄악에 흐려진 오늘이기 때문이다. 가림 없는 영계의 세계에서 천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

■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자며 완전자다.

■ 천사

천사는 영계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모실 우리의 심부름꾼이다.

■ 우리

9) (사6:2)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우리는 하나님의 직계 아들이다.

③ 천사

천사는 아버지 집의 사환들이다.

■ 한계

천사의 부족과 못남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 높고 빛난 세계를 눈이 부시어 그대로 볼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를 말한다.

■ 두 날개로 발을 가림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렸다. 우리와 달리 천사는 죄가 없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충실히 수행했으나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여 죄송할 뿐이다.

■ 두 날개로 날고 있었음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는 늘 빠르게 지체하지 않는다.

■ 날개

날개는 빠른 이동과 초월의 세계로 올라가는 면을 말한다.

■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

겔10:12에서 그립 천사의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욱 잘 봐야 한다.

■ 4 생물들의 공통점

계시록 4장의 네 생물들은 모두 날개가 있다.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늘 바로 봐야 하고 보지 못한 면이 없어야 한다. 날아오는 화살 모두를 막는다 해도 사람은 화살 1개면 죽는다. 모두를 다 봐야 한다.

4. 영원한 감사

1) 감사의 성질

(1) 세상의 감사

세상의 감사는 처음에는 크게 느끼나 나중에 가면 흐려지고 흠어진 다. 오히려 화를 내고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다. 번덕과 번동이 많다. 죄악의 세상이며 물질계가 유한하기 때문이다.

(2) 천국의 감사

영계는 완전의 나라여서 뒤에 바뀔 감사를 오판하는 수가 없다. 또 가린 것이 없고 영원히 자라는 나라여서 작은 감사가 갈수록 많아 지고 커지게 된다.

(3) 아버지와 아들

역지로 인사를 하며 감사하는 오늘 입장에서 보면 영원토록 감사를 하려면 지겹고 귀찮을 듯하다. 세상의 감사가 그렇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부모에 대한 감사는 철이 들면서 제대로 감사하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며 그 감사는 갈수록 짙어지며 커지며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비교적 하늘을 유추할 수 있도록 가깝게 만들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사용하신 이유다. 정말 감사하고 그 감사가 갈수록 더 감사하다면 하

늘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2) 감사의 내용

(1) 기록하다

① 3번

‘기록하다’를 세 번 거듭했다.

② 기록의 최소와

3회로 끝났을까? 끝없이 이어질 감사인데 기록의 최소화 때문에 세 번만 적어 주셨다.

③ 영속

하나님이 기록하니 하늘나라가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흠도 티도 없다. 하나님이 거짓의 존재면 하늘나라는 거짓이 판을 치고 득세할 것이며 갈수록 영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단일성과 완전성으로 영원불변이시니 우리의 지식도 지혜도 선도 사랑도 의도 기록도 우리의 진실과 주권성도 영원히 깨끗하고 섞인 것 없는 상태로 영속된다.

④ 기쁨 충만

그로 인해 우리는 손해일까? 불편할까? 끝없이 기쁨으로 충만할까? 이 모든 것이 자존자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록하고 그 나라도 기록하며 우리의 영원은 늘 모든 면으로 변질 없고 날마다 더 좋아지기만 한다.

⑤ 감사

그 모든 감사를 줄여서 하나님께 ‘거룩하신 분’이라 감사하다 해야 한다.

⑥ 전능자

그분이 전능자시니 영계를 영원무궁토록 감사하도록 거룩하게 지켜 낼 것이고 유지할 것이며 오히려 점점 자라가는 세계를 만들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분이며, 한 현실도 빠지도 비우지도 않고 이어지게 하는 분이니 장차 오실 분이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기다리면 곧 오시는 분이며, 영계에서도 끝없이 우리에게 새것으로 생명이 더 넘치도록 영원히 반복하실 분이다.

4:9

(2) 감사의 이유

계4:9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① 감사

8절에서 거룩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목적을 정하시고 오늘까지 현실 속에서 그 목적을 이루시며 앞으로도 영원무궁토록 이뤄 가실 이 면들로 ‘감사’를 했다.

② 영광

그 감사는 ‘영광’이 된다.

③ 존귀

이런 존귀는 달리 찾을 수 없고 존재할 수가 없으니 ‘존귀’한 것이

다.

계4:10

(3) 생물

계4:10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① 생물

하나님과 연결의 면을 두고 ‘생물’이라 했다.

② 장로

이런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끄는 책임을 진 위치가 장로들이다.

③ 24 장로

그 총수가 24명이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하면 24가 된다. 24 장로란 이 땅 위 하나님의 모든 신앙의 사람을 말한다.

④ 면류관을 던짐

이들이 이 땅 위에서는 자기들의 수고도 상당했다고 봤겠지만 하늘에서 모든 실상을 다 알게 되니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멀리서 자기들의 승리한 면류관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돌려 드린다. 너무 죄송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어 보좌 앞에 던진다.

계4:11

계4:11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⑤ 합창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찬송의 합창이 나온다. 한 번 나오고 끝날 것인가? 영원히 나오게 된다. 가면서 소리가 줄어들 것인가? 갈수록 커지게 된다.

⑥ 영생의 모습

하나님께서 영원 전 목적을 정했고 그 목적대로 창조하시고 또 틀림없이 운영하니 그 결과는 바로 하늘나라의 영생의 모습이다.

4. 성경의 전개

5-9장

1. 보좌에 앉으신 이 (5:1-4)
2. 일곱 인(印) (5:5-14)
3. 여섯 인(印)
 - 백마 (6:1-2)
 - 적마 (6:3-4)
 - 흑마 (6:5-6)
 - 청황마 (6:7-8)
 - 영혼 (6:9-10)
 - 진노 (6:11-17)
4. 네 천사 (7:1-4)
5. 인(印) 맞은 12 지파 (7:5-17)
6. 일곱째 인(印) (8:1-2)
7. 기도 (8:3-5)
8. 나팔 재앙(8:7-9:21)

4. 성경의 전개(요한계시록 5-9장)

-요한계시록 5장-

▷ 5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중 계시가 전해진 과정과 계시를 주신 배경

하나님은 세상을 성경으로 운영하는데 어린 양이 성경을 복음으로 받게 됨

- ▶ 성경 내용 : 보좌에 앉으신 이, 7 인(印)
- ▶ 계시 내용 : 성경을 주시는 과정

5:1

1. 성경론

1) 성경의 출처

(1) 오른손에 책

계5:1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① 성경

세상을 운영하는 영계의 제일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이 책이 성경이다.

② 말씀

이 책의 내용이 말씀이다.

③ 진리

그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다.

④ 권위

■ 창조

그 말씀의 권위는 없는 가운데 천지를 만든 창조의 능력을 가졌다.

■ 운영

오늘 세상을 운영한다.

■ 진리

내 현실의 내면과 외형과 환경 전부는 그 진리대로 움직인다.

■ 심판과 영복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심판을 받고 말씀대로 움직이면 영복을 준다.

⑤ 능력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2) 말씀의 내용

(1) 안팎

안팎으로 쓰여 있는 말씀 곧 성경은 누가 봐도 볼 수도 알 수도 있는 내용도 있으나 아무리 봐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내용도 있다. 동물은 인간의 책을 볼 수 없지만, 인간의 책을 그 인간 이상 되는 사람이 읽으면 평가까지 할 수 있다.

(2) 비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땅 위에 인간이 알 리도 없고 그 존재 자체도 모르며 쥐도 알아볼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을 운영한다.

3) 7 인봉

(1) 인봉

이 말씀을 알면 세상이 운영되는 모든 내막과 미래를 알 수 있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일곱 인으로 막아 놓았다.

(2) 일곱

일곱은 하나님의 완전 세계를 말한다.

(3) 비밀

인간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으니 하나님이 알려 주지 않으면 그냥 비밀이다.

(4) 계시

하나님이 보여 주면 보고 하나님이 알려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계시는 그렇다. 보여 주시고 알려 주시면 계시다.

5:2

(5) 비밀

계5:2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천사가 이 말씀을 펼쳐 읽어 볼 수 있는지를 외쳤다. 이 말씀을 읽어 볼 수 없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5:3

계5:3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① 하늘 위

하늘 위에도 없다. 영계의 영물이나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고 볼 수 없게 막아 놓은 이 책을 펴고 읽을 수는 없다.

② 땅 위와 땅 아래

땅 위에도 없다. 이 땅 위에 어떤 학자도 과학자도 정권자도 어떤
여론으로도 펼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 땅 아래에도 없다. 몰래
훑쳐보고 어떤 죄악의 방법과 사술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낼 수
없는 책이다.

5:4

(6) 방법

계5:4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알면 바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몰라서 당하는 무지의 서러움만큼
억울한 것도 찾기 어렵다. 현재 닥친 문제의 원인을 알고 해법을 알
수 있다면, 또 앞으로 닥칠 순서를 알고 실상을 전부 파악하고 대처
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류가 지옥을 가지 않는 쉬운 방
법을 알고, 천국 갈 비결을 안다면, 매 현실이 전부 천국으로 바뀌
는 이런 길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주식이 오를지 어느 회
사가 망할지, 전쟁이 언제 일어나며 어떻게 전개될지를 안다면 어떻
게 되겠는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과 하나도 모르는 사람
의 차이는 어떨까?

(7) 세부 계획도

현재 5장의 책은 나의 매일 현실과 이 땅 위에 인류사 전체를 펼쳐
나가는 세부 계획도이다.

(8) 크게 울어야

그 책을 보면 되겠는데, 사람으로서는 볼 수가 없으니 우리는 크게
울어야 한다. 이런 일에는 우는 것이 마땅하다. 울 일에 울고, 울지
않을 일에 울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울고 웃는 그 이유
와 배경도 참 우스운 사람들이다. 요한이 크게 울었으니 우리도 이
런 문제로 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다.

5:5~6

2. 7印

계5:5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1) 어린 양

① 죄

죄로 막혀 이 책을 읽지 못한다.

② 해결

죄를 해결한 분이 어린 양이다.

③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했기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다. 세상에 오셔서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어린 양이라 하지는 않는다. 때가 되어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양으로 죽었다. 그래서 어린 양이다.

④ 이유

어떤 빈틈도 허송도 없이 정해진 일정을 따라 정확무오하게 걸었고 그 걸음 전부가 대속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 그 뜻 앞에 순진했고 다른 길을 찾지 않았다. 전적 그 중심이었다. 그래서 순진하니 어린 양이라 표현했다. 일찍 죽임을 당했다 함은 그 사명의 완수에 늦어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⑤ 사할 대속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과 복을 위한 순서인데 죄 때문에 막혔다. 처음부터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복을 주기 위해 적었다. 죄 때문에 말씀이 닫혔으니 죄만 해결하면 열린다.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은 신인양성일위의 주님의 사할 대속뿐이다. 유대 지파는 이 사할 대속으로 해결하는 구원의 계통이므로 주님은 그 계통을 통해서 오셨다.

⑥ 예표

그 계통에 다윗을 세워 오실 주님을 미리 예표 했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온 다윗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리는 예표이다. 구원의 계통을 통해 구약으로 준비했고, 주님은 정한 때에 오셨다.

⑦ 완성

주님의 사할 대속이 완성 되었으므로 이 책은 정죄와 심판의 율법이 아닌 구원의 말씀이 되어 우리를 고치며 기르고 성화시키는 복음이 되었다.

2) 위치

① 위치

어린 양이 계신 위치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였다. 하나님은 절대자 영원불변의 완전자시다. 그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으로 영생이 펼쳐지는 나라에서 주님의 위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앞서 지도하고 수고한 장로들과 네 생물들 그 사이며 그 중간이다. 주님이 하나님과 그 생물들과 장로들을 연결시켰다.

② 7 뿔

이 어린 양에게 일곱 뿔이 있다 함은 어리지만 어린 양에게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이 있고 겉으로는 어린 양이지만 속에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다.

③ 7 영

일곱 영이란 성령이 예수님의 나심으로부터 십자가 완성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소리 없이 다 해결한다는 것이다.

④ 7 눈

일곱 영을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 눈이라 했다. 이 땅 위에서 발생하고 진행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의 대속과 관계없는 일이 없고 예수님이 모를 수 없다. 또한 예수님은 만사를 대속의 눈으로만 본다.

5:7

3) 예수님의 전면 역사

5:7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1) 전권

예수님은 죄의 해결을 위해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사할 대속이 완성된 이후에는 행1:7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전권을 행사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넘겨받아 이 책에 적힌 대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

5:8

(2) 경배

계5:8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주님은 자존의 하나님이며 절대 완전의 하나님 우편에서 사활 대속으로 모든 것을 영원토록 운영한다. 그 순간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감사와 경배를 드린다. 오늘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연결된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사활 대속에 엎드려 감사하고 경배할 뿐이다.

4) 주님을 찬양

(1) 감사

무엇이 기뻐까, 어떤 일을 감사해야 할까?

(2) 말씀

대속의 주님이 말씀을 취했으니 이제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다. 오직 복이 되는 인도만이 남았다.

(3) 거문고

① 가락

각각 거문고를 가지고 노래한다. 거문고는 여러 줄을 술대(작은 막대기)로 뜯어 줄을 진동시켜 소리를 낸다. 이렇게 그 소리를 통해 가락을 만든다.

② 화음

주님의 대속과 말씀이 복음으로 내게 올 때 나의 욕심, 지성, 감정과 양심은 각각 다르게 반응한다. 각기 다른 다양한 반응들은 서로 어우르며 화음을 만들고, 번갈아 감탄하게 된다.

저녁 식탁을 놓고도 배고픈 시절을 보낸 할머니의 감사와 그 식탁을 마련하려 피땀 흘린 아버지의 만족과 배부르게 먹이고자 하는 어머니의 기대는 각각 다르며 큰 아이와 막내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다 다르다. 제각각의 입장, 배경, 생각에 따라 식구들의 감탄도 즐거움도 기쁨도 행복도 다르나 모든 가족은 모두 한 가정 안에서 그 밤을 맞게 된다.

주님의 대속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기쁜 이유와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다르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맞으나 또 다 다르다. 각각 다른 것이 한 자리에 어울리게 되면 거문고 음의 장단과 고저처럼 조화를 이뤄 화음이 된다.

5) 성도의 기도

(1) 향

① 금 대접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을 금으로 대접을 만든다.

② 향

그 금 대접에 기도의 향을 그득 올려놓았으니 성도의 기도가 진동을 한다.

③ 감사, 회개, 간구

기도는 감사와 회개와 간구다.

■ 감사

우리는 영원무궁토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 회개

우리 죄로 고생한 점은 우리가 영원히 낫을 들 수 없다.

■ 간구

우리는 영원히 사람의 몸을 입고 희생의 수고를 하는 주님께 천국에서 필요한 은혜를 영원토록 간구할 것이다. 우리는 세상처럼 죄와 악에서 건져 달라는 간구 대신 하늘나라에서는 발전적이며 은혜적이며 영생적인 간구를 영원히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상에서도 매 현실에 주님의 은혜는 늘 절박하다. 하나님 오른손의 책을 주님이 가졌고 이 책을 펼치면 우리의 모든 현실이 전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열리게 될 것이니 금 대접의 향은 한 편으로는 찬양이요 한 편으로는 간구가 된다.

5:9

6) 말씀의 복을 찬양

계5:9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 새 노래¹⁰⁾

이 땅 위에는 죄인의 노래도 있다. 새 노래는 구속받은 사람이 주님의 대속을 알고 감사하여 드리는 노래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은 모르며 세상에는 없는 노래여서 새 노래다.

① 책을 가지시고

‘책을 가지시고’ 라는 노래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진리 역사가 주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② 합당하시도다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신인양성일위의 주님이 사활 대속을 완성했다는 뜻이다.

③ 일찍 죽임을 당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치도 늦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으니 단호히 순종했다.

④ 각 족속

‘각 족속’은 믿는 우리를 여러 종류로 크게 분류한다.

⑤ 방언

‘방언’은 우리의 별별 사상적 차이를 말한다.

⑥ 백성

‘백성’이란 믿는 모든 사람을 강조한다.

10) 죄로 닫혀 있던 성경이 어린양의 핏공로로 열렸기 때문에 새 노래

⑦ 나라

‘나라’는 통치 계통을 말한다.

⑧ 피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모든 택한 백성이 어느 시대 어느 위치 어느 환경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다 해도 모두를 구원한다. 그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한다.

5:10

계5:10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2) 제사장

천국 갈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천차만별의 출신을 가졌지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믿은 이후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만 살고 우리가 책임질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내기 위해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며 제사장이니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따라나설 일이다.

우리는 죽어 천국에 가서 나라와 제사장이 될 것이고 역사 세계가 끝나면 모든 택자가 그렇게 되겠지만, 오늘 매일의 현실 속에서 주님의 대속에 붙들려 사는 만큼 지금 이 순간도 개인적으로 내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며 그 제사장이 되어 가고 있다.

5:11

(3) 찬송

계5:11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앞서 찬양하면 우리를 영원히 받들어 심부름할 천천 만만의 천사들이 또한 찬송을 한다. 세상이 끝나면 이 찬양이 있을 것이나 오늘도 매 현실에 내가 주님의 대속에 붙들린 사람으로 바로 살게 되면 오늘 나와 관련된 모든 영물과 천사들이 찬양한다.

5:12

(4) 찬송

계5:12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① 능력

‘능력’은 하나님만 말하고 모두에게 돋보일 큰 일을 할 때의 힘을 말한다.

② 부

‘부’는 하늘의 영원한 것을 말한다.

③ 지혜

‘지혜’는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다.

④ 힘

‘힘’은 좀 작은 면을 맡아 할 때 사용한다.

⑤ 역할

주님의 세계에도 큰 것으로 할 일이 있고 작은 것으로 할 일이 있다. 사람의 눈이 발바닥보다 작다고 불편한 것이 아니다. 위치와 역할에 따라 주시는 규모와 기회는 다 다르다.

⑥ 존귀

다른 존재가 가질 수 없는 위치다.

⑦ 영광

값지 못할 은혜와 신세를 지고 감사할 때를 말한다.

⑧ 찬송

사람이 사람 이상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를 말한다.

5:13

(5) 순서

계5: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찌어다 하니

이제 보좌로부터 받게 된 말씀의 역사를 두고,

- ① 생물과 이십사 장로가 제일 먼저 나서고
- ②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찬송하며

③ 마지막으로는 만물들이 호응을 한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좋으면 가난한 자는 뭔가 좋지 않고, 남자가 좋으면 여자에게 불편이 되는 식이니 세상에서는 모두가 다 좋을 수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물도 성도도 만물도 함께 좋다. 오늘도 바로 믿고 바로 살면 그럴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고 있다.

5:14

(6) 기도

계5:14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① 네 생물

네 생물이 아멘으로 답한다. 이 모든 찬송이 늘 그대로 진행되고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다.

② 장로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할 뿐이다.

-요한계시록 6장-

▷ 6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중 계시로 받은 성경이 펼치는 7가지
세상 모습

세상만사는 이 7가지의 모습과 내용뿐이고 성도는 그 모두가 복음
으로 받음

▶ 성경 내용 : 6인(印)

(백마, 적마, 흑마, 청황마, 영혼, 진노)

▶ 계시 내용 : 세상 운동들의 내용

3. 6인

6:1

■ 일곱 인의 의미

계6:1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1) 성경과 인봉

(1) 말씀

① 운영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고 운영하며 말씀은 볼 수도 접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 죄로 인해 알 수 없던 말씀을 사할의 대속으로 보게 해 주셨다.

② 인봉

5장에서 어린 양이 책을 받아 인봉을 떼게 되었다.

③ 복과 화

그리고 6장에서 일곱 인을 하나씩 떼며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 준다. 성경 기록을 보여 주는 순간 말씀에 담긴 복과 화가 우리에게 쏟아진다.

④ 선택

믿는 우리는 복과 화를 선택할 수 있다. 불신자는 우리의 복을 구경만 하고 그 말씀에 따라 화만 받게 된다.

(2) 계시

① 뜻

계시는 열어젖힐 계(啓), 눈앞에 갖다 대고 보여 주는 시(示), 열어 보여 준다는 뜻이다.

② 봉인

죄 때문에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덮어 두고 봉인을 했었다.

③ 보는 법

믿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일일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 눈에 보여 주며 매 현실을 조성해 주시고 운영하신다. 또 현실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며 그 현실을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과 그 움직임을 예수와 그리스도로 볼 수 있게 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로 보고 그리스도로 살필 수 있는 법을 기록했고, 따지고 분석하며 활용하여 익히는 이치를 기록했다.

2) 4 생물의 역학

(1) 4 생물

4장에서 보좌 앞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있었다. 생물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신앙을 말했고, 네 생물의 사자는 정복성, 송아지는 순진한 희생, 사람은 참사람의 인격, 독수리는 초월성을 뜻한다. 일곱 인을 뿔 때 네 생물이 순서대로 넷째 인까지 떼고 있다.

(2) 7 인(印)

일곱 인을 설명하며 재론하겠으나 일단 일곱 인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고 주님이 받아 열면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그렇다면 일곱 인이 열리며 벌어지는 모든 역사는 기본적으로 믿는 우리를 위한 복의 역사며 우리를 영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이 땅 위의 다양한 역사다.

(3) 복

넷째 인까지 네 생물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데 첫째 인만 복음 운동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모두 두려운 재앙으로 보인다. 믿는 우리에게

계는 복도 복이고 화도 복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순종한 것은 바로 영생이다.

(4) 이유

‘생물’을 앞세워 하나씩 표시하며 열어 가는 이유는 재앙까지 포함하여 이 땅 위의 모든 전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인격과 행위를 만드는 복 된 역사를 표시하기 위함이다.

계6:2

1) 첫째 인: 백마 운동

계6:2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 복음 역사

(1) 말

말은 운동 면을 표시한다.

(2) 흰색

흰색은 성결을 말한다. 주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위에서 복음이 되었다. 복음의 말씀은 제자들, 구약의 백성들, 이방 나라, 또 오늘 우리 내면을 세상 끝날까지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

(3) 성결 운동

세상 자체가 끝나는 최후 재림뿐이 아니라 오늘 현실 하나도 빠지 않고 이런 운동을 펼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 세계도 백마로 상

정한 성결의 운동이 죄와 마귀와 사망과 싸우며 전진하는데 매 현실에서는 우리 개인 속에 있는 마음 생각 사상 욕심 생활 행동 하나에까지 말씀 어긴 죄로 더러워진 부분을 말씀에 맞도록 고쳐 나가고 내 뜻대로 사는 불의적인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의롭게 만들어 나간다.

2) 승리 역사

(1) 활

① 복음의 성격

탄 자가 활을 가졌다.

② 직진

이 운동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을 그리고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는 날까지 자기 내면을 주신 분량에 도달하기까지 계속하고 끝이 날 것이다.

③ 지향

이 한 길을 옆으로 돌아가거나 중단하거나 뒤로 가는 수는 없다. 그것이 활이다.

(2) 면류관

면류관은 승리의 표시니 이 성결의 역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어둠 속에 빛은 질 수가 없는 것처럼, 죄악 세상에 예수님의 대속은 지려야 질 수가 없는 필연적 승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예정이고 창조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섭리도 그렇게 움직인다. 좁게 단면을 보면 복음이 후퇴하고 패전도 하지만 넓게 보면 정해진 목적

을 향해 승리의 걸음뿐이다.

3) 사자의 정복성

(1) 복음

복음은 죄악 세상을 사죄로 깨끗하게 만드는 성결의 역사다.

(2) 사자

이 역사는 잠30:30에서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가 되어 어떤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 그리고 세상만 보고 사는 절망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면을 나타낸다. 첫째 인을 떨 때 오라 한 것은 첫째 생물이며 첫째 생물은 계4:7에서 사자 같다고 했다.

(3) 담대성

사자는 잠28:1에서는 담대성을 말씀했으며 자연계시로도 알 수 있다.

계6:3, 4

2) 둘째 인: 홍마

계6:3-4

3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4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1) 진노 역사

(1) 진노

말씀은 한 편으로 복음이나 그 말씀에 맞서는 죄와 악령과 사망의 역사에 대하여 진노로 상대한다.

(2) 붉은색

붉은색은 계12:3, 17에서 분노로 표시되었다.

(3) 구원 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말씀을 어린 양 예수님이 사활의 대속으로 받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펼쳐 나간다. 이 땅의 죄악과 마귀에게 붙들린 우리를 구원하는 면으로 보면 백마 운동이다.

(4) 전투 면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원수를 상대하며 싸우는 모습은 진노의 붉은 운동이 된다.

(5) 양면

별도의 운동이 아니라 한 운동의 양면이다.

2) 분쟁 역사

(1) 붉은 말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없애 버렸다.¹¹⁾

(2) 분쟁

분하면 분쟁이 생긴다.

11) 붉은 : 살해, 붉은 말 : 사망 운동

(3) 사망

분쟁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죽는 일도 생긴다.

(4) 붉은색

요일3:15에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다. 창4:5에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바로 이 색깔을 말한다. 그리고 아벨을 죽였다. 왜 말씀이 가는 곳에 웃음과 축복과 평화가 깃들지 않고 그 반대가 되는가? 건강한 몸이 병균 때문에 죽을 상황인데 항생제로 병균을 죽이면 사람을 살리니 투약을 한다. 투약은 백마 운동이요 병균이 죽어 나가는 것은 홍마 운동이다. 죄가 없던 시절의 말씀은 웃음과 평화만 존재하나 죄악의 세상이 된 오늘의 웃음은 죄와 마귀와 사망의 웃음이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패전을 해야 하고 울어야 하는 것과 같다. 둘째 인은 말씀의 역사인데 이 역사가 지나가면 죄악은 울고 의는 웃고, 사망은 쫓겨나고 생명은 흥황되니, 좋은 면은 백마로 그 반대편에 분쟁이 나오고 죽어 나가는 것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들이다.

(5) 큰 칼¹²⁾

탄 자에게 둘째 생물이 큰 칼까지 줬다.

■ 칼

칼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파종일까, 육아일까, 구제일까?

■ 정리

12) 살해 도구, 큰 심판

마10: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의 검으로, 어떤 말씀은 소리 없이 깊은 것을 정리해야 할 때도 있다.

■ 도륙

엘리아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을 도륙해야 하는 왕상18:19의 경우도 있다.

■ 내면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내 마음 속에서부터 한 시대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화평이 없어지며 말씀이 계속 전해지면 서로 죽이는 문제가 생기고 마침내 가나안인 전체를 제거하는 일도 생긴다. 자기 내면으로도 그렇다.

3) 송아지의 희생

(1) 소

성경의 소는 주인에게 ‘말 없는 충성’을 말한다.

(2) 송아지

송아지는 충성을 더 순진하게 표시한다.

(3) 희생

양이나 소는 대속을 위해 제단 위에서 죽어야 하는 희생이다.

한 번으로 지나가는 우리 현실은 그 현실이 전부고 두 번 기회가 없다. 그 현실에서 내가 죽고 내가 피 흘려 순종하여 주님과 말씀으로 살리는 운동을 하다 보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을 단절하고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희생이 따르게 된다. 죄와 의가 서로 웃고 잘

될 수는 없다. 의가 박해를 받아 죽든지 죄가 말씀의 검에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말씀만 듣지 않았더라면 주변 사람들과 편하게 즐겁게 화목하며 평화롭게 살 것인데 말씀을 배웠으니 말씀으로 내 속을 살려야 하고, 이 과정에 내 속에서부터 끊고 죽이고 눌러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갈5:24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다. 친구가 귀찮아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정리하지 않고는 말씀으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말씀 때문에 정리하게 된다. 그 과정에 그 친구와의 우정은 금이 가고 원망이 생기며 결국 우정이 죽는 일이 따라온다.

계6:5, 6

3) 셋째 인: 흑마

계6:5-6

5 세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세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¹³⁾을 가졌더라

6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1) 흉년 역사

(1) 검은색¹⁴⁾

① 좋지 않은 색

13) 판단

14) 검은 말 : 사망 운동

검은색은 좋지 않은 면을 말한다. 빛과 비교할 때는 어두움으로, 생명과 비교할 때는 죽은 색이 된다.

② 흉년

여기서는 곡식에 검은색이 덮였다. 흉년이다. 양식에 검은색은 흉작을 말한다.¹⁵⁾

③ 셋째 인 : 어려움의 시작

일곱 인의 순서와 일곱 인에 기록한 어려운 여건의 전개 과정을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까지 놓고 보면 셋째 인을 떼 환경은 어려움의 시작이지 전멸 재앙으로 나갈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 먹을 수는 있으나 배고픔이 시작되어 혹독한 환경이 시작 되고 있다. 둘째 인의 진노 상황도 처음에는 화평을 없애고, 그 다음에는 서로 죽이고 그 다음에는 큰 칼을 기록했다. 진행되는 순서가 있어 여기 흉년의 상황도 짐작이 가능하다.

2) 궁핍 역사

15) 밀 한 되 또는 보리 석 되에 한 데나리온에 팔린다. 파는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정확하게 매매하려 한다. 예나 지금이나 넘치면 인심이 후하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식구들끼리도 생존 경쟁이 생긴다. 데나리온은 마20:2에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라는 말씀에서 노동자의 일당 품삯이다. 밀 한 되와 보리 석 되는 시대마다 농경 환경이 다르니 우리의 오늘 기준에서 속단하지 말고, 밀이 보리보다 3배 비싼 상황이다. 우리는 계시록이 기록되던 시대에 그 지역의 품삯과 곡식값을 모른다. 그러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준 선교사들은 그들의 역사가 성경의 기록 역사와 지역에 가깝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배울 때 참고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주셨으니 무시할 수 없다. 기독교 역사에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가 되었다면 흉작으로 흉년이 되어 양식값이 폭등하여 어렵다는 상황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직접 알 것도 있고 남에게 전해 들어야 하는 것도 있다.

(1) 어려움이 먼저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려면 금식을 시키고 마취 주사를 놓는다. 먼저 여러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 돈이 들고 먼지가 발생한다. 복음이 백마의 보기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될 때 한쪽에서는 과거 얽힌 인연을 정리해야 한다. 그 과정에 배고픔도 각오를 해야 한다. 주님도 금식으로 시작했고 세례요한도 혐의 혐식으로 예비했다. 주님을 준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궁핍 중에 고난을 길을 걸었다. 눅7:25에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헤롯의 왕궁에 있다. 사53:2에서 오실 주님을 그려 보았다.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으니 우리 보기에 좋아 보일 것이 없다. 주님도 그러한데 하물며 그 뒤를 따라갈 우리들이겠는가?

(2) 감람유와 포도주

① 궁핍

그런데 아무리 신앙 때문에 궁핍을 당한다 해도 그것은 두고 갈 육체의 양식과 세상 사는 데 생기는 어려움이다.

② 성령과 대속의 피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했다. 감람유로 표시한 성령 역사와 포도주로 말씀한 대속에 취한 신앙의 걸음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힘을 얻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배가 고파서 흔들리는 성령의 역사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착각을 한 주관이며 세상 사상이다.

3) 사람의 인격성

(1) 사람 얼굴

셋째 인은 얼굴이 사람 같은 셋째 생물이 오라 했다.

(2) 이유

왜 사람 같은 얼굴을 가진 생명에게 셋째 인을 열고 복음 운동을 시작하게 했을까?

(3) 역사 전개

셋째 인으로 전개되는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을 닮은 타락 전 원래 인간, 진리와 성령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역사가 전개된다는 말씀이다.

(4) 배고픔의 현실

셋째 인으로 전개되는 오늘 우리 현실은 말씀으로 사는 데 닥치는 배고픔의 문제다. 옛날은 곡식이 흉년 될 각오를 해야 하고, 지금은 월급 직장 진로 건강의 흉작으로 살피면 된다.

(5) 필요 단계

이렇게 배가 고파도 이 길을 가겠느냐? 배가 고파 그만둘 것인가? 이 단계를 거치며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진다.

6:7-8

4) 넷째 인 : 청황마

계6:7-8

네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네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

1) 절망 역사

(1) 청황 : 재앙

① 필연

복음 운동은 필연적으로 붉은 말의 분쟁도 검은 말의 배고픔도 따라오는 법이니 그 다음에는 청황색으로 표시한 상황이 생긴다.

② 공포

청황색은 공포스런 분위기를 말한다. 겁에 질려, 이렇게 끝까지 믿어야 할까 흔들릴 수 있는 문제들이 일어난다. 기독교를 믿으면 조상 제사를 없애야 한다니 수백 년 내려 온 한국의 전통 사회로서는 자신들의 역사와 가치관 전부를 다 버려야 했다.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면서 어느 가정 어느 사회라도 이런 절망적인 문제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초기에 시끄럽고 배고픈 고난을 이겨 낸 이들이 마지막에 교회를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③ 생명의 도

복음 때문에 이 땅 위에 복음 아닌 것, 땅의 것은 전부 다 버려야 하므로 이 땅에 소망을 둔 이들에게는 절망의 공포다. 그러나 생명의 도는 죽어야 사는 것이다.

2) 사망¹⁶⁾ 역사

(1) 단계

첫째 운동이 지나가며 둘째 단계에서 분쟁이 생기고 그 다음 배고픔이 생겼다. 이제 점점 복음 운동이 진행될수록 어려움의 정도는 넘치고 마침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2) 사망 운동

① 탄 자의 이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붉은 말은 그 시작이 화평을 제하고 그 다음에 서로 죽이며 셋째 단계는 배고픔까지만 표시되어 있다. 이제 넷째 단계는 그 탄 자의 이름이 아예 사망이다.

② 음부¹⁷⁾

이 사망의 운동, 말씀이 지나가는 현실에서 말씀으로 돌아서고 고치지 않은 것은 이 현실과 함께 전부 영원히 둘째 사망에 버려지기 때문에 음부라 했다.

③ 단번의 기회

현실에 다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배척해도 택자 자체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러나 그 현실에서 마련할 천국의 실력과 상급과 자기의 영생 모습은 다시 가질 수 없다. 그 현실에서 말씀으로 바로 살았어야 하는 기능과 요소도 그 현실이 지나감과 동시에 다시는 살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심신의 기능과 요소와 실력과 기회는 그대로 영원히 음부로 던져진

16)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짐.

17) 사망을 처리하는 곳

다. 믿는 우리에게는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기회가 그 현실을 지나간 뒤에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 되는지 음부로 버려지게 되는지가 문제다. 이래서 사망 뒤에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했다.

④ 심신 요소

■ 영생

오늘 교회 가야 할 시간에 교회를 가게 되면 오늘의 시간, 걷는 데 사용된 힘, 교회 출석이 더 익숙해진 기능, 이로 인해 더욱 잘 믿게 되는 심신의 요소는 이 땅 위에서 한 번은 죽어야 할 몸이 죽을 때 그 육체의 죽음과 함께 죽지 않고 모두 영생으로 옮겨진다.

■ 영멸

반면에 오늘 교회 갈 주일에 세상으로 죄를 지으러 가면 오늘 그 걸음에 속한 심신의 모든 요소와 힘과 기회는 다시는 살릴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니 이것이 사망이요, 이렇게 현실에 끊어져 버린 것들은 죽을 때 전부 음부에 버려야 한다. 심신 그 자체는 지옥을 가지 않으나 심신 속에 있는 기능과 요소들은 매 현실마다 차례로 최종 기회를 받게 되고 그 기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 것은 영생할 기능이 되고 말씀에 빠뜨어진 것은 영원히 음부를 통해 지옥으로 보낼 부분들이 된다.

(3) 땅의 1/4의 권세

① 뜻

땅의 1/4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길러 가신다는 뜻이다. 평생을 통해 매 현실에 다른 기회를 주시며 어제 실패를 경험으로 오늘은 더 나아질 기회를 주신다. 4분의 1은 쉽게

버릴 수 없는 분량이다. 그렇다고 내가 일어서지 못하고 다시 시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전부도 절반도 아니다.

② 소망

절반에 절반만을 먼저 거두어 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4분의 1을 심판적으로 처리한 듯하나 실은 소망적인 분량이다. 계3:2에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하신 말씀처럼 죽은 것을 거두어 감으로 하나님은 남은 것을 성공시켜 하늘에 가져갈 것이 많기를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을 없애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대접 재앙에서는 어느 분량을 분리하지 않고 전멸 재앙으로 지나간다.

③ 길러가는 단계

여기 인 재앙에서는 4분의 1이 먼저 나왔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길러 가시듯이 책망도 먼저 알리고 그 다음 경고하고 그 다음 작은 징계를 들고 치신다. 이것은 주님이 인간처럼 인정 때문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길러 가는 방법이다. 주님의 가는 길은 확실하다. 우리의 복은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는 것이다.

(4) 흉년과 땅의 짐승

① 흉년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인다 했는데 흉년과 사망은 이미 앞에서 나왔다. 넷째 단계이므로 여러 가지를 함께 사용하신다. 흉년도 있고 사망도 있다.

②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이란 짐승화 된 상태로 인간이 인간답지 않을 때,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 이런 세상을 통해 둘째 사망의 역사가 일어난다.18)

□ 독수리의 초월성

넷째 인을 썰 때의 음성은 넷째 생물의 음성이었으니 4:7에서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했다. 청황색 말은 공포와 절망이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나 우리에게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준다. 밤이 깊어지면 신앙의 마지막 투쟁력이 꺾인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다. 그래서 밤중은 절망의 절정이면서 소망이 실현되는 순간이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심지어 일곱 대접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재앙들이다. 그래서 화, 화, 화가 있다고 했다. 화는 화다. 그런데 누구에게 왜 화가 되는가? 에덴동산의 선악과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들어 있었고,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라는 무한한 사랑을 가져오는 출발이었다. 우리의 범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가는 첫 발걸음이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예정 가운데 복의 시작으로 두셨다.

네 가지 인에 네 가지 생물들을 두셨고 그 중에 4번째가 독수리와 같다. 독수리로 표시만 해도 되는데 ‘날아가는’이라고 강조를 해 두셨다. 이 세상, 발로 땅을 밟아야 사는 오늘의 세상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떠날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의 대속으로 중생

18)

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들어 올리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초월할 수 있다. 이 시대에 휩쓸려 이 시대적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시대와 시대적 죄악을 초월하여 살 수 있게 한다. 절망의 공포를 우리에게 주시는 넷째 인의 단계에서 주님은 이 단계의 절망은 우리가 초월할 단계로 주셨다고 표시해 주셨다.

계6:9

5) 다섯째 인: 제단 아래 영혼¹⁹⁾

계6:9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 호소 역사

(1) 말

말은 그 존재의 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힘없는 자의 말은 말이 전부다. 힘 있는 자의 말은 그 힘이 그 말을 강하게 만든다.

(2) 심판 호소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피 흘려 복음 운동을 했던 종들이 하나님 앞과 그 제단 아래 엎드려 심판을 호소하고 있다. 생전의 종들은 실수도 있고 기도에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선 종들의 온전한 영혼은 거짓과 착오와 자기중심이 없다.

(3) 역사 진행

19) 순교의 신앙, 자기 부인의 신앙

이들의 호소는 하나님께 바로 전해지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가지고 이 땅 위에 모든 역사를 직접 진행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앞서 간 성도들의 제단 아래 기도다. 제단이란 말씀 때문에 자기를 바쳤다는 뜻이다.

(4) 신앙의 세계

히11:4에서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말한다 했는데 죽은 아벨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세상에서는 죽은 자의 말이란 상징적 의미밖에 없으나 하나님이 아벨의 영혼에 호소를 가지고 직접 역사를 해 버리면 아벨의 말은 말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전부로 안다. 신앙의 세계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전부로 본다.

(5) 영혼의 호소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제단 아래 영혼의 호소다. 이 호소도 말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예 처음부터 말씀으로만 모두 성취한다.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 완전의 세계이므로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 천지를 만들고 운영하고 심판하고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6) 말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한다는 점을 히4:12에 적었다. 그래서 성경의 말은 말로 보지 않고 실효적 실상으로 봐야 한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진다. 하나님의 말씀 세계는 이렇다.

계6:10

(7) 기도의 능력

계6:10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기도라도 약5:17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으나 능력이 다르다. 다섯째 인에서 나오는 호소는 생명을 바쳐 충성한 순교자의 기도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은 자들로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이 그들의 행위와 인격을 통해 외부에 전해졌고 이로 인해 죽었다. 하나님 때문에 죽은 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이들의 호소는 인간적 요소가 가감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 붙들린 호소다. 그런 요소만 낙원에 간다. 이들이 큰 소리로 부른 것은 하나님이 듣지 못할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신앙 없는 이들의 소리라 그런 것이 아니다. 아무도 모른다 할 수 없는 모두가 알게 되는 역사로 진행된다 뜻이다. 주님의 최후 재림이 마치 조용히 오지 않는 것과 같다. 오늘 우리의 매 현실에 오시는 주님이 말씀과 그 말씀 생활 때문에 자기를 희생한 이들의 호소는 하나님과 그 성도 사이에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것. 마6:8에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아시는데 오늘 강팍하고 둔탁한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 조심을 시키려고 기록했다.

(8) 대주재

호소를 할 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로 시작을 한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틀린 것을 바르게 잡아 놓는 것이며 거룩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이지만 우리는 죄로 뺏겨졌고 혼잡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된다. 이 면으로 노력할 때 우리는 수 없이 호소할 일이 많고 이 면으로 호소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참이시며 대주재시다. 참은 하나뿐이며 주재는 모든 것을 주권 운영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수 없는 면과 활동 중에 어떤 면으로 적느냐에 따라 바로 그 면으로 호소하라는 것이다. 모를 때 알려 주시라는 호소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고, 전쟁에 밀릴 때는 ‘만군의 하나님’으로 부르짖는 것이다. 지금 이 호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가?

(9) 긍휼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각자에게 주신 증거 생활을 하는 종들을 피 흘리는 원수들을 갚아 달라고 하고 있다. 증오에 찬 보복 심일까? 생전에 그 생애를 겪어 본 형제들이 아직 세상에서 그런 고난을 겪는 성도를 위한 응원이며 격려일까?

그 고난의 과정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말씀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며 희생시켜 본 성도들의 먼저 성화된 그 요소들이 그 고난이 싫거나 힘이 들어서가 아니라 다시 겪어야 할 요소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이며, 또 먼저 낙원에 간 성도들은 살아서 세상 속에 고난을 겪는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다.

(10) 주님의 심정

벧후3:8에서 고난을 겪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심정을 하루가 천

년 같다고 했다. 성도가 말씀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은 아랑곳없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실까? 대신 해 줄 수 없어 지켜보며 우리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거나 실패할까 우리보다 더욱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 주님의 심정이며 사랑이다. 지난날 겪어 본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의 성도들과 자기 속의 요소들을 향한 마음은 바로 이런 주님의 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면 이런 마음이 되기까지 회개하고 자기를 바꾸어 가야 한다.

(예) 엘리야와 요셉

엘리야가 왕상19:4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10절에서는 나만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 한다면 죽기를 구했다. 요셉이 창40:14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석방되면 나를 빼달라고 청탁을 했다. 이때 나갔다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일정은 헛일이 된다. 하나님이 재고 계시는 그릇은 아직도 2년을 조금 더 남기고 있던 때다.

계6:11

2) 주님의 조처

계6:11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 주님의 노력

주님은 그 심정과 그런 긍휼과 동정의 사랑을 가졌다. 동시에 이 땅 위에 예정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고난을 모두 겪고 천국으로 올

수 있게 하신다. 각자가 이 땅 공부해야 할 것은 다 배우고 익히고 고치고, 연단을 받아야 할 것은 다 채워야 비로소 영원한 하늘나라가 제대로 시작되기 때문에 절대자 불변의 하나님은 고난을 겪어 본 성도들의 호소를 듣는 동시에 그 호소를 가지고 우리가 이룰 과제를 마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신다. 고교 3학년의 대학 입시 준비 때문에 애를 태우는 아이가 고생한다고 부모가 6월에 퇴학을 시키고 집에서 쉬라 할 수도 있고, 아직 11월 시험까지 몇 달이 더 남았고 다시없는 기회니 애타는 마음으로 후회 없도록 남은 공부를 더욱 밀어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얇은 동정으로 큰일을 망치지 않는다. 사랑도 지극하시나 목적을 달성하는 집념 역시 지극하다.

(2) 흰 두루마기

① 세상, 현실 통과

호소하는 앞선 성도들, 애타는 내 속의 성화된 신앙 경험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쉬고 기다리게 하신다. 한 번 세상에서 끝이 났으면, 한 번 현실을 통과하며 말씀으로 그 기회를 바로 잘 배웠으면 다시는 그 사람, 그 기능에게는 고난이 없고 사망의 세력이 손을 댈 수 없다. 한 현실에서 바로 통과하면 그 현실과 관계된 나의 요소는 중생된 영처럼, 부활한 몸처럼 세상과 마귀와 사망을 넘어선 존재가 되었다.

② 소망

이것이 현재 당하고 있는 지상의 성도와 내 속에 투쟁 중인 나의 요소들에게 주는 소망이다. 이 소망 때문에 오늘을 참고 견딜 때 더욱 힘이 된다.

계6:12

6) 여섯째 인: 천재지변

계6:12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²⁰⁾
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 같이 되며

- 지진 : 천지 진동
- 해 : 진리 역사
- 달 : 교회 역사
- 별 : 하나님의 종
- 산 : 큰 인물
- 섬 : 개별 세상

1) 나팔 재앙을 준비하는 길목

(1) 한계

말씀을 복음으로 받고 나를 고치고 씻어 가는 흰 말의 운동을 하다 보면 분쟁 배고픔 죽어 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인간적 한계인 다섯째 단계가 온다.

(2) 포기

이때 포기하면 하나님이 그 현실에서 이루고자 한 목표가 차단된다. 달이 햇빛을 반사하며 생명의 운동을 하는데 다섯째 단계를 넘기지 못하면 교회를 바라보던 이들의 생명을 죽이는 살해의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땅에 사는 인간들이 영계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배우고 따라오는데 그 별들이 모두 땅으로 떨어져 내려 버

20) 총담 : 말의 꼬리

린다. 그 현실에서 가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와 종들의 사명은 모두 실패한다.

(3) 고비

이 고비를 넘겨야 은혜를 받고 사명을 따라 뒤에 이어지는 나팔 재앙의 전쟁에 맞설 수 있다.

(4) 자세

이 여섯 인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가 매 현실에 가야 할 자세와 상식과 기초를 담아 주셨다. 그리고 여섯째 인이 끝이 나면 일곱째 인부터는 재앙으로 보이는 전쟁 속에 뛰어 들어가야 한다. 여섯째 인까지를 준비하지 못하고 일곱째 인이 진행되면 1/3의 손실을 보게 된다. 여섯째 인까지를 감사로 알고 받아야 나팔 재앙에 1/3의 손실조차 보지 않고 그 현실에 해당된 모든 자기의 성화와 건설의 기회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모두 하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2) 변동 역사

(1) 지진

지진은 변할 리가 없고 움직일 리가 없는 땅의 변동이다. 역사 이후에 지진들은 있어 왔다. 주님의 사할 대속 이후 우리를 위해 우리 현실을 움직이는 주님은 과거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규모로 세상을 흔든다. 주님의 최종 재림 때는 천하의 땅이, 오늘은 우리가 보고 밟는 흙인 이 땅보다 우리 생활의 근본이며 기본 토대가 되는 환경이 변동될 것을 말한다.

남자와 여자는 역사 이후에 바뀐 적이 없다. 남자는 남자의 위치에 서 크게 떠나지 않았다. 여자도 그랬다. 이제는 남녀라는 존재가 통

째로 쪼개지고 바뀌고 움직인다. 조금이 아니라 큰 지진이라 했다. 여자가 사위로 들어오고, 남자가 며느리로 들어온다. 그것이 가끔 발생하는 고장이나 장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천하가 그런 것을 좋다 하고 반대하면 처벌한다. 이렇게 바뀐 적이 있는가? 이렇게 바뀔 가능성을 예상했던 적이 있었는가! 이런 갑작스런 이런 대 변동을 지진이라 한다.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인간 취급을 받는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강아지가 사람이 되면 사람은 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아끼고 이용하는 성격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와 위치 자체가 마구 뒤집어지고 있다. 이 정도면 땅의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손해인 줄도 모르고 좋다고 세계가 환호하고 환영하고 있다.

(2) 수습 불가

다섯째 인의 인간적 고비를 넘어선 사람에게는 천국을 준비하는 자기 현실의 구성이며 기본이며 활동 무대가 되는 환경이 지진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다섯째 인의 고비에 요셉이 예정보다 2년 이상 빨리 출옥을 했다면, 그리고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끝내지 못하고 돌아섰다면, 이들이 이전 환경으로 돌아갔을지라도 그 모습은 인간 보기에는 그들의 원래 딛고 선 땅이 멀쩡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환경은 통째로 갈라지고 엉망으로 흐트러진 것이 된다. 어떻게 수습을 하겠는가?

(3) 해가 총담 같이

해가 총담 같이 검어진다.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제공하며 굽어보며 환하게 비추고 있

다. 내 마음이 말씀과 성령으로 밝혀져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적어도 교회와 믿는 사람은 다소 흐린 날이 있다 해도 기본적으로 하늘의 해 때문에 산다. 이런 해가 새까만 총담 조각처럼 검게 된다.

기독교가 생명의 유일의 도였는데 이제 종교 회의를 다니며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했다. 여기까지는 흐리지만 그래도 아직 빛이 아주 없어지지 않았다. 이제는 교회가 도덕 단체가 되고 시민 사회 단체가 되면서 환경운동이 그들의 본질인 줄 알고 세상의 구호 단체로 만족을 하고 설친다. 빛을 완전히 잃고 아주 새까맣게 되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시대가 그렇다 해도 나만은 하나님 유일주의로 산다면 내 개인은 환한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된다. 그런데 매일의 새로운 현실을 만나면서 복음 운동이 성결의 운동으로 바르게 나가지 못하면 내 속은 마침내 이렇게 되어서 버린다. 믿는 사람이라도 어떤 현실에서는 아주 흑암에 휩싸일 수 있다. 신사참배와 같은 시대적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발람에게 가는 발람의 걸음은 나귀도 보는 천사를 선지자가 보지 못했다. 매를 세 번이나 들었고 나귀가 미친 선지자를 질책했다고 벤후2:16에서 설명을 했다. 이 정도면 발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란 그 순간 총담 같이 되었다.

엘리아나 모세나 요셉이 넷째 인의 절망에 붙들려 다섯째 인의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해가 되어 상대하지 않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아예 보지 못하고 세상을 끝낸 사울처럼 됐을 것이다.

(4) 달이 피같이

① 달

달이 피같이 된다 할 때 달은 해를 반사하는 교회의 역할과 위치를 말한다.

② 피

피는 사활의 대속을 가리킬 때는 구원의 희생이나 좋지 않은 면으로 사용될 때는 살육을 의미한다. 교회가 생명을 구하고 살리고 기르는 역사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을 끊어 버리는 데 앞장을 서게 되면 달이 피같이 된 것이다. 성도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된다. 내 속에도 이런 면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신사참배 6년의 옥고를 치르며 출옥을 불과 몇 달만 남겨 두고 있던 때, 교도관들은 이미 일본의 패망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마음속에 천조대신이 귀신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인 것 같다며 죄수인 그들을 보며 마음으로 회개하는 상황인데, 이때는 고문도 없고 그냥 어렵지만 평소처럼 버티면 곧 해방이 되던 때다. 바로 이때에 스스로 신사참배를 하겠다며 자원하고 출옥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보며 교도관 마음속에 우리 귀신이나 네 귀신이나 인간이 짐작으로 만든 조작의 신들이라 낙망했을 것이다. 이것이 달이 피같이 되는 상황이다.

□ 세상의 모든 종류의 운동들의 실상

- ① 백마 : 복음 운동 (1째 인)
- ② 적마 : 살해 운동 (2째 인)
- ③ 흑마 : 사망 운동 (3째 인)
- ④ 청황 : 재앙 운동 (4째 인)
- ⑤ 영혼 : 호소 운동 (5째 인)
- ⑥ 재앙 : 천지 진동 (6째 인)

계6:13

(5) 별

계6: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① 하나님의 종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의 별들이다. 이 땅 위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 속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빛으로 방향을 알린다. 교회의 목회자는 물론 신앙의 앞선 지도자들은 모두 하늘의 별이다. 하늘의 별은 자기 속에도 교회에도 시대에도 있다.

② 떨어진 별들

그런데 말씀으로 성결의 복음 운동으로 매진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교회가 생명의 신앙을 죽이고 그 교회에 앞장을 서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신앙의 생명을 없애는 운동에 나설 수 있다. 신앙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인데 두고 갈 땅에 이 나라 저 나라의 한쪽 편에서

서 이 나라의 독립 운동을 함으로 저 나라를 육체적으로 싸우는 기지를 교회로 삼아 교회가 피같이 되고 목사 장로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 된다. 목회자들이 독립 운동을 하는 것도 일본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조선을 점령하는 일본군의 편을 들고 교회 이름과 목사 이름으로 나서는 것도 모두 하늘에서 떨어진 별들이다.

③ 정체성 상실

그러나 시대가 이런 분위기로 몰려가고, 또 매 현실에서 이런 유행이 휘몰아치게 되면 교회도 하나님의 종들도 자기들의 신분과 위치와 사명과 정체성을 잃고 잊고 촛불을 들고 나서거나 세상에 일부가 되어 정신도 없게 된다. 그 종들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로 인해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하면 선 과실이 익기 전에 떨어지듯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식이 된다.

④ 성화의 기회 실패

다섯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하늘을 지향하도록 인도하던 종들이 세상으로 전부 떨어져 버린다. 내 속의 요소들도 마찬가지로 교계의 지도자들도 그렇다. 시대마다 현실마다 이런 일들은 많았다. 다섯째 단계를 넘어야 해가 해처럼 달이 달답게 별이 별로서 자기 위치에서 나팔 재앙으로 닥치는 신령한 전쟁에 넉넉하게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섯째 단계에서 지면 일곱째 인이 시작되면서 일곱 나팔의 재앙들 때문에 1차로 1/3씩의 기능적 내면적 실력적 성화의 기회가 실패하게 되며, 다급하게 돌아서지 않으면 다시 추가 되면 2/3씩 날아 가 버릴 것이며 대접 재앙이 와서 남기는 것 없이 모두를 삼킬 것이다.²¹⁾

21) 인 재앙은 '예고적'이고 나팔 재앙은 '진행적'이며 대접 재앙은 '정리적'

이다.

'예고적'이라는 뜻은 미리 살펴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낮'이다. 인 재앙의 모든 기록은 이렇게 되니 준비하라는 것이다.

'진행적'이라는 뜻은 예고된 대로 실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1/3'의 피해는 숫자적 분량적 3분의 1을 말하지 않고 '피해는 막심하나 소망이 더욱 크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진행이 1회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3분의 1을 잃어도 3분의 2가 있으니 견딜 만하다는 것이 바로가 9번째 재앙까지를 견딜 때 자세가 늘 그러했다. '출9:31~32,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뭇은 자라지 아니하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도 무엇 하나가 더 남아 있다고 생각하며 제1 재앙에서 제2 재앙으로 그리고 3, 4, 5 재앙으로 진행될 때 버티고 있다. 출애굽 때는 9번을 거친 다음에 10번째는 전멸 재앙으로 생명을 거두어 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구약 출애굽의 현장은 10단계를 순서대로 거쳤으나 오늘 신약의 우리에게도 구약의 육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거친 10단계는 오늘에 겹쳐 생길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3분의 1의 재앙이라는 것은 1/3이 1회만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1/3이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버틸 때 겹쳐 닥치면 2/3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간섭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를 말한다. 구약 이스라엘은 홍해와 요단을 1회씩만 건넜지만 오늘 우리는 기능적으로 요소별로 매 현실에서 하루에도 여러 차례 홍해를 건널 수 있고 또 요단을 건널 수도 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도 70번씩 7번을 1일에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일에 1회로 끝날 수도 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처음 기도 때는 안 된다고 했으나 다음에 물어볼 때는 가라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2~3번을 말할 수도 있고, 말리지 않고 바로 가라 할 수도 있다. 바로 가라 할 때는 이미 처음 만류하는 단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지나갔다는 뜻이 된다. 또 2~3를 만류할 때는 왜 2~3회인가? 2~3회 전체를 1회로 볼 수 있다. 1/3의 침해가 겹치면 2/3가 된다. 소망은 너무 적고 절망은 너무 크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창1~2장의 범죄 이전은 인 재앙과 같고, 3장은 나팔 재앙, 4장 이후 역사 세계 끝까지는 대접 재앙이 되고, 구약 왕국 시대의 경우 다했은 인 재앙, 이사야는 나팔 재앙이 되고 예레미야는 대접 재앙일 것이다. 특히 애가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등의 귀환 시대는 또 다른 현실이 다시 시작된다. 모든 면으로 성경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사용이 되어야 한다.

계6:14

(6) 하늘이 떠나감

계6:14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① 최종 재림

하늘이 떠나간다는 하늘은 공간적 우주 허공이 종이 축이 말려 떠나 가듯하게 되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예수님의 최종 재림 때 발생한다.

② 오늘

오늘도 매 현실에서 말씀으로 복음 운동을 하지 않고 여러 단계로 주님이 책망을 해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과 관계된 최고의 가치, 모두가 아는 높은 이상들이 전부 종이 축처럼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다.

③ 구약

구약 이스라엘에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초림의 주님이 가신 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구약 교회의 최고 가치인 성전과 그들이 지켜야 할 지성소, 금 촛대, 금단과 그들의 율법 생활, 안식일까지 모두 종이 축이 말려 돌풍에 날아가듯 해 버렸다.

④ 매 현실

오늘 평생을 좌우할 시험이나 취업 면접이나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위해 자기가 지켜 온 자기의 생애 원칙, 자기의 인격적인 최후의 가치, 신앙관까지 한순간에 날려 보내는 일은 흔하다. 목회자

들은 교편을 두고, 교단은 교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물질계 우주의 실제 정리는 최후의 재림 때 한 번만 일어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일은 매 현실마다 일어나니 우리의 모든 현실은 종말이며 계시록은 바로 이런 평소의 매일을 위해 22개장으로 기록했다. 내일을 위한 기록이나 오늘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 복으로 기록했으나 복으로 받지 못하면 그 복은 전부 붉은 말, 검은 말, 청황 말, 제단의 영혼들이 호소하고 지탄하는 대상이 되며, 천재지변으로 표시된 일들이 그대로 자기 속에 일어난다.

(7) 산과 섬

① 산

각 산과 섬이 옮겨진다. 산은 이 땅 위에서 우뚝 솟은 것이니 자연의 환경에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굉장한 도덕의 세계, 인류에게 혜택을 베푸는 여러 운동들을 말한다. 믿는 사람의 내면에 불신자들까지도 인정할 만한 인격이 있으면 그것도 산일 것이다. 이런 저런 것 따질 것 없이 모두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다.

② 섬

섬은 함께 있지 못하고 죄악의 바다 어디에 혼자 떨어져 존재하는 산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독불장군이 되어 혼자 잘난 사람으로 살면 섬과 같을 것이다. 좋게 보는 장점, 나쁘게 보는 단점 할 것 없이 여섯째 단계가 되면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전부 날려 버린다.

계6:15

(8) 땅의 임금들

계6: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땅의 임금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높다는 인물들과 왕족들과 그런 임금에 붙어서 함께 혜택을 보던 자들, 장군들은 권세를 가진 자들, 부자들은 어떤 면으로든지 남보다 많이 가진 자들, 강한 자들은 일반적으로 힘 있게 사는 자들, 종들은 이 세상 별별 사람들 중에서도 남을 섬기고 남이 시키는 것이나 하고 살던 자들, 자주자는 뭐든지 자기가 알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들이다.

계6:16, 17

계6:16-17

16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들이 어린 양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자기 현실에 자기 안팎에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끝까지 이를 거부했다면 그런 자기가 부끄럽고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이 두려워 자기 얼굴을 가리기에 급급하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양의 진노 앞에 설 수 없어 영원히 홍포 입은 부자처럼 불타는 자기 인격, 견딜 수 없는 자기 형편을 맞게 된다.

- 요한계시록 7장 -

▷ 7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중 교회를 기록했고 구원 계통의 명단을 기록

7가지 세상에 7가지 시험이 따르나 명단에 있는 구원 계통은 복음의 소망

- ▶ 성경 내용 : 4천사, 인 맞은 12 지파
- ▶ 계시 내용 : 성도의 계통과 승리

계7:1

4. 교회의 환란 기간

1) 재림 준비와 주권

계7:1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1) 한계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를 위해 충성도 환란도 한계를 정해 놓았다. 물질계라는 이 땅 위 환경에서 육체를 가진 오늘의 우리 역량이 무한히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은 무한이나 우리는 유한의 존재다. 살아갈 세월, 우리의 힘, 우리의 심신의 자질 모두가 유한하다. 세상에서 우리는 무한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나갈 기본만 마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이끌어 가실 곳은 하늘나라다. 우리의 마음은 무한이라야 하지만 우리 현실은 유한한 범위에서 무엇이든 진행된다.

(2) 피할 길

환란이 닥쳐도 우리는 영원히 건달 각오를 하나 고전10:13에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신다. 계2:10에서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고 했다. 각자에게 정해 놓은 범위가 있어 주신 달란트만 다하면 충성이라 하고, 하나님은 이 충성을 전부로 삼는다.

(3) 전개

계시록 6장에서 오늘 세상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전개되는 상황들을 기록했다.

(4) 이 일 후에

그런데 일곱째 인이 열리기 전에 7장에서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한다. 앞에 6가지 인을 알고 그 과정을 통과한 신앙에게 네 천사에게 세상의 모든 환란을 붙들거나 풀어 버릴 수 있도록 조절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7장을 시작한다. 매 현실에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에게 환란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때를 정해 놓았고, 하나님께서 확인을 하게 되면 환란을 그친다는 말씀을 4절까지 기록했다.

2) 환란의 조절

(1) 4천사²²⁾

① 사방

1절에서 네 천사와 땅의 네 모퉁이가 있다. 이 세상 곳곳 전부를 사방으로 표시했고 그 모든 방향을 모두 맡고 있는 천사를 넷으로 말씀했다. 매 현실의 우리 환경 우리 입장 모두는 동서남북으로 나뉜 사방에 전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은 배치한 네 천사들을 통해 모든 방향에서 모든 지점을 조절한다.

② 사방의 바람²³⁾

그리고 사방의 바람을 붙들어 뒀다. 바람이란 무엇이든 날려 버리는 역사를 말한다.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22) 하나님의 역사를 맡은 전부

23) 환란

했다는 것은 이 세상 우리의 환경과 현실에 신앙을 박해하는 모든 종류의 죄악 세상과 도덕 세상, 그리고 그런 세상에 주도하는 각종 인물을 각종 나무라고 했다.

③ 박해

공산 독재 정권이나 일본 점령 치하의 신사참배는 우리에게 바다와 같은 죄악 세상이다. 또 미국이나 현재 우리나라처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모든 면으로 넘치는 세상은 땅과 같이 든든하고 좋은 여건이다. 그리고 이런 곳에 나무처럼 우뚝 솟은 별별 인물들이 우리가 잘 믿어 보려 하면 박해를 하게 된다. 신앙을 박해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제거해 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④ 인내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 놓은 일정이 있고 우리를 만들어야 하는 내용을 모두 채워야 그런 박해를 없앤다. 태아가 불편하다고 10개월을 채우지 않고 나오면 우수한 조기 졸업이 아니라 미숙이 되어 장애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 같이 여기며 마음을 줄이지만 그날과 그 시가 되어야 끝을 내지 그 전에는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라도 제거하지 않는다.

⑤ 고비

이것이 장기간의 고문과 고행에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과제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믿고 견딜 때 비로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불변으로 인도되는 그 자질 그 기본을 만들게 된다. 우리가 자기 혼자 속으로 자기 투쟁을 할 때도 이런 고비가 온다.

계7:2

(2) 조절

계7: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우리를 박해하는 신앙의 방해 요인과 원수를 단번에 날려 버릴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면은 시험이 끝이 났다고 확인을 할 때까지 기다리게 해 놓았다. 이것이 바로 환란의 조절이다. 환란의 정도와 내용은 물론 환란의 기간까지도 모두 주권 섭리하고 계신다.

계7:3

(3) 그 때

계7: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① 인내

그때가 언제인지 세밀히 적었다. 이때를 마음에 두고 인내하면 투쟁에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했다.

②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그 신분이 목사나 신앙의 지도자라고 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종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에 교회의 직책과 상관없다.

③ 인 印

이마는 사상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인식, 사고방식을 보시며 이 환란에서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자세와 내면이 이제 됐다고 인정하는 것을 인 친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이 땅 위에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주권한다는 것이다.

계7:4

5. 인 맞은 12지파

계7:4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 사만 사천이니

1) 교회의 구성

(1) 12지파²⁴⁾

하나님의 백성을 계통으로 분류하면 12지파가 된다. 어떤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은 이 12지파 중 하나에 속해 있다. 야곱 하나를 통해 12 아들들을 만들고 그 아들들을 통해 그 다음 자손들을 만들며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했다.

(2) 총수

① 144,000명

그리고 12지파 어디에 속했던 마지막 그 총수는 144,000명이다.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성향으로 분류하면 전부가 된다. 12에 1,000을 곱하여 한 분야 한 종류에 12,000명을 헤아렸다. 성경

24) 구원 계통

에 믿는 사람의 수를 12라 할 때는 종류로 전부이고 그 수를 1천이라 할 때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이다.

② 택자의 수

택자의 수는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세적 현실의 끝을 알려 주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최종 재림의 시간을 알려 주지 않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는 택자가 누구인지 짐작은 해도 확정적 단정은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이 부분이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수입이 많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아는 것이 좋고 이런 택불택은 모르는 것이 좋으므로 모르게 하셨다. 요3:8에서 심지어 중생조차 모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르게 한 것을 알려 하는 자는 학습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딤편4:1에서 금지시킨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을 좇는 자가 된다. 아무리 궁금해도 하나님께서 감춰 놓은 것은 더 이상 나가지 말고 설 수 있도록 하자. 144,000명, 이 땅 위를 살다 가는 택한 사람 전부 즉 믿는 사람의 총수를 말한다. 나도 여기 들어 있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떤 차원의 신앙인이라 해도 모두 여기에 들어 있다.

계7:5

2) 12지파²⁵⁾의 순서

계7:5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1) 출생 순서

12지파의 순서는 창세기 29장부터 출생 순서를 설명하며 적었다.

25) 12종류의 신앙, 내 속의 12 보석 신앙, 교회별, 사명별로 다 다름.

(2) 모계

창세기 35장에서는 4명 아내를 따라 적었다.

(3) 여러 기준

출애굽 1장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 출애굽 때, 민수기, 역대상 2장에서 12지파 순서를 여러 기준으로 각각 다르게 적었다. 적어 주실 때 어떤 기준인지 그때마다 적는 순서를 통해 살피면 그 뜻을 찾을 수 있다.

(4) 역할과 사명으로 분류

계시록 7장에서는 유다를 맨 처음에 적으며 르우벤 앞에 적었다. 계시록에서는 육체적 계통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신앙의 위치와 역할과 사명으로 분류하여 적었다.

① 유다 지파

유다가 첫 번째 지파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통에서 인도자가 되어야 할 유다적 요소도 있고, 그런 인물도 있고, 그런 교파도 있다. 신앙 인도자의 요소들 인물들 교회들이 유다 지파다.

② 르우벤 지파

원래 하나님은 르우벤에게 장자의 좋은 입장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통을 섞어 버린 르우벤은 2번째로 기록됐다. 이것은 영원토록 그 면을 생각하며 조심하라는 것이다.

③ 갓, ④ 아셀 지파

3번째가 갓 지파고 4번째가 아셀 지파로 모두 레아의 자녀들이다.

*구원의 주력이 된 레아의 계통

계시록 7장은 12지파가 창세기 29장부터 수많은 변동을 거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록을 맞게 된다. 이 순간 유다가 먼저, 르우벤이 그 다음, 갓과 아셀이 이어지는데 이 4명은 전부 레아의 아들들이다. 믿음의 조상인 야곱은 라헬만을 눈에 두고 애굽의 바로 왕에 섰던 130세가 되도록 그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만 지켜봤다. 그런데 원치도 않게 따라온 레아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모두 펼쳤다. 출애굽 이후 레위 지파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지도했고 아론은 제사장 지파 자리를 놓쳐 본 적이 없다. 여호수아부터 사무엘까지의 사사시대는 한 사람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니 일단 미뤄 두고 왕정 국가는 다윗으로 예수님 때까지 유다를 왕통으로 사용했다. 하나님은 안력이 부족하여 야곱에게 곱다는 시선을 받지 못하고 천대를 받았으나 하나님은 레아 계통으로 구원의 주력 역사를 하셨다.

내가 내 마음에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 장점을 붙들고 나를 길러 가실지, 내 눈에는 하찮은데 주님은 못난 단점을 잡고 길러 가실지! 인간은 남다른 장점을 주목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 요소를 없애려고 보통 반대로 이끌어 가신다.

계7:6

계7:6

아셀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⑤ 납달리 지파

앞에 4명 다음에 라헬의 계통을 4명 두셨다. 그런데 라헬의 직계가 아니라 여종 빌하의 아들 중에 둘째인 납달리를 앞에 두셨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생각하여 잘못 산 세월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 나를 포기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의 수에 채워 넣는데 여종의 아들 중에서도 둘째를 앞세운 것은 야곱의 인간적 선호를 철저히 버리라고 적어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내 속을 살피며 믿음으로 살 때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이 부끄러운지를 새로 살피야 할 것이다. 고전1:27로부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인간들이 강하다 하고 세상이 유력하게 알아주는 것들을 눌러 버림으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없이 그 육체만 가지고는 자랑하지 못하게 꺾어 놓는다. 하나님이 주인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주종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신다. 이것이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과 같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가 되어야 하는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처럼 자기중심의 존재가 되려 한 것으로 죄 중에서도 가장 크고 머리 되는 죄 곧 원죄다.

⑥ 므낫세²⁶⁾ 지파

므낫세는 라헬의 첫째가 되는 요셉의 장자이나 야곱이 축복할 때 순서가 바뀌었다. 이 므낫세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았다.

■ 에브라임

에브라임에게는 구약 기간에 므낫세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받았으나 북조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서 탈선에 앞장을 섰다.

26) 구약에 한 지파만을 표시하면서 다른 지파들을 포함하는 경우처럼 여기서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포함한 대표 표시일 수 있다.

계7:7

⑦ 시므온 지파

계7:7

시므온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잇사갈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7번째 지파는 시므온이다. 다시 레아의 아들이며 실제로는 둘째가 된다. 시므온은 약한 지파여서 가나안을 받을 때 가나안을 정복할 힘이 없어 유다 지파에 붙어 분깃을 나눠 받는다. 내가 약하면 주님이 많이 주고 주도하게 하신 쪽에 붙어 그를 통해 사는 것이 옳다. 어리고 약한 시절에 부모로부터 자립을 하면 이는 가출이 되고, 독립할 힘과 시기가 되었는데도 버티면 부모를 상대로 갈취가 되니 모두 옳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 주님이 간접으로 주시면 간접으로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맞다.

⑧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 구약 기간에 가장 복된 위치를 받았으나 8번째다. 마치 르우벤이 출생의 첫 순서를 받고도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잡지 못한 것과 같다. 구약의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어두워지고 소망이 없고 왕들이 무능하다 해도 성전에 제사장이 제사를 지켜 내면 이스라엘에 그루터기가 남게 된다. 이스라엘이 망하면서도 희망 없이 망할 때는 성전과 제사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큰 기회를 받은 레위가 8번째임을 보며 오늘 우리는 좋은 기회를 복 되게 사용하고 있는지, 매 현실이 복 되게 종말로 이어지며 다가오는데 그 모든 복된 기회를 흥포 입은 부자처럼 영원히 후회할 기회로 버리고 둘째 사망에 던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이름이다.

㉑ 잇사갈 지파

잇사갈은 9번째이며 레아의 아들이다. 레아의 아들에게 주어진 복을 잇사갈은 받지 못했다. 잇사갈을 구체적으로 살피려면 창세기 29장부터 잇사갈 이름이 나오는 곳을 계시록 7장까지 전부 읽으면 된다. 이렇게 읽으며 깨닫는다면 이는 신학이 아니라 성경 공부다. 누구에게든지 주신 진리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성경을 떠나서 연구하고 성경에 없거나 먼 것을 공부하는 것은 세상 학교에서는 학문적으로 높게 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아주 멀어지게 한다.

계7:8

계7:8

스불론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라

㉒ 스불론 지파

스불론이 10번째다. 잇사갈과 스불론은 출생 때부터 계시록 7장의 마지막까지 늘 붙어 있었다. 레아에게 속한 것은 모두가 1등은 아니었다. 잇사갈과 스불론의 경우는 레아의 다른 아들들과 달리 라헬과 인간적 사랑싸움을 벌이며 쟁취해서 낳은 아들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주지 않으시면 기다리는 것이 좋고 복이 된다. 훗날 훗날까지 계산해 보면 인간이 설치고 견디지 못해 인간적인 기술과 수단을 동원한 것은 돌고 돌아 그렇게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

㉓ 요셉, ㉔ 베냐민 지파

마지막 11번째와 12번째가 요셉과 베냐민이다. 야곱이 평생을 그렇게 목이 메어 불러 본 라헬의 혈육, 그 이름 그대로를 일부러 적으

졌다. 하나님은 구원의 모든 면을 알아서 채운다. 공연히 인간이 자기 계산과 염려와 야욕으로 하나님의 인도의 길에 영향을 미쳐 봤지만 허송만 했다. 12지파 이름들과 그 순서를 두고 제대로 살펴보려면 창세기 29장부터 성경 전체를 전부 살펴야 한다. 실은 성경의 모든 표현과 연구는 항상 66권 전부를 다 동원해서 한 성구 한 표현을 살펴보면 된다. 그런데 분량이 너무 많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폭넓지 않아서 다 읽는다 해도 바로 알기 어렵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대로 읽고, 그 말씀으로 실제 살고, 실행을 통해 깨닫고, 그렇게 자라 가는 눈으로 다시 말씀을 읽기를 계속하면 각자에게 필요한 진리와 필요한 분량과 필요한 면들을 알려 주신다. 알려 주지 않는 부분을 학문하는 이들처럼 지식을 삼키듯이 대들면 성령의 역사는 흐려지고 멀어진다.

■ 단 지파의 누락

계시록 7장이 나올 때마다 단 지파가 빠졌다면 여러 해석을 시도한다. 뺏으면 이유가 있어 뺏을 것이고 그 이유는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한다. 성경 밖에서 찾다 보면 성경 아닌 것을 해석하면서 성경의 원 뜻에서 멀어지고 잘못되기 쉽다. 단 지파 이름이 빠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 혹시 성경 전체를 읽어 보며 어느 한 대목이 아니라 전체를 통해 깨달아지면 알려 주기 바란다. 배우고자 한다.

(5) 신앙 특징으로 분류

다만 12지파의 역사적 기록은 요셉 지파를 요셉과 베냐민으로 아니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으로 적는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해서 요셉이라고 적는데, 계시록에서는 므낫세 요셉 베냐민으로 적었

다는 점에서 계시록 7장의 12지파 이름은 역사적으로 야곱의 12 아들로 출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류 총합의 이름들이 혈통이 아니라 각 지파에게 주신 신앙의 종류, 신앙의 특징을 앞에 세우고 혈통적 이름과 순서는 계시록에서 아예 무시했다고 보인다. 단 지파에 대한 기록도 많으나 적지 않으셨으니 일단 계시록 7장에서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중에 한 지파가 꺾이 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적지 않아도 다른 지파의 이름들을 통해 부족이 없었다고 보인다.

계7:9

3) 구원의 백성들

계7: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 흰 옷 : 대속의 은혜
- 큰 무리 : 능히 셀 수 없는
- 생명수 : 영생
- 눈물을 씻음 : 구원의 은혜

▶ 역사(일)

여섯 인을 떼고 역사가 열리면서 신약 2천년이 전개

(1) 7 인

① 역사 전개

일곱 인을 통해 말씀의 역사가 세상에 전개가 되었고, 모든 택자와 내 속에 모든 신앙 요소들이 전부 일곱 인으로 펼쳐지는 자기 현실

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요소들을 모두 열거함으로 살펴봤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나의 천국 실력이요 나의 신앙의 총합이다.

② 큰 무리

택자들과 택한 사람이 자기 속에 준비하고 가져갈 신앙의 성화 요소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세상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한 영생의 신령한 영계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영계와 우주를 통치할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전부다.

③ 나라

나라는 왕이 있고 통치를 달리 하는 별도의 세계다.

④ 족속

족속은 크게 분류한 종류다.

⑤ 백성

백성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다.

⑥ 방언

방언은 인간들의 발표 수단들이다.

⑦ 성화 요소

땅에 있는 인간, 비록 택함받아 천국에 갈 우리라 하더라도 이 땅 위에 기준과 방법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와 우리 내면은 영계의 주님의 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구성하는 현실 속에서 만들어지고 자라 간다. 그들은 그들 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께 연결된 참 생명을 알 수도 헤아릴 수도 없다. 이 모든 택자와 성화된 요소들은 매 현실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진리 앞에 흰옷을 입은 성결의 존재들이다. 택자들 자체는 피로 구속했으니 원래 깨끗하다. 그 자체가 순종을 통해 그 심신의 행위조차 모두 깨끗하게 현실을 통해 연단되고 만들어진 그것만 그 나라로 옮겨 간다.

⑧ 종려 가지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이들의 손에 든 종려 가지는 아7:727)에서 키가 크고 번성을 위해 풍성한 면을 말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로 찬송하고 승리를 외쳤다. 이 종려는 성전을 장식한 나무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하나님을 모시라는 뜻이다.

계7:10

(2) 찬송

계7:10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① 구원

주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승리한 모든 택한 백성이 144,000명의 총수로 모였으니 그 구원의 뻗어나감이 무한하며 그 풍성함이 넘치게 된다. 모든 택자들은 그 눈이 열리어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지존 완전하신 은혜와 어린 양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었음을 보

27) 아7:7,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며 찬송하게 된다,

② 자기 복음

이 찬송을 미리 알면 모든 현실을 통해 복음을 영원히 자기 찬송으로 자기 복음으로 만들 것이다.

③ 남의 복음

이 찬송을 항상 현실이 지나간 후에 후회하며 회고적 영감으로만 본다면 복음을 남의 복음으로 구경만 해야 한다.

계7:11

(3) 경배

계7:11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① 경배

모든 영계의 천사와 하나님 앞에 선 24 장로라는 모든 신앙의 앞선 이들과 하나님께 연결된 생명의 신앙들인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성도들에 이어 경배를 드린다.

② 천사

천사는 죄가 없어도 영원토록 우리를 심부름 하는 사환이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죄와 어두움을 거쳐 구원을 받았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들의 위치와 순서가 자녀인 우리 다음이다.

계7:12

계7:12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찌로다 아멘 하더라

추구할 가치

천사들은 늘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셨다. 죄를 거쳐 본 적이 없는 천사들의 입에서 아멘! 그리고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찬송이 나온다. 이것이 영계의 오늘과 내일이며 영원무궁이다. 천사들의 찬송은 우리가 영원히 심부름 시킬 천사들의 모습과 자세를 통해 우리는 그들을 지도해야 할 위치며 우리의 감사가 그들보다 더 커야 하니 오늘 이 땅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떤 눈과 생각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계7:13

계7:13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4) 흰옷 입은 자들

① 확인

이때 24 장로 중에 한 장로가 나와 이 흰옷 입은 144,000명의 성도들을 묻고 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알리기 위해서 묻는 것이며 확인으로 각인을 시킨다. 질문 중에는 반론도 의문도 몰라서 배우려는 질문도 있다. 어떤 질문은 알면서 상대방에게 답을 찾도록 지도하는 질문도 있고, 어떤 질문은 아는 답변을 그 사람 속에서 흐려지지 않고 더 강하게 심는 질문도 있다. 이 흰옷 입은 이들과 장

로는 영계의 사람들이라 모든 것을 안다. 사도 요한도 성령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역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모두가 다시 한 번 복습을 한다. 요한은 영계의 성화된 면 중에서도 가장 밝고 높게 성화된 눈을 통해 요한의 소망으로 다시 듣는다.

계7:14

②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계7:14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설 144,000명은 모두가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 땅 위에 살면서 매일의 현실을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로만 살고 그렇게 살려다 보니 이 땅에서는 외로웠고 힘들었고 사방의 핍박으로 고난을 겪었다. 그래서 이들의 평생은 모두 환란이었고 그 환란을 통과한 요소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선다. 주님이 사할의 피공로로 그 환란을 대신 통과했기 때문에 천국만 들어가는 택자의 기본구원은 그 대속의 공로로 통과된다. 개별적으로 택자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성화의 요소들인 그 실력과 영광은 각자가 직접 매 현실에서 재림하는 주님을 발견한 만큼 모시고 동행한 만큼 달라진다.

③ 피

예수님의 대속은 피로 해결했으니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를 힘입고 그런 피를 흘려도 그 현실에서 다시 오신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고 세상의 박해를 받으며 흘린 그 고난, 그 희생, 그 피가 바로 하늘나라에 갈 나의 요소를 씻어 준 피가 된다. 피는 붉은색이나 주님

의 피는 죄를 씻는 사죄의 세탁이요, 내 멋대로 산 불의의 더러움을 씻어 주는 세척이다. 그래서 피로 깨끗해진다.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

계7:15

(5) 여섯째 인의 전개 과정

계7:15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① 기본 환경

일곱 인을 거쳐 가며 여섯째의 인이 전개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현실에 형성되는 기본 환경이며 신앙의 근본 분위기다.

② 섬김

흰말로 표시한 복음의 성결 운동으로 달려가는 과정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의 격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고 현실을 통과한 이들, 그런 요소들, 그런 생애는 계4장에서 이미 보여 준 영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제일 높은 곳, 영원 무궁토록 절대자 완전자로 통치하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하늘나라의 성전 환경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으니 그들에게 영원무궁토록 그 기회를 주는 것이다.

③ 장막

이 장막은 물질계인 이 땅의 비나 바람을 막는 장막이 아니다. 시공

을 초월한 영계에 무슨 텐트가 있겠는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토록 보호할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와 책임 역사를 장막이라 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의 보호와 안보를 말한다. 신령한 면으로 영원토록 절대자 완전자 불변의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맡을 사명 우리가 누릴 영광이 갈수록 많아지고 커지도록 모든 보호를 베푸는 말씀이다.

계7:16

(6) 주리지 않음

계7:16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찌니

① 신령한 면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으로 살기 위해 매 현실에서 셋째 인을 뺄 때 처럼 주리고 어렵게 고생하던 일이 영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육의 양식으로 주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영계에서 우리는 신령한 면으로 주님의 뜻을 마음껏 알아 만족스럽게 가질 수 있으니 이런 면으로 주리지 않는다.

② 영감

또 성령의 인도에 목이 말라 애타던 이 땅 위의 훈련과 연단도 끝나 이제 죄와 악령과 사망의 휘방이 없다.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넘치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샘물이 되어 넘칠 것이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오류와 부족으로 우리를 연단하는 것도 우리에게 고통을 줬고, 우리의 부족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은혜도 뜨거워 손해가 될 수 있었다. 이제 영계에서는 그럴 것이 없는

요소만 가져왔으니 우리를 고통 주는 옛사람과 잘못된 요소가 없어
그런 일은 없다.

계7:17

(7) 해결

계7:17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① 원인

영계 영원한 보좌에 계신 자존자 절대 완전자 하나님이 모든 해결
의 원인이다. 이 땅 위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2위 성자 하나
님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영계에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완전 자존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면을 책임진 하나님이신 어린 양이 영원토
록 목자가 되어 영원히 부어 주시는 영계의 영원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② 위로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로하고 이 땅 위에서 매 현실마다 세상 좋
은 것에 빠지지 않느라고, 또 세상 위협에 넘어가지 않느라고 고생
한 우리에게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가 넘기 어려운 과정을 무사히
마쳤을 때 위로하듯 영계를 보여 준다.

③ 기록 이유

왜 이런 면을 7장에 기록했을까? 8장과 9장에는 일곱째 인이 열리
며 나팔 재앙이 전개된다. 나팔 재앙은 여섯 인이 전개될 때와 달리

다급하고 혹독하게 진행된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 1장의 특수학교에서 통과하며 느낀 것은 여섯 인이 전개되는 것으로 비교될 수 있고, 그 후 모든 박사를 죽이라 할 때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풀무 불에 집어넣어 버리는 상황은 나팔 재앙으로 비교될 수 있다. 나팔 재앙의 과정을 앞에 두고 7장에서 택자들에게 환란을 거친 다음의 세계를 위로로 먼저 기록해 주셨다.

-요한계시록 8장-

▷ 8~9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중 계시를 기록했고 다급한 7가지 재앙 소개

7가지 세상을 모르면 재앙이나 7가지 세상을 알고 준비하면 복되게 초월

- ▶ 성경 내용 : 기도, 일곱 번째 인(印)=나팔 재앙, 4나팔
- ▶ 계시 내용 : 기도를 주신 뒤 나팔 재앙 시작

계8:1

6. 교회와 기도

8:1

계8:1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²⁸⁾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²⁹⁾하더니

1) 나팔 재앙의 의미

(1) 순서

일곱 인의 마지막 일곱째 인이 열리면 일곱 나팔 재앙이 들어 있고 일곱 나팔을 부는 대로 일곱 대접 재앙이 진행된다.

(2) 연결

① 연결

따라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따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³⁰⁾

② 일정

이 모든 순서는 일정을 따라 기록을 해 주셨다. 일곱 교회들처럼 이 모든 사건들은 매 현실에서 이 순서를 따라 일어날 수도, 순서 중에 빠지고 넘어갈 수도, 순서가 바뀔 수도, 동시에 여러 순서가 포함될 수도 있다.

28) 공개적 재앙의 시작

29) 잠간의 휴식, 준비 기회

30) 인과 나팔과 대접은 우리를 위해 준비와 진행과 결말을 따로 보여 주면서도 이 3가지 하나님의 역사는 별개가 아니라 필연적인 연결이며 인과 관계임을 알리기 위해 일곱째 인과 나팔에는 다음 순서들이 모두 들어 있게 적어 주셨다. 뿌리와 동치는 모든 면에서 다른 형태지만 뿌리 전체의 끝과 동치가 시작되는 접점은 내적으로 연결이며 하나이니 별개가 아니다. 그리고 동치의 전부는 뿌리와 닿은 끝에서 출발한다.

③ 매 현실이 말세

기록은 알기 쉽게 도표화할 수 있으나, 매 현실은 계시록 전체에 해당된 말세다. 계시록의 기록 이유와 방향은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모든 것을 담아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기록 순서만 가지고 매 현실을 읽는 것은 계시록 기록의 목적에서 이탈될 수 있다.

④ 오해

계시록의 모든 순서가 어떤 현실에서도 그대로 다 발생한 경우는 없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우리의 시력이 부족해 그렇다. 제대로 잘 비교해 보면 신구약 66권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없고 어떤 현실도 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이 전개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우리가 잘 보지 못해서 오해를 할 뿐이다.

2) 나팔 재앙과 기도

(1) 현실의 성격

일곱 인을 떼고 성경을 열어 준 6장의 기록들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이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며 어떤 구도인지를 보여 준다.

(2) 내용

그러나 일곱째 인으로 시작되는 나팔 재앙의 내용은 다급하게 몰아치는 현안들이다.

(3) 성격

① 시급성

나팔은 전쟁을 준비하도록 알리는 신호다. 모두가 들어야 하며 지체

할 수가 없다는 시급성을 말한다.

② 권고

나팔 재앙에 기록한 내용은 우리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 다급하게 몰아치니 급하게 대처하여 실패하지 말라는 권고다.

③ 기도

그래서 일곱째 인을 열고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먼저 ‘기도’를 기록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며 하나님을 향한 간구다. 우리의 기도는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천국에서도 영원무궁토록 계속된다. 나팔 재앙이 몰려오는 상황은 특별히 기도할 시점이다. 그래서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를 적었다.

3) 반 시 동안의 고요함

(1) 반 시

여기 시간을 기준으로 절반으로 기록했다. 오늘의 시간으로 짤 수 없다. 한 시가 아니라 반 시라 함은 너무 짧지 않게, 그러나 넉넉하지 않은 시간을 말한다. 여유 있게 생각하고 미룰 일이 아니며 그렇다고 전혀 기도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2)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몰아치는 환경 속에서도 잠깐 숨 돌릴 틈을 주시며 이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다. 끝이 나와 끝이 난 것이며 악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노리고 있다. 열심히 싸우다 아주 방심하며 잠깐 쉬면 그때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 치열한 전투 중에 잠깐 총성이 멈추면 얼른 재정비를 하는 원리와 같다.

(3) 고요

하늘이 반 시 동안 고요한 이유는, 이 땅 위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건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이 땅 위에서 우연히 충돌하거나 누구의 생각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다.

(4) 하늘의 회의

세상에서는 세상으로만 되는 줄 알지만 미가야 선지는 왕상22:19³¹)에서 세상을 운영하는 하늘의 회의를 전했다. 왕상22장에도 계시록 4장의 보좌가 있고 하늘의 만군이 모두 모였으며 그 만군 속에는 아합을 꺾어 죽게 만들 거짓말하는 영도 있었고, 읍기 1장도 그렇게 시작을 한다. 사람을 볼 때 앞에서 보면 안면만 뒤에서 보면 뒤쪽지만 보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다른 머리가 아닌 것과 같이 왕상22장, 읍1장, 계시록 4장의 하늘은 다른 하늘이 아니다. 확실한 것은 마6:10³²)의 말씀으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펼쳐진다는 것이다.

계8:2

4) 나팔 재앙

계8:2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① 성격

31) 왕상22:19,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32) 마6:10,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팔 재앙은 그 내용이 전부가 하나님께서 불택자를 향해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 내는 모습이다.

② 배경

그러나 나팔 재앙이 연결된 배경을 살펴보면 보좌의 하나님, 어린 양의 대속, 성경이 복음으로 펼쳐지는 일곱 인으로 이어지고 이 모두는 나팔 재앙으로 이어진다.

③ 취지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나팔 재앙은 그 모습은 지옥의 일부와 같고 재앙이지만 그 취지와 방향은 복음을 벗어날 수 없다. 더구나 성경은 택자인 중생된 성도의 신앙 건설을 위해 주신 것이지 불택자에게는 해당이 없으며 경고조차 필요가 없다.

④ 기능구원

나팔 재앙은 중생된 우리 안의 요소들 중 그 현실에 해당된 요소가 말씀으로 사용되면 영계에 갈 영생의 요소로 변화가 되고, 그 현실에 해당된 요소가 말씀에 잘못되면 나팔 재앙에 쓸려나갈 부분이 되어 영원히 음부에 던져지는 결정이 되는 면을 가르친다.

⑤ 애타는 심정

매 현실에 한 번만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면 이렇게 버려진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그렇게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애 타는 심정이다.

⑥ 방책

그렇다면 일곱 나팔 재앙의 처참함은 우리에게 말씀을 떠나지 말라

는 하나님의 안전판이며 방책이다.

⑦ 준비

이 땅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심부름하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들고 이 땅 위에 아직도 머뭇거리는 우리 내면과 모든 성도들을 향해 현실은 단번의 기회며 바로 살지 못한 것은 전부 이렇게 된다고 몰아닥칠 때 현실을 준비하고 있다.

계8:3

7. 기도와 구원 역사

계8: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우고자 함이라

■ 성도의 기도

(1) 기도

① 천사

일곱 나팔을 들고 성도의 내면과 현실과 천하를 휩쓸고 갈 천사들은 그들의 할 일을 하는 동시에 성도를 기도하게 한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맡은 천사는 반 시 동안의 순간을 이용하여 성도의 기도를 모아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다.

② 제단 곁의 기도

천사들은 제단 곁에 서서 기도를 모았다. 제단 곁의 기도란 사환의 대속을 위해 피를 흘리며 하는 기도, 그 피를 들고 하는 기도, 그

피를 알면서 하는 기도다. 제단 곁의 기도만이 참 기도가 된다. 남이 수고하고 자기는 구경만 하는 그런 관람식 자세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흘리며 자기 위해 먼저 피를 흘린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실제 눈앞에 두고 기도하는 그 간절을 주님은 받는다.

제단 곁에서 많은 향을 받았다. 향은 향기롭게 만들며 스며들고 번져간다. 맛보는 것보다 보는 것이 넓고 멀리 간다. 보는 것은 가려도 듣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듣는다. 냄새는 은밀히 더 멀리 더 넓게 간다. 우리의 이 땅 위에 기도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영계의 하나님께 번져 올라가는 면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면을 향으로 적었다. 금향로는 불변의 기도를 말한다. 보좌 앞 금단³³⁾은 영계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변치 않는 기도의 세계를 말한다. 계5:8에서 이미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셨다.

계8:4

(2) 향연 (香煙)

계8:4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① 기도

기도는 향연이며, 향연이 기도다.

② 전달

천사가 하나님께 전달한다. 하나님은 완전자니 우리가 직접 상대할 수 없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 자기

33) 기도의 상달

현실에서 이 땅 위의 모든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모두 천사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올라간다.

③ 복

이 면을 알고 또 보면 기도할 것이니 복이다. 그러나 이 면을 모르고 보지 못하면 기도하라 해도 하지 않을 것이니 기도의 복은 없다.

계8:5

(3) 호소

계8:5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① 불붙는 호소

하나님 앞의 금단, 그 금단에 올려져 모여진 기도들, 이 기도들이 계6:9-10의 불붙는 호소가 되어 들끓게 되고 천사가 그 불을 담아 세상에 쏟는다.

② 역사 전개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붙들고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기도를 앞세워 오늘 이 땅 위에 모든 역사를 전개한다.

■ 뇌성의 역사

뇌성의 역사란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를 말한다.

■ 음성

음성은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를 말한다.

■ 번개

번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

■ 지진

지진은 이 땅 위에 갑작스럽게 천하가 변동되는 역사를 말한다.

③ 기도 때문

나팔 재앙의 모든 진노적 사건도 우리의 기도 때문이다. 그런 진노 속에 백마 운동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고치고 살리는 복음 운동도 우리의 기도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로 새로 깨닫고 돌아서는 것도, 또 천하의 별별 변동도 전부 기도 때문이다.

계8:6

(4) 미리 준비

계8:6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잠시 기회를 주셨고 성도의 기도가 있을 후 이 기도를 가지고 일곱 나팔 재앙이 펼쳐진다. 미리 알고 준비하고 기도한 이들은 일곱 재앙이 전부 복일 것이고, 방심하거나 모르고 이 기도의 기회를 놓친 이들은 일곱 재앙으로 자기 심신의 내면을 살릴 기회 3분의 1을 잃을 것이다.

계8:7

일곱째 인을 떼는 후에

1) 첫째 나팔: 물질 과학의 재앙

계8: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1) 피 섞인 우박

① 비

비는 자연의 세계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자연 은혜다. 자연의 은혜는 불신자에게도, 믿는 우리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모두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사55:10에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 종자와 양식을 준다고 했다. 그리고 사55: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나란히 놓고 비교를 했다.

② 우박

비가 얼어서 덩어리로 떨어지는 우박은 날벼락이다. 뭐든지 파괴하며 피할 수가 없다. 자연의 은혜를 자연의 은혜로 받아야 하는데, 인간이 자연의 은혜를 잘 보관하고 잘 활용하는 것은 발전이며 지혜가 되나 어느 정도의 발달과 사용을 말하는지 일괄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오늘처럼 여름을 겨울로, 겨울을 전부 여름으로 무조건 다 바꾸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겨울과 여름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게 되면 비와 눈을 우박으로 바꾸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아이에게 개성을 기르기 위해 발표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어른을 무시하고 이제는 어른은 무조건 내버려야 한다고 시대가 아주 고착이 되면 이

는 어른을 통해 주는 자연의 은혜를 배척하고 우박이 쏟아지는 상황이 된다. 여자에게 사회 활동을 허락하여 기여하는 정도가 지나치 이제는 남자가 전부 여자 되고 여자는 전부 남자가 되는 정도도 비나 눈이 아니라 우박일 것이다. 며느리로 남자가 들어오고 사위라면서 여자가 들어오는 상황이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당당하며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제도까지 고치는 오늘의 상황은 남녀 이성은 하늘이 주는 자연의 은혜며 신앙으로도 가정 교회를 이루는 기본이었는데 이제 우박으로 쏟아지는 것이 아닐까?

③ 피 섞인 우박

우박에 피가 섞였으니 단순한 파괴를 넘어 하나님과 연결된 산 신앙을 무참히 죽이는 대량 살상의 결과를 부른다는 것이다. 과학이 인간을 넘어서고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부모와 자녀, 부부나 남녀 문제의 파괴적 행위가 교회 안에서 또 믿는 나의 내면에 피 섞인 우박 재앙으로 닥쳐진 상황을 살필 때다. 여학생이 하나님의 창조와 여자에게 특별히 맡긴 귀한 사명을 우습게 알고 과학을 이용해서 남자가 되고, 또 여자를 무시한다며 어른들을 자기 사상과 생활에서 쓸어 내 버리고, 사회 활동을 하되 여자의 출산까지 우습게 박차는 상황이 되면 그 여성이 현재 사회의 여성으로는 성공하고 당당한 인간이 되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 기준으로 보면 피 섞인 우박에 그의 신앙은 살해당했고 그의 신앙 건설은 전부 파괴가 된 상황이다.

(2) 피 섞인 불

① 우박과 불

우박과 불이 함께 쏟아진다. 하나는 물이요 하나는 불이라 함께 할 수가 없다. 함께 할 수 없는 재앙이 함께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그들 스스로 원수들인데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깨뜨리려고 나설 때는 역할을 분담하며 하나처럼 움직인다. 앞에 말한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교회가 앞장을 서는 정도다. 사상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모든 세력이 뿔뿔 뭉치는 상황이다.

② 복구 불가

우박은 그냥 깨뜨리지만 불은 태워 없애 버린다. 깨진 것은 수습이라도 하겠고 복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타서 재가 되면 흔적도 없고 복구도 불가능하다. 이 사람이 남자 출신이었는지 여자 출신이었는지 개조도 복구도 치료도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

(3) 현실의 1/3의 피해

① 땅의 피해

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위해 갖는 생활의 배경, 푸른 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는 흔하고 쉽고 간단한 인격들, 소목은 돋보이는 인재들이다. 우리의 신앙에 배경, 인격, 귀한 재목의 3분의 1만 우선 태우고 깨뜨려 버린다.

② 1/3

타버린 3분의 1이란 쉽게 생각할 수 없으나 아직은 3분의 2가 남았다는 소망을 두고 깨우치며 강하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대접 재앙은 분할과 여지가 없이 한꺼번에 다 쏟아진다고 대접이며 실제 재앙이 쏟아지는 표현에도 순식간에 동시에 붓는다.

③ 소망

다급하니 빨리 깨어 준비하여 재앙을 당하지 말라는 촉구다. 실제로 3분의 1씩으로 시작을 하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미 3분의 1을 당했거나 3분의 1 정도라면 차라리 맞고 견딜 수 있을까? 3분의 1이 지나가면 그 다음 다시 3분의 1이 닥칠 때는 총량 손실이 3분의 2가 된다. 다시 한 번 더 오면 전멸이다. 이렇게 숫자로 횡수로 3분의 1을 보지 말고, 나팔 재앙의 경고는 다급하며 안심하고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동시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뜻이다.

(4) 물질 과학의 재앙

① 과학

과거 어느 시기도 원리는 같지만 오늘처럼 과학이 우리 눈에 하나님을 대신 할 수 있겠다는 기술을 보여 주고 또 물질의 풍요로움이 에덴동산을 넘고 천국을 대신 할 수 있겠다고 실감하게 한 적은 없었다. 과학이 지금 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전능이다. 이제는 어떤 신학자도 과학이 할 수 없는 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물질의 넘치는 모습은 에덴동산을 넘어선 지 오래 되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조절해 놓은 자연의 근본 형태와 구조를 전혀 다른 세계가 되도록 현재의 과학으로 인간들이 바꾸어 놓았다.

② 물질

우리에게 좋을 것이 없는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실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개인적으로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하나님께서 물질이라는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필수적인 선을 넘어서면 우박 재앙을 각

오해야 한다. 돈, 건물, 직장, 건강, 교통, 정보, 음식, 주택, 의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신앙을 위해 활용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선과 정도와 분량이 있고 또 시와 때가 있다. 시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 교회가 돈과 기술이 있다고 예배당을 불신자의 미술관처럼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종교라는 최소한의 조심을 넘어 극장식 의자로 회장님이 앉는 좌석을 만들고, 목사는 그들을 위해 무대 공연을 하는 상황이 되고, 목욕탕을 만들고, 불신 서적을 갖다 놓고, 학습방을 제공한다면 이미 선을 넘은 것이 아닐까?

③ 원칙

구약과 달리 신약은 개별성 자유성이 있어 제한선이나 한계를 정할 수는 없으나 원칙은 있다. 각자 자기 신앙과 영생의 복을 마련하기 위해 잘 생각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선택은 본인들과 각 교회가 하지만 결과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한다.

계8:8

2) 둘째 나팔: 도덕 인류의 재앙

계8:8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1) 불붙는 큰 산

① 산

산은 땅 위에 솟아 있다. 땅은 안정적이며 든든해 보이는 도덕적인 세상이고 바다는 출렁이며 누구든지 삼켜 버리는 위험한 죄악의 세상이다. 견전하고 견실하여 우뚝 솟구친 도덕의 인물이나 유명한 사

상가들을 말한다.

② 불

여기에 불이 붙었다면 멀리서도 잘 보이고 누구에게나 환하게 비칠 것이다.

③ 바다

이런 인물과 사상들이 지난날의 명성과 걸음을 바꾸어 최악의 바다에 빠져 바다의 1/3이 피가 되어 죽음의 바다가 된다. 또 바다 생물의 1/3이 죽고 바다를 이용하며 활동하는 배들의 1/3이 깨져 침몰을 하게 된다. 어떤 경우일까?

④ 바다의 1/3이 피가 됨

인권 운동이 과거에는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했다면 지금은 강아지와 사람을 동등한 존재로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뒤섞기에 광분하고 있다. 역사 이래로 불신 세상조차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용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인권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상황이다. 이 정도라면 바다의 1/3이 피가 된 것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근검절약을 가르치고 공부를 강조해 왔고 이것이 인간과 세상의 본성에 맞고 또 신앙생활에도 자연 계시로서 참고가 된다. 그런데 학생에게 공부를 하지 않고 놀고먹고 주색잡기에 빠뜨리는 것을 학교와 교사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앞장을 서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남녀를 뒤섞는 교육을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 기준으로 역사 이래로 지켜 온 도덕, 사상, 인륜의

근간과 원래 창조한 자연에 가깝다고 성경도 인정해 온 것이 죄악의 바다에 통째로 던져지게 되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2) 바다의 1/3

① 바다

죄악의 세상이지만 바다 속에도 건져 올릴 생명 운동이 있다.

② 죽음의 바다

바다라는 세상 환경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3분의 1의 범위는 아주 희망이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된다.

계8:9

③ 바다 1/3이 피

계8:9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지더라

■ 바다 생물

바다 생물 1/3은 죄악 바다 속에 버려져 있지만 그 나쁜 습관이며 사상이라도 잘 바꾸면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욕심도 있고 애정도 있다. 심지어 도적도 도적질만 버리면 도적 속에 들어 있는 부지런함과 눈치는 살려내어 좋은 곳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아주 희망이 없게 된다. 공산주의 사상도 남을 생각하는 동기는 좋다. 방법이 문제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라는 죄악의 바다 안에도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은 잘 사용해야 할 것인데 이마저 아주 못 쓰게 된다는 것이다.

■ 배

바다에는 물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배가 있는데 그 1/3이 깨어진다. 교회도 죄악 바다를 건너가는 배와 같다. 우리의 가정 교회도 개인 교회도 그렇다. 오늘 우리의 인격, 생활, 교회는 모두 죄악의 세상 속에서 물들지도 젖지도 침입을 받지도 않고 저 건너편 천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일에 사용되는 운반 수단이 깨어진다.

계8:10

3) 셋째 나팔: 햇불 같은 별

(1) 교회의 큰 유혹

계8:10

세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삼분의 일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① 탈선

첫째 나팔은 물질의 과학 문제라면, 둘째 나팔은 그보다 위에 있는 인간성 도덕계의 탈선이다. 셋째 나팔은 그 위에 있는 신앙 세계의 탈선이다. 신앙 세계 중에서도 지도자들의 탈선, 그 지도자들 중에서도 교계를 주도하고 모든 교인들의 관심을 집중 받는 최고 지도자들의 탈선 문제다.

② 별

햇불은 갑자기 솟구치듯 타오르며 갑자기 불길이 없어진다. 별은 하늘에 속한 빛이니 이 땅 위의 인간과 세상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 주는 빛이다. 별은 계1:20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다. 내 속에도 별과 같은 요소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면 이것이 마치 성령의 능력으로 착각하기 쉽다. 다윗이 골리

앗 때 갑자기 햇불처럼 타오르며 빛을 냈으나 알고 보면 남몰래 세월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맹수와 맞붙어 싸우는 헌신과 충성의 결과다.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성이 자라다가 때가 되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드러내고 역사를 하신다. 모세도 80년을 기다린 후에 여러 기적을 베풀었다. 교계든 내 속에서든 힘도 들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는 큰 빛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려 바르게 비추는 빛인지, 빛 같은데 실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타락

교계의 지도자가 인간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기회를 잡아 갑자기 교계의 중심이 되고 시대를 주도하면 모두가 환호하고 좋은 면만 보고 부러워하나 모두의 관심을 끌어온 다음에 세상이라는 땅으로 떨어지면 이것은 타락이다. 이런 타락은 그 인물과 그를 쳐다보며 환호하고 마음을 빼앗긴 모든 이들을 한꺼번에 몰아다 세상에 던져 버린다. 물질과학의 오용과 남용도 문제고 인간적인 근본이 무너지는 것은 더 큰 문제지만 교계가 의지하고 환호한 어느 한 인물이 알고 보니 세상 식이고 땅의 복음이며 불신 사회의 방법으로 교계를 끌어 내리면 이 영향은 측량하기 어렵다. 미국의 로버트 솔러 목사님의 복음운동은 전 미국과 세계를 뒤흔들었다. 어느 날 인간의 심리적 파악을 통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구 밀어붙이면 된다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나오고, 그 속에 하나씩 순종하며 자라가는 것과 복음이 보이지 않음으로 대부분의 한국 초대형 교회를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을 이 땅 위로 끌어 내려졌는지 모른다.

④ 은사주의

교계도 그렇지만 우리는 내 속에 어느 날 노력 없이 쉽게 그런데 너무 환하게 출현하는 어떤 이상이나 신비로운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붙들고 특별한 은사라면서 이 면으로 주력하기 쉽다. 그렇게 하여 한국 교회를 뒤흔든 기도원 운동, 은사 치료, 여러 종류의 전도 운동들도 많았고 세월 속에 땅의 것으로 종결된 것도 적지 않다.

(2) 강들의 1/3, 여러 물샘

하늘에서 빛을 발하여 모두를 집중시킨 이 별이 땅에 떨어지고 그 인물의 본질은 세상 것이다. 그것이 교인들에게 신앙의 생명수를 공급해야 하는 큰 물줄기와 곳곳의 작은 물 근원에 떨어지면서 그 물을 마시는 이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아닌 이 땅 위에 인간의 것이며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신앙의 것으로 알고 마시니 신앙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다.

계8:11

(3) 썩

계8:11

이 별 이름은 썩이라 물들의 삼분의 일이 썩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별 이름은 썩이다. 신앙에 단물, 좋은 물, 생명의 물을 공급하지 않고 신앙을 손해 보고 절단 내는 독을 푼 것이니 썩물이다. 그 쓴 물에 신앙들이 절단 난다. 여기도 1/3이라 함은 소망을 두시면서 적지 않은 수가 신앙의 손실을 크게 본다는 뜻이다.

계8:12

4) 넷째 나팔: 하늘의 파란

(1) 신령한 세계의 흑암화

계8:12

네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침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① 해, 달, 별의 1/3이 어두워짐

이 땅 위에 교회가 어두워지고 영망이 된다 해도 하늘에 빛이 있어 신령한 면이 버터 준다면 소망이 있겠는데 넷째 나팔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해와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하는 달과 참된 종들로 표시 되는 별의 1/3이 어두워진다.

② 다급함

그러니 나팔 재앙은 일곱 인과는 그 차원과 그 손실의 다급함이 다르다.

③ 방심

하나님 자체는 불변이며 영원한 빛이다. 그러나 매 현실이 종말인 줄 모르고 자기 신앙으로 그 현실에서 바르게 살아야 할 면을 방심하여 물질 문제, 인간 기본 문제, 신앙의 지도자들의 문제에 쉽게 휘둘리면 이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멀어지고 교회에 대한 기대도 노력도 흐려지고 참된 신앙의 별들에게도 시험이 들어 신앙에 감동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신앙 전체가 급속히 어두워지게 된다.

④ 비침이 없음

낮이 비침이 없다는 것은 진리의 역사가 후퇴되는 것을 말한다. 신사참배 환란 때처럼 밤이 되어 비침이 없어지는 그런 중에도 진리운동은 어디선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마저 없어진다.

계8:13

(2) 흑암화가 된 후의 상황

계8:13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① 황충

물질 문제, 인간 문제, 거짓 선지자의 문제, 교회의 본질 문제가 차례로 지나면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황충이 무저갱에서 그 모습을 드러난다.

② 유브라데 강

그 다음에는 유브라데 강에서 막혔던 세상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어 온다.

③ 대접 재앙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신앙으로 준비하며 막을 수 없는 대접 재앙들이 쏟아진다. 이것은 눈을 뜨고 그냥 쳐다만 보지 막을 수 없는 상황들이다.

④ 긴장

아직까지는 나팔 재앙이니 긴장하고 다급하게 준비할 때다.

⑤ 독수리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넷째 재앙이 끝난 후에 우선 공중에 독수리를 띄워 경고를 주신다. 위에서 아래를 향해 앞에 4가지 재앙과 아주 다른 재앙들이 온다고 알리며 우리 심령을 깨워 주시니 우리가 다시 살피야 할 문제들이다.³⁴⁾

- 요한계시록 9장 -

계9:1

5) 다섯째 나팔: 사육의 고통

(1) 자기 속의 무저갱

계9: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①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는 계12:8, 유1:6에서 영계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 사단과 그와 함께 쫓겨난 천사들 즉 세상에 들어와 활동하는 마귀와 귀신의 이름이다. 땅에 떨어졌으니 공간적으로도 영계에서 물질계로 떨어졌고 동시에 가치적, 존재적, 활동

34) 넷째 나팔 뒤에 세 나팔 때문에 화를 3번 말한다. 나팔은 2/3의 소망을 주시는데 이 2/3를 방종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다. 전멸 재앙이 닥친다는 또 경고들이다.

적인 모든 면으로 타락이다. 타락한 천사가 이 땅 위에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며 죄를 짓게 한 모습이 곧 영계에서 그가 죄를 지었던 모습으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대적한 모습이다.

② 자기중심

인간을 죄 짓게 하는 방법 중 가장 효력 있는 것이 자기중심이며 그 죄가 돌아오면 필연적으로 욕심의 형태가 앞에 서서 돌진하게 된다.

③ 사욕

자기중심의 욕심을 줄이면 사욕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④ 사욕의 무저갱

그런데 귀신이 내 속에 사욕이라는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졌다. 하나님이 만든 만물 중에 자기를 중심으로 처음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중심의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인 악령이다. 자기중심은 수많은 죄의 모양 중 하나처럼 보이나 그 수많은 죄들을 만들어 내는 죄의 공장이다. 종자적 죄다. 인류의 첫 죄가 바로 선악과를 먹은 죄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차원이니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으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아담은 선과 악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를 기준으로 선이라 악이라 하게 되었다. 이 죄의 본질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다. 인간이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살게 되는 그 출발이며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다.

⑤ 무저갱

자기중심이 모든 죄의 시작이며 근본이라면 이것은 본질의 문제다. 이 자기중심은 조용히 있지 못하고 발동하여 모든 것을 끌어모으며 자기 것을 만든다. 이것은 필연이고 이 면을 자기중심의 욕심이라고 하고 사욕으로 줄여 표현할 수 있다. 속은 자기중심이고 겉은 사욕이다. 본질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주로 삼고 모든 주변 접하는 것은 전부를 제 것으로 만든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느 지경까지 그렇게 할까? 끝이 없다. 그래서 무저갱이다.

⑥ 무저갱의 속성

무저갱은 크게 3가지 속성이 있다. 일단 그 용량이 끝이 없다. 그리고 그 용량은 갈수록 빨아들이고 용량을 키워 가고 가속도가 붙는다. 처음에는 3끼 밥만 먹어도 소원이 없겠다며 작은 욕심 그릇을 내보인다. 바닥이 3끼 음식이며 이 그릇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그릇을 채우고 나면 어느새 음식의 질을 채워야 하는 다른 빈 공간이 보인다. 음식이야 요즘 세상에서는 원하는 대로 모두 채워 줄 수 있다. 음식이 해결되었다 싶으면 옷으로 명예로 다변화를 시작한다.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갈수록 허기를 더 느낀다. 천하를 다 삼켜도 차지 않는다. 무저갱이란 그 궁극의 규모를 말했고, 우선 전체 규모가 보이는 그릇은 채울 정도로 보이는 것은 끝없이 추락하도록 끌어들이는 착시일 뿐이다.

계9:2

(2) 심령을 우선 어둡게 만들고

계9:2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① 분위기 조성

물질의 통제가 무너지고 인간의 선이 붕괴되고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의 근본이 흐려지면 교회를 철저히 삼키며 아프게 만들 분위기가 조성된다. 황충이 나와 설치도록 먼저 그 분위기가 조성된다. 상어는 실개천에는 살 수 없고 태평양처럼 큰물에서 산다.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물질에 피동이 되어 인격과 신앙이 흔들려 어두워지면 귀신이 무저갱을 열어 버린다.

② 심령이 흐려짐

이 단계에서 돌아서고 그 뚜껑을 막지 않고 쉽게 생각하면 무저갱에서 사육을 계산하며 사육을 손해 보지 않아야 한다는 연기가 나와 자기 심령을 흐려 놓는다. 교회는 그 교회의 전체 분위기를 흐려 놓는 방향으로 설교도 행정도 교인들의 분위기가 돌아간다.

③ 풀무 연기

처음에는 조금씩 나오지만 풀무 연기 같이 순식간에 주변을 모두가리며 번져 나간다. 예전에는 풀무를 쉽게 볼 수 있어 이 해석이 어렵지 않았다. 지금은 아예 없다. 그러나 해와 공기를 가려 버렸다는 말씀에 쇠를 녹이는 풀무 불 연기를 적었으니 우리는 다른 종류의 불과 연기로 생각할 수 있다.

④ 연기가 해를 가림

연기가 해를 가렸으니 사방이 모두 어두워졌다. 자기 마음의 분위기, 교회의 전체 방향, 교계의 흐름을 우선 말씀한다. 주를 위해 앞

다투어 달려갈 때는 날씨가 흐려도 심령들은 맑고 푸르다. 그 사람과 그 교회와 그 시절의 교계가 진리에 성령의 인도로 신령한 것을 구별하고 선택하는 일은 온 세상이 연기로 가득 차서 하늘을 볼 수 없다 해도 주저할 것이 없다. 그런데 모두가 자기중심으로 돌아서면 서로 남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는 남의 덕에 쉽게 살며 많이 가지고 자기 명예와 권세를 키워 갈 마음을 먹게 된다. 이런 마음만 먹어도 벌써 그 사람의 심령이 어두워져 나귀도 보던 천사를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사울도 왕권과 명예에 눈이 멀어 다윗을 죽이려 다니다 진리와 성령은 멀어져 나중에는 귀신을 찾아 나서게 된다.

계9:3

(3) 어두워지면 사육이 등장

계9:3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① 황충

자기중심의 눈을 뜨게 되니 심령이 흐려져 구별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주변을 끌어모으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사육의 실체다. 이때 황충이 그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낸다. 황충은 요엘1:2에서 팻종이가 먼저 먹고 지나가면 메뚜기가 먹고, 그 나머지를 늦이, 그리고 모두가 쓸고 간 곳에 황충이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다고 했다.³⁵⁾

② 떼

35) 요엘1:4, 팻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늦이 먹고 늦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사자는 한 마리만 나타나도 그 지방 전체가 떨며 두려워한다. 메뚜기 한 마리는 손가락만하니 먹어 봐야 아무런 해가 되지 않으나 떼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지나가면 남는 것이 없다. 황충도 그렇다. 메뚜기 떼가 남긴 것을 더 남을 것도 없도록 쓸어 가는 면에서 볼 때 메뚜기처럼 숫자가 많으며 지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 있는 사육이다.

③ 사육

어디 한두 곳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만족하면 끝이 나는 정도가 아니다. 달지 않는 곳이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 생명에 속한 것은 전부 값아 먹어 버린다.

④ 한 번 열면 달지 못함

황충은 무저갱에 갇혀 있어야 한다. 나팔 재앙의 순서로 살피면 물질과 과학을 정도 이상으로 누리게 되면 사람이 못 쓰게 되고, 인격이 흔들리면 미혹하는 지도자로 인해 신앙들이 세상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신앙의 세계가 기본적으로 흐려진다. 그러면 이제 자기 속의 사육이라는 무서운 원수를 악령이 손을 대고 우리는 방심하여 그냥 지켜보고 오히려 귀신이 흔드는 사육을 옆에서 돕기도 한다.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본 것이다. 남들이 그렇고 시대가 그러니 나도 그냥 있을 수 없다며 호응을 한다. 또한 자기가 자기를 꾸미며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인간의 기본 본능이며 그런 욕구를 잘 이용하면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러는 사이에 자기중심의 사육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사육의 속은 처음에 볼 때는 대충 채워 주면 채워질 듯 보이나 사육은 한 번 열면 달지 못한다. 이제 3절에서 때가 되니 사육이 정체를

드러낸다.

⑤ 전갈의 권세

연기 속에서 문득 본 황충은 처음에 우습게 볼 수 있으나 유심히 보니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 그 많은 수의 황충만으로도 생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터인데 전갈과 같은 독침까지 더하여 가졌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계9:4

(4) 사육의 통제

계9:4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① 제한적 활동

그런데 이 황충에게 활동의 범위가 제한된다.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므로 어떤 죄와 사망도 사단의 활동도 무제한은 없으며 사단도 하나님이 한정해 놓은 범위 안에서만 활동한다.

② 생명력을 갹아먹음

원래 이 땅의 푸른 식물을 모조리 먹어 치우는 이 황충에게 나의 생활 속에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신령한 생명을 먹어 치우고 또한 나를 고통 주는 면에 주력하게 하려고 그 가진 원래의 기능을 중단시켰다. 신앙과 상관없는 사람 속에 있는 푸른 것은 두고, 믿는 사람의 신앙의 소망과 생명력만 갹아먹도록 방향을 전환시켰다.

③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함

■ 사육이 주는 고통

다섯째 나팔 재앙 때문에 나온 황충은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한다. 사육이 주는 고통은 성령에 붙들려 사육을 초월한 사람과 그 사람의 성화된 심신의 요소에게는 고통을 줄 수 없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사육 때문에 모두가 평생 고생을 하고 사육이 강한 사람이 수많은 고초를 자초하는 것을 본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 주는 하나의 견본일 뿐이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믿는 사람이 사육을 허용하고 복돋우며 자기중심의 욕심을 쉽게 생각하고 풀어 놓으면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매 현실을 한 번뿐인 종말로 맞아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자기 신앙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교권을 갖기 위해 교회 안에서 세상의 선거 운동처럼 뛰어다니는 사람들, 주일에 돈을 더 벌려고 움직이는 사람들, 자기를 말씀으로 꺾지 않고 오히려 체면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며 이들이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 요소별

그런 부분 그런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한 사람 단위로만 보지 말고 한 사람 속에서도 요소 별, 기능 별, 시간 별로 인정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이 있음을 봐야 한다.

■ 야곱

야곱의 축복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을 쳤지만 야곱의 빛나간 아내 사랑은 1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인정받지 못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잃고 고통을 겪었고 마침내 시므온에 이어 베

나민까지 잃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야곱이 초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결혼하여 자녀들을 사랑하면 될 터인데 사육의 기준에 맞춰 끝까지 편애가 계속되자 하나님은 이를 고치기 위해 다섯째 나팔의 고통까지 동원해서 고치셨다.

계9:5

⑤ 5달 동안 괴롭게 함

계9:5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쏘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 고통의 기간 한정

다섯 달 동안으로 고통의 기간을 한정해 놓았다.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돌려세우는 것이 목적이니 징벌과 심판의 보복이 아니다. 고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읊을 시험할 때도 먼저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했고 다음에는 죽이지는 못하도록 한계를 정해 놓았다.

■ 구원 역사의 단계

우선 보면 재앙과 불행이나 더 넓게 더 멀리 따져 보면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역사의 단계다.

■ 5달

사람의 한계를 10이라 하면 다섯 달은 그 절반이다. 우리 인생의 절반이 사육에 붙들려 없어지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었는지 돌아보면 허무하게 느끼게 만들어 주신다. 눅15장의 집 나간 둘째의 탈

선의 세월과 고통의 과정 기간도 다섯 달이다. 다섯 달이란 시간적 달력의 5개월이 아니라 보람되게 바로 살아야 할 소중한 기회인 반을 의미하고 그 반을 손해 본다는 것이다. 또한 살려야 하기에 고통의 수준도 죽기까지는 못 하게 한다. 생명의 운동을 위해 돌려세우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계9:6

(5) 사육이 주는 고통

계9:6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① 죽을 고통

전갈의 권세를 주셨으니 고통의 정도는 전갈이 사람을 쏘 때의 고통과 같다. 사육이라는 황충에게 당하는 고통은 죽을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죽지 않게 막아 놓았기에 죽지도 못한다.

② 계시의 목적

이것을 계시로 보여 주는 것은 차라리 죽고 싶으나 죽지도 않고 죽을 고통을 겪으니 ‘사육으로 죽을 고통을 겪으면서 죽지도 못하고 고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육을 자기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 뚜껑을 덮고 그 사육을 먼저 죽여 버릴 것인가?’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 사활의 대속이 있기 때문이다. 믿는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항상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③ 선택

선택할 두 가지가 비슷해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택해야 한다. 알고 보면 하나는 영생의 영광의 길이고, 하나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영원한 사망의 고통의 길이다. 오늘 땅에서 잠깐 좋아 보이는 것은 우리를 꺾는 미끼일 뿐이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아는 사람은 사욕을 복돋우거나 그 무저갱을 여는 악령을 도울 수는 없다. 선악과의 훗날을 겪어 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지 결정하게 되는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결코 먹지 않을 것이나 되돌아갈 수 없으니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자유성의 존재인 우리가 겪지 않고도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순종하면 영생을 주시지만 그 자유성으로 무저갱을 열면 그 뒤에 이어지는 연기와 황충의 고통은 남에게 떠넘길 수 없고 선택한 본인이 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달아 바르게 선택하는 복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며 제일 먼저 가져야 할 복이다. 우리는 이 복을 늘 소망해야 한다.

계9:7

(6) 사욕의 공격성

계9:7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① 말들

황충의 존재 형태는 자연 환경에서 떼를 지어 푸른 식물을 갉아 먹는 것이다. 그런데 사욕을 황충으로 비교한 계시록에서는 사욕의 고통에 전갈의 쏘는 혹독한 고통을 더했다. 이 사욕이 풀려 자기 속에서 발동하기 시작하면 그 준비가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과 같다. 훈련되고 준비된 전마들, 살육의 전장을 향해 달려갈 만반의 준비가 되어 명령만 떨어지면 돌진하는 용맹하고 힘이 넘치는 모습처럼 황

총이 쏘고 갈 우리의 심령과 교회의 신앙 환경이 그렇게 짓밟힐 것이다. 나훔3:2~3에서 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표시해 주셨다. ‘헉헉 하는 채찍 소리, 굉굉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이 모습이 사육이 황충처럼 떼로 몰려다니는데 그 넘치는 독기는 이런 전장 터의 전마와 같다. 여기 기병, 병거, 채찍 소리들이 모두 전마들에 대한 것이며 ‘충돌하는 기병’은 일방이든 양방이든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의 실전을 실감하게 적어 주셨다.

② 사육의 발동

사육이 발동하면 예수님도 은 30에 팔고,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세상을 들쭉시며 돌진한다. 오늘 인생과 교회와 교단의 모습을 통해 왜 저런 모습 생각 하나에 충동이 되어 저런 짓을 할까? 기가 막히지만 사실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

③ 사육의 달성

그런데 이 사육들의 달려가는 길에 우선은 사육이 원하는 대로 거머쥐게 되니 사육의 발동은 모두가 사육의 달성으로 사육이 만족하고 사육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그래야 사육이 신이 나서 더욱 달려갈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그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④ 금 같은 면류관

사육의 마지막은 영원한 음부인 지옥을 향하지만 일단 이 땅 위에 서는 사육이 달성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독하고 악하게 자기를 중

심으로 살면 당장에는 나아 보이고 이를 ‘면류관’이라 한다. 일반 면류관이 아니라 ‘금 같은’ 면류관이다. 금은 아니나 금과 같아 보이고 영원한 승리처럼 보인다. 정권을 잡을 기회가 올 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잡아 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으나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것이 드러나 모두 뒤집어진다. 잡을 때는 변치 않는 승리처럼 보이므로 금 같은 면류관이라 했다.

⑤ 금 면류관

영원무궁의 진정한 금 면류관은 계4:4의 보좌 앞에 둘러 있는 24 장로들이 쓰고 있다. 이 땅 위에서 사욕을 꺾기 위해 당한 고난과 사욕을 죽이느라 죽은 그 요소, 그 신앙, 그 생애가 변치 않는 금 면류관이다.

⑥ 사람 같은 얼굴

황충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고 했다. 끌어모으는 과정에서는 사납고 흉측했으나 자기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아 자기를 치장하여 높이고 좋게 해 놓은 후 구호도 하고 인심도 쓰며 자기 명예를 관리하게 되면 좋은 인격자의 사람 얼굴처럼 보인다. 심지어 사랑과 봉사의 신앙인처럼도 보일 수도 있으나 그 속의 본질은 황충이다.

계9:8

⑦ 여자의 머리털과 사자의 이

계9:8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여자의 머리털은 여자를 단장하는 치장이다. 자기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채워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 멀리서 봐도 머리털을 치장한 여인처럼 아름답게 보인다. 그런데 잔인성도 함께 있는 사육의 정복성은 사자의 이 같아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한번 물면 반드시 뜯어내고 만다. 이것이 사육의 본질이다. 동지나 부모조차 물어뜯고, 심지어 자기 교단의 교리조차 뜯어 먹고 배 불리는 경우가 흔하다. 멀리서 보면 단장한 머리카락이 먼저 보이거나 가까이 가서 속을 보면 잔인한 맹수성과 정복성의 사자의 입이다. 독버섯처럼 보기는 좋으나 속은 죽이는 독이다.

계9:9

⑧ 철흉갑

계9:9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 사육에게는 철흉갑이 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해도 사육의 제일 핵심 가치는 지켜 낼 수 있도록 갑옷 위에 다시 흉갑을 걸쳤다. 철흉갑이면 어떤 것도 뚫지 못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철흉갑 같다 했으니 무적은 아닌데 그 사육이 아침 해처럼 솟구쳐 오를 때는 그렇게 보인다. 역사의 세상 정복자들이 그러했고, 학자들의 학문에 대한 욕심도 여기 해당될 수 있다. 믿는 우리를 위해 기록해 주셨으니 세상의 사례를 볼 때는 내 속의 나의 신앙 문제를 참고하는 데 그쳐야 한다.

■ 사육의 핵심 가치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뭐든지 가져오는 것이 문제였다. 이 목적을 위해 야곱은 무엇이든지 내 줄 수도 손해도 볼 수 있었으며 손해 보는 척도 했다. 자기를 중심으로 주변 그 어떤 것이든지 가져오는 사육의 핵심 가치만은 끝까지 변치 않았다. 그 과정에 필요하면 우선 좀 내어 줄 수도 웃어 줄 수도 있고, 전도를 할 수도 연보를 할 수도 있으며, 일부 손해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꼭 가지고자 하는 내 속의 사육은 어떤 사육일까? 명예욕을 중심에 둔 이는 이것을 철혈갑으로 방어하는 대신 돈이나 땀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돈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면 명예조차 상대에게 물어뜯으라고 던질 수 있다.

⑩ 날개의 소리

황충은 곤충으로 날개가 있다. 파리와 모기 같은 작은 곤충들도 날 때 소리가 난다. 이보다 더 큰 곤충인 황충은 그 소리가 더 클 텐데 떼로 몰려다니니 그 소리는 엄청나다.

⑪ 소리

■ 전마와 병거 소리

그 소리는 전장으로 달려가는 전마와 같고 병거와 같다. 어떤 소리일까? 나훔3:2~3에서 ‘굉굉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으로 짐작할 수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험과 부상과 피해를 감수하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육은 목표를 향해 오로지 돌진을 한다. 정권에 야욕을 가진 이들의 돌진하는 과정에 수많은 분쟁과 충돌과 곡소리가 일어난다. 20세기 대부분 기간에 공산 세상을 만들고 싶은 불로소득의 야욕이 세계 절반에 남긴 수없는 탄압과 공포와 전쟁의 소리도 여기 들어간다.

■ 잡음

그런 소리보다 한 개인의 마음에 사욕이 들끓어 오르면 이것이 원인이 되고 주변에 알게 모르게 수 없는 분쟁을 낳는다. 여자가 남자를 머슴으로 삼아 자기 인생을 편하고 좋게 살아 보려는 순간,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차지하고 자기 편하게 살려는 순간, 상대와 주변과 양가에는 이런저런 많고 많은 잡음이 생긴다. 한 회사가 생존욕을 위해 분투하면 그 회사 내에서는 경쟁력을 높이려고 교육과 관측과 불꽃 튀는 근무가 있고 타 회사와는 생존경쟁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 선악과 하나를 먹은 후에 생긴 인류의 모든 소음은 다 사욕 하나가 남긴 잡음이다.

■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말이란 그 자체가 운동이다. 아프거나 배고프지 않은 말은 그냥 있지 못하고 그 힘이 소진될 때까지 무조건 뛴다. 먹은 만큼 가진 에너지 전부를 사용하여 사방으로 뛰고 본다. 전장으로 달려가는 전마나 군마의 소리와 같다고 사욕을 말로 비교한 것은 그 사욕이 채워질 때까지 뛴다는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아 세울 때까지는 계속되며 가는 곳곳을 밟아 패이게 하고 짓밟으며 휘젓고 다닌다. 조용히 걸어가며 일하는 소나 양과는 다르다.

계9:10

(7) 사욕의 독침은 그 훗날에

계9:10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① 독침

떼로 다니며 생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황충’을 앞세워 기록하였다. 사육이라는 이 황충은 천하를 쓸고 충돌하는 면이 전쟁으로 달려가는 말과 같으니 이 면을 앞에서 적었다. 이 황충은 생태계의 황충에 없는 쏘는 독침, 꼬리에 살이 있다. 꼬리는 뒤에 있다. 사육이 지나간 뒤, 사육이 움직인 후 결산을 하고 그 뒤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고통을 주는 독침이 있다.

② 공산주의 황충

가난한 농민들에게 천하 부자를 학살하고 나눠 먹자는 공산주의가 황충 떼가 쓸고 가듯 세계를 휩쓸었다. 그러나 그 꼬리를 보니 부자 밑에서는 얻어먹기라도 했었는데 이제 먹고 살 것도 없어 전부 굶어 죽는 상황이 되었다. 예전의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가 풍부하고 앞섰으나 지금의 북한은 황충의 꼬리에 전갈이 쏘는 독침처럼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온 세계에 보여진다.

③ 자기 내면의 황충

공산주의 황충만 그럴까? 우리 속에는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자기 내면의 자기 식 황충이 있으니 이런 외부에 보여 주는 상황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법이다. 공산주의를 없애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나서는 것은 자본주의 자유주의라는 세상이 할 일이지 기독교가 나설 일은 아니다.

계9:11

② 아바돈

계9:11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황충에게 두목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다. 그 이름을 히브리 모국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라는 세계어로 말하면 아볼루온이라 한다. 그 이름이 황제든, 재벌이든, 만국 평화든, 만민 인권이든, 종교 통일이든, 자기 성취든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것은 계17:8에서 무저갱에서 올라와 명망으로 들어갈 자라 했으니 무저갱의 최후는 지옥이며 ‘멸망’이다.

□ 계속되는 독촉

계9:12

① 이어지는 재앙들을 비교

계9:12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다섯째 화가 지나갔으면 따로 적지 않아도 여섯째 화가 닥칠 터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다섯째를 맞고 보니 다섯째 재앙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 정도에 그쳤다 할 만큼 다섯째 재앙은 전멸적 재앙이었다. 그런데 여섯째 재앙은 다섯째와 비교할 수 없이 다급하고 전면적이며 일곱째 재앙은 그 재앙 하나 안에 일곱 대접 재앙이 들어 있고 이 일곱 대접은 아예 준비할 틈도 주지 않는다.

② 재앙의 가속성

■ 가속의 원칙

세상 재앙은 처음 맞을 때가 아프고 두렵지 계속되면 적응이 되면

서 무감각해진다. 매도 그렇고 배고픔도 그렇고 불명예도 그렇다. 하나님이 마음먹고 몰아가시는 신앙의 세계는 가속의 원칙이 있다.

■ 진행 속도

계22:11에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 되게 하라 했기 때문에 단순히 현 상황이 지속된다고 읽기가 쉽다. 기계는 그냥 보존하면 그대로 지속되나 생명체는 그대로 중단되는 법은 없다. 자라면 계속 자라고 늙으면 계속 늙어진다. 깨끗을 유지하면 더욱 깨끗해지고, 더러움에서 나오지 않으면 더 더러워진다. 그런데 그 진행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가속이 붙는다. 그래서 이 성구는 말세에 자기를 더럽게 유지하면 갈수록 더 더러워지고,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면 갈수록 점점 더 거룩하게 된다고 읽는 것이 맞다.

■ 다니엘서의 말세 기록

계시록과 함께 오늘 우리의 매 현실을 말세적으로 기록한 것이 다니엘이다. 단12:4에서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했다. 실제 상황을 봐도 수레가 19세기까지 육상 운상을 도맡다가 자동차가 나오자 하루아침에 다 바뀌었고 이후 비행기와 우주선이 나오며 그 속도와 발전은 과거 수천 년의 기간이 지금은 순식간에 대신한다. 인성의 황폐도 그렇고 신앙도 교회도 마찬가지다.

■ 말세 시작과 종결

계12:12에서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 이 땅 위로 내려가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다 했으니 예수님의 사할 대속이 완성하며 말세는 바로 시작이 되었고 매 현실이 바로 말세로 종결되는 줄을 아는 상황에서 마귀의 바쁜 마음을 생각

해 보면 우리처럼 여유가 있을까? 예수님의 구원 역사도 바쁘게 진행되며 여기에 따라 마귀도 그렇다. 구원의 운동과 멸망의 운동이 매 현실도 최종이므로 치열하고, 역사 전체적으로는 최종을 향해 더욱 치열하다.

■ 말세지 말

역사의 모든 죄가 다 쏟아져 나왔다고 보이는 지금이 말세지 말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이 세상의 죄악은 여기에 과연 어떤 죄를 더 더해야 더 큰 죄를 짓게 할지 짐작이 어렵다.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 그럴 수도 있으나, 더 많고 더 크고 더 악한 죄는 나온다 해도 그렇게 효력이 없을 듯하다. 우리나라는 매를 100대까지 때리고 성경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한계로 둔다. 우리나라의 매 100대와 이스라엘의 39대라는 매는 그 이상이 될 때 죽이는 사형이 될 수 있어 사형 선고가 아닌 이상 여기까지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정도를 맞고 나면 이후로는 천 대 만 대를 때려도 이미 신경이 다 죽거나 마비가 되어 아무 의미가 없다. 현재 우리 시대의 죄악이라면 이보다 더 큰 죄악이야 우리가 생각해도 당장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죄가 필요할까? 이미 교회가 세상이 다 되었는데 교회를 더 이상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까? 불교와 교회가 성탄절과 석가생일날 서로 축하를 하는데 더 이상 타락할 여지가 남았을까? 사람이 이미 강아지보다 나아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 봐야 어떤 자극이 되어 돌아설까?

6) 여섯째 나팔 : 세상 방어선이 무너진 교회

계9:13

(1) 여섯째 나팔의 의미

계9: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① 금단 앞 네 뿔

여섯째 나팔에 하나님 앞 금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 앞이니 임시로 만든 지상의 성전의 금단이 아니다. 영원불변의 기도를 모은 향단이며 여기에 뿔은 기도의 능력이다.

② 기록 이유

이 말씀을 먼저 기록한 것은 여섯째 재앙을 준비하고 이기려면 특별히 하나님의 앞 금단이라는 영원무궁토록 변치 않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면으로 시작하고 있다.

계9:14

(2) 유브라데 강의 경계

계9: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① 애굽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애굽이 있다. 따뜻하여 살기 좋고 나일강에서 넘치는 물로 양식이 많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 애굽은 살기 좋은 이방 나라를 말한다.

② 유브라데 강

반대로 북쪽에는 유브라데 강이 있고 그 위에는 앗수르나 헬라국이 있다. 추운 곳에서 이스라엘을 노리는 흑독한 세상을 말한다. 동쪽

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북쪽으로도 표시한다. 동북이라 하면 되겠으나 에스겔 1:4처럼 북방에서 폭풍이 온다 하면 흑독한 면이고, 여기 본문처럼 동방이 되면 일반적으로 더 낮고 강하다는 뜻이다.

③ 여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 불자 유브라데로 막아 놓은 이방 방어막이 열렸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강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활과 활동이 세상을 접할 때 천사를 통해 우리 구원에 필요한 범위를 위해 우리가 밀리지 않도록 막아 놓고 있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이며 죄 아래 있는 사망의 세상인데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삼키려 든다면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와 싸울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 가기 위해 우리 내면의 연약한 신앙의 요소들을 우리 속에 역세고 사나운 옛사람의 악한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며, 교회도 그 사회로부터 보호하며 기독교 자체를 그렇게 관리해 오셨다. 그런데 이제 나팔 재앙들의 단계처럼 교회와 나 자신이 방심하여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고, 자신의 인격과 인간의 최소한의 선을 무너뜨리고 미혹하게 하는 귀신이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하자 에베소교회처럼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도 하지 않고 휩쓸려 버리다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 세계까지 흐려 버린 상황이 되면 자기 속에 사육이 자기 안팎 사방을 쓸고 다니고, 이로 인해 영망이 되며 죽을 고통을 느낄 터인데,

이 단계가 되면 고통 때문에라도 회개하고 에베소교회처럼 다시 신앙의 처음 사랑을 가지고 서머나교회 자기의 사상을 주님과 같도록 해야 할 터인데, 다섯째 나팔에도 그냥 지나가면 여섯째는 하나님께

서 막아 놓았던 세상의 침입로를 풀어 버린다. 교회 안을 보고는 있으나 전면 침략은 주저하던 세상, 내 속에 신앙의 몇몇 여지를 삼키려 하나 차마 신앙의 마지막 양심 때문에 주저하던 그런 면을 막아 주신 하나님께서 보호하던 천사를 불러들인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 변방에서 우리의 신앙을 노리던 타락한 천사들이 제한 없이 우리의 신앙에 남은 부분을 전부 쓸어 담기 위해 활동을 시작한다.³⁶⁾

계9:15

④ 네 천사

계9:15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 악령의 총합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는 우리의 신앙을 삼키기 위해 사방 천지에서 우리를 노리는 악령의 총합이다.

■ 목적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삼키는 것만이 그들의 목적이며 그들은 서로 협조하며 하나가 되어 정해진 순간 우리의 신앙의 1/3을 절단 낼

36) 다섯째 나팔을 통해 자기 사육을 무조건 막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은 여섯째 나팔을 통해 유브라데로 막아 놓은 험악한 북쪽 세상을 열어 버린다. 자기 사육을 위해 자기 내면의 신앙 기회를 자기 스스로 없애는데 하나님이 외부의 세상 박해를 막아 줄 필요가 없는 것은 필연이다. 북한 교회가 선교 초기에 급격히 부흥이 되면서 유물주의가 되고 돌아 설 기회를 포기하자 해방 후 하나님은 북쪽 공산주의를 풀어 북한이 공산화 되었다. 내가 내 사육과 싸울 때 하나님은 외부적을 막아 주신다.

것이다.

■ 운영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만드시려 했다면 순간적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있으나 자유성을 가지고 스스로 좋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만들려면 세월과 순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매 현실을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답답하게 운영하신다. 무엇이 부족하거나 차질이 생겨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는 분처럼 보인다.

1/3을 죽이기로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 놓지 않았다면 교회의 경계가 열리는 순간 인간보다 탁월한 그들은 마음먹은 대로 순식간에 우리의 신앙을 다 삼킬 수 있다.³⁷⁾

계9:16

⑤ 마병대

계9:16

마병대의 수는 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 마병대의 수

마병대의 수가 이만만이다. 교회의 울타리가 열리는 순간 세상의 악령과 죄와 마귀가 교회 안으로 치고 들어와 살육을 하며 휩쓸고 갈

37) 유브라데 방어막으로 북쪽에서 노리는 험악한 세상을 막아 놓은 것은 욥1:10에서 욥을 산울로 두르심과 같고, 유브라데 네 천사를 결박한 것을 풀어 놓은 것은 욥1:12에서 사단에게 붙인 것과 같다. 네 천사가 그 연월일시에 1/3을 죽인다는 것은 욥1:12에서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소유물을 붙인다는 제한선과 같다. 욥1:20에서 소유물이 모두 없어 저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찬송을 한 것은 다섯째 천사 때 나온 황충의 쏘는 고통에 전혀 해를 보지 않은 것이니 계9:4에 푸른 것은 해를 받지 않음과 같다.

수 있는 수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이만만이다. 만이라는 수는 헤아릴 수 없는 천을 더 강조했다. 만만이니 더욱 강조며 이만만이니 만만의 두 배가 된다. 교회를 삼키고 유린할 세상의 방법과 수단과 숫자가 그렇게 많다. 내 속의 신앙의 세계를 삼킬 세상의 세력이 그렇게 많다.

■ 목상

여기서 잠깐 글을 중단하고 목상을 해 보며 이런 세상들을 몇 가지나 헤아릴 수 있는지 적어 봤으면 좋겠다. 몇십까지는 막히지 않고 적으면서 몇십까지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면 이만만도 헤아리려 한다면 가능하겠다고 실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눈을 뜬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여섯째 나팔을 들고 다급하게 유브라데에서 풀려 들어오는 이 원수들을 막거나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하여 피할 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죄악의 종류

오늘 부부 사이의 죄악의 종류, 부모 자녀 사이의 진노 받을 문제들, 경제로, 세상 문화로, 세상 지식으로, 신앙과 교회의 최소한의 지켜야 할 면들을 따져 보면 헤아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어려우면 80년대 이전의 교회와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당시 분위기를 적은 글이나 자료를 가지고 오늘과 비교를 해 보면 몇십이 아니라 몇백은 쉽게 적을 듯하다.

계9:17

⑥ 이만만의 마병대

계9:17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 마병대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이렇게 17절이 시작된다. 16절과 그 이전을 말씀한다. 이상할 것도 없다. 이미 그렇게 예정이 되었고 순서를 밟고 있었으나 막상 닥치고 보면 미리 알았다 해도 이상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마구 내어 주시는가?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교회의 적대 세력이 이렇게까지 쏟아질 수 있는가? 이만만이나 되는 세력들이 있었다니!

■ 말들과 흉갑

이만만의 마병대의 말들과 탄 자들이 흉갑을 착용했다. 살육전을 벌일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 여기저기 다치고 부상을 입어도 가장 중요한 가슴을 막아야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특별히 흉갑을 착용했다. 정부가 종교 탄압이라는 비난을 받으면 치명적일 것인데도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방역을 이유로 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아주 좋은 흉갑이다. 교회의 신앙을 치기 위한 결정과 정책의 집행이 말이라는 운동이며 그 탄 자들은 그런 운동을 결정하고 조절하는 이들이다. 그 흉갑에 불빛이 있으니 보면 이해가 되고 그럴 듯하고 명확하게 설명이 된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 예배당의 출입을 막는 뼈아픈 결정을 했다고 하니 교회 내에서까지 존경을 보낸 것이 최근의 일이다.

■ 자주빛과 유황빛

자주빛은 권위와 영광을 말한다. 자주빛이라 했으니 모두가 권위 있게 인정할 정도다. 유황빛은 반대하면 흑독하게 태워버리는 두려운 공포의 색이다. 갓출 것은 모두 다 갓쳤다. 명분이 좋고, 모두가 신뢰하고 찬사를 보내며, 반대하면 처결을 할 수 있는 힘까지 갓쳤다.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공산주의식 삼자교회는 인정하고 지하교회를 탄압할 때 그들은 탄압할 유황빛의 공포가 있고, 중국의 질서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중국의 십 수억의 국민이 존중하며 제국의 침략에 당한 아픈 과거를 제시하는 논리가 아주 명확하여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있다.

■ 사자 머리

이런 교회 탄압의 상황에서 실제 유브라데가 열리자 교회와 매 현실의 내 속으로 세상이 힘을 가지고 치러 들어오는데 그 운동의 머리를 보니 사자 머리와 같다고 했다. 이 운동의 앞부분인 앞머리가 들이미는데 사자 머리와 같이 제압적이며 점령적이어서 막을 도리가 없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왔다. 입에서 나왔으니 논리며 설득이며 협박이며 발표를 말한다.

일본 총독부가 한 편으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면 태워 버린다고 설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사참배는 종교 문제가 아닌 국민의 의무라고 하니 투쟁을 해야 하는 교회로서는 과연 투쟁을 해야 할 대상인지 흐려져 버린다. 신사참배는 국가 행사로 순국 군인에 대한 예표며 기독교 선교국인 미국의 청교도들도 그런 행사가 있지만 표시 방법이 다르다는 개별성을 말하니 연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워진다.

전염병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입을 통제하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하니 이것이 과연 투쟁의 대상인지 무시해도 될 일인지 혼란스러워진다. 그런데 교회 문은 막으나 교회 앞의 식당, 교회 출입을 단속하는 공공기관의 식당, 술집은 어떤 제재도 없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니 실상은 교회 탄압이다. 유황을 입에서 품어 내더라. 버티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사망에 이를 독을 퍼뜨리니 결국은 신앙을 내어주게 된다.

계9:18

⑦ 소망

계9:18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렇지만 아직도 나팔 재앙이다. 아무리 위급해도 여전히 내 속에 1/3만 죽는 것이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 나를 고치고 나의 내면을 살려 내리는 하나님의 포기가 없는 사랑의 단계들이다

계9:19

⑧ 뱀의 꼬리

계9:19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 여러 운동

유브라데 경계가 열리고 교회 안으로 귀신이 떼로 몰려들며 우선 신앙으로 살아 온 교회와 자기 내면을 상대로 여러 운동들이 엄습한다. 신사참배의 운동, 예배당만 문을 닫자는 운동, 동성 문제에

세상처럼 교회도 성경에 죄 되는 것도 용인하고 오히려 돕자는 운동, 교회도 이제 전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말자는 운동들이 모든 운동들은 말인데 그 운동들의 힘은 꼬리에 있었고 그 꼬리는 뱀 같다고 했다.

■ 간사

뱀은 창3:1에서 간사하다 했다. 이것인지 저것인지 애매하게 가져갈 때 간사가 된다. 일부는 맞고 뒤에 보니 속는 것이 간사다. 반거짓말이다.

■ 변동

또 필요하면 변동을 한다. 암약이다. 뱀의 꼬리는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튄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진실을 관철하지 않고 그 반대로 변동을 힘으로 삼는다. 이랬다 저랬다 자꾸 흔들어 버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신 신5:32은 잊고 사상이 좌우로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 행동이 요동하고 결국은 신앙의 인격과 노선까지 흔들리며 뿌리가 뽑혀 나간다.

정보와 지식이 빠른 통신으로 퍼지는 오늘의 변동은 역사 이후 이처럼 빠르게 요동한 적은 없다. 과거의 변덕은 헤아릴 수 있었으나 지금은 어찌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변덕 변동의 꼬리에 머리가 있다. 속으로는 귀신이 교회를 삼키는 방법으로 변동을 사용하나 그 변동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고 계산이 있다. 그리고 사상까지 쉬임 없이 바뀌게 한다.

계9:20

㉠ 변질

계9:20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지난날 믿어 온 자신의 과거와 교회가 걸어온 연혁과 교단의 교리와 신앙의 역사와 노선만 살펴봐도 오늘의 이런 변화는 발전과 개선이 아니라 변덕이며 변질이라고 판명이 날 것이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이 되고 자기가 과거 신앙을 버리고 세상 속에 묻혀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ی 아닌 세상 것으로 세상살이에 필요한 생사화복을 해결하려 하니 그 남은 훗날이 어떻게 될까? 점점 더 소망은 없어지고 있다.

■ 우상

귀신들은 우리를 죄 짓게 한다. 금 우상은 모든 사람이 전부 부러워하는 최고의 우상이니 우리 사회가 최고로 생각하고 한 번 가지면 아주 변치 않을 행복을 주는 그런 자격증 직장 보배를 말한다. 은은 그 다음이며 동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주변의 작은 우상들이다. 제일 허무한 사람들은 목적으로 만든 생활 속의 제일 작은 우상들이다. 음식 조절이 건강을 담보하고 전 국민에게 복지 혜택이 잘 되어 있으니 세상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을 지켜 내는 것은 없어도 된다는 것이라면 목석의 우상이다.

계9:21

⑩ 살인

계9:21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 살인

이미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의 생명을 버렸으니 죽은 신앙이다. 그런데 이들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남의 신앙까지 죽게 만들면 살인이 될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요일3:15에서 미워하는 것이며 살인하는 것이다.

■ 복술

복술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이 아닌 방법으로 복을 찾는 것이다.

■ 음행

음행은 세상을 마음에 담고 세상에게 정을 주고 세상과 하나가 된 인격이다.

■ 도적질

도적질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갖는 것이다.

■ 밤중

이런 일들이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그치지 않고 일곱째 나팔 재앙을 불러오고 그 일곱째 나팔 재앙은 대접 재앙 일곱 가지를 담아 쏟아 버리는 준비 자체가 안 되는 밤중이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라면 기름을 조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으나 이제 밤이 시작되고 있다.

5. 준비의 신앙

10~12장

1. 작은 책 (10:1-11)
2. 성전 척량 (11:1-14)
3. 일곱째 나팔 (11:15-19)
4. 해를 입은 여자 (12:1-17)

- 요한계시록 10장 -

▷ 10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중 교회를 기록하며 7가지 대접 재앙을 준비

매 현실은 대접 재앙으로 마무리되니 말씀의 사람이 되어 종말을 대비

- ▶ 성경 내용 : 작은 책을 먹음
- ▶ 계시 내용 : 받은 성경을 양식으로 삼을 것

10:1

1. 대접 재앙 준비1: 말씀으로 준비

1) 힘센 천사의 도움

계10:1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1) 성경으로 펼쳐가는 세계

계시록 5장부터 교회를 향해 성경으로 펼쳐가는 세계를 미리 보여 주셨다. 일곱 인으로 교회를 향한 섭리 역사의 기본을, 일곱 나팔로 교회가 시급히 늘 대처해야 하는 현실 내용을, 일곱 대접은 교회가 모든 현실을 통해 늘 기억해야 할 최종 모습이다.

(2) 힘센 천사

대접 재앙은 한 번 쏟으면 차례가 없이 그냥 엎어 버린다. 나팔 재앙은 비록 다급하지만 교회나 각자가 준비할 수 있으나 대접 재앙은 그냥 지나가 버린다. 만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시면 그것은 별개 문제다. 따라서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힘센’ 천사를 통해 소망을 주신다. 상황이 급하고 중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도 더욱 능력 있게 나타난다.

2) 천사의 모습

(1) 구름을 입음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 구름은 이 땅 위에서 알 수 없는 하늘의 세계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다. 그 구름의 기능은 유1:12에서 이 땅 위의 존재들에게 생명수를 내린다.

(2) 신령한 면

구름을 입은 천사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맡은 하늘의 신령한 면을 말한다. 우리의 모든 현실에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보호와 인도를 내려 주신다.

(3) 무지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천사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역사의 계약을 신실히 이행하시겠다는 표시다.

(4) 얼굴은 해 같음

그 얼굴은 해 같다 한 해는 하나님을 표시하니 천사는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우리처럼 가리거나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투영한다. 외부로는 천사가 보이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다. 모세가 비록 이 땅 위에서 죽을 죄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가깝게 잘 모실 때는 그 얼굴의 광채 때문에 출 34:30에서 일반 백성들이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했고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야 했다.

(5) 발은 불기둥

그 발은 불기둥³⁸⁾ 같으니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은 소멸하는 심판의 권세와 무엇이든 밟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천사다. 무엇이든 그 위에 굳게 무겁게 내리 누를 수 있는 불기둥이다.

38) 57년의 백영희 주석에는 불기둥이 태워 버리는 소멸에 중점을 두지 않고 태워 버릴 수 없는 말씀의 영원 건설에 중점을 두라 했다. 고전3:12에서 심판에 불 타지 않을 공력

계10:2

3) 작은 책

계10:2

그 손에 펴 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1) 진리의 말씀

천사의 손에는 펴 놓인 작은 책이 있다. 이 책은 계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운영하는 진리의 말씀이고 어린 양이 사활의 대속으로 받아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로 이 땅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책이다.

(2) 작은 책

성경을 왜 작은 책이라고 하는가? 우주와 영계를 창조한 창조의 권위를 가진 이 책을 우리 인간이 시시하게 보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 했다. 불신자야 당연하겠지만 믿는 우리까지도 이론적으로 말할 때는 지극히 큰 책이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 한 번으로 지나가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월급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사람도 있고, 시험한 번 때문에 성경을 뒤로 밀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믿는 우리의 기준으로 봐도 성경은 오늘 작고 작은 책이 된 것 같다.

(3) 먹어 버리라

이 책을 나의 인생과 생명보다, 모든 우주와 만물보다, 천군 천사와 사람 전부보다 크게 볼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바꾸어 실제 현실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계시록 10장은 성경을 먹어 버리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접 재앙을 넘어설 길을 열고 계신다.

(4) 바다와 땅을 밟음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세상 전체를 둘로 나누면 죄악의 세상과 도덕의 건전한 세상이다. 더 위험한 죄악의 환경은 더 능력이 있는 오른발로 밟고 있다. 왼발을 약하다 하지 말고 오른발을 강하다 함이 맞다.³⁹⁾

계10:3

4) 사자처럼 부르짖음

계10:3

사자의 부르짖는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1) 사자

이 천사가 사자처럼 부르짖고 있다. 일곱 대접 재앙은 최후의 재앙이므로 기다리거나 설득을 하는 이전의 시기와는 다르다. 무적의 사자로 천하를 향해 또 매 현실을 말세로 사는 오늘의 우리를 향해 일곱 재앙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로 일곱 대접 재앙에서도 우리를 능력으로 구하고 인도할 구원의 세력이 있다며 소망을 주신다.

(2) 일곱 우레

천사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울렸고 일곱은 하나님을 표시한다. 이 외침이 천사의 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외침임을 나타내고 있다.

39) 도덕 세상은 미혹으로, 죄악 세상은 힘으로 우리를 삼킨다. 죄악 세상은 힘으로 상대하라는 것이 오른발이며 도덕 세상은 따로 적지 않아도 힘보다 지혜를 생략해 놓았다.

계10:4

(3) 인봉

계10:4

일곱 우리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일곱 우리를 기록하여 전하려 했으나 이 부분은 인봉을 한다. 대접 재앙적인 현실과 힘 있는 천사를 통해 돕는 이 은혜 역사는 읽고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6절에서 지체 없이 이루어지며 주신 현실은 바로 끝이 난다. 대접 재앙은 시작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비말이 바로 성취된다. 종말 중에 종말이다.

5) 대접 재앙 소개

계10:5

(1) 대접 재앙

계10:5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제 힘 있는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지체 없이 진행될 대접 재앙을 소개하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모습이니 우리 현실의 끝은 늘 이러하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는 우리의 매 현실에 관련된 일들은 크고 많고 중하고 급하고 빈틈 없이 흘러간다.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를 했으니 이렇게 하지 않아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위해 우리가 느끼도록 더욱 표시를 하고 계신다.

계10:6

(2) 맹세

계10:6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① 하나님

여기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이름 그 자체가 이미 절대자 불변의 하나님이니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강박한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다.

② 영원불변

세세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은 영원불변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우리처럼 세월 속에 변하거나 어떻게 될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이다.

③ 창조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자다. 영계 영원을 모두 창조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좋은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도 창조했고 오늘의 이 죄악 세상까지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창조다. 마귀도 죄도 지옥도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는다 했다.

④ 현실

이 말세 우리의 매 현실에서 이 창조된 것을 다 사용하고 나면 그

현실에 해당된 것은 바로 끝을 내고 순간도 더 놔두지 않는다. 최후 재림 때는 1차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이 원소로 돌아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구성되겠지만 오늘도 매 현실에는 그 현실에 해당되는 존재를 진열하고 움직이며 그 현실이 끝나면 그 현실에 나타나서 활동한 모든 것은 영원히 재현되지 않는다.

계10:7

6) 7대접 재앙

(1) 빠르게 진행=>빠른 진행

계10:7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된다. 나팔 재앙 처럼 다급하게 그러나 준비라는 것이 필요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

(2) 단번

현실은 한 번 주지 두 번 주지 않으며 조금의 빈틈도 없다.

(3) 비밀

그 현실에 담아 둔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실력과 영생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 주셨으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 모른다 하니 비밀이 된 것이다.

(4) 현실 종료

대접 재앙으로 그 현실은 바로 종료된다. 그렇게 되면 그 현실을 위해 주신 65권의 말씀과 이 계시록의 말씀에 담은 내용까지 바로 이

루어진다. 바로 된 것은 하늘의 것이 되고, 잘못된 것은 전부 지옥에 던져진다.

(5) 선지자

계시록과 모든 성경과 오늘 우리 현실에서 이 말씀들을 전하는 사람 모두가 선지자다. 또한 내 속에 먼저 믿고 성화된 요소가 아직도 말씀을 따르지 않는 내 요소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것도 모두 선지자가 전하는 복음이다.

(6) 복음

말씀을 순종하여 그 현실에서 옳은 기능으로 바꾸었다면 복음이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이다.

10:8

7) 책

계10:8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퍼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1) 재촉

다른 천사가 힘 있는 이 천사가 2절에서 가지고 있는 이 책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했다. 힘 있는 천사는 일곱 대접 재앙을 맡아 지체 없이 진행하나 이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갓출 말씀 준비를 위해 또 다른 천사를 보내어 재촉했다.

(2) 여러 역사

하나님은 한 분의 단일체시나 여러 말씀으로 여러 역사를 하시며 많은 말씀과 현실을 통해 우리를 많은 면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양한 차원으로 역사하는 것을 모르면 자기가 모르는 면의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자기와 상관없게 된다.

계10:9

(3) 작은 책

계10:9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① 작은 책

요한이 힘센 천사에게 작은 책을 달라고 했다. 일곱 대접 재앙은 비록 대처할 여지는 없으나 이 말씀으로 대처하면 된다.

② 갖다 먹어 버리라

천사가 주면서 ‘갖다 먹어 버리라’고 했다. 책만 들고 교회를 오가는 신앙, 성경을 읽고 상식으로 아는 신앙, 그 말씀으로 연구하는 신앙으로는 대접 재앙은 모두가 재앙으로 끝난다.

③ 소화

그 말씀으로 매 현실에 실행을 하면 그 말씀이 나를 개조하고 내 속에 잘못된 부분을 제거하며 나를 변화 시킨다. 이 과정이 말씀을 소화하는 것이다.

④ 고통

말씀이란 그 이치를 배우고 깨달으면 꿀 같이 달다. 천국을 제대로 배우면 꿀 같이 달고 좋은 나라다. 예수님의 대속도 이웃 사랑도 그렇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매 현실에서 실제 실행을 해 보면 그 말씀은 나의 취미를 죽이려 나서고 나의 습관을 뜯어고치려 하고 나의 자존심과 게으름을 못 박아 버린다. 이런 과정에서 그 말씀을 알기 전의 나는 쓰리고 고통스럽다.

계10:10

8) 대접 재앙

계10: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① 나팔 재앙

나팔 재앙은 다급하게 하나씩 대처를 하면 2/3는 건질 수 있다. 첫째 나팔을 듣고 물질에 넘치고 잘못된 부분을 얼른 회개하고 조심하면 1/3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고 최소한 2/3는 살릴 수 있다.

② 대접 재앙

대접 재앙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으로 나를 미리 고치고 바꿔 말씀화가 된 사람에게는 대접 재앙은 상관이 없다. 대접 재앙은 이런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만 전멸 재앙이 된다.

③ 강조

이 부분이 중요하여 갖다 먹어 버리라는 9절의 말씀에 이어 10절에

서는 실제 갖다 먹어 버렸고 그 먹어 버린 사실까지 기록하며 기록을 중복하고 있다.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뜻이지 더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설마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성과 방심을 깨우는 주님의 사랑이다.

9) 사명

계10:11

계10:11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일곱 대접 재앙에 앞서 먼저 말씀으로 이렇게 자기를 만들게 되면 주님은 자기를 고친 이 사람을 붙들고, 많은 백성으로 표시한 별별 사람을 그에게 맡겨, 자기를 붙든 말씀으로 그들도 붙들려 살게 하도록 사명을 주신다. 별별 것에게 붙들려 있는 나라에게도, 별별 사상을 가진 인물이나 교회에게도, 멋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임금들에게도 이 말씀의 것이 되라고 증거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매 현실은 종말이기 때문이다.

- 요한계시록 11장 -

▷ 11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중 교회를 기록하며 7가지 대접 재앙을 준비

대접 재앙은 최종이니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자기 내면 신앙을 먼저 구별

- ▶ 성경 내용 : 성전 척량, 일곱째 나팔
- ▶ 계시 내용 : 교회 내부를 먼저 구별할 것

2. 대접 재앙 준비2: 자기 구별

1) 대외전보다 대내전이 먼저

계11:1-2상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1) 내부의 적

신앙에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타 종교보다 기독교 안의 문제가 교회에 손해를 더 끼치고 이단의 피해보다 이단을

대처할 실력 없는 교회가 더 문제다. 자기 안에 죄 하나가 천하의 모든 죄보다 자기를 더 해친다.

(2) 점검

대접 재앙을 앞에 두고 10장에서는 말씀이 말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되어야 하는 면을 가르쳤다. 11장에서는 나 자신은 택자요 믿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으로 자기 내면을 살펴 내 속의 마음 전부와 나의 생활과 인격과 행위가 속속들이 다 말씀으로 변화가 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대접 재앙이 너무 크고 무섭기 때문이다. 기르던 닭이 계속 피해를 입게 되면 주변의 족제비 정도가 침입자다. 이럴 때는 몽둥이 하나만 들고 얼른 뒤져 봐도 되지만, 송아지가 울타리 밖으로 끌려가 죽었다면 한국에서는 호랑이 외에는 없다. 일단 확인을 해 봐야 하지만 사냥총을 들고 나가거나 예전이면 수십 명이 창이나 팽과리를 들고 나가 봐야 하는 문제다.

(3) 준비

대접 재앙은 16장에 나오지만 나팔 재앙이 끝난 9장 이후에 10장부터 16장까지를 통해 준비를 적어 주셨다. 성경의 기록 분량은 최소화다. 그런데 이 정도로 적는다면 무겁게 봐야 한다. 11장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과연 내 속은 어떤 상태인가? 교회는 어떤 형편인가? 나와 관계된 것을 안에서 철저히 살펴야 한다.

2) 지팡이 같은 갈대

(1) 작은 책

10장에서 성경을 작은 책이라 한 것은 복 없는 인간이 볼 때 말씀을 무시한다는 뜻이다.

(2) 지팡이 같은 갈대

이번에는 그 말씀을 지팡이 같은 갈대로 바꾸어 보여 주시며 신앙의 내면을 척량하라 한다.

① 말씀

말씀은 복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갈대처럼 허무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으로 교회 안을 잘 파악하게 되면 교회의 잘못을 정리하고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된다. 자기 안을 바르게 구별해야 생명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② 진리

지팡이는 휘어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 갈대는 사람과 형편에 따라 흔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나타날 때는 언제 어떤 형편 누구에게나 가차 없이 항상 꼭 같이 적용이 된다.

③ 성령

그러나 그 진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사람에 따라 인도하는 방법과 역사가 다르다. 지팡이 같은 갈대니 사람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인도해도 진리를 벗어나지는 않고 벗어날 수도 없다.

따라서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감 도리'가 사람 보기에는 허무해도 오늘 믿는 우리의 영원을 심판하고 결정하는 진리면서 우리 각자를 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자기가 실행할 모든 복을 마련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이다.

3) 신앙의 모습 4가지

(1) 성전

성전을 척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 생활을 말한다. 고전3:16에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성도이고, 하나님을 모신 교회라야 비로소 교회가 된다.

(2) 제단

제단은 죄를 씻기 위해 양을 잡는 곳이며 어린 양 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십자가다. 이제 구원받은 내가 내 속에 말씀과 다른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내가 피 흘리기까지 헌신하는 희생을 제단이라 한다.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기가 손해 보고 자기를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면 성전 생활은 했으나 제단 생활은 하지 않았다.

(3) 경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는 자기 마음 다하고 자기 인격 다하여 주님 아니고는 안 되는 줄 알고 엎드리는 자로 가장 깊은 속의 자기가 변화된 상태를 말한다.

(4) 성전 밖 마당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는 척량하고 성전 밖 마당은 척량조차 하지 말라 했다. 교회를 다녀도 출석만 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펴 보고 말씀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칠 대상이 아니다.

계11:2

4) 성전 밖 마당

계11:2

성전 밖 마당은 척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① 척량하지 말라

교회는 다녔으나 말씀은 상관없고 사교나 사업이나 여가 선용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는 이들이 성전 밖 마당이다. 요10장에서 예수님 없이 들어 온 자, 갈2:4에서 중생 없이 들어 온 자들이다. 마13:26에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요소가 있고 교회의 교인 중에도 그런 이들이 있으니 이들은 척량하지 말라 했다.

② 42개월을 버려두라

■ 42개월 = 1260일

42개월을 버려두라 한 기간은 3년 반으로 2절에서는 42개월로, 3절에서는 1260일로 표시했다.

■ 신약

7을 하나님의 완전수와 하나님의 전 기간으로 볼 때 숫자로 신약이 절반이 아니라 신구약이라는 면에서 절반이면 2~3절의 42개월과 1260일은 신약을 가르치고, 단7:25과 계12:14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표시했다.

■ 단위

단위가 다른 것은 의미가 다르다. 1260일은 신약의 모든 기간을 날 날이 강조했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넓게 보면 신약 전 기간이 그렇게 한 순간에 지나감을 말씀했다.

■ 세월

우리의 현실, 신약의 전 기간이 한 때로 1/3이 지나가고 그 다음 2/3가 두 때로 묶여 졌다. 한두 번 실수하고 방심하면 바로 다 없어지는 것이 세월이다.

■ 최후의 기회

마지막에 반 때를 따로 두신 것은 최후의 기회를 잠깐 주신다는 것이다.

■ 중간 단위

42개월이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중간의 단위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뜻이다.

■ 여러 단위

꼭 같은 성경인데 작은 책이라 할 때와 지팡이 같은 갈대라 할 때의 강조하는 의미가 다른 것처럼, 꼭 같은 기간도 여러 단위로 표현하며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주신다.

■ 다른 표현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뜻이라도 표현이 다를 때 꼭 이렇게 표현하신 뜻이 무엇일까?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시게 부탁하는 자세가 된다.

③ 성전 밖 마당

주님이 대속한 후 우리는 자기 여생을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 모든 과정에서 택자와 불
택자가 누구인지 모르며, 교회는 교회를 어디에 세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교인과 교회는 자기의 내부든 외부든 성전 밖
마당은 아예 말씀으로 따지고 들어갈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④ 버려둘 것

마18:15 이하에서 잘못이 있을 때는 말씀으로 직접 지도하고, 안
되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바르게 인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총력을 기울여 바로 잡으라 했다. 그래도 거부하면 이방인으로 알고
버려두라 했다.

⑤ 이방인

여기에서 이방인으로 못을 박고 끝내면 안 된다. 하나님만 이방인인
지 불택자인지 아시므로 교회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
라는 것이다. 나머지는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게 하실지 하나님께 말
겨 놓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은 교
회든 각자든 맡은 것이 아니니 단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교회
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⑥ 구제사업

복음이 없이 불교와 교류하며 사회의 구제 사업을 하는 교회는 성
전 밖 마당이다.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므로 교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이 돌아설 날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들과 시비하
는 것은 딤후3:10에서 시간만 낭비하고 해야 할 옳은 일을 하지 못하
는 문제가 생긴다.

⑦ 의심

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나 예정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으면 이런 의심은 성전 밖마당이다. 나의 지성과 연구와 탐구로 극복할 일이 아니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한다.

⑧ 42개월

주님이 직접 오셔서 심판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안에 돌려 세우든지 그 기간이 42개월이다. 마흔두 달 동안 버려두라고 했다.

계11:3

5) 증인, 증인의 역사

계11: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굶은 배움을 입고 일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1) 두 증인

두 증인은 겹친 표현이니 신구약을 합한 ‘모든’ 증인이라는 뜻도 되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낸 면을 볼 때 ‘하나’가 되어야 할 증거 운동을 말한다.

(2) 양면성과 단일성

가정 교회에서 아이를 낳으려면 남녀 중 한 사람으로는 안 되고, 그 아이를 바르게 기르려면 부모 중 하나의 교육으로는 반쪽이 된다. 양면으로 길러야 온전해진다. 복음 운동의 양면성과 단일성을 말한다.

(3) 말씀의 권능

이렇게 하나 되고 바로 된 온전한 증거 생활은 10장에서 받은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가 말씀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다. 바른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라 할 때 전하기만 하면 말씀의 권능은 역사하게 되어 있다.

(4) 순종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 그 말씀께 순종하면 말씀의 역사는 말씀이 스스로 성취한다.

(5) 증인

증인이라 한 것은 말씀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으니 그가 전하는 말씀을 알 수 있고, 그 말과 함께 전하는 사람의 행위를 보니 그가 전한 말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 자체가 이미 그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증인이 된다.

(6) 권능, 예언

10장에서 말씀을 잘 먹고 소화가 되었다면 11장에서 그 말씀으로 자기 내면과 교회의 속을 날날이 살피 이방에 속한 것은 맡겨 놓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 신앙은 구원을 위해 희생하는 제단 신앙으로 길러 가고, 수고와 희생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전 인격이 기울여지는 경배 신앙으로 자라 가야 정상이다. 이렇게 된 만큼 증인이 되고 이런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된다.

(7) 예언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다. 또한 이미 일어난 일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깨우쳐 주는 것도 예언이다.

(8) 굶은 배웏

굶은 배웏은 죄인이라는 표시다. 어느 경지에 있든 우리는 바울처럼 늘 주님의 사활의 대속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 부족한 만큼 우리는 죄인의 자세가 되어야 하고 그런 자세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굶은 배웏을 벗을 수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매 현실을 사는 것이 대접 재앙을 초월하는 대접 재앙의 대비가 된다.

(9) 거룩한 성

구원받은 우리와 신약의 교회는 장차 거룩한 성에 들어갈 것이다. 오늘은 매 현실을 통해 거룩한 성의 내면을 재건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사용할 수 없는 죄와 악으로 된 자재와 말씀을 어기는 세상 식의 공법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함을 말한다.

계11:4

6) 두 증인

계11:4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1) 중생된 우리

중생된 우리 모두는 두 증인이다. 두 증인의 둘이란 사람의 머리수의 둘이 아니다. 혼자 두 증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열 명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2)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으니 두 증인이 벌써 넷으로 늘어난다.

(3) 상징

계시록은 진리의 도를 가르치는 기록이지 계시록의 숫자와 표현 자체가 그대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징이라고 한다. 무엇을 가르치려고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했을까? 성경 전체와 맞추며 살피다 보면 저절로 맞춰진다.

① 감람나무⁴⁰⁾

감람나무는 구약의 성전에 사용되는 감람유를 생산한다. 기름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니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역사를 중복으로 강조하며 이중으로 더욱 온전하게 영감 역사를 한다는 뜻이다.

② 촛대

촛대는 교회며 두 교회는 교회 2개의 협조나 교단 2개의 연합이 아니라 교회의 확고하고 바른 역사를 말한다. 성령이 교회를 통해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인지, 성전 생활로 그치는지, 복음을 위해 헌신을 하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인격을 다 바쳐 완전히 종이 되어 있는지를 살피게 한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면을 살피야 한다.

계11:5

(4) 구별

40) 올리브나무

계11:5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찌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① 제거

세상을 향해 말씀을 구별하고 전하게 되면 죄와 사망과 악령으로
된 세상은 빛과 어둠처럼 공존할 수 없어 우리의 증거 생활과 우
리 자체가 증인이 된 그 발언과 그 활동과 그 사람 자체를 반드시
제거하려 든다.

② 소멸

그러나 증인이 된 내 속의 신앙의 요소는 빛과 같아서 어둠이 몰
려온다고 빛이 흐려지거나 물러서지 않고 빛은 빛으로 더욱 선명해
진다. 이렇게 빛이 어둠을 삼키는 상황을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고 했다. 불은 태우고 없앤다. 정상적인 복음운동은 세상
에게 질 수 없으며 질 리가 없다. 상대가 되지 않음을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 적어 주셨다.

계11:6

7) 성도의 증언 생애

계11:6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1) 증거

① 증거, 증인

역사 이래로 ‘증거’ ‘증인’이라는 말은 참 많다. 여호와와 증인까지 증인을 애용한다. 복음을 선포한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도 다 같은 의미다. 남 말하듯 증거하면 중계방송이다.

② 말씀

안타깝지만 말은 실제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 비정한 남의 말이 된다. 10장에서 보좌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 위에서 그대로 집행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자기를 먼저 시급히 분석하여 자기 내면의 이방인의 뜰을 제치고 성전에 그친 신앙을 제단 생활로 올려놓고 최종적으로 그 말씀이 나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면 그 면만이 실제 증인이고 그 면의 실체만이 증거이고 그 면의 발표만이 증언이 된다.

③ 변화

요15:7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했다. 내 마음대로 한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된 내가 되면 이제 걸음으로는 하나의 인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역사하기 때문에 나의 소원이 말씀과 같고 그 말씀이 원할 때 그 말씀에 따라서만 구하게 되니 전능의 말씀에 맞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리가 없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예언

① 예언 생활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내가 내 원수를 혼내기 위해 하늘을 닫고 풀려 할 때 실제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니 그

릴 리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전달되었고 내가 그 말씀의 것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하늘을 닫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하늘을 닫아 비를 오지 못하게 하면 당연히 비는 오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며 이것이 우리의 예언 생활이다.

② 증인 생활

이 세상의 모든 현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증인 생활에 필요하도록 전개되고 조절된다. 자연 은총이 되는 비를 중단시키고 생존에 필수적인 물을 변질시켜 만물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말씀에 붙들려 말씀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다

③ 초자연의 능력

어떻게 초자연의 능력자가 될 수 있는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전달된다. 또한 그 전달의 결과는 전능이며 초인적이며 초자연적이다. 우리는 이런 말씀 때문에 초자연의 능력자가 된다.

(3) 증인

① 만능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이 부분 때문에 역사 이래로 자신들이 4절의 증인이라고 착각하거나 거짓말하는 이들은 우주 만물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 하였으나 그런 경우는 없었다. 모세나 엘리야처럼 실제 증인이 된 이들의 경우는 본인뿐 아니라 원수들까지 이들의 능력을 다 알고 인정하였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전능이요 만능이 된다.

② 발람

주님과 우리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바로 나귀만도 못한 발람의 신세가 된다. 주님과 말씀 없이 내가 나 이상이 될 수는 없다.

③ 판단 방법

남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증인이나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이들을 구별할 때 그들의 언행을 말씀과 비교해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발전소 내부는 모르지만 전선이 끊어진 집에는 전기란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계11:7

계11:7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8) 개별 종말: '현실 단위 천년왕국'

(1) 세상 종말

세상 자체가 끝나면 모두에게 동시 종말이다.

(2) 개별 종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만 종말이다.

(3) 현실 종말

우리가 살아 있어도 현실이 바뀌면 이 전의 현실은 종말이 지나갔다.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이 비취 나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 현실에서 다하면 하나님은 무저갱에 가두어 둔 짐승을 풀어 버린다.

(4) 역사 마지막

역사 마지막에는 1천년의 천년왕국 기간 동안 사단을 묶어 두고 우리를 기른 후에 곡과 마곡으로 물질계의 최종 단계를 마무리한다.

(5) 개별 기간

우리 각자에게는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놓았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사람을 모르고 짐승화 된 세상 이 땅 위에서 활동한 우리의 말씀 생활을 끝나게 한다.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죽음이 부활로 영계의 영생으로 이어지게 하는 과정이다.

(6) 천국의 차이

고전15:36에서 죽지 않고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못한다. 한 번 죄로 죽은 인생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기본구원을 받아 천국은 가지만 자기 심신 내면적인 요소와 실력은 매 현실에서 한 번은 죽어야 산다. 그냥 죽어서는 살 수 없다. 말씀에 붙들려 살다가 그 말씀 때문에 세상에 그 요소와 그 기회가 박탈당해야 그 면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그 후에야 그 면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된다. 그 변화된 총합의 차이가 천국에서 성도의 차이가 된다.

(7)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놓은 말씀 생활이 끝날 때를 말한다. 사단의 성도 핏박은 겉으로 보면 그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나 때, 장소, 방법, 정도까지 하나님이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짐승

짐승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없는 세상 즉 죄악의 오늘 이 세상을 말한다.

■ 세상

악령이 대장이고 죄가 방법이며 하나님 없는 사망으로 활동하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다. 이런 세상이 증인과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증인을 죽일 것이라 했다.

■ 사단

오늘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맡겨졌다. 하나님께서 막아 주지 않으면 말씀으로 살려는 우리가 진다. 세상에서 세상 식으로 싸워 세상을 이기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안 된다. 교회가 교인들을 모아 정당을 만들고 집단 시위와 서명을 통해 세 대결에 나서는 것은 세상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다.

(8) 그 증거를 마칠 때

① 순교

‘그 증거를 마칠 때’ 죽는다. 바로 이 대목에서 백영희 목사님은 믿는 사람이 순교를 할 때 단 한 순간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손해 보고 주님 때문에 죽는 경우는 없다고 가르치셨다.

② 예정

겉으로는 말씀 때문에 일찍 죽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우리를 가르치는 방법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때가 되어야 죽는 것이고, 그 죽는 순간의 모습을 말씀을 전하다 죽게 하는 것이 순교

다. 그 순교자의 순교 내막을 보면 그 순간에 순교를 당하지 않아도 이미 그는 이 땅 위에서 자기 할 일이 마쳐졌기 때문에 가야 할 때다. 순교는 순생의 삶을 살았던 성도에게 최후의 승리를 너무 크게 선물하는 것이 된다.

③ 손양원

순교 현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몸에 가해진 상처는 생명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때 죽을 분이 순교로 죽은 것이고 그의 평생이 숨 한 번도 더 남아 있지 않기까지 순생으로 살았다. 하나님은 그냥 뒤도 죽을 몸을 순교로 불러 손양원의 생애를 마음껏 높였고 손 목사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셨다.

④ 이치

이런 이치는 순교에 이르지 않고 평소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경제, 건강, 가정, 사회적 유불리의 모든 면에서 항상 적용되는 진리다. 이것을 바로만 알게 되면 주를 위해 손해를 봤거나 말씀 때문에 공연히 어려워졌다는 말은 엄살이며 역지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사에 늘 감사할 뿐이다.

계11:8

(9) 증인들의 시체

계11:8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① 큰 성 길⁴¹⁾

증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버려졌다. 그 성은 소돔이며 애굽이니 곧 주님이 못 박힌 곳이라 했다. 소돔, 애굽, 바벨론, 골고다, 로마 순교지, 오늘 우리 현실 그 이름은 달라도 내용은 같다.

② 신령한 변화

주님으로 살고 말씀에 붙들려 산 우리의 주님 동행과 말씀 순종의 행위와 기능은 이미 신령한 것으로 변화되었으니 세상이 해하지 못한다. 그 외에 이 땅 위에서 성도가 평소 사용하던 물질은 물질계에 남겨지는데 실은 버려진다. 매미가 되었으면 매미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빈껍데기는 버려지는 것이 맞고, 집을 짓고 나면 그 과정에 일회용으로 사용된 각종 산업폐기물은 따로 버려져야 한다. 그것이 따라붙으면 재앙이 된다. 증인들이 사용하고 남은 인체와 땅에 있었던 이름이나 각종 흔적을 세상이 깨면서 교회를 이겼다고 환호를 하니 세상은 세상 식으로 싸워 이긴 것이 맞다. 그러나 교회와 신앙의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바꾸기 위해 사용하던 물질의 것을 벗었으니 온전하게 되었고 그것을 버리도록 세상이 도와줬으니 고마울 뿐이다. 신앙의 사람은 신앙으로 완전 승리를 하였으니 환호할 뿐이다.

계11:9

(10) 장사하지 못하게

계11:9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① 사흘 반⁴²⁾

41) 인생의 한가운데, 인생길을 진행하는 걸음걸음,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좋게 만들어 놓은 성

성도의 증언이 끝날 때 성도의 성화된 말씀 생활 진행 중에 성도들이 사용했던 이 땅 위에 버려야 할 부분을 벗겨 가고 환호하는 세상들이 사흘 반 동안을 성도가 세상에 벗어 놓아야 할 죄 아래 물질과 이 땅에 속했던 불필요한 것들을 거머쥐고 이겼다는 기간이 신약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② 의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끝날 때까지는 세상이 마음대로 하는 기간이다.

계11:10

계11:10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③ 상황

세상은 교회의 건물을 짓밟으며 하나님의 세계를 이겼다고 잔치하고 교회는 건물을 빼앗기는 과정에 말씀으로 살아 온 자신을 온전히 신령한 것으로 바꾸게 되었다고 또한 잔치한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말씀으로 살 수 있던 기회에 살았던 모든 걸음은 죄 아래 세상에게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살던 이의 활동이 멈춰진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세상은 어두워 어둠을 좋아하는 이들이 밤을 무대 삼아 즐겼는데 말씀의 사람이 밤 무대에 빛을 비추니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의 양심이 고통스럽고 불편했다. 한 직장에 모두가 편하게 죄를 지으러 다니다가 믿는 사

42) 한정된 기회

람이 말씀 때문에 합류하지 않게 되면 소리 없이 그 모든 사람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다가 믿는 그 사람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으니 일시 동안 모두가 좋아하게 된다. 서로가 죄를 짓게 되었다고 선물을 교환하는 상황이 되었다.

계11:11

계11:11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④ 부활

■ 휴거

삼일 반 후에 이들이 다시 부활하고 세상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신다. 역사 세계가 끝나면 이 땅 위에서 휴거가 실제 벌어진다.

■ 기능의 부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매일 현실에서도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그 말씀으로 살 기회가 끝나면 그 기회는 종료되고, 말씀으로 산 것은 신령한 기능으로 부활된다. 또 그 기능이 성화되는 순간 그 기능이 평소 이용하던 직책, 직장, 돈, 가정, 건강, 명예, 자기의 감정 같은 관련 물질들은 세상의 박해로부터 자유 할 수도 있고 버려질 수도 있다.

■ 요소

주님의 재림 전 이 땅 위에 지나가는 모든 현실에서 성화된 기능은 하늘의 존재가 되어 그 차원이 다르게 된다. 이 성화된 기능은 다섯

째 인을 땄 때 제단 아래 호소하는 존재며 자기의 다른 요소가 또 그렇게 반복을 해야 한다면 그 요소를 돕는 이런 생애를 계속 이어간다.

■ 최종

주님이 최종적으로 이 땅 위의 모든 기회를 모두 끝내면 그때 성화된 기능은 하늘로 올라간다.

■ 두려움

세상은 이 땅에서 세상 식으로 이겼으면 끝난 줄 알았으나 이후에 하늘의 은혜로 이 땅 위의 자기들이 침노조차 할 수 없는 차원이 되는 면을 보며 두려워하게 된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모두 없애고 걱정이 없다고 하던 시점에 복음은 더욱 많이 뻗어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주후 313년에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고 보니 로마는 이미 속으로 기독교 국가가 될 상황이었다. 그때도 또 재림 때까지도 우리와 교회에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 생기

생기가 들어가서 자기 발로 일어섰다는 것은 이 땅 위에서 말씀으로 죽고, 세상이 이겼다고 확신한 기간이 지난 다음, 말씀으로 죽은 것은 죽지 않고 죽음을 초월한 신령한 세계의 것이 되어 세상이 손을 댈 수도 없게 되었음을 보이는 것이다.

■ 요셉

형들이 확실히 없애 버렸고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아주 안심을 했는데 요셉이 총리로 나타난 것은 이제 요셉을 미워하는 옛사람으로

서는 요셉을 눈앞에 두고도 다시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렇게 된 것은 요셉의 요행이나 인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라는 직접 은혜 역사로 일으켜 세워서 된 것이다.

(11) 생기

계11:12

계11:12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① 하늘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이제 성도는 이 땅의 존재들과 땅에서 함께 뒹굴며 싸우던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도 없는 신령한 존재가 되었으니 올려다보고 부러워할 대상이라는 것이다.

② 구름

그렇게 되는 과정에 구름을 사용했다. 하늘의 방법이며 하늘에 속한 은혜로 되었으니 땅에 속한 인간들의 눈에도 이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계11:13

계11:13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③ 신령한 변화

그런데 이런 신령한 변화는 그들이 박해한 성도의 것이니 세상 사

람은 구경만 하고 있어도 되는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두고 애굽은 구경만 해도 되는 것인가?

④ 박해

10번의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비록 애굽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심각하게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역사 이후로 세상이 비록 믿지는 못해도 교회를 직접 박해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지해롭지 못했다. 성의 1/10이 깨어졌으니 남은 성도들과 자신의 다른 면을 연단하기 위해 세상에게 일부만 능력을 보였고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숫자 역시 그렇다.

계11:14

9) 다가오는 대접 재앙

계11:14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⁴³⁾ 이르는도다

(1) 셋째 화

둘째 화에 이어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 어떤 현실이라도 빈틈은 없다. 이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를 힘들여 끝내는 순간에 바로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한다. 시달리거나 좋은 마음으로 얽힌 일이라 해도 하나의 일에만 매몰되면 그 다음 일을 잇기 쉽다. 큰일을 하며 크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 일도 잘 하지만 이어지는 다음을 늘 놓치지 않는다.

계11:15

(2) 일곱째 천사의 나팔

43) 하나님의 일정은 느슨하지 않음.

계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① 대접 재앙 시작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울렸다.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된다.

② 응원과 도우심

그런데도 아직 우리가 준비할 일들을 마련해 주신다. 10장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11장에서 내면을 정리하며 증인의 생활로 자기 현실을 감당한다. 바로 이 순간에 하늘에서는 큰 응원과 도우심의 역사가 전해진다.

③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은 박해를 하고 이긴 것만 보지만 신앙의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된 승리만 보여 서로가 이긴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6장의 백마 운동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말씀의 성결 역사다. 역사 이후에 세상은 교회를 늘 이겨 왔고 교회는 재림을 눈앞에 두고 역사 교회 전체를 통해 가장 높은 차원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의 입장이 이렇다. 알고 보면 감사하고 담대할 일이며 세상을 굽어보며 비웃을 일이다. 원래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만이 있을 뿐이다.

계11:16

(3) 택자의 위치

계11:16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이십사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① 24장로

계시록 4장에서 우리의 소망인 우리가 갈 영계에 보좌와 24명의 장로들이 있었다. 역사적으로는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나면 세상을 거쳐 간 택자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위치에 설 것이다. 보좌에 더 가깝게 또는 더 큰 사명을 맡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나 하나님께 붙들려 영계를 영원히 책임 맡을 신앙들의 총합을 24 장로라고 했다. 이들이 오늘 지상에서 교회가 아직도 천국을 준비하며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영계보다 이 땅 위에 교회의 완성을 위해 고생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붙들려 필요할 때마다 그 모습을 계시록에서 드러낸다.

② 기록 이유

지금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질 직전인 계시록의 11장 단계에서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가 내부를 스스로 먼저 점검한 상황에서 또 한번 그들이 기록된다. 이렇게 기록해 주신 것은 나팔 재앙에서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며 이 땅 위에서 모든 구원의 기회와 신앙의 실력 마련의 연단 기회를 겪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 우리의 고난이 마련하는 하늘의 세계를 보여 주며 힘을 돋우고 있는 것이다. 마라톤의 마지막 순간에 눈앞의 결승 지점의 환호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대학 입시를 위해 12년을 공부한 학생의 마지막 여름 방학이 고비인데 대학의 합격 순간과 이후에 대학 생활의 좋아 보이는 모습이 도움이 되는 것과 같다.

계11:17

(4) 경배

계11:17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① 하늘의 모습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고 있다. 이런 분과 영원히 변치 않고 살아가는 보좌 앞에 24 보좌를 보며 대접 재앙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늘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장면이 우리가 곧 합류할 그곳이다. 이 땅 위에 우리는 이런저런 변동이 많았고 우리의 환경은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있었으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세계는 늘 동일했다. 환경에 변동되지 말라는 말이다.

② 왕 노릇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힘이 없어 흔들릴 분이 아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림으로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은 절대자 완전자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가 겪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고 주권으로 섭리하고 있으니 어떤 박해도 그 박해의 티끌 하나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구원의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강조다. 박해 때도 복음의 평화 시에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세상 왕은 미쳐 빠뜨리는 것이 있으나 전지와 전능의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럴 염려가 없다.

계11:18

(5) 이방들의 분노

계11:18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① 대적

이방들이 분노하고 지옥에 던져질 세상이 사단의 분노에 피동되어 교회와 우리의 개인 내면의 신앙을 삼키려고 우리를 대적한다.

② 주의 진노와 결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세상은 오늘 세상이 그들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 노릇 하도록 주신 범위가 있으니 그 범위 안에서는 마치 그들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나 알고 보면 주님의 주권 안에서 그 어떤 일과 핍박도 단단히 통제가 되어 있다. 오히려 주님이 때가 되면 진노하며 이 땅 위에서 살아간 이들까지 심판하며, 그들 때문에 고난당한 선지자들에게 증인 생활을 보상하고, 일반적으로 믿는 이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훗날 계20:13에서 최후 계산도 있으나 오늘은 시공을 초월하여 매 현실이 끝날 때마다 해당된 결산이 있다. 또한 택한 백성 전부를 상대로 어떤 면으로든지 주님의 구원 역사를 경외한 그 신앙, 그 마음, 그 자세, 그 인격에 대해서는 일일이 영원한 하늘의 실력과 영광과 대우와 상으로 갚아 주신다.

③ 멸망

동시에 오늘 세상을 죄로 망하게 한 자들은 멸망을 시킬 것인데 불
택자는 그 사람 자체가 영원한 지옥이 되고, 천국에 갈 택자라도 매
현실에서 부분적으로 바른 신앙을 배척하고 잘못 산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전부 지옥으로 분리 폐기가 될 것이다.

계11:19

(6) 성전 열림

계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① 성전

이런 경배의 격려와 축복이 이어진 후에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의 성전이 열렸다.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집이다. 이 땅 위에서는
별별 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구약에서 성전으로 따로 구
별해서 건축하고 유지했다.

② 영계

영계에도 성전이 따로 있을까? 그 나라는 계21:22에서 성전이 없다
고 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하늘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히 살 것이니 영계는
지상처럼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안의 언약궤까지 보여 주신다.

③ 하나님이 계신 세계

하늘나라에 성전과 성전 밖 마당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촛

대로 불을 밝혀야 할까? 하늘나라는 물질계가 아니며 시공을 초월한 곳이지만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 그렇게 적어 주셨다. 여기서 보여 준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세계를 보여 준 것이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작은 책, 지팡이 같은 갈대다. 여기서는 다시 그 말씀을 담은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동행하시며 그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니 의심치 말고 담대하라는 부탁이다.

④ 번개 음성 뇌성 지진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이 있었으니 8장에서 기도가 하늘에 올려져 하나님을 통해 다시 이 땅 위에 전개된다 할 때의 4가지와 같은 현상을 기록해 주셨다. 8장에서는 기도를 중심으로, 여기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일 뿐 실은 같은 일이다.

⑤ 강조의 중점

부모가 손가락으로 밥을 떠먹였다면 손가락으로 먹었다 해도 되고 부모가 먹었다 해도 다른 말이 아니다. 표현이 달라진 것은 강조의 중점이 다를 뿐이다.

⑥ 기도

우리의 기도를 붙들고 역사할 때 그 말씀에 맞는 참된 기도만을 붙들고 역사하시고 말씀에 맞는 기도만 천사가 올려간다.

⑦ 사육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중심의 사육으로 계9장의 황충 같은 독충이 그 야욕 달성을 위해 달려가는 부탁도 하늘로 올려 주실까? 믿는

우리도 돌아보면 황충 같은 때가 적지 않고 우리의 기도도 그런 때가 많다.

⑧ 큰 우박

번개는 성령의 역사, 음성은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 뇌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 지진은 이 세상의 큰 변동을 일으키는 역사를 말한다. 여기에 큰 우박이 있더라고 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역사를 비라고 한다면 파괴의 역사가 우박이다.

-요한계시록 12장-

▷ 12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중 교회를 기록하며 7가지 대접 재앙을 준비
대접 재앙은 최종이니 말씀으로 신앙을 구별하고 신앙 형성까지 살필 것

- ▶ 성경 내용 : 해를 입은 여자
- ▶ 계시 내용 : 신약교회의 출발과 계통

계12:1

3. 대접 재앙 준비3 : 교회 준비

1) 교회까지 준비

계12:1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 현실 대처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종말적 현실 대처를 위해 10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11장에서 나의 내면을 분석하여 미리 살펴봤다.

(2) 신앙의 내력

이제는 교회의 역사와 신앙의 내력까지 살피게 하신다. 우리는 한 번뿐인 기회를 두고 말세적 전투를 하며 생사를 결판낸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준비했던 구약의 시기가 있었고, 때가 되어 주님이 오셨으며, 사활의 대속을 완성한 후 이 대속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도록 준비하는 신약의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과정에, 사단과의 전쟁사를 기록하신다.

(3) 매 현실의 의미

우리의 매 현실의 이 한 번의 전투가 이 현실에서 마련할 것을 영생으로 마련하느냐 영원히 지옥에 버리느냐는 문제지만, 이런 식으로 역사 이후에 계속되어 온 내력을 통해 우리의 매 현실에 더욱 큰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준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배경을 주고 있다.

(4) 만반의 준비

계시록 전체는 종말을 적었다. 6장에서 일곱 인을 떼고 8~9장에서 일곱 나팔 재앙을 펼쳤고, 16장에서 펼칠 대접 재앙 때문에 10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최후 전쟁을 다지고 다지며 만반의 준비를 기록하고 있다.

(5) 말씀의 자기화

학생은 평생을 좌우하는 대입 시험을 위해 12년 동안 10개 과목을 세부적으로 철저히 준비한다. 우주를 향해 날리는 로켓 하나를 위해 수만 개의 부품을 그 오랜 세월 설계하며 제작하고 수많은 검사로 만반의 준비를 한다. 그런데 영생의 끝없는 세계를 살아갈 무한한 우리의 내세를 위한 이 정도의 준비가 복잡하다 인식하는 자는 하늘의 세계를 너무 우습게 아는 사람이고, 기본자세가 이러하면 어떤 복을 줘도 내 버리는 사람이 된다. 대접 재앙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말씀의 자기화’, ‘말씀으로 자기 분석’, ‘교회의 역사적 진행’으로 적어 주신 것을 두고 분량이 적어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깨달음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자. 너무 복잡하고 분량이 많다는 생각은 귀신이 사전에 우리를 삼키는 유혹이니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자.

2) 주님의 신부, 교회의 투쟁

(1) 구약 교회

① 큰 이적

하늘에 큰 이적이 있다. 교회보다 큰 이적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다.

② 교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며 무한한 진리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나님께서 길러 갈 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럴 때는 주인과 종으로, 우리를 만들고 보호하고 길러 갈 때는 아버지와 아들로, 그리고 영원무궁토록 주님과 우리의 가장 행복한 모습은 주님은 신랑으로 교회는 신부로 표시한다. 그 표시마다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는 면이 달라진다.

③ 여자

여자가 했으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존재다.

④ 해

해를 입었다 했으니 하나님으로 돌려 있다.

⑤ 달

교회의 발아래는 달이 있으니 교회가 선 곳은 달이다. 해의 은혜를 받아 반사하는 달의 위치나 역할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이 원인이며 중심이다.

⑥ 열두 별 면류관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으니 교회는 주님을 모시고 암흑과 싸워 승리만 해야 하는데 교회의 머리에는 열두 별이 있다. 하나님의 종들로 교회는 승리하며, 교회의 승리에는 바른 종들이 있다.

계12:2

(2) 메시아

계12:2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① 아이

이 교회가 아이를 가져 고통을 겪는데 이 아이는 5절에서 오실 주님이다.

② 여자

2절에서 고생하는 이 여자는 구약 교회다.

③ 박해

오실 메시아 주님이 오시기까지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죽었다. 겉으로는 사방의 이방 원수들에게 고초를 겪은 듯하나 실은 이스라엘 안에서 박해가 그렇게 심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역사의 그 많은 교회가 겪은 피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다.

④ 방해

아담으로부터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쳐 모세로 출애굽을 하며 사사 시대와 왕정국가의 수많은 세월 속에 구주의 계통이 끊어질 뻔한 일은 허다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출생 직전은 더욱 극심했기 때문에 구약 교회도 마지막에는 주님을 모시려 세례 요한이 나섰고 사단은 예수님의 출생 자체를 막으려 필사적이었다. 언제든지 이 땅의 권세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구약 교회 마지막 400여년은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식민지 상태로 만들었다.

⑤ 특별 관리

오늘도 제대로 된 신앙이 하나 형성되는 과정은 마찬가지로다. 진리의

계통을 이어 가는 신앙의 노선도 겹보기는 어찌다가 형성되는 듯해도 실제로는 기적에 기적이 이어지며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와 간섭으로 만들어진다. 그 과정에서 충성하는 교회도 전력을 다하며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게 된다.⁴⁴⁾

계12:3

(3) 또 다른 이적

계12: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① 붉은 용

또 다른 이적을 보여 주시는데 한 큰 붉은 용이 나온다. 사단이 힘으로 교회를 유린할 때는 용으로 적는데 붉은 용이란 분노에 찻다는 뜻이다. 사력을 다해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오실 주님을 막으려 총력을 기울였다.

② 일곱 머리, 열 뿔

그런데 이 용은 머리가 일곱이고 뿔을 열이나 달고 있다. 이 땅 위에 모든 사상을 다 동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을 모두 동원하여 구원의 주님을 막고 나서는 것이다.

44) 요16:21,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크게 보면 구약 교회의 수고로 신약 교회가 출발하는 순간을 말씀했고, 신약 내내 새 교회와 새 신앙이 출발할 때마다 그러하며, 각자 자기 현실을 거치며 자기 속에 새 신앙의 새 요소가 만들어질 때마다 늘 해당되니 새 사람의 새 출발에는 이전 사람이 십자가 고난을 거치는 법.

③ 일곱 면류관

그 머리들에는 일곱 면류관이 있었으니 천하제일의 사상들, 어떤 다른 사상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최고봉들을 모두 끌어모아 놓았다.

④ 긴장

매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을 삼키려는 악령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현실에서 우리 신앙을 사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압도하고 또 힘으로도 우리 신앙을 삼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는 방심하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계12:4

계12:4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⑤ 꼬리

용에게는 꼬리가 있고 그 꼬리가 하늘 별 1/3⁴⁵⁾을 끌어다가 세상에 내던졌다.

⑥ 삼키고자

이미 이 용은 세상의 일반 종교인들처럼 교회 내 어설픈 지도자들을 세상 화시켰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세상의 도덕을 가르치고 그 나라나 그 주변의 세상 정치와 사상의 앞잡이가 되거나 한통속이 되어 활동하게 해 놓았다. 교회를 삼켜 본 경험으로 신앙의 생명 되는 교회의 구원 계통을 최종적으로 노리고 있다. 교회의 모든 지난

45) 복음

날의 소망과 노력은 구원이며 이 구원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도성 인신이며 오늘 우리에게는 매 현실에 그 주님을 다시 모시는 일인데, 용은 그 구원을 통째로 삼켜 변질을 시키거나 땅의 것 죄의 것 사단의 것을 만들려 필사적이다.⁴⁶⁾

계12:5

3) 예수님의 십자가

계12:5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1) 초림

① 출생

모든 방해와 박해를 뚫고 주님이 오셨다. 오늘 내 현실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모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상황과 같다. 교회로 말하면 천하 교회가 유행과 시대를 따라 세상 분위기에 편승하여 이 땅 위의 여러 종교 단체 중 하나처럼 대중 운영을 하는데 한 교회만은 어떤 타협도 회유도 섞임도 없이 원래 구원 유일주의로 나간다면 한 아이의 출생이 된다. 비록 작아 보여도 이 아들은 신인양성일위요 죄가 없는 주님이므로 마침내 사활의 대속을 완성할 것이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손에 철장을 쥐고 죄와 사망과 마귀를 부숴 버릴 구원의 주님이다.

② 대속의 권위와 위치

현실에서 이 주님을 모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사활의 대속을

46) 꼬리는 제일 끝이다. 용의 운동이 만든 뒤를 보니 하늘 별을 삼키는 걸 말이다. 변덕으로.

완성한 주님은 행1:9에서 하늘로 올려 가셨다. 세상 끝날까지 믿는 우리와 항상 이 땅 위에서 어떤 현실에서든지 마28:20의 약속에 따라 실제적으로 우리와 친히 동행한다. 그러나 사할 대속의 권위와 위치는 보좌 앞으로 올려 간다.

계12:6

계12: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2) 신령한 은혜 시대

① 신령한 교회

예수님의 승천으로 신약 교회는 신령한 은혜 시대를 맞게 되었다. 외형적으로는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고 초대교회를 이 잡듯 잡아 박멸하려 나선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보이던 교회가 볼 수 없는 신령한 교회가 되었고, 주님은 하나님 보좌의 위치에서 볼 수 없는 주님으로 매 현실 우리를 붙들고 동행하신다.

② 1,260일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고 각자 자기의 신앙 기간 동안 매 현실에서 주님이 주신 사할의 대속으로 중생의 씨를 마음에 기르고 인격에 담는다. 이렇게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며 길러지는 1,260일을 갖게 되며, 신약 전체 기간에 사할 대속으로 교회가 자라고 재림의 주님을 맞게 된다. 1,260일은 신약 전체의 기간이 되는 동시에 중생된 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각자에게 주어진 기간이다. 또한 우리의 매일은 항상 이 1,260일의 기간에 속한다.

③ 장소

어디서 기르는가? 주님의 대속 안에서, 진리와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곳이 어떤 형편이든 주신 현실 그곳이 종자로 받은 중생의 씨를 기르는 환경이다.

- 광야 : 물, 생명이 없는 곳
- 예비한 곳 : 말세를 이길 수 있는 곳
- 1,260일 : 신약교회 끝날까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매일

계12:7

4) 용과 교회의 전투

계12: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1) 전투

이 땅 위에서 우리 각자와 교회가 생사를 걸고 주님을 모시기 위한 고난과 오신 주님으로 자라가기 위한 싸움을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영계 배후에서는 미가엘이 대장이 되어 천사들을 동원하여 용과 그 밑의 귀신들과 전쟁을 벌인다. 앞에서는 우리의 전투가 있고 우리 위에서는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나서고 있다.

- 하늘의 전쟁 : 천사와 전쟁, 신령한 전쟁,
 악령이 우리 마음까지 밀고 들어온 것

계12:8

(2) 사단의 패전

계12:8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①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전쟁

사단은 이미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완성된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② 심신의 기능을 빼앗음

그러나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매 현실에서 우리의 상급과 심신의 기능과 신앙의 기회들을 조금이라도 뺏어 갈 수 있다.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③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사단이 첫째 아담에게는 이겼으나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는 패전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뱀후2:19⁴⁷⁾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도권을 행사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사단이 맞설 수 없다.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는 말씀은 교회와 우리의 매 현실을 두고 사단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이전과 사활의 대속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왕권을 행사했으나, 사활의 대속을 입은 우리에게서는 왕권적 활동은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

계12:9

47) 뱀후2:19,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3) 쫓겨난 사단

계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① 옛 뱀, 마귀

사단이 왕권 적 위치에서 내어 쫓겼다. 이것이 에덴동산에서 아담을 이겼던 옛 뱀이요 우리를 죄 짓게 하는 마귀다.

② 재림 때까지 활동

온 천하를 꾀어 자기 세상을 만들어 왔으나 이제는 이 땅으로 내쫓겨 이 땅으로 전부를 삼고 하늘의 세계와 상관없는 불택자들과 불신자들만을 상대로 재림 때까지 활동한다.

③ 옛사람

중생이 된 후에도 믿는 우리 심신 속에는 여전히 이 땅 위에 붙들려 살 수 있는 옛사람이 있다. 중생과 상관없는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만 보고 사는 절망의 요소는 그들이 붙들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

④ 성화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중생된 영이 마음을 통해 옛사람으로 살 기회와 요소를 말씀으로 꺾고 이용하고 사용하면 오히려 깨끗하게 바뀌며 성화가 된다.

계12:10

(4) 큰 음성

계12: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① 하늘에 큰 음성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우리를 깨우쳐 준다. 이 땅 위에 내려와 세상을 동원하여 우리 속 심신의 요소를 세상으로 붙들어 내리는 악령에게 위협당하지 않게 깨우친다.

②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는 기본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무조건 받아 사는 현실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질 수 없다. 우리는 사단을 상대할 수 없고 그의 사자들을 이길 수 없으나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이 승리를 해 놓은 피 공로가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복음으로 전해진 진리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며 성령이 일곱 눈과 일곱 영으로 밝히 인도하시니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된다는 가르침이다.

③ 참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사단이 우리 몰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슬쩍 스쳐 지나가는 마음의 자세까지 읊기 1장의 하늘의 회의에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참소하듯 했다. 그러나 사활의 대속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은 값을 치렀다며 피의 증

거를 내놓는 바람에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고소를 할 수가 없어 이 땅 위에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죄를 짓도록 하는 상황이 되었다.

계12:11

(5) 승리

계12:11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 신앙의 앞선 선배들과 동지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가지고 11장의 두 증인의 생애를 통해 이 땅 위에 두고 갈 물질인 목숨과 재산과 생애 대신에 말씀으로 사는 생활을 고수하여 사단을 이겼다. 이들은 버가모의 안디바처럼 또 그 교회 교인들의 신앙처럼 승리한 이들이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따르면 된다.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계12:12

(6) 이기는 방법

계12: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 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런데도 아직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마귀가 그들을 목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것이 이 세상의 땅과 바다에 붙들려 있는 자들의 후회할 상황이다. 이 세상의 든든한 땅과 이 세상의 죄악의

바다에 붙들리지 말고 이 땅 위에 살면서도 하늘의 소망으로 살면 즐거워할 일밖에 없음을 깨달아 이렇게 이기고 대접 재앙을 넘어서자.

계12:13

5) 풍요로운 세상이란

계12:13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 사단

① 사단의 위치

사단의 위치는 처음에 영계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신 높은 천사의 위치에 있다가 유1:6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므로 내어 쫓겼고 창3:1에서 에덴동산의 아담을 죄 짓게 만들어 아담과 그 후손의 임금이 됨으로 인간에게 맡겨진 물질계인 이 우주 전체를 장악하게 된다.

② 사단의 패전

둘째 아담 예수님에게 패전하게 되자 인류와 물질계를 임금으로 다스리던 지배자의 자리에서 택자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 주고 쫓겨났다.

③ 우주의 왕

사단은 오늘도 넓게 보면 물질계인 이 우주의 왕이다.

④ 쫓겨난 신세⁴⁸⁾

범위를 좁혀 택자들의 구원에 관련된 현실에서는 쫓겨났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긴 신세가 되었다.

⑤ 내적 투쟁

믿는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 속의 불신적 요소 속에는 사단이 활동하며 믿는 사람의 내면을 끝없이 안 믿는 요소로 만들려고 투쟁한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주님의 대속을 힘입어 자기 속에 들어와 자기를 삼켜 나가려는 같은 용과 싸우게 되면 대처가 가능하다.

⑥ 사단의 총력

예수님의 대속이 완성되기 전에는 예수님의 인성까지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던 용이 대속이 완성되자 이제는 대속이 미치지 않는 불신자의 세계인 땅에서만 활동하게 되고 세상이 끝나면 그대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매 현실마다 믿는 사람이 그 현실에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가져가지 못하고 이 세상에 파묻어 버리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이 일에 대한 용의 심리를 말하고 있다.

⑦ 사단의 본질

세상을 지배하던 사단을 이겨 불신자의 세계로 밀어낸 예수님, 그 남자를 낳은 것이 교회이므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사단의 본질이며 세상이 믿는 우리를 상대하는 자세다. 창3:15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한 그대로 구약 교회의 준비로 주님이 오시게 되고 사단의 지배권인 머리를

48) 영계에서 공중으로, 공중에서 땅 위로, 가치적, 영생적, 진리적, 신앙적, 차원적으로 쫓겨남. 한 번 더 쫓겨나면 영원한 지옥

밟아 버렸다.

⑧ 사단의 발악

사단으로서는 죽기 직전이니 죽을 때까지 발악을 하지 않겠는가? 오늘의 세상 현실이 매 현실 단위로 종말이 되고 다시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속에 믿음으로 살아야 할 기회와 힘과 요소를 하나라도 더 세상에 주저앉히려 발악한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 세상을 상대할 때 세상의 기본 흐름을 알지 못하면 방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12:14

계12:14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닳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2) 광야 생활

① 독수리의 두 날개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⁴⁹⁾ 중생된 사람은 이 땅 위에 붙들려 분노한 사단에게 자기의 영생할 기능을 다 빼앗길 수도 있으나 믿는 사람이 구원하신 주님의 대속을 힘입어 말씀으로 살려 하면 인간이 초월할 수 없는 능력을 받게 된다.

② 광야

세상이란 하나님과 연결되어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

49) 여기 독수리는 죽음이 아니라 인간과 세상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 두 날개는 신5:32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빠르게 초월하여 올라가는 면이다.

다. 그러나 성령과 대속의 피 공로와 진리가 역사하여 매 현실에서 인간으로 불가능한 하늘의 생활과 하늘을 향한 걸음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도 그 세상 생활이 세상의 죄악의 낙을 버린 광야 생활이 될 수 있다.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생사를 초월하여 그렇게 살려 한다면 가능하고 그 자세와 그 생활의 방법이 바로 자기가 있어야 할 광야 즉 자기 처신과 자기 위치가 된다.

③ 장소적 의미가 아님

그 광야 생활은 사단의 침노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니 아라비아 사막 어디쯤인가 아니면 사하라나 고비 사막 어디쯤인가? [=>②광야에서 옮겨 왔습니다.] 그런 장소적 위치가 아니라 어떤 현실 속에 살아도 세상에 정과 마음을 주지 않고 말씀과 성령으로만 살려는 그 인격과 언행이 바로 광야 생활이 된다. 사단이 우리를 잡아들일 때 물질인 세상 명예와 안일로 우리를 낚는데 그런 광야 생활은 붙들릴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용의 낮을 피한 것이다.

④ 용, 뱀

그 용이 자기가 왕으로 활동하는 세상에서는 용이지만 믿음 생활을 바로 하여 세상 안에서도 세상에게 붙들리지 않고 사는 우리에게는 뱀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우리에게 용처럼 역사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용은 뱀처럼 우리를 유혹하려 할 뿐이다.

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리고 이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남은 생애가 되고 그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정도다. 신약의 전 기간을 주님의

대속으로 교회가 천국 준비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을 1,260일로 표현할 때는 나날이 이어지는 투쟁을 손으로 헤아려 가며 싸워야 할 세밀한 전투를 말하고, 한 때 두 때 반 때로 적을 때는 가장 짧은 표시로 신약의 전 기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크게 볼 때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뜻이다.

⑥ 부탁

고난이 심해져도 돌아보면 잠깐이니 인식을 바꾸어 참고 견디라는 부탁이다. 의사는 수술이 몇 시간이 걸린다 해도 마취하기 때문에 잠깐이면 된다고 말한다. 실제 몇 초 만에 의식을 잃은 후 깨면 잠깐 졸은 시간처럼 느낀다. 만약 마취 없이 수술이 진행된다면 그 몇 시간은 몇천 년처럼 느껴질 것이다.

⑦ 박해의 기간

이 박해의 기간을 통해 교회는 천국에서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께 붙들려 영원히 주님의 몸으로 살 합당한 실력을 기르고 우리는 각자 그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자신을 만든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매 현실에서 진행되는 광대한 세계의 형성 과정이다. 아이가 매 순간 어머니 태중에서 출생 이후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야 할 인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과 같다.⁵⁰⁾

계12:15

(3) 뱀의 유혹

50) 욥에게 1차 재산 시험을 하기 전에 산울로 둘러 준비의 기회를 주셨다. 기본구원적으로 사탄은 우리에게서 주도권을 뺏겼다. 그러나 심신의 현실 기회는 남았다. 이것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할 기회를 주신다.

계12:15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① 유혹 방법

비록 세상은 사단의 왕국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에 붙들리지 않고 광야로 사는 성도와 교회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세상 속으로 불러내야만 손을 댈 수 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를 사단의 세력권에 불러들이는 방법은 세상의 각종 좋은 것을 쏟아 내는 것이다. 여자의 뒤에서 입으로 물을 강 같이 넘치게 토하여 그 강물에 교회가 떠내려가게 하더라 했다. 교회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되 온 세상에 각종 자유, 인권, 복지를 넘치게 하고 세계를 다니는 교통의 편의를 주고 각종 기술 과학의 발달로 인터넷 통신이 넘치게 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사단의 이빨 대신 뱀의 간교한 제안에 솔깃하여 자진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② 종교 자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세상은 종교의 자유가 차고 넘치고 있으나 교회를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만큼 세상도 풍요롭고 좋아졌다. 잘 믿는 교인조차 스스로 교회를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추세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생존경쟁에 필요하여 목이 타듯이, 뱀은 우리 뒤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넘치게 하여 우리로 어느덧 그 속에 빠져 떠내려가게 한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그냥 오늘의 자유와 풍요와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귀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귀신이 나를 잡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계12:16

(4) 인본주의

계12:16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① 주님의 개입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귀신의 입 속으로 들어가게 그냥 두지 않는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넘치는 세상에 방심하다 아주 주저앉을 상황이 되면 주님이 개입을 하신다.

②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⁵¹⁾ 세상의 좋은 것을 광야로 도망 간 우리에게 쏟아부어 우리가 도망 간 그 광야마저 옥토가 되어 우리가 세상에게 붙들릴 상황이 되는 순간 주님은 세상을 동원하여 그 물을 빼 버린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도 세상을 마음껏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참 이상적인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런 일장춘몽을 깨뜨려 정신을 차리게 한다.

③ 주5일 근무제

지금 주일은 법적으로 쉬고 주일에 세상 일을 못 하는 우리를 위해 주5일 근무제가 되어 토요일까지 쉴 수 있게 했다. 술 담배를 강제로 권하는 일도 건강을 위해 막아 놓고 놓고먹으며 성경만 읽고 교회에 충성을 해도 세상이 생활비를 대 주는 상황이다. 이 정도면 용

51) 13절에서 용이 핏박을 했고 14절에서 뱀의 낮을 피했다고 했는데 15절은 여자의 뒤에서 뱀이 물을 토했고 16절은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이라 했다. 용과 뱀은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과 방법을 표시했으며 속으로는 하나의 귀신이라는 뜻이다.

이 물을 강같이 토해 낸 것이 아닐까, 우리 뒤에서 물을 토했으니 후원이 된다.

④ 맹수의 이빨

그런데 세계가 갑자기 전염병으로 주저앉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서 교회 문만 닫도록 세상의 안색이 급변하며 교회를 삼킬 듯이 맹수의 이를 드러냈다. 이것을 대부분 교회는 종교 탄압으로만 느끼고 세상 정권을 향해 반발하지만, 세상이야 원래 세상이니 교회를 삼키는 것이 본성이고 맹수성을 포기하는 세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현실에 충분히 안주하도록 만들어 교회와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해이하게 하여 광야의 성도가 세상 속에 들어가도록 사단이 세상 전체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가 그 함정에 깊이 들어가게 되자 주님이 그 판을 깨는 것이다.

계12:17

(4) 바다 모래

계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① 속화

사단이 광야로 도망가서 사단의 이빨과 발톱이 미칠 수 없는 거리를 확보한 교회에게 세상의 좋은 것을 마구 쏟아부음으로 세상 속으로 끌고 들어오려 한다.

② 사단의 다른 전법

다시 광야로 갈 수 없게 퇴로를 차단하면 독 안에 든 쥐가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이 땅을 뒤흔들어 그런 환경을 깨뜨리니 사단은 또 다른 덫을 놓고 다른 전법을 들고 나온다. 사단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믿는 우리 하나하나를 완전히 잡아들일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는 수가 없다. 물을 강같이 토함으로 될 듯했는데 이 방법이 마지막 순간에 실패를 하자 사단은 더욱 분을 내고 다음 방법을 가져온다.

③ 바다⁵²⁾ 모래 위

이번에는 '바다 모래 위'라는 위치를 통해 성도를 양면으로 잡아들이려 한다. 바다 모래는 육지와 바다 사이다. 죄악의 세상과 도덕의 세상을 양면으로 사용하여 좌우 협공이 되면 이리저리 치우쳐 속게 되고 잡아들일 방법이 된다.

④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교회가 신앙으로 깨어 사단과 맞서며 오늘 세상에서 하늘만을 소망하는 내 속의 살아 있는 신앙의 요소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꼭 지키고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매 현실에서 살아가는 생명성 있는 산 신앙을 기어코 모두 삼키려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52) 도덕 세상과 땅, 죄악의 물결

6. 승리의 신앙

13~18장

1. 바다 짐승 (13:1-10)
2. 땅 짐승 (13:11-18)
3. 14만 4천인 (14:1-5)
4. 세 천사 (14:6-13)
5. 구름 위에 앉은 이 (14:14-20)
6. 유리 바다 (15:1-4)
7. 일곱 천사 (15:5-8)
8. 일곱 대접 (16:1-21)
9. 음녀 (17:1-6)
10.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17:7-18)
11. 바벨론 (18:1-24)

- 요한계시록 13장 -

▷ 13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중 교회를 기록하며 7가지 대접 재앙을 준비

최종의 대접 재앙을 안팎으로 준비해도 신앙을 삼키는 양면의 세상 전법

- ▶ 성경 내용 : 바다 짐승, 땅 짐승
- ▶ 계시 내용 : 세상의 죄악과 도덕

■ 대접 재앙 준비4: 세상 분석

- 죄악 세상

* 13장의 의미

주님의 대속을 받은 성도는 사단의 종이 된 일반인들과는 세상을 사는 근본과 신분이 다르다. 범죄 이전의 에덴동산의 아담과 같은 입장이 되었다. 아담은 영은 물론 심신에도 죄가 없었으나 중생된 성도는 영만 죄가 없고 심신은 타락 후와 같다. 아담은 예수님의 대속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뱀과 싸울 수 있었다. 아담

이 지면 영이 죽고 아담의 심신은 영원히 뱀의 종이 되고 이긴 뱀은 뱀이 아니라 용이 되어 아담과 온 천하를 장악하며 왕이 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받아 다시는 죽지 않는 영이 되었고 우리의 심신도 악령과 중생된 영 사이에서 죽는 날까지 주인을 선택할 자유를 받았다. 악령은 우리의 심신을 매 현실에서 에덴동산에 서처럼 다시 죄를 짓게 할 수 있으나 다음 현실에서는 새로 싸워야 한다. 매 현실이 별도로 종말이 된다. 우리도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 용과 새로 싸울 수 있게 되었으나 한 현실에서 우리의 심신이 영에게 붙들려 악령을 이긴다 해도 그 다음 현실은 다시 새로 싸워야 한다. 평생 진행되는 모든 현실에서 악령과 중생된 영은 우리의 심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한다. 우리 몸이 죽는 순간 우리 심신이 살아온 평생을 두고 죄와 의로 산 부분을 기능별로 시간별로 전부 분류하여 죄로 산 부분은 영원히 악령의 것이 되어 악령과 함께 지옥으로 가고 의로 산 부분은 영원히 하늘의 것이 된다.

계시록 13장에서 용은 죄악 세상을 가지고 매 현실에서 믿는 우리를 끌어들이려 시도한다. 먼저 바다라는 죄악 세상과 한 편으로는 11절에서 땅으로 표시한 도덕 세상의 보기에 좋은 면을 이용하여 우리를 삼키려 한다. 우리 심신은 죄악의 세상에 빠져도 죄를 짓지만 도덕의 세상에 붙들려도 죄를 짓는다. 죄악 세상이든 도덕 세상이든 우리의 심신이 세상에 붙들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1. 바다 짐승 (13:1-10)

계13:1

1) 죄악 세상

계13:1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1) 바다 짐승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바다는 넘치는 죄악에 빠지면 누구든지 죽는 세상을 말하며, 짐승이란 하나님 없는 세상이다. 인격이 없으면 짐승이 되니 이런 인성을 짐승화 된 짐승 수, 수성 獸性이라 한다. 사람이지만 사람다운 점이 없을 때 짐승 같다고 한다.

(2) 하나님의 형상

원래 정상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자존을 사모하며 완전을 향하고 불변의 단일의 세계를 소망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붙들리는 사랑, 그 사랑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의,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보는 거룩, 옳게 찾았다면 놓지 않는 진실, 이런 면을 가졌을 때 사람이다. 비록 어리고 서툴러 넘어져도 이런 것을 노력할 때 자라가는 것이 사람이니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인간으로 본다. 이런 면이 전혀 없이 오늘 세상이 전부며 말씀을 어겨 사는 죄와 제 마음대로 자기를 중심으로 살려는 악으로 살면 그는 웃어도 짐승이며 석학이 되어도 짐승이다.

(3)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란 죄악을 바탕으로 죄악에서 나왔으며 죄악을 무대로 삼은 세상이다.

(4) 일곱 머리, 열 뿔

그 짐승에게 뿔이 열 개, 머리가 일곱 개가 있다. 죄악 세상은 인간 으로서는 모든 힘을 다 가졌고 그 죄악 세상의 각종 사상과 철학과 지식이 마치 하나님의 지식처럼 완전해 보인다. 오늘의 국가가 가진 힘은 그 나라 안에서 전능처럼 보이고 강대국의 힘은 국제 사회에 인간 으로서는 감당 못 할 절대 권력처럼 보인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상을 보니 하늘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보이고 하나님 차원에서 완전하다 할 정도다. 지금은 공산주의를 이긴 자본주의 경제 체제와 자유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까지 과거 부자보다 낮게 품어 주니 이 사상과 이들이 펼치는 사랑의 세계는 지상낙원으로 보인다.

(5) 열 면류관

죄악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열 개의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어 세상의 힘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여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국가가 마음을 먹으면 그 사회의 교회를 다 이겨 버린다.

(6) 참람된 이름

이러니 이 짐승의 머리에는 참람된 이름이 적혀 있다. 참람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 신이나 된 것처럼 나올 때 표현하는 극언이다. 죄악 세상이 교회를 이기며 죄악 세상의 사상이 천하를 마음대로 운영하니 세상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듯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듯이

큰소리를 친다. 이것이 바로 참람된 이름이다. 참람된 짓을 한다는 뜻이 이름이다.

계13:2

2) 죄악 세상의 전법

계13:2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1) 표범처럼

성령에 붙들려 세상의 죄악을 똑똑히 들여다보니 세상은 표범처럼 보인다.

(2) 반점

그 정체를 감추기 위해 렘13:23에서 반점이 있다. 얼룩무늬로 숨어 기다린다.

(3) 정체

자세히 보면 표범처럼 보일 뿐이지 표범은 아니다. 정체를 가리려 하나 잘 보면 보이지 구별 못 할 정도는 아니다.

(4) 죄악 세상의 전법

성도가 세상에 마음을 뺏기니 눈을 뜨고도 당하는 것이다. 자기 신앙을 앗아 갈 남자나 여자가 결혼해서 잘 살아 보자며 유혹을 할 때 신앙생활을 약속한 것을 믿었는데 뒤에 속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보면 보일 정도인데 속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감았던 것이

다. 죄악 세상은 모두 이런 식으로 성도의 마음을 끌고 간다.

(5) 곰의 발

그 발은 곰의 발 같다고 했다. 맹수 중에서도 곰은 발을 가장 강한 무기로 사용한다. 뭐든지 앞에 있는 것을 거머쥐고 내리쳐서 부숴 버린다. 죄악 세상과 맞서면 앞발에 맞아 죽거나 끌려 들어갈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주님의 대속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죄악 세상이 제약적으로 깨뜨리거나 끌어당길 수가 없다. 그 짐승은 세상 안에서는 절대권을 행사하나 우리에게 주님의 대속 때문에 계시록 7장에서 주님이 우리 이마에 인을 치고 우리의 매 현실에서 우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험만 당하게 하신다. 무제한으로 무자비하게 그냥 당하도록 버려둔 것이 아니다. 사단의 힘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주님의 대속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해 딱 정해진 범위가 있다.

(6) 사자의 입

바다에서 나왔다 한 죄악 세상의 입은 사자의 입 같으니 뭐든지 정복하고 물어 부숴버리는 파괴성이 지극해 보인다. 세상에게 물려 살아남을 교회는 없어 보인다. 로마 제국이 초대 교회를 모두 물어뜯고 부수고 다 삼켰다고 생각했으나 주후 313년이 되고 보니 그렇지 않았다. 그 이전에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바로 이런 전시 효과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게 자기 신앙을 내어주면 사단은 협박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다.

(7) 뱀의 능력

죄악 세상을 있는 그대로 똑똑하게 봐야 긴장을 하고 주님께 은혜

를 구하고 있는 힘을 다해 싸워 볼 텐데 죄악 세상은 표범처럼 숨어 버리니 그 정체를 모르겠고, 그 발로 우리 신앙을 전부 내리쳐서 부수고, 그 입으로 교회를 통째로 삼켜 버릴 듯하다. 이렇게 억셀 수 있는 것은 아담을 죄 짓게 하여 세상을 점령한 뱀이 이제는 세상을 호령하는 용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용이 세상의 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의 임금이 된 자리와 처리권 모두를 죄악 세상을 통해 사용하기 때문에 죄악 세상은 사단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계13:3

3) 감당 못 할 유혹

계13: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1) 머리 중 하나

절대적 존재처럼 보이는 권위 있는 세상의 머리 일곱 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쳐서 죽을 지경으로 만드나 우리를 위해 아주 죽이지는 않는다.

(2) 다시 낮게

그 죽게 된 상처가 다시 낮게 될 때, 복 있는 사람은 전지전능해 보이던 세상의 실체를 알아차린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세상은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죽을 뻔했다가 다시 복구가 되는 모습에 환호하며 죄악 세상을 죽지도 않는 불사의 존재로 떠받든다.

(3)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완전히 끝나 버렸다. 이로 인해 죄악 세상이란 허수아비라고 생각하고 죄악 세상의 모두가 안심을 했는데 소련과 중공과 북한 안에 있던 공산주의 사상이 눈에 보이는 공산국가의 공산당 철학으로서는 망했으나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에서 사라져 공산국가를 이긴 자본주의 사회로 스며들어와 자본주의 사회를 소리 없이 공산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다. 주님을 모르는 세상은 공산주의가 죽는 줄 알았으나 이제는 공산주의의 단점이 고쳐져 든든한 복지사회와 지상낙원이 되었다며 짐승을 믿고 따른다.

계13:4

4) 죄악 세상의 배후 세력

계13: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1) 용의 권세

그 세상의 뒤에는 아담을 죄짓게 하고 오늘도 현실 속에 우리를 죄짓게 하는 용이 있고, 이 용이 죄악으로 교회와 우리를 삼킬 수 있도록 세상의 운영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별별 재주를 부리는 짐승의 모습을 보며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물론 믿는 사람조차 성령의 밝은 눈으로 보지 못하면 세상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감탄하며 하나님께 드릴 경배를 세상의 과학과 기술과 학문과 문명 발전에 드리게 된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이 당장에는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에 휩쓸린 성도의 마음이 문제다. 교회까지도 말씀을 어길지라도 세상을 따라가자는 운동을 벌인다. 오늘의 교회는 세상 깊숙이 들어가서 세상을 거의 다 닳았다고 보여진다.

(2) 세상의 권세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한 환자보다 오늘 대학병원 한 곳에서 살려내고 치료하는 환자는 비교할 수 없이 많다. 물 위로 걸어간 예수님의 기적보다 잠수함과 제트 보트로 바다를 휘젓고, 일기예보로 풍랑을 미리 손금 보듯 하는 기적이 넘치는 오늘이다. 세상뿐 아니라 신앙이 독실한 우리까지 주님보다 오늘의 세상을 더 존경하고 따르고 믿는 상황이다.

계13:5

5) 죄악 세상의 압도적 권세

계13: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1) 세상 권세

① 큰 소리

이 정도가 되니 세상이 우주를 점령하겠다, 인류의 수명을 나무처럼 만들겠다, 모든 질병은 물론 유전병까지 고치겠다며 힘껏 고향을 지른다. 학회들과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며 연일 과거에는 꿈에도 생각 못 한 성공 사례가 발표된다.

② 교회의 위치

그 과정에 이제 교회라는 것은 과학 문명에 달려가는 인류가 잠깐

쉬면서 가려운 귀를 긁어 주는 상담소 정도라 한다. 교회조차 스스로 세상의 휴게소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③ 참람된 입

이것이 큰 소리며 하나님 앞에 인간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참람된 입이다. 하나님이 만든 물질과 그 물질 속에 두신 물리를 잘 사용해서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감사한다면 작은 말이 되고 겸손한 경배자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낸 신화며 성경은 미개한 인류가 만든 꿈에 불과하다면서 인간의 진화와 발전은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말하면 이 말이 큰 말이다. 이런 말의 성격이 참람되며 이런 말을 뱉는 그 입이 저주받은 귀신의 입이다.

④ 마흔두 달

구원에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이런 나쁜 소리도 활동하게 하나님은 두고 보시고 그 기간이 마흔두 달이다. 매 현실에서도 이런 기간은 주어졌고, 한 사람의 여생에도 마찬가지다.

계13:6

(2) 훼방

계13: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① 큰 소리

세상이 믿는 우리를 향해 온갖 큰소리를 치게 되면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이제 하나님 대신 세상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 한다.

② 비교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한 것보다 또 교회를 통해 세상을 고통 준 것보다 세상이 좋아지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낫다며 계속 비교를 해댄다.

③ 훼방

하나님의 장막이란 하나님의 보호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낙원에 있는 이들뿐 아니라 이 땅 위에 살면서도 그 사상과 생활과 행동이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이들인데 이들을 훼방한다는 것은 이들을 무시하고 허는 것이다.

계13:7

(3) 박해

계13: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① 박해

이렇게 비판하고 헐어대는 정도를 넘어 교회와 직접 싸움을 벌일 때도 많고 그때마다 교회를 이기며 그들의 큰 소리는 점점 더 심해지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교회를 누르고 밟는다. 이제 습관이 되고 예삿일이 되었다.

② 운영권

교회를 감세로 대우하면 고마울 일이다. 또 교회도 세상의 땅과 도로를 사용하니 세금을 내라 한다면 당연히 내는 것이다. 정상적인

교회는 이 땅 위의 운영권을 세상이 가졌다는 것을 잘 안다. 하나님께서 롬13:6⁵³) 벰전2:13⁵⁴)을 주셨으니 교회는 세금을 거두겠다고 당연히 내면서도 딛전2:2⁵⁵)에 따라 세상의 집권자를 위해 평안을 기도한다. 그런데도 교회의 세금을 가져가며 도둑을 잡듯이 호령하는 것은 공연히 교회와 싸움을 해서 이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 이런 행위는 세상에게도 좋은 일이 되지 못한다. 세상은 세상에 사는 별별 종류의 족속들과 사람들과 사상과 통치 범위를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의 이름으로 다스린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심부름꾼이 되었으니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있어야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놔두신다.

계13:8

6) 죄악 세상을 이길 신앙

계13: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1) 제단 생활

① 불가능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가 들어있고 우리가 매일의 현실을 살아야 하니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53) 롬13:6,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54) 벰전2:13,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55) 딛전2: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② 제단 생활을 넘어서야

그러나 그들 위에 계신 주님이 지켜주시면 가능하다. 주님이 지켜주는 신앙은 11장에서 성전의 밖마당을 밟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생활을 지나 자신을 바치며 사는 제단 생활을 넘어서는 사람이다.

③ 목적

우선 오늘의 이런 환경 이런 형편 이런 세상을 현실로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르시려고 미리 택해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어린양으로 주님이 대신 죽어 구원한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으로 이런 세상조차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좋거나 이 세상에 속아서 붙들린 사람은 세상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게 된다.

계13:9

(2) 양심의 귀

계13:9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찌어다

계시록을 기록하여 오늘까지 우리가 매 현실에서 늘 바로 알고 살 수 있게 하신다. 13장에서는 이런 최악 세상의 내면을 낱알이 적어 주시고 알려 주시나 믿는 사람이라도 양심의 귀를 통해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구원을 받았으니 천국은 가겠지만 그 현실에서 마련할 공부를 외면하면 그 현실에서 배울 것은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계13:10

(3) 이길 수 있는 길

계13:10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① 이길 방법

죄악 세상이 그 어떤 권세로 어떻게 창궐하고 두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벗어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내놓으셨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힌다는 진리의 법이다. 세상을 가지고 싶은 자는 세상에 잡힌다. 세상을 쥐도 세상을 마다하면 세상에 잡히지 않는다. 하나님과 맞서고 천국보다 더 나은 오늘의 세상에서 공부를 잘해서 직장만 잘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이것만은 꼭 잡겠다고 한다면 그 직장과 공부가 나를 붙잡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세상을 하나님을 더 잘 모시고 천국을 더 준비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잘 사용하고 이용하면 사로잡는 자가 아니니 사로잡히지 않는다.

② 칼로 죽이는 자

칼로 죽이는 자란 세상 전법으로 세상을 사는 자다. 우리는 세상을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 기준과 세상 방법으로 세상을 붙들려고 달려가면 칼에 죽는다 했으니, 세상은 세상 전법으로 살겠다는 그 생각을 세상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 이미 신앙으로는 죽은 것이 된다.

③ 성도의 인내

성도의 인내 이것이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다. ‘성도의 인내’는 말씀을 버리고라도 잡고 싶은 세상이 있어도 그 세상을 포기하고 사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다.

④ 계속

인내의 핵심과 본질은 참는 것이 아니고 중단치 않고 계속하는 것이다.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대로 계속하면 인내가 된다.

⑤ 광야

죄악 세상은 1절 이하의 모습과 맹수성으로 매 현실의 우리 신앙을 삼키려 하고, 우리는 그 세상을 떠나 12장의 광야로 들어가면 간단하다. 세상 사람이 먹는 것을 다 먹으면서 천국을 준비하려 하니까 실패하는 것이다.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이 놀 때 함께 놀고 세상처럼 못할 것이 없도록 다하면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해 버리니 이런 지식과 인식을 바꾸지 않고는 신앙이 곁돌게 된다.

2. 땅의 짐승 (13:11-18)

계13:11

계13: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 세상의 양면

죄악 세상이 권세와 협박과 맹수성으로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없도록 맹렬히 달려드는 순간 도덕 세상이 그 반대편에서 우리를 끌어들이고자 협공을 한다. 공격은 일면보다 양면이 더 무섭다. 맹공을 상대하면 맹방에 치중하게 되고 피로감이 쌓여가는 그 틈에 휴전을 제안한다. 그러나 그 휴전이 진정한 휴전이 아니라 내부를 와

해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 사단은 죄악 세상으로 우리를 매 현실에서 사납게 몰아치면서도 늘 반대쪽에서는 우리가 순순히 타협하며 신앙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덕 세상을 펼친다. 인간의 방법은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으나 사단은 하나님의 7 수에 미치지 못하는 6의 수를 가졌다. 하나님께만 한 수가 부족하지 인간을 상대할 때는 실수나 실패가 없다.

1) 도덕 세상

(1) 또 다른 짐승

① 땅의 짐승

또 다른 짐승이 나오고 있다. 몇 마리가 나와도 세상은 세상이다. 이번에는 죄악의 바다와 반대 모습을 가진 땅에서 나오고 있다.

② 모습

죄악을 배경으로 흉한 모습으로 나오는 짐승과 달리 누구라도 좋게 보고 인정할 만한 도덕적이며 인간적으로 든든한 모습이다.

③ 땅

땅은 바다의 반대편이며 반대 모습이다.

④ 새끼 양의 모습

죄악 세상에서는 표범, 곰, 사자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땅에서는 새끼 양의 모습이다.

⑤ 어린 양 / 새끼 양⁵⁶⁾

56) 어린양보다 순하고 착해 보이거나 정체는 짐승과 한 통속

8절의 어린 양과 11절의 새끼 양은 단어만 가지고 구별하기는 어렵다. 어린 양에게 속한 우리를 미혹하려고 마음먹는다. 어린 양에 속한 우리가 가야 한다며 그 방법과 그 모습을 어린 양보다 더 순진하게 만들어 미혹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도 진행되는 모든 교회들의 탈선 과정이고 또 성경의 미혹 역사에 귀신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2) 새끼 양

① 새끼 양

죄악 세상이 한 편에서 우리의 신앙을 삼킬 듯이 달려들면서 반대편에서는 어린 양보다 더욱 순진해 보이는 새끼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를 끌어당긴다.

② 두 뿔

1절의 맹수들은 뿔이 열 개나 되어 위협적이었다. 그러나 새끼 양은 맹수성은 속에 잘 감추고 착하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보이기 위해 두 뿔만 달고 나타난다. 양의 탈을 쓴 이리 이야기와 같다.

③ 맹수의 살해적인 소리

그런데 새끼 양의 말 속에는 복음도 대속도 영원불변의 진리도 없다. 하나님보다 오늘의 세상을 만든 인재들을 칭찬하고 진리보다 과학의 위대한 학문의 세계를 가르친다. 신앙의 노선보다 국제 정치와 인류 화합과 인권과 민주화를 역설한다. 문틈으로 보니 그 모습은 양인데 말을 시켜 보니 맹수의 살해적인 소리가 나온다. 어느 것을 믿어야 할까? 말은 속에 든 것이 담겨 있다.

* 악령의 두 전법 : 죄악 세상, 도덕 세상

계13:12

2) 도덕 세상의 전법

계13:12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 도덕 세상

① 전법

죄악 세상이 표범, 곰, 사자처럼 위협으로 우리의 신앙을 삼키려 한다면 도덕 세상이 우리를 삼키는 전법은 외모로는 기독교보다 더 순진한 통일교를 앞세우고 총을 들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처럼 화해 평화를 내세우고 강아지도 사람처럼 존중하자는 동물 애호를 내세운다.

② 배후

이 도덕 운동의 배후를 보니 그 자금과 그 추진력과 그 배후에서 힘이 되는 세력은 바다에서 나온 죄악 세상이다.

③ WCC

냉전이 한창이던 70년대에 서구 사회를 휩쓴 반전 운동과 WCC 같은 단체들에게 정보를 주고 그들이 사용한 자금과 그들의 인맥을 통해 유입된 배후를 소련이 망하고 모든 비밀 자료가 공개되고 보니 소련의 비밀경찰 정보당국에서 엄청난 일을 하였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런 세상일을 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세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때 어떤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피는 것은 어렵지 않다.

④ 인간 본질 개조

교회든 세상이든 기본 구성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고 자녀와 사회를 형성한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가 되게 하며 출산을 막고 인간의 본질과 정체성조차 개조하는 운동을 할 때 세상은 새끼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 소외 계층을 위한 사랑과 배려라고 내세운다.

⑤ 정체

이런 운동이 실제 집행되고 세상을 뒤집어 그렇게 만든 뒤의 힘을 보면 죄악 세상이 권세를 잡고 있다. 표범 모습의 세상이며, 이런 운동을 막는 세력을 투표, 입법, 여론, 문화 운동으로 사정없이 뭉개는 것을 보니 곰의 앞발이며, 그런 문제를 두고 숨도 쉬지 못하고 신음 소리도 내지 못하게 삼키는 정복성을 보니 사자와 같은 죄악 세상이다.

⑥ 운동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믿을 자유를 보장하라고 하니 새끼 양처럼 정말 순수해 보인다. 그런데 불교나 이슬람을 믿는 이들에게 전도를 하면 처벌하겠다고 법을 만들며 체포를 하는 운동을 보면 이것은 죄악 세상이 배후임을 알 수 있다.

⑦ 상징

계시록을 충분하게 적으려 한다면 모든 시대에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맹수성과 새끼 양의 활동을 일일이 이름과 시간과 활동 모습 모두를 다 적어 주실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답안을 다 공개하면 우리의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기록이 많아지면 오히려 읽지 못

하고 묻히는 부작용이 있다. 또 일일이 이름을 다 적으면 세상이 계 시록의 기록 자체를 없애 버릴 것이다. 여러 면을 생각해서 상징으 로 적었다.

⑧ 성경 기록 원칙

하나를 알면 역사의 모든 운동과 세력들과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읽을 마음과 눈이 없는 사람은 마13:14에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성경 기록의 기본 원칙이 그러하다.

⑨ 세상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속보다 더 거룩하고 순수하게 다가오는 세상,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과 사활의 대속과 십자가가 없다면 그 어떤 것이든지 죄악의 세상에 앞잡이가 되어 우리를 맹 수 입으로 끌어들이는 바람잡이다.

⑩ 양 도축

양들을 도축할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하여 도축 공장에 들어가기를 꺼리는 양들 때문에 애를 먹는 도축업자는 도축장에서 기르는 양을 앞세워 도축할 양떼를 전부 도축장으로 들어가게 한다. 업자는 늘 앞장서는 그 양은 도축장 옆으로 빼내어 잘 먹이고 다음에 들어오 는 양떼를 다시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일을 반복하게 한다. 그 양의 이름을 가룟 유다의 '유다'라고 부른다 한다. 땅에서 나온 새끼 양 의 소속은 새로 온 양떼들과 달리 도축업자 편이다. 같은 줄 알고 안심하는 새 친구들을 전부 도축 라인에 밀어 넣어 죽게 한다.

⑩ 도덕의 기독교

손양원의 신앙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를 구해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 구명을 했는데, 세상은 이런 어린 양의 구원 운동을 새끼 양으로 만들어 ‘종교를 떠나 누구든 품으면 손양원의 사랑’이라고 떠든다. 이것은 속으로는 손양원의 순교 신앙과 절대 복음을 짓밟는 행위가 되지만 겉모습은 기독교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는 손양원보다 더욱 더 순수하고 위대한 사랑을 선전하는 행위가 된다. 결국 수도 없는 교회와 복음 운동들과 신앙의 사람들의 내면을 삼켜 버리고 있다. 이 일에 세상 불신 언론과 정치권과 손양원을 원수라고 살해했던 당시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좌파라는 이름을 이어 오는 오늘의 그 계통까지 나서서 칭송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땅에서 나온 도덕의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속으로는 죄악 세상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며 죄악 세상을 마침내 경배하게 만드는 일이다.

⑪ 죽을 뻔했던 짐승

이런 짓을 하는 그 세력을 다시 자세히 살피니 원래 죽을 뻔했던 3절의 그 짐승이다.

⑫ 죄악 세상의 한계

죄악 세상의 정체와 한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표시를 했고 알고 보면 허무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마치 전능이나 되는 것처럼 위협하다가 이제는 전법을 바꾸어 새끼 양을 앞세웠다. 그러나 조금만 잘 살펴보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

계13:13

(2) 많은 권능

계13: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① 신기한 일

마치 바로 왕의 술사들처럼 이 세력이 이 땅 위에서 일정 범위까지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마치 무제한의 절대적 존재처럼 여러 신기한 일들을 한다.

② 많은 권능

그러나 바로의 술사들이 할 수 있는 선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일은 물질계의 최악 세상이 할 수 있는 것까지다. 그러나 일반 생활만 하던 이들이나 신앙을 가졌다 해도 그 본질을 잊은 이들에게는 마치 무제한의 절대적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전부 속아서 스스로 당하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도 하는 것은 마7:22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도록 미리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뿐이다.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

계13:14

(3) 신기한 일들의 성격과 내용

계13:14

짐승 앞에서 받은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① 우상 높음

그런데 그 모든 신기한 일들의 성격과 내용을 면밀히 보면 허황된

우상 놀음이다.

② 군집 현상

문제는 일반 사람이 이상한 일을 보면 영향을 받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쏠려지는 현상이 생긴다. 원래 하나님께 붙들리도록 인간 속에는 영을 주셨는데 영이 죽었으나 우리의 마음은 신령한 것을 찾는 본능이 있고,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지성과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군집 현상이 일어난다. 갑자기 사람들이 한곳으로 쏠리면서 광분한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우상이 된다.

③ 기이한 일들

하나님을 환하게 알고 붙든 사람은 해를 찾은 사람과 같아서 촛불이나 등불에 피동이 되지 않으나 흑암의 세상에서 한 줄기 빛을 본 사람들은 그것에 쏠려 간다. 통일교, 전도관, 요즘의 신천지에 이르기까지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다.

계13:15

(4) 바다 짐승, 땅 짐승

계13:15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밋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① 짐승의 권세

겉으로 보면 1절의 짐승은 바다로부터 올라왔고 11절의 새끼 양 같은 짐승은 땅에서 나왔지만,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

승 앞에서 그 짐승의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을 선전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앞잡이 노릇을 한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새끼 양 같은 이 짐승에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는 이적을 행할 권세를 주고 새끼 양은 그 권세를 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이 생기를 가지고 말도 하게 만들고 있다.

② 살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전부 죽이고 있으니 지금 둘이서 모든 일을 짜고 주거나 받거나 하며 교회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

③ 전법의 변화

한때는 세상이 교회를 무자비하게 탄압했으니 맹수성을 가진 1절의 짐승으로 활동한 때다. 그 뒤에는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웃고 접근을 했으니 11절의 짐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강아지를 사람처럼 아끼자며 이것을 반대하면 감옥에 넣어 버리는 세상을 만들고, 교회에게 예수만 구원이라 하면 타 종교에 대한 나쁜 말이 되니 그런 말을 하면 처벌하겠다고 하고, 남녀를 바꾸면 안 된다는 설교를 하면 반인륜 흉악범으로 잡아가는 법을 만들며, 이런 세상이 지상낙원이며, 이런 운동이 천하를 설득시키고, 이런 운동이 인간에게 행복을 준다는 상황까지 왔다. 그러므로 15절은 멀리 다가올 환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계13:16

3) 오른손과 이마의 표

계13: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 교회를 통제

① 인식표

세상을 이렇게 모조리 몰아가면서 이런 그물망을 피하는 교회나 교인을 잡기 위해 세상은 인식표를 만들어 관리한다. 고대 사회는 호패나 주민등록증이나 인체에 표시를 내지만 이제는 따로 표시 낼 것도 없이 관리가 가능하다.

② 오른손에나 이마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찍는 것은 상품의 전자 결제를 위해 잉크 처리를 하듯이 인체에 찍을 수도 있지만 이마는 인간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니 말씀으로 사는 것을 버리고 세상만 보고 살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놓았다면 그것이 바로 이마에 표시가 된 것이다. 주일에 시험을 치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볼 때 그 사람의 사상은 이미 땅에 붙들렸고 그 결과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③ 인

인이란 주인이 누군지를 표시한다. 짐승의 가죽에 인을 찍어 주인의 표식을 하는 것은 임자를 알리는 것이다.

④ 표

세상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이 시키면 종이 되어 무조건 따를 그 사람의 생각이 이마며 실제 그렇게 힘 있게 처리한 그것이 바로 오른

손이다.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지옥을 간다는 말을 해서 안 된다며 강단에서 종교 평화를 설파하는 사람, 글로 모든 사람을 부추기는 사람, 그 사람의 그런 행위가 바로 오른손에 세상 것이 되었다고 표를 받은 것이다. 생각 자체가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이 이마에 표를 받은 것이다.

⑤ 잘못된 해석

지난 수십 년 동안 상품의 자동 처리를 위해 찍는 바코드가 계 13:16의 짐승의 표라 하여 그 표를 받으면 지옥을 간다며 참으로 많은 교파에 홀륭하고 정열적으로 믿으려는 이들이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이마가 아닌 목덜미에 표시를 하는 경우나 오른손이 아닌 왼손에 찍는 일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짐승의 표인가? 성경에는 오른손이라 했고 이마라 했는데 그 위치가 달라지면 성경이 오류일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전부가 세상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천국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지 모른다고 흔들려 버린 오늘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교회와 믿는 우리가 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짐승이 되어 짐승들과 그런 운동을 주도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상황이다.

계13:17

계13:17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 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2) 통제 방법

① 경제 활동 포기 각오

세상이 표시를 통해 교회를 통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경제

를 통해 확인해 보면 금방 나온다. 주일 날 화폐교환을 시행한 적이 있다. 주일에 화폐를 교환하지 않으면 모든 돈이 휴지조각이 된다. 이럴 때 어린 양에 속한 사람인가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인가 표시가 된다. 매매라는 경제 활동에 믿는 사람이 동의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해 보면 참으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바로 드러날 것이다. 시대와 현실과 사람에 따라 별별 방법이 있을 것이나 우리는 실제 내면을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계13:18

(3) 666

계13: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 육십 륝이니라

① 짐승의 수

그 짐승의 수를 보니 666이다.⁵⁷⁾ 하나님은 7로 표시한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하나가 부족하지 어떤 인간이라도 짐승의 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표시했다.

② 강조

6을 3회 적은 것은 강조에 강조다. 지혜 있는 자는 인간 단독으로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 담대할 수 있다.

57) 귀신이 천하를 붙들고 휩쓸며 신앙을 삼키려 한다. 말세가 될수록 경제면으로. 그러나 경제도 천하의 민심도 세상의 조류도 그 내용을 유심히 따져 보고 하나씩 계산을 해 보면 인간의 것, 땅의 것이며 그 결과는 귀신의 구원 방해 운동일 뿐이다. 지혜를 가진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다. 지혜는 휩쓸리지 않고 따져 본다. 헤아려 본다.

③ 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사는 사람을 뜻한다.

- 요한계시록 14장 -

▷ 14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중 교회를 기록하며 7가지 대접 재앙을 준비

최종의 대접 재앙을 앞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는 신앙의 총수를 점검

▶ 성경 내용 : 14만 4천인, 3천사, 구름 위에 앉은 이

▶ 계시 내용 : 승리의 성도들

3. 14만 4천인 (14:1-5)

■ 대접 재앙 준비5: 신앙 총수

*14장의 의미

대접 재앙을 준비하기 위해 10장에서는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삼았

고 11장에서는 그 말씀으로 교회와 자신의 내면을 살피 말씀으로 변화된 자기를 준비하였다. 12장에서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구약부터 역사적으로 준비되었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사단과 싸우는 현황을 말했고 13장에서는 사단이 땅과 바다의 양면에서 협공을 하는 상황이다. 이제 14장에서는 앞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한 신앙의 총수를 적고 있다.

계14:1

1) 어린 양과 신앙의 사람들

계14:1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 기록의 흐름

①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라고 시작하고 있다. 계시록 전체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기록의 흐름이 모두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이렇게 이어지는 표시를 할 때마다 우리는 앞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살피며 이어 나가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② 14장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맹수 같은 죄악의 세상과 아주 순수해 보이는 도덕의 세상이 하나가 되어 세상에 속하지 않고는 매매를 하지 못해 죽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14장에서는 짐승의 수와 하나님의 수를 비교하며 짐승의 어떤 위협도 협박에 그칠 뿐임을 알고 어린 양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바로 된 교회와

바로 된 신앙의 내면을 모으고 있다. 내 속에 신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세상과 싸울 수 있다.

(2) 시온산

① 어린 양

우선 어린 양이⁵⁸⁾ 시온산에 서 있다.⁵⁹⁾ 하나님의 산에 우뚝 서서 천하를 굽어보고 있다. 부활하신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지 세상과 사단에게는 점령군의 통치자다. 어린 양에게 속하면 세상이 힘으로 빼앗지 못한다.

② 144,000명

■ 144,000명

어린 양에게 속한 성도의 수가 144,000명이다. 누가 144,000명에 들어가는가? 역사 이후에 이 숫자를 가지고 늘 교회들이 시끄러웠으며 최근에도 또 이 숫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뒤흔들렸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면 144,000명에 포함된다. 어느 목사가 작성한 명단이 아니고, 어느 정통 교파의 등록 교인에 선착순번호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다.

58) 양은 순종, 어린 양은 더욱 순진하게 순종. 아버지의 뜻이 택한 백성의 구원이니 두 말 없이 뒷 말 없이 계산 없이 바로 고난의 길에 나선 면을 ‘어린 양’이라 한다.

59)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 예루살렘을 뜻한다. 13장에서 죄악 세상과 도덕 세상 전부를 귀신이 붙들고 신앙을 몰아친다. 그러나 그 세상을 들여다보며 계산해 보면 땅의 것일 뿐이다. 그렇게 천하가 쓸어 가고 다른 신앙이 휩쓸릴 때 어린 양을 따라나서면, 아버지께 순진하게 순종한 고난의 주님을 따라 13장의 세상에 속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른 사람은 주님을 따라 시온산에 선다. 13장에서 세상에 붙들려 실패한 신앙이 있고, 어린양의 고난을 끝까지 따른 승리의 신앙. 그 요소 그 기회 그 기능만이 시온산에 설 하늘의 것이다.

■ 12지파

구약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통을 말한다.

■ 12사도

신약의 12사도는 신앙의 사명의 분담을 말한다.

■ 사명 전부

$12 \times 12 = 144$ 가 되며 이 144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부요 그들이 맡은 하늘나라의 사명 전부를 말한다.

■ 1천

144에 1,000이 붙었고 이 1천이라는 수는 '많다'라는 뜻이다. 인간은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아는 세계가 택함이기 때문에 누가 택자인지 우리는 총수를 알 수 없다. 다만 택자라야 할 수 있는 열매를 보고 짐작은 한다. 특히 택자의 총수는 역사 이후 오늘날까지의 총수인데 누가 헤아리며 알 수가 있을까?

③ 중생

확실한 것은 '그 이마에' 그의 사상과 생각 속에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면 이는 부모의 혈통이나 국가의 교육이나 재벌의 돈이나 과학의 기술로 적을 수 없다. 이것은 택자가 중생이 되었을 때만 가능하고 144,000명에 들어갔다는 표시는 이렇게 알 수가 있다.

④ 대속

어린 양은 대속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다. 이름은 그 주님이 하신 일이니 대속이 주님의 이름이다. 우리 생각과 사상에 예수님만

구주시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나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 부활했다는 흔적이 명확하면 바로 144,000명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⑤ 그 아버지의 이름

또 하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했다. 공의의 하나님이니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비록 아들이라도 심판을 통해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데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다. 알고 보니 아버지의 사랑과 뜻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어서 성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런 사상과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무조건 144,000에 들어있다. 고전12:3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⑥ 요소적

내 속의 사상이 천하가 배척해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고 굶어 죽어도 괜찮다고 한다면 이것은 144,000명에 들어간다. 이단이나 요설에 흔들리지 않는 택자 전부, 그 중에서도 현실에서 자기 내면이 주님을 따르는 요소만 이 숫자에 들어간다. 택자라 해도 평생에 말 씀과 잘못된 언행은 하늘나라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며, 요소적으로는 144,000에 들지 못할 수 있다.

계14:2

(3) 물소리, 뇌성

계14: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① 하늘에서 나는 소리

어린 양과 144,000명을 볼 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었다. 계시록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비록 이 땅 위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음성 곧 하늘에 속한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한다.

② 물소리, 뇌성

들리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뇌성 같다. 많은 물소리는 생명수가 되어 흐르는 말씀이며 뇌성은 진노의 음성이다. 이 땅 위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는 항상 말씀이 주는 생명 역사와 말씀과 다른 것을 말씀이 정죄하는 심판의 진노 역사가 병행된다.

③ 거문고 소리

다시 들어 보니 ‘거문고 타는 자들의 거문고 소리’라고 했다. 거문고는 여러 줄을 매어 팽팽하게 당겨 놓은 악기다. 여러 줄이 긴장하며 기다리고 그 줄들이 뜯길 때 나오는 진동이 아름다운 가락이 된다. 여러 종류의 성도들과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자기 위치에서 각자 사명을 긴장하며 잘 움직일 때 주님에게는 아름다운 거문고 소리가 된다. 내 마음으로 들어가면 매 현실에 해당되는 여러 내 심신의 요소들이 최선을 다하고 순종할 때 거문고 연주가 된다. 주일 헌번을 지키기 위해 내 지식은 성경 말씀에 긴장하고, 내 양심은 그 말씀에 어긋난 것에 떨리고, 한 주간 세상에 정신없던 마음이 말씀 앞에 모두 모이니 기뻐 떨 수가 있다. 설교로 내 마음 깊은 곳이

울릴 수도 있고, 나의 뜨거운 회개가 고음이 되어 나올 수도 있다. 마음 안에 모든 면이 울리면서 떨어져 나오는 그 소리가 거문고 타는 자의 거문고 소리다.

계14:3

(4) 새 노래

계14:3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 사만 사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① 새 노래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과 그 성도들 속에 말씀으로 성화된 요소들의 노래는 세상 노래가 아닌 새 노래다. 이 땅 위에서 돈을 벌며 즐거운 노래도, 자기 야욕을 채우고 잔치하는 음악도, 죄악의 낙으로 오락을 하며 춤을 추고 흥겨워하는 유행가도 아니다.

② 구속받은 기쁨

구속받은 기쁨의 감탄에 내 양심이 박수 치는 소리며, 말씀으로 살아 보니 성령이 격려하여 흐뭇해하는 찬송이다.

③ 고백과 간증

주님을 따라가니 좋더라는 고백도 있고, 말씀으로 나를 꺾어보이 하늘나라가 잘 보이더라는 간증도 있다. 이런 노래가 새 노래다.

④ 감탄

믿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노래며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

지도 모르는 찬송이다. 구속받은 사람이 대속의 피 공로에 감사하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붙들려 심방하고 전도하며 신앙으로 자기 사람을 기를 때 느끼고 알게 된 감탄들이다.

⑤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앞

그런 노래를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불렀다. 하나님, 하나님께 연결된 생명의 신앙, 그 신앙으로 자기 맡은 사람을 위해 충성한 종들, 그들 앞에서 부른 노래는 그들이 겪어 온 노래며 그들이 먼저 불렀던 바로 그 노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했던 찬송, 노아가 천하와 다르게 살았던 120년의 땀 흘린 감사,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출발하던 순간의 감격이 앞서 간 장로들이 불렀던 노래다. 오늘도 그런 면의 노래만이 영원히 부를 노래다.

계14:4

(5) 정절

계14:4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① 미혹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까지 사단은 죄악 세상을 옆에 보내어 죄악의 낙을 함께 누리자고 밀어붙였고, 도덕의 세상은 주님 없이도 세상은 아름다울 수 있다며 우리의 팔을 끌고 가려 했다.

② 정절

그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했다면 지조를 버린 것이다. 어떤 세상이 유혹하든 제안하든 어린 양만 바라보는 시선이 변치 않고 세상을 통과하고 매 현실에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뺏기지 않은 그것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정절을 지킨 것이다.

③ 더러움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의 사죄를 돈에 뺏기고 자기의 칭의를 친구 때문에 잊어버린다면 이런 것을 더럽힌다고 한다.

④ 어린 양을 따라간 자

세상이 아무리 바보라 해도 어린 양이 인도하는 사죄를 전하기 위해 전도지를 들고, 주님의 뜻으로만 살라는 심방을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아도 죽은 자라고 설교를 하고, 평생 한순간도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치 않는다면 소망으로 어린 양을 따라간 자가 된다. 이렇게 걸어간 첫 열매의 종들이 있고, 그 다음을 따라가는 둘째 열매들이 그 다음 시대에 나타나면서, 매 현실마다 반복된다.

계14:5

(6) 거짓말

계14:3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① 거짓말

이들의 입에는 구원과 상관이 없거나 구원에 해 되는 말은 없다. 9 계명에 거짓 증거 즉 거짓말이라는 것은 구원에 손해되는 말이다.

천국을 기준으로 그들은 주님의 대속 앞에 흠이 없는 자다. 만일 천국과 주님의 대속에 흠이 있다면 그 행동, 그 말, 그 생활, 그런 마음은 천국에 들어갈 때 지옥으로 던져져야 한다.

4. 세 천사 (14:6-13)

계14:6

■ 천사들의 전달

1) 복음의 천사①

계14: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1) 다른 천사

① 소망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천사를 보내어 소망을 주신다. 다른 천사 곧 하나님의 다른 역사가 또 우리에게 더해진다.

② 초월

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으니 세상이 알던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 땅 위에 인간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세상과 인간을 초월한 하늘의 복음을 가졌다.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③ 복음

여러 나라에 전할 복음이라 했으나 이 땅 위에 어느 나라 어떤 통

치 어떤 범위에 살더라도 전할 복음은 이 복음뿐이다.

④ 족속과 방언

족속이라 했으니 누구에게 속했든지, 방언이라 했으니 어떤 사상 어떤 생각을 가졌다 해도 이 복음만이 복음이다.

⑤ 전할 복음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라 했으니 한 사람 사람을 중심으로 각 사람이 아무리 다르고 남에게 통치받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해도 복음은 이것만이 복음이다.

계14:7

(2) 큰 음성

계14: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① 큰 음성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친다. 모두에게 들을 수 있도록 전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활에 우리의 바쁜 일정에서도 놓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외친다. 듣는 귀를 갖자. 듣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듣는 것조차 외면하는 강박한 심령은 되지 말자.

②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한다. 그분만 자존자 완전자 절대자 영원불

변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말씀으로 만든 세상을 그 말씀으로 심판하고 영원히 보응하신다.

③ 영광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한다. 그렇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우리는 달리 값을 도리가 없다. 감사만 할 뿐이고 이런 감사를 영광이라고 한다. 영광이란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속에 감사를 느끼고, 그 감사를 값을 길이 없는 줄 알고,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영광이 된다.

④ 심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한다. 그가 제대로 심판하면 인간치고 그 앞에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지 않을 사람은 없다.

⑤ 구원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믿은 이후의 노력도 알고 보면 주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⑥ 감사

그래서 감사할 것뿐이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 하늘을 기록한 것은 특별히 영원 영생을 만들어 주신 것을 묵상하며 감사하고, 땅이라 했으니 오늘 이 땅 위에서 하늘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 감사하고, 바다도 인간이 최악의 바다로 사용하나 우리는 천국으로 건너가는 구원의 배를 띄우고 그 바다 위에서 바다를 초월하여 가니 또 감사할 일이다.

모든 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그 물들을 흘려 내리는 원인인 물들의 근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 감사할 일이다. 모든 것을 따지고 살피며 파고 들어가며 일일이 감사하는 것이 옳다.

■ 3 천사(14:6)

- ① 1천사(14:6) 시간 촉박
- ② 2천사(14:8)
- ③ 3천사(14:9)
- ④ 4천사(14:14)
- ⑤ 5천사(14:17)

계14:8

2) 저주의 천사②

계14: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⁶⁰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번에는 다른 천사가 신앙의 사람을 세상으로 끌고 가 신앙을 버리게 만든 그 세상 중에 우리의 신앙을 가장 많이 끌어가 버린 대표적 세상인 바벨론을 말한다. 우리의 신앙을 끌어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끌려간 우리의 눈길과 걸음과 우리의 그런 시간들은 무사하겠는가?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벨론에 끌려다닌 우리의 생애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큰 성이라도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이 바르게 믿어야 할 성도를 세상을 향해 걸길을 가게

60) 믿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걸음,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

했으며, 우리의 마음을 뺏어 간 세상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는 포도주가 되었다. 그렇게 끌려간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과 하나가 되었으니 음행이 된다.

계14:9, 10

3) 경고의 천사③

계14:9 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 바벨론⁶¹⁾

첫째 천사는 복음을, 둘째 천사는 저주를 전했고, 셋째 천사는 복음과 저주 중 어느 것을 택할지 결정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 바벨론을 따라 세상에 붙들리면 맹수 같은 세상에 점령을 당하고 세상을 따라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으로 섬기다 한 번뿐인 자기 현실의 모든 기회를 다 빼앗기고 바벨론과 함께 영원히 지옥에 버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상에 표를 받지 말고 성도들의 인내를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의 믿음으로만 살라는 경고를 전하고 있다.

(2) 표

① 부탁

61) 나라 이름이면서 도시 이름, 가장 위대한 최첨단의 도시, 좋은 것 강한 것 발전한 것, 모든 인간이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세상 것, 성도가 흉내 내거나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것, 악령이 사용하는 최고의 세상

오늘 땅 위에서 우선 세상을 따라가면 포도주에 취하여 즐거운 듯 세상을 즐길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성도의 바른길을 혼란시킨 유혹이다. 오늘 한 번 즐긴 값으로 영원히 불과 유향의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니 어느 것이 좋을지 잘 살펴 잘 선택하라는 부탁이다. 우리에게 자유성을 주셨기 때문에 천사는 힘으로 우리를 강제하지 못한다.

- 불 : 소멸, 소각된 후 오는 슬픔과 수치
- 유향 : 뜨거운 고통
- 불과 유향 : 받을 고난
- 바벨론의 뒷날 : 점점 더 커지는 지옥의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

계14:11

(3) 영원한 고난

계14: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오늘을 편히 쉬기 위해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면 영원히 변치 않는 영계에서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서 오늘의 자기의 전 생애를 불태워야 하며 그 고난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알면 죄를 지을 수 없고 느끼면 더욱 죄를 지을 수 없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택한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 땅 위의 잠깐을 위해 영생을 손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고, 성령으로 깨달고 느껴야 한다.

계14:12

(4) 성도의 인내

계14: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했다. 성도는 어린 양이 구원한 택자들이다. 성도의 인내란 우리의 현실이 바벨론처럼 좋아도 세상을 좋아 하는 것은 영원한 손해라고 알기 때문에 오늘 땅 위에서는 어떤 고난과 외로움과 손해를 봐도 주님의 구원으로 매 현실 하나하나를 영생으로 살려내는 것을 끝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그럴 때 성도의 인내라고 한다.

14:13

(5) 하늘의 음성

계14: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① 세 천사의 경고

세 천사를 통해 세상에 매 현실의 한 번뿐인 신앙의 말세적 기회를 뺏기지 않도록 경고를 한다.

② 하늘의 음성

■ 복이 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고 했다.⁶²⁾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주님의 대속으로 구원의 사람이 되었고, 매 현실은 한 번만 주시는 종말인데 주 안에서 바벨론의 세상을 따라 가지 않고 예수 믿음을 지키다 죽는 자들은 주님의 대속으로 모두가 영생이 된다.⁶³⁾ 그러니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를 확실히 해 주신다. 그러하다. 이 땅 위에서 구속하신 주님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이 세상 친구와 환경과 모든 현실 속에서 끝까지 수고한 것은⁶⁴⁾ 그 현실이 지나가면 그 현실에 해당된 것은 다시는 변동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용될 것이다. 오늘 땅에서 한 번 통과한 것은 영원히 지옥이든 천국이든 하나로만 확정이 된다. 행한 대로 주시는 결과만이 기다리고 있다.

14:14

5. 구름 위에 앉은 이 (14:14-20)

1) 주님의 등장

62) 기록을 시킨 것은 우리가 잊거나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연약한 우리를 묶는 말씀이다.

63) 주님 십자가 전에는 복이고 이전 구약은 복이 없는가? 노아 아브라함 다윗은 복이 없는가? 역사 전개 중 주님 대속을 기준으로 잡지 말고, 신 구약을 물론하고 주님의 대속으로 영을 중생시킨 사람은 그때부터 복이 있다. 심신의 실력을 기를 기회가 되니 복이 있다. 또한 지난 현실은 이미 죽은 것처럼 나와 무관하고 다시 주시는 현실은 자금 이후로 복이 있다는 새 현실이다. 주님 대속으로 새로 만나는 현실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 구약은 오실 주님의 대속이 시공을 초월하여 적용이 된다.

64) 고생만 하던 성경 기록 시대 당시는 고생하지 않고 쉬는 것이 좋다는 표시였다. 고생을 하지 않고 편히 누워만 있어 보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정말 좋게 된다. 땅 위에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큰 사랑과 어린양 고난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

계14:14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1) 흰 구름

흰 구름이 있다. 하늘에 속한 것으로 이 땅 위의 인간이 세상 기준으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말한다.

(2) 사람의 아들⁶⁵⁾

구름 위에 사람 같은 주님이 앉았으니 사람 되어 오셨고 부활 후에도 신인양성일위로 계신 주님이다. 세상에 속한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오늘도 진리로 보면 주님의 활동이 보인다.

(3) 금 면류관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다. 부활의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승리다.

(4) 낫

날카로운 낫을 가졌다. 오늘 현실마다 종말이며 매 현실에서 우리가 행한 것은 전부 영생과 영멸로 나뉜다. 주님이 낫을 들고 추수를 한다. 마3:12에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영생의 나라를 움직이는 종자가 된다.

14:15, 16

2) 낫을 휘둘러 거두라

65) 하나님의 아들이나 실상은 하나님, 신인양성일위

계14:15-16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16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 결과 처리

심판주 하나님께서 다른 천사⁶⁶⁾에게 매 현실에서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로 살았는지 그 대속을 벗고 세상과 함께 살았는지 구별하고 결과를 처리하도록 맡기고 계신다.

(2) 추수자의 모습

대접 재앙을 앞에 두고 먼저 주님이 날카로운 낫을 들고 추수자의 모습을 보여 주신다. 주님의 손에 들린 낫이 추수하여 곡식을 거둘 때 세상이 좋고 세상이 두려워 세상으로 하나가 된 것은 천국 곳간으로 가지 못할 것이고, 오늘의 고난을 투자로 알고 감사하며 감당한 생활, 그 언행, 그 생애, 그 기회는 모두 거두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다. 이 총량이 하늘에서의 차이다.

14:17

3) 이한 낫⁶⁷⁾

계14: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66) 끝없이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67) 이한 낫 : 날카로운 낫

(1) 심판의 낮

주님의 낮은 알곡이 되어 대속의 결실이 된 자기 내면과 믿는 성도와 바로 된 교회는 추수하여 천국으로 옮긴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으로 가 버린 우리 내면의 잘못된 부분은 다른 천사를 통해 정리하려고 심판의 낮을 맡겨 보낸다.

(2) 성전에서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온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구원을 벗어난 부분은 천사를 통해 정리한다.

14:18

4) 불을 가진 천사

계14:18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낮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낮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 제단으로부터

이때 불을 가진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제단은 주님이 어린양이 되어 사죄의 희생으로 피 흘려 죽은 곳이다. 제단에서 나온 천사가 주님의 대속의 피가 흘려졌으나 그 수고를 잊고, 이 땅 위에서 단 한 번뿐인 기회를 바벨론 같은 좋은 세상으로 나가서 눅15장의 둘째 아들처럼 즐긴 허랑방탕한 생애를 정리하라고 낮을 갖고 심부름하는 심판의 천사에게 낮을 휘두르게 했다.

(2) 포도송이⁶⁸⁾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때 포도송이는 결과를 말한다. 이 땅에 붙어 이 땅으로 결실한 것은 세상 사상의 결실이든 세상으로 된 결과든 그 어떤 것이든지 전부 거두어진다. 심판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도록 그릇이 찼다는 뜻이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한 현실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면 포도가 익었다.

(3) 풀무 불

마13:41부터 추수 때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고 했다. 풀무 불에 던져지는 자들은 불택자들이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 속에 오늘도 말씀으로 산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섞인 내 마음 속에 여러 잘못된 요소들은 내가 죽을 때에 어떻게 될까? 없어질까? 천국에 가져갈까? 지옥에 영원히 버려야 할까?

14:19, 20

5) 진노에 던짐

계14:19

천사가 낮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⁶⁹)에 던지매

20 성 밖에서 그 틀이 밝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달았고 일천 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1) 진노에 던짐

천사가 낮을 땅에 휘둘러 믿는 우리의 내면에 어린 양을 따라 끝까지

68) 세상 지식

69) 하나님의 진노

지 예수 믿음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게 붙들린 부분들은 전부 거둬 하나님께 진노를 베푸는 곳에 던진다. 예수님의 피와 상관없이 살아 온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남김없이 모두 거두어 마구 밟아 버린다. 여기서 나온 비명 소리가 눅16장의 홍포 입은 부자의 절규다.

(2) 분량과 범위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 밖에 던져졌고 바벨론과 하나 되어 세상에 빠졌던 부분은 전부 영원히 죽게 되니 그 살육의 심판이 말굴레까지 달았다 했다. 내 속에 말씀과 대속을 떠난 요소들과 행위들을 날 낚이 찾아내어 연관된 부분까지 구별하여 쌓아놓고 밟으면 그런 분량이 될 것이다. 또 이 땅 위에 널리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그 분량과 그 퍼져나가는 범위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며 귀하게 받은 기회를 놓친 분량이다.

(3) 1,600 스타디온

관주에 보면 1 스타디온이 606자라고 하는데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고 했다. 이런 고대의 도량 단위는 오늘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정확히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도량형의 정확한 분량을 기록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1,600 스타디온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말할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매 현실에 내 손으로 세상 속에 던져 버린 나의 생각, 사상, 노력, 욕심을 일일이 묵상하며 모아두고 짓밟아 그것이 퍼져나가는 거리를 재어보면 그것이 바로 1,600 스타디온이 된다.

- 요한계시록 15장 -

▷ 15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중 교회를 기록하며 7가지 대접 재앙을 준비

최종의 대접 재앙을 앞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면 유리 바다를 건널 것

- ▶ 성경 내용 : 유리바다
- ▶ 계시 내용 : 성도들의 노래

6. 유리 바다 (15:1-4)

계15:1

■ 대접 재앙 준비6: 유리 바다

1) 크고 다른 이적

계15:1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 마지막 재앙

바로 앞에서 천사가 낯을 휘둘러 심판에 버려질 것을 거두었다. 그

런 이상한 또 다른 이적을 보이고 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으로 쏟아진다. 매 현실이 지나가면 우리 속에 잘못 산 부분은 천사가 구별하여 분리한 후 영원히 지옥 불에 던질 터인데 이 심판에 앞서 일곱 대접 재앙이 먼저 지나간다. 이 땅 위의 현실에서는 대접 재앙이 지나가면 그 현실은 다시는 오지 않고, 그 대접 재앙이 쏟아진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요소와 행위와 생애를 계14:17의 천사가 낮으로 심판으로 보낸다.

계15:2

2) 유리 바다를 건너

계15: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1) 불이 섞인 유리 바다

① 용의 권세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보였다. 그리고 13장에서 사단이 용의 권세로 우리를 죄악 세상과 도덕 세상으로 삼키려 했고 천하가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을 만들면서 12장에서 삼키지 못한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다시 삼키려 했다. 그러나 13장에서 666의 사단의 수단과 실력과 세력을 이기고 어린 양의 뒤를 따라 세상에서 경제생활이 끝장나고 목숨을 뺏기는 일이 있어도 버가모 교회처럼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섰고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찬송을 하고 있다.

② 유리

■ 투명

유리는 감추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투명한 면을 말한다. 죄악 세상이라 해도 그 세상을 잘 보면 천국이 그대로 보인다. 이 바다에 빠지면 천사의 낮에 잘려 나갈 것이고 이 바다를 이기고 건너가면 천국 곡간으로 옮겨져 영원토록 하나님이 만족할 우리가 되고 우리의 영생이 이어질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영원히 매이는 것은 왜곡되지 않고 착오가 일어나지 않는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니 세상에 살다 보니 하늘을 보지 못했다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 들여다보면 하늘이 그대로 보이도록 유리 바다로 만들어 주셨다.

■ 미끄러움

유리라 한 것은 미끄러지기 쉬우니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기회는 순간 지나가 버린다. 이 유리 바다를 무사히 건너 또 한 현실에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고 통과한 성도와 우리 속의 승리한 신앙의 요소들은 우리들이 각자 긴장 가운데 지나온 현실을 돌아볼 때, 각자 속에 역사한 은혜를 찬송할 때, 그 음의 높낮이와 음색이 다르게 나오면서도 한 분 주님으로 인한 은혜요 단일의 진리를 따라 나왔기 때문에 화음이 맞게 되어 있다.

서로 대화를 해 보면 서로의 의견과 사상이 곳곳에서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경험담들이 있다. 부자는 노동자들 때문에 자기 돈벌 기회를 잃었다고 기억하는 그 사건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은 노동자로서 부자들 때문에 억울했다고 회고를 한다면 이 두 사람이 내는 음은 서로가 충돌을 한다. 유리 바다 가에 선 성도들과 성화된 요소들의 구원에 감사와 말씀으로 살게 된 회고들의 전부가 음의

높낮이가 달라도 음들이 화음에 맞아 더욱 다채롭고 음의 장단이 달라도 그 장단이 전체적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요셉과 같은 굴곡 때문에 맛있는 생애보다 더 기묘하다.

계15:3

계15: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2) 모세의 노래

① 감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을 하면서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벗어날 때의 감사다.

② 홍해 바다

신약의 모든 시기,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도 매 현실마다 출애굽의 고비가 있고 홍해 바다를 건너야 하는 순간이 있다. 출애굽을 위해 바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의 현실을 받게 된 것이 일곱 인으로 보여 준 당시의 기본 구도이며, 열 가지 재앙이 진행될 때가 일곱 나팔 재앙의 상황이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가 절단 나는 이 순간이 대적 재앙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홍해 바다를 건넌 모세와 백성의 행진에 들어 있지 않고 아직도 바다를 건너지 않은 내 속에 주저하는 요소는 바로의 병거가 홍해 바다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다시 제 자리로 돌려 버리는 순간 바로의 추격대와 함께 휩쓸려 나간다.

③ 성화된 요소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너온 성도와 자기 속의 성화된 요소들은 이제 막 끝난 그 현실에서 무사히 짐승 같은 죄악 세상을 벗어난 것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의 전적 은혜며, 그 승리의 과정이 기이하여 감탄하고, 미리 믿고 따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한 마음이 섞여 감탄의 찬송이 울려 나온다.

④ 찬송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 만국의 왕이셨고 구원의 한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고 우리가 모르다 보니 불안한 때도 있었으나 지내 놓고 돌아보니 전적 감사할 일이다. 이제 막 지나간 그 아슬아슬했던 순간도, 위험했던 위기도, 요셉의 과거처럼 어느 하나도 빼놓거나 공연히 지나온 순간이 없었다. 다 알고 나니 그 감사의 찬송이 얼마나 클까?

15:4

(3) 주

계15: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① 주의 이름

주여! 주님이여! 피 흘려 나를 사셨으니 주님은 나의 주인이며 나를 주권으로 붙드시니 나는 순종할 뿐이라는 것이 ‘주’라는 단어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② 신인양성일위

주님은 신인양성일위의 하나님입니다. 영원 자존의 절대 완전자로서 세상을 만들고 주권으로 운영하니 주님의 결정에 택불택이 결정되고, 하늘과 땅이 나뉘며, 만물이 생기고 없어지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그렇다. 홍해 바다와 바로를 만드시고 바다에 바로 군대를 몰아넣는 분이 주님이시다.

③ 전능

모두가 그분의 실력을 알고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분이 자기를 드러낼수록 우리를 기르는 면이 약화되어 숨은듯하나 홍해 바다에서 이렇게 한 번씩 마음껏 전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④ 불신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는 빌2:12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 길을 가야 하는데도 출15:22에서 홍해를 건넌 후 3일간 물이 없게 되자 며칠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사단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하나님이 실제 계신지, 3일 전에 본 현상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른다면 흔들여 보았다. 모두가 흔들렸고 이런 일은 광야 40년 세월의 대부분에 지속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흔들렸다.

⑤ 주만 거룩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거룩은 묻은 것이 없고 원래대로 깨끗하다는 것이다. 자존자 완전자 주님만 거룩하며, 인간의 거룩은 범죄로 없어졌다. 중생된 우리도 우리의 영은 거룩하나 우리의 마음과 몸은

끊임없이 죄와 마귀와 사망에게 붙들려 더러워진다. 더러워진 자기 심신의 내면을 말씀으로 씻고 행구하고 말씀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서 더러워진 부분, 잘못 빠뜨려진 내용을 찾아 하나뿐인 참모습인 옳고 바른 원래의 모습 하나를 향해 따지는 것이 타락 후 오늘 우리의 '거룩'이다. 우리의 거룩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원형, 우리가 영원히 닮아가야 할 주님의 계1:13의 모습이 눈앞의 거룩이다. 그 모습과 다른 것은 그 모습과 비교하여 잘못된 부분 가려진 부분을 자꾸 씻어 내야 한다.

⑥ 의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고 만국이 경배하리라. 주님은 옳고 바른 일만 한다. 어느 나라 어느 사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주님이 도성인신으로 신인양성일위가 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의의 길을 걸었다.

⑦ 사할의 대속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할의 대속을 했고 이제는 이 대속을 택자들에게 입혀 나가는 일, 그 택자들이 중생된 후에 각자 매 현실에서 자기 심신을 사할의 대속으로 하나씩 씻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가는 것이 주의 의로운 일이다. 이 일에 필요하면 열 가지 재앙도, 홍해 바다의 이적도 행한다.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바로 군대를 몰살시킨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의다. 그 의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오늘도 그렇다. 보이는 이상한 현상 자체가 의로운 일이 아니라 평범해 보여도 나를 만들고 고치는 것은 의로운 일이다.

⑧ 경배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신앙이 흐린 우리를 위해 보여 주시는 격려다. 그런데 이런 격려적 이적을 볼 때 이 땅 위의 만국, 그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인간 세계도 귀신 위에 참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보게 되며 경배하게 된다. 왕 중의 왕이며, 신들 위의 신으로 알아보는 것이 바로 경배다.

7. 7천사 (15:5-8)

계15:5

계15:5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1) 하늘

(1) 증거 장막의 성전

① 성전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② 이단

계시록은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경이다. 계시록은 구원의 비밀을 비법으로 알려 주시려고 65권을 요약했기 때문에 65권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급한 마음으로 계시록의 한 부분만 자기 원하는 대로 조작하여 구별하지 않고 흥미를 끌고 가려운 부분을 굵어 시원하게 만들면 일시에 많은 사람이 쏠리며 거대한 이단이 형성된다. 증거 장막의 이름으로 현재 한국 사회 전체를 들끓게 한 이단의 경우를 오늘 우리에게 우리 현실로 주신 분

이 주님이다.

③ 증거

증거는 말씀을 전하되 말씀을 우편배달부처럼 중계방송처럼 전해야 한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그 행위에서 그 말씀이 보여야 증인이다. 손양원의 생애를 보니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데 이런 경우 증인이 되며 증언이 된다. 손양원이 했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한다. 그런데 자기 원수를 실제 눈앞에 두고 처리할 기회가 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증인의 증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④ 장막

증거 장막의 장막은 보호를 말한다. 구약에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자신을 만들라고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법궤가 있다. 그 법궤 안에 말씀을 기록한 돌판을 넣어뒀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으로 짓지 않고 장막이라는 천막 형태를 만들어 이동하였다. 이 땅 위에 우리는 평생을 같은 현실로 살지 못한다.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아도 시간이 다르고 자신의 마음과 언행이 다르고 자기 주변이 끊임없이 달라진다. 이사를 다녀도,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인생은 늘 여행을 해야 한다.

⑤ 성막

이 여행길에 말씀을 제일 깊은 지성소에 모시고 다니는 나는 고전 3:16에 성전이 된다. 말씀을 모신 것은 하나님을 모신 것이며 그 모신 정적인 면을 강조할 때는 성전이고, 모신 내가 인생길을 끝없

이 옮겨 다니는 이동면으로 우리를 가르칠 때는 성막이라 한다. 말씀을 모신 장막이 성막이다.

⑥ 증거 장막

말씀으로 자신을 만들어 이제는 자기 자신이 말씀을 직접 보여주는 단계가 되었다면 이런 신앙의 사람이 바로 증거 장막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구약 교회 시절에는 12장에서 구주의 출생을 위해 투쟁했고 용이 예수님의 대속을 결국 막지 못하게 되자 13장에서 죄악과 도덕의 세상 양면으로 노렸다. 그러나 14장에서 이런 유리 바다를 건넌 신앙의 사람들과 그들 속에 있는 말씀으로 변화된 요소들이 바로 말씀을 모신 증거 장막이다.

⑦ 총수

이들의 총수가 144,000명이니 이들이 한 몸이 되어 주님을 모실 때 진정한 교회다. 주님의 모든 백성이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면 교회가 되고, 강조가 달라져 이 모든 택자들이 주님을 모셨다는 것을 강조하면 성전이라 한다.

⑧ 과정

어느 교단만이 천국 갈 사람이며 그들만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머리로 삼았다면 그 교단만 증거 장막 성전이겠지만 그 교단의 속을 뒤져보면 이 땅 위에 어떤 단체가 내적으로 모두 온전하겠는가? 예수님이 목회자가 되어 12 사도가 교인으로 모인 교회도 배신자와 내부 분쟁으로 인해 엉망이었고 제대로 된 제자도 없었다. 이런 고장 난 인격과 마음을 고치는 것이 증거 장막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유리 바다 같은 현실을 하나 통과할 때 그 현실에서 만들

어 이제 하늘의 것이 되어 버린 부분들만 증거 장막의 성전의 일부가 된다. 그 총합이 하늘의 성전이다.

(2) 신령한 나라

보통 하늘나라에 실제 성전이라는 집이 건축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천국은 영계이므로 건축 자재로 집을 짓는 물질계의 존재 형태는 없다.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오늘 땅 위의 것을 가지고 볼 수 없고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설명을 고정시켜 오늘 보고 기록한 그대로의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이 물질계로 추락해 버린다.

(3) 성전 열림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건축물의 입구가 열렸다고 기록했으나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의 세계를 열어 주셨고 이 세계는 증거의 증인이 되고 말씀을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과 그런 요소만 들어가는 곳이니 하늘의 어느 한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계, 하늘나라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계15:6

2) 하늘의 사람

계15:6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 하늘

① 하늘의 사람

말씀으로 하나 된 하늘의 사람, 이 땅 위에 물질계의 비, 바람, 불, 전쟁, 재난이 전혀 미치지 않고 그 모든 물질계와 죄악의 세상을 초월해 버린 하늘나라에서 나오는 일곱 천사들, 이들은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이 땅 위를 향하는 이들이다.

② 빛난 세마포 옷

이들이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으니 이들의 옷을 통해 이들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실 때 듣성듣성 대충대충 모신다면 그런 생애는 굵은 베옷과 같다. 실을 구별할 수 없도록 미세하게 잘 직조된 옷을 세마포라 한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계 19:8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 천사들이야 원래 죄를 짓지 않고 섬세하고 정확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천사의 옷을 세마포라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늘에 먼저 옮겨진 성도들을 모신 하늘의 천사, 또한 오늘 땅 위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 목표를 가지라고 우리를 돕는 천사, 그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우리에게 보이신다. 이것은 말씀으로 정밀히 현실마다 자기 심신의 내면을 세세히 따져보고 옳은 행실을 하라는 표시다. 맑고 빛난 세마포, 말씀에 어떤 것도 묻히고 섞지 않았으니 말씀 그대로의 맑은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가 모두가 볼 때 부러워할 빛난 것이 되는 면을 보여 주고 있다.

③ 금띠

그런데 그 천사가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④ 단일의 나라

이는 계1:12 이하에 기록하신 주님의 모습이다. 하늘나라는 자존하

신 하나님 한 분이 원인인 단일의 나라다. 그분이 만들어서 영계도 천사도 천국에 데려온 장로도 함께 있으니 존재의 종류는 무수하나 그 모든 존재의 본성과 본질은 전부 하나님 한 분으로 된 것만 모여 있다. 존재는 다르나 누가 누군지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 위치와 역할은 달라도 내적으로는 하나기 때문에 손을 쳐도 발이 아프고, 발이 불편해도 온몸이 절뚝이며, 눈이 흐리게 되면 온몸이 다 더듬게 된다.

⑤ 일곱 금 대접 재앙

천사를 통해 하늘나라를 다시 살피며 이 천사를 이런 모습으로 명을 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건네고 있다. 이것이 16장에서 펼치는 일곱 대접 재앙이다. 그 재앙의 결과는 끔찍하지만 이 재앙의 시작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구원이 목표며 우리가 그렇게 된 부분만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 그 나라의 그런 모습이 이 재앙들을 들고 이 땅 위에 부으려 가는 것을 보니 대접 재앙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다. 영원히 지옥 불로 태워 분리해야 하는 세상 매 현실의 모든 찌꺼들과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물든 것들을 이 재앙의 결과로 태우고 버려질 때 하늘나라로 가지고 올 지상의 교회와 택한 백성인 우리 속의 성화된 모든 면이 하늘에 합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 대접 재앙은 잡철을 용광로에 녹여 불순물을 태워 없애 순철을 만들고, 금광석을 녹여 섞인 것을 태우고 분리해서 제거하여 순금을 만드는 제련의 과정이며 연단의 최종 조처이니 알고 보면 우리를 향한 복의 조처가 된다. 내 속에 이런 분리 작업에 제거될 것이 없도록 15장까지 기회를 잡았을 때 말씀에 붙들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위협을 넘어섰어야 했다.

계15:7

3) 네 생물

계15:7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① 생명 역사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제련의 혹독한 단계인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니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다. 생명의 역사라는 뜻이다.

② 요셉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버린 것은 아버지의 무능이며 형들의 패륜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여 아버지의 과욕과 인본적인 편애와 형들의 시기 질투를 뽑아내고 녹여 냈다. 그러기 위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과 13년의 온갖 과정을 동원했다.

③ 복된 길

그 모든 과정에 나쁘게 사용된 것은 일곱 재앙이나 그 일곱 재앙의 원인과 진행과 목적과 실체는 복된 영광의 길이다. 재앙이 멀리 있지 않으며 영광의 길이 따로 있지 않다.

계15:8

4) 재앙의 본 모습

계15:8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① 연기

일곱 대접 재앙의 겉모습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미리 이 재앙을 절망의 저주로만 보지 않도록, 이 재앙의 본 모습을 보여 주려고 8 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고 아무도 이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이 재앙으로 일어나는 소란, 괴성, 고통의 몸부림에 가려 이 재앙이 향하는 영광과 능력의 구원 운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기묘한 하나님의 역사기 때문이다. 이 땅 위의 인간이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집에서 조처하는 내용이다.

② 노아 홍수

노아 홍수로 전 인류를 모두 죽였으니 이 일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오늘까지 인간적인 상식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학자라도 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신화나 전설로 취급하거나 과장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록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진행과 그 결과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라 한다.

③ 물질계 마무리

하나님이 직접 16장에서 7가지 대접 재앙으로 매 현실을 마무리하며 역사 세계가 끝날 때 우주 물질계와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정확히 이렇게 마무리할 것이다. 미리 알면 복이고 뒤에 알면 이 재앙에 제거될 뿐이다.

- 요한계시록 16장 -

▷ 16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중 계시를 기록하며 7가지 대접 재앙이 전개

10장부터 준비한 신앙은 초월하고 준비 못 한 신앙은 그 현실에 소멸당함

- ▶ 성경 내용 : 7대접
- ▶ 계시 내용 : 7재앙

7. 7대접 (16:1-21)

■ 7 대접

- ① 1 대접 : 땅 재앙(16:2)
- ② 2 대접 : 바다 재앙(16:3)
- ③ 3 대접 : 물 재앙(16:4) 강, 물
- ④ 4 대접 : 해 재앙(16:8)
- ⑤ 5 대접 : 짐승보좌 재앙(16:10)
- ⑥ 6 대접 : 유브라데 재앙(16:20)
- ⑦ 7 대접 : 공기 재앙(16:17)

■ 대접 재앙

- 시작은 인봉으로 기회 주시고
- 나팔을 불어 독촉하시고

- 대접으로 최후 대청소
- 전멸 재앙
- 최후 심판
- 심판 정리
- 준비, 회개, 여유도 없이 쏟아부음.

계16:1

■ 대접 재앙

계16:1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 대접 재앙의 전개

계시록 15장까지를 통해 대접 재앙을 철저하고 자세하게 기록했다.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하면 대접 재앙을 초월하나 대접 재앙은 나팔 재앙처럼 1/3을 쳐서 남은 것을 살리게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준비되지 않은 것은 대접 재앙으로 그 현실의 기회는 바로 끝나고 14:17에서 말씀하신 소멸의 역사만 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음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

* 대접 재앙의 성격

대접이란 쏟을 때 지체 없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재앙의 진행 모습이다. 나팔 재앙은 긴급히 신호를 한다는 것이니 다급하게 준비하면 준비가 된다는 뜻이다. 일곱 인은 하나님만 아시는 세상을 운영하는 방법과 기본 방향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니 현실을 닦지기 전에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일곱 인은 믿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비법이 되고, 일곱 나팔은 모든 현실이 전쟁으로 전개될 때 늘

주님이 앞서 인도하고 돕는 은혜가 되고, 대접 재앙은 그 현실에서 준비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나의 잘못이 어떻게 제거되는지를 기록함으로 다음 현실에서 준비하여 이기게 하는 복음이다. 그러나 대접으로 일단 제거되는 그 면만 보면 하나님의 진노이다.

- 큰 음성 : 사랑과 자비의 권면,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
- 땅에 쏟으라 : 하늘에 쌓인 이 신앙에 관계 없는 잘못된 생애는 모두 제거하라

1) 첫째 대접: 땅에

(1) 하늘 소망

모든 현실에서 우리는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가며 이 땅 위의 생활을 통해 하늘을 소망하고 준비하고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하늘을 잊고 아주 땅의 사람이 되고 땅에 뒹굴었다면 그 사람의 모든 세상과 접촉은 그가 부활한 몸에 가져갈 인격과 생활 전부를 굶어 부스러움을 만들고 헌데가 되어 그 사람의 신앙은 온몸에 헌데를 앓는 사람처럼 되어 망가졌다.

계16:2

(2) 기회

계16:2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① 현실 통과

이렇게 현실을 통과한 그 사람의 인격과 행위와 생활은 다시 세탁

할 기회도 지나갔고 고치고 새 살이 돋게 할 기회도 없어져 버렸다.

② 홍포 입은 부자

눅16장에서 홍포 입은 부자가 망할 사람의 눈에는 좋은 옷과 생활 때문에 호화롭게 즐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홍포 입은 부자의 인격과 행위는 지옥의 영원한 불에 태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게 망가져 버렸다. 이미 그에게 준 기회가 끝이 나 버렸기 때문이다.

③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고전15:44에서 두고 갈 형체를 말씀으로 살아 영원히 영광스러운 부활의 사람을 만들었다. 이 땅 위에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나사로의 세상 인격과 세상 이름과 세상 언행은 누더기며 헐어서 아주 몹쓸 헛데로 넘쳤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사로는 매 현실을 통해 하늘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새 생명의 새 살로 계속 바꾸느라고 두고 갈 인격과 육체는 투자되고 쓰임 받고 있었다. 놀다 온 아이의 온몸의 때를 밀어 씻어 버리니 모르는 사람은 때 물을 보면서 그 아이를 더럽게 보지만 아는 사람은 씻겨 나가는 만큼 그 아이의 깨끗해질 새 몸을 본다.

④ 악하고 독한 현대

악하고 독한 현대, 자기중심이 정말 악한 것이고 그 악한 것의 효력이 클수록 독하다고 한다. 새 사람의 새 인격과 새로운 기회를 땅에다 버물려 아주 누더기가 되고 현대가 진행되는데 그 악함과 독함이 극심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들이 13장에서 사단이 성도를 세상의 죄악과 도덕으로 삼키려 할 때 험박을 받거나 속아서 세상과 자기 신앙을 뒤섞어 버렸다.

⑤ 단번의 현실 기회

안 믿던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 그 사람 자체를 천국의 백성으로 기본 구원을 입혀 주신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심신의 사상과 생활과 내면을 매 현실에서 믿기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세상에 뒤섞여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땅에 있는 것이 크고 좋고 인생을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하다가 결국 그 현실이 지나가도록 돌아서지 않고 자기 사상이든 습관이든 경제든 어떤 면을 확실히 세상에 속한 것으로 확정을 지워 버려 땅에 속한 것으로 표시가 될 상황이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심지어 더 나아가 세상에 이런 면은 하나님과 말씀보다 더 낫다 하는 상황이 되면 우상에게 경배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첫째 대접을 통해 고통스럽게 모두 정리된다.

계16:3

2) 둘째 대접: 바다에

계16:3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1) 땅

땅은 우리가 평소 좋을 때 하늘나라를 준비할 신앙의 환경이다.

(2) 바다

바다란 위험하여 빠져 죽기 쉬운 죄악 세상의 환경이다. 그러나 이런 바다 환경이 들어 우리를 다른 면으로 기르기도 한다.

(3) 가나안, 바벨론

가나안 안에 살 때가 땅이라면 바벨론 포로 된 상태가 바다라 할 수 있다. 복 없는 사람은 가나안 안에서도 잡혀갈 행동을 하고, 복 있는 사람은 바벨론에 포로 된 바다 속에서도 다니엘이 된다.

(4) 현실 기회

그런 바다의 환경도 현실의 기회가 지나가면 더 이상 그런 기회는 없어진다. 바다에 피가 쏟아지며 바다 속에서 우리의 영생을 마련할 기회가 전부 사라진다.

계16:4

3) 셋째 대접: 물 근원에

계16:4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⁷⁰⁾가 되더라

(1) 물 근원

① 생명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물이니 물 근원은 생명수를 흘려 내리는 은혜의 시작점이다. 현실에서 자기 속에 성령의 음성이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하고 알려주고 역사를 한다면 이 영감의 역사가 자기 뱃속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된다. 자기를 채우면 넘쳐서 주변을 살리는 역사로 나아간다.

② 진노의 재앙

이런 생명수의 역사를 맡은 천사가 생명의 역사를 막고 이제는 은혜의 강과 생명수를 시작하는 성령의 인도를 막고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쏟으니 사람을 살릴 교훈과 성령의 역사 대신에 사람을 해

70) 생명수가 사망수로

치고 죽이는 살해의 역사가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전쟁의 총칼로 사람을 죽이면 학살로 인식한다. 그러나 지식을 잘못 넣어 수많은 사람의 생애가 엉뚱하게 나가는 것이 살인과 학살이 된다는 인식은 적다. 신앙의 사람, 교회의 복음 운동에 성령이 살리는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말씀은 형태만 남게 되고 그 말씀으로 교회가 시대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맺는데 이럴 때 죽는 수는 대개 집계를 잘 하지 않는다. 천주교의 교황무오주의나 천주교회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교리나 성경과 외경을 동등하게 놓은 이런 조처 하나가 중세 1천 년간 얼마나 많은 서양의 교인들을 몰살시켰는지 측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몰살된 모든 이들의 평생에 담긴 매 현실까지 넓혀 본다면 태평양 바다처럼 살해의 피가 넘치지 않을까? 오늘도 이런 상황이 자기 현실에서 자기의 선택에 따라 그렇게 된다. 남을 보고 비판할 일이 아니라 남을 본 눈으로 자기를 봐야 한다.

계16:5

(2) 의로운 심판

계16:5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셋째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이런 심판이 의롭다고 기록했다. 생명수의 은혜로 사람을 살리고, 자기 속에 죽고 없어질 기능과 기회를 살려내도록 어린 양이 피 흘려 구원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런 기회들이 과거부터 주어진 것이 이 천사가 알고 그런 일을 맡아서 도왔다. 그런데도 그런 기회를 외면하고 두고 갈 땅의 것만 욕심을 내고 몰입하다 셋째 대접 재앙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 셋째 대접이 쏟아져 살육이 일어나는 장면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가혹하다 할지 모르나, 역사적으로 또 개인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한 과정을 다 아는 천사는 만유주 하나님이 너무 기다려 주셨고 너무 자비로웠지 너무 조급하고 가혹하지 않았다는 면을 말한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자기 과제다.

계16:6

(3) 피의 이유

계16:6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셋째 재앙이 쏟아질 때는 6절에서 이 피에 대한 이유를 적었다. 죄악 세상이 위협하고 박해할 때 말씀으로 살기 위해 예수 믿음으로 인내한 성도들과 이런 세상에게 담대하라고 가르친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다. 그래서 죄악 세상은 물론 그 죄악 세상과 하나 된 우리 내면의 요소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세상과 함께 멸망 받는 것이 공의로우며 당연하다고 알린다. 이유를 알아야 다음에는 깨닫고 돌아서든지 아니면 미리 계산을 해 볼 것이다

계16:7

(4) 참된 심판

계16:7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이 동의를 하고 나선다. 어린 양이 매 현실에서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피를 흘려주셨으니 우리가 매 현실에서 죄악 세

상에게 박해를 받고 죽을 위협을 느낄 때 죄악 세상은 우리를 위협만 하지 실권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그런데도 대속하신 피 공로의 보호를 외면했고 세상에게 끌려갔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심판은 매 현실의 지극히 작은 한 요소와 기능에 이르기까지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 참되고 의롭다는 것이다.

계16:8

4) 넷째 대접: 해에

계16:8

네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1) 해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하늘에 가장 높고 크게 그리고 환하게 비취며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굽어본다. 또한 모든 생명과 활동의 근원이 된다. 태양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고 사는 것처럼 믿는 우리의 평생과 매 현실은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생명이 살고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이 해의 은혜 역사를 차단한다. 그리고 이 해가 이제는 태워 버리는 해로 바뀐다.

(2) 때가 있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무궁토록 기다리지 않는다. 역사 전체에도 때가 있고 끝이 있다. 개인도 그렇다. 개인의 내면의 기회도 매 현실마다 다른 것을 원하고 인도하며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외면하고 그 기회를 모두 지내 보내면 그 기회에 주실 생명의 역사는 끝나고 그 기회에 생명을 만들지 못한 것은 모두 태워 없애 버린다.

계16:9

(3) 조처

계16:9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① 초월

이런 일을 겪을 때 복 있는 사람은 다음에는 반복하지 않고 일곱인의 현실인 줄 알고 준비를 서두른다. 그리고 다음 현실의 기회가 끝이 날 때는 자기 기회를 대접 재앙의 해를 받지 않고 초월하도록 조처를 한다.

② 훼방

복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보좌의 권세와 어린 양의 복음과 천사의 호소와 도움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편파적이고 심판적이고 파괴적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한다. 돌이켜 다음 기회를 준비하면 대접 재앙조차 복이 되는데 회개를 거부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으면 이번 현실도 대접 재앙으로 화를 당하고 또 다음 현실도 화를 당하게 된다. 현실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된다.

③ 가속도의 법칙

세상에는 가속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떨어질 때 속도가 점점 붙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 떨어질 때 물체의 무게에 떨어지는 힘이 더해지고 그 다음 순간에는 그 무게에 더해진 힘이 더 더해진다. 그렇다 해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물질계에서는 이 가속도가

무한정으로 더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신령한 세계는 시공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끝없이 더해진다. 그래서 아담의 죄보다 노아 때의 죄가 더욱 강하고 역세며, 초림 때의 죄는 더욱 심하고, 신약의 초대교회, 중세 교회, 말세 오늘의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각자의 형편도 그러하다. 신앙의 세계란 한 번 잘 믿고 돌아서면 그 다음에는 훨씬 의를 행하기 쉽고 가속이 붙으면서 점점 죄를 이기는 힘도 강해진다. 반대로 죄를 지으면 그 반복을 통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가속이 붙는다. 9절에서 넷째 재앙에 이런 면을 기록하고 다섯째 재앙으로 넘어가는 것은 기록을 하다 보니 적어 넣은 것이 아니다. 심각하게 넷째 재앙의 단계에서 돌아봐야 한다. 이번 재앙은 그렇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새로 주시는 현실은 아주 돌아서야 한다.

계16:10

5) 다섯째 대접: 짐승의 보좌에

계16:10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 현실의 기회

지금 우리에게 매 현실을 주시고 그 현실의 기회가 지나가면서 다시는 그 현실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준비할 기회를 놓치면 그 현실을 정리할 때 그 현실에 해당되는 땅이라는 배경, 바다라는 기회, 물 근원과 해에 이르기까지 그 현실에서 우리를 살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전부 닫혀진다.

(2) 짐승의 보좌

우리가 매 현실에서 세상에 붙들려 하늘을 준비할 기회를 놓친 것은 대적들 때문인데 그 배후를 찾아가다 보면 짐승의 보좌가 나온다.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사람의 인격을 빼면 짐승이 된다. 세상은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던 곳이나 타락 후에는 중생된 사람의 심신 속에 성화를 통해 사람답게 만들 기회를 빼앗아 짐승으로 만들고 만다. 이런 운동의 최종 배후가 짐승의 보좌다.

(3) 대적 재앙

우리의 신앙을 삼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토록 함께 타 죽자는 이 사단의 이 땅 위에 사는 기간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유일한 기회다.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의 심신 내면을 모두 지옥을 만들어가도록 소리 없이 역사하는 그 본부, 그 중심, 그 제일 최고의 위치에도 대적을 쏘아 버렸다. 하나님의 진노를 쏘아 버렸다. 천국을 만드는 일에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세상은 그냥 둘 이유가 없다. 택한 백성, 중생된 성도, 우리 심신 속에 만들어야 할 인격과 행위와 생애를 만드는 이 한 가지 이유로 세상이 필요한데 이번 현실에서는 그런 기회가 다 지나갔고 이 현실은 끝났으니 이 현실에 나선 짐승의 보좌부터 재앙을 쏜다. 우리에게 다음 기회 다음 현실에서는 우리를 또 유혹하고 위협하는 세상에 세상의 정체와 결말을 미리 보고 당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음 현실에 필요한 것은 그때 가서 따로 만들고 또 기회를 주신다.

(4) 짐승의 나라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모든 존재가 짐승의 나라이다. 그 나라가 어두워지는 것은 이 나라에 복음의 기회 때문에 빛을 주시며 기다렸

는데 때가 지나갔으므로 빛을 거둬 버린다. 또한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회개할까 해서 기다렸으나 때가 지나갔으므로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으시니 아파서 혀를 깨무는 상황이다. 이 정도가 되면 회개를 해야 하나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니 회개할 상황에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이 악한 자들은 점점 더 악하게 되는 과정이다.

계16:11

(5) 종기

계16:11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훼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플 때 종기가 함께 있었다. 첫째 대접 재앙에 쏟아졌던 것이다. 앞의 것까지 보태지며 고통을 준다. 넷째 재앙 때처럼 이렇게 되면 회개하는 것이 복이나 회개도 회개할 은혜를 주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에 더욱 더 강박해진다. 오늘도 결실을 한 번 잘못 선택한 성도들을 향해 참으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이런 상황을 허다하게 본다. 보면서 내 속에 나를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복음이다.

계16:12

6) 여섯째 대접: 유브라데에

계16:12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 큰 강 유브라데

① 유브라데

두려운 이름, 유브라데 강이다. 원래 범죄 전에는 창2:14에서 에덴에서 발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천하에 생명을 공급하던 4개의 생명수의 강 중 하나였다. 타락 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교회를 주시며 다시 에덴을 만들어 새로 출발할 기회를 주시고 북쪽의 역센 세상이 침략하지 못하게 유브라데 강으로 방어막을 설치해 두셨다.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볼 때는 북쪽이며 동서로 볼 때는 유브라데 강은 동쪽이 된다. 북동쪽이기 때문이다.

② 방어막

가나안을 위해 북쪽을 막아 놓은 방어막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건축이 끝나면 건물의 축조 과정에 필요한 지지대들은 다 빼버리게 된다. 이미 콘크리트가 부어졌고 잘 뒀든 곳곳에 문제가 있다 해도 도중에 가감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사용하기 위해 필요 없는 것은 전부 철수를 한다.

③ 북동쪽

유브라데의 강물이 마르니 북방이 아니라 동방에서 원수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가나안의 동방과 이방의 경계는 대부분 요단강으로 표시하고 북방은 유브라데이다. 전체적으로 북동쪽이다. 동쪽을 강조하는 것은 가나안보다 훨씬 뛰어난 면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 본다면 세상이 교회를 월등히 압도하고 우리 내면의 성화된 신앙의 요소와 믿지 않을 때부터 가져온 나의 기본 자질로 봐도 죄를 짓는 이방적 요소가 항상 강하다. 그러나 안팎의 강한 원수들을 하나님이 막아주며 매 현실에서 하늘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가 지나간 상황에서 이제 방어막을 거두니 건너편에서 노려 온 세상이 밀고 들어와서, 신앙으로 준비해

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속의 요소들을 즉각 절단 내 버린다. 왕들의 길이라 함은 세상의 여러 면의 머리들 최고들 권세가들을 말한다.

계16:13

(2) 세 영

계16: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① 개구리 같은 세 영

이 왕들을 뒤따라 들어오는 세상을 보니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개구리는 물과 육지를 오가며 사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 물에서는 물고기처럼 살 수 없고 육지에서는 일반 동물처럼 살 수 없다. 양쪽을 오가려니 어중간하며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 보기에다 또 실제 사는 것도 깨끗하지 않으므로 더러운 영을 개구리같이 더럽다고 했다. 여러 더러운 면 중에서 소속과 노선과 살아가는 기준을 뒤섞어 더러워진 면을 말한다.

②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은 말씀으로 심신을 씻고 살 수 있는 성도를 다시 말씀어기게 하는 귀신이고 주님 뜻으로 생각과 행위를 씻고 살게 해 놓은 교인을 제 멋대로 살게 하는 귀신을 말한다. 더러운 영이 에덴동산에는 뱀을 통해 간교로 아담을 죽였다면 오늘은 용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큰소리를 치고 위협하는 말로 성도를 제압하여 심신의 요소를 죽인다. 말씀을 어기도록 하고, 참사람으로

살지 않고 야수처럼 살자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며, 구원을 잇고 세상에 따라 살자는 거짓 선지자를 쥐고 우리를 꺾고 위협하고 밀어붙여 결국 성도가 매 현실에서 자기 심신을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삶으로 심신의 요소를 하늘나라로 가져갈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

계16:14

(3) 용

계16:14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① 귀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귀신의 소리를 하면 귀신의 손발이 되었으니 귀신이다. 어떤 교인과 어떤 복음 운동과 어떤 교회라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용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귀신의 영에 붙들린 것이다.

② 더러운 귀신의 영

그 말하는 데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 없고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는 표현이 아니면 그것이 더러운 귀신의 영에 속한 것이다.

③ 거짓 선지자

어떤 신앙의 사람과 교회의 운동이라도 그 속에 예수 구원을 벗어나면 더러운 귀신에게 붙들린 거짓 선지자다.

④ 단합

이런 것들이 일반 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적을 가지고 온 천하 곳곳에 자기대로 머리 노릇을 하는 임금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맞서려 단합을 한다. 하나님께서 역사 세계를 끝내려고 자연과 물질계 전체를 불태우려 한다면 이 세상을 자기 나라로 삼은 이 귀신이 천하의 모든 임금들을 모아 우주의 종말을 막으려고 결집한다. 과학의 머리, 기술의 임금, 동양의 최고, 서양의 대장, 경제의 총수, 각 국가의 정권자들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이 일정을 끝내려는 역사까지 맞서고 나올 수 있다.

⑤ 용처럼 큰 소리

나팔 재앙에도 신앙의 준비가 되지 않고 방심하는 사람이 자기 현실에서 지켜야 할 자기 신앙을 뺏어 가는 방법들이 용처럼 큰소리, 짐승처럼 비인간적인 소리, 거짓 선지자의 구원을 벗어나는 소리들이다.

계16:15

(4) 도적같이 오리니

계16:15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① 도적같이

현실의 마지막 기회가 없어지는 이런 순간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

② 깨어 준비

미리 항상 깨어 있으면 된다. 진리로 사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대속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깨어 준비하는 것이다. 대접 재앙은 재앙이 닥칠 때 대처하는 것은 소용없다. 대접 재앙이 오기 전에 미리 세상을 버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으로, 자기 내면을 말씀과 주님 뜻으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걸어가는 것이 깨어 있는 생활이다. 이렇게 깨어 있으면 세 가지 더러운 영의 운동에게 위협도 미혹도 당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바르게 지켜 신령한 면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자기 옷을 지켜 영계에서 입을 옷이 없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③ 옷

시공의 제한을 받는 물질계인 오늘 옷이 없으면 몸이 부끄럽게 된다. 시공을 초월한 영계의 옷은 말씀과 영감과 대속으로 산 행위다. 그런 행위가 있으면 그 인격이 아름답고 좋게 보일 것이고, 주님을 영접한 행위가 없고 말씀으로 산 면이 없으면 그만큼 부끄럽고 후회가 될 것이다. 고전3:15에서 공력은 불에 타고 남은 것이 없어 불 가운데서 몸만 빠져나온 사람처럼 부끄럽다.

계16:16

(5) 아마겟돈

계16:16

세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① 최후의 전쟁

성경을 일찍부터 알아 온 서구 사회 때문에 오늘은 불신자들까지

아마겟돈 전쟁을 안다. 인류 최후 최악의 재앙적 전쟁을 말한다.

② 매 현실이 아마겟돈

믿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의 현실이 지나갈 때마다 그 현실의 최종 전투를 치른다. 이기든 지든 작든 크든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야 다음 현실이 시작된다. 인류의 역사를 최종 끝내는 예수님의 재림 때의 아마겟돈 전쟁도 큰일이지만 내게는 매 현실의 아마겟돈이 더 급하다. 인류가 다 죽어도 나 하나 죽는 것보다 내게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이기는 법

세 영이 천하의 모든 세력을 모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최후의 대전을 벌일 것이고, 오늘의 매 현실에서는 그 현실에 관련된 세상 모든 세력을 총집결하여 우리를 세상의 사람으로 만들면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 전쟁의 승패 기준은 우리를 세상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의 행위가 그 현실에서 대속을 벗고 살았다면 더러워진 것이니 우리는 패전했고, 어떤 세상의 세력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주님 주신 대속의 사람으로 행동하고 끝이 났다면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된다.

④ 므깃도

아마겟돈은 히브리말이라 했다. 구약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마지막 왕다운 왕이 요시야이며 이 왕이 신앙으로 성공하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다가 죽은 곳이 왕하23:29의 므깃도이다. 므깃도 언덕을 아마겟돈이라 한다.

⑤ 전쟁의 성격

세상을 무대로 우리를 죄 짓게 하면 사단이 이긴다. 사단이 싸우고 싶은 장소, 싸우고 싶은 전쟁이 바로 이런 성격의 전쟁이다.

계16:17

7) 일곱째 대접: 공기에

계16:17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1) 공기

마지막 재앙은 공기에 쏟아졌다. 공기는 국경도 울타리도 없고 인종도 가리지 않으며 낮과 밤도 없이 퍼져나간다. 사람이 사는 곳, 숨을 쉬는 곳은 전부 다 해당이 된다. 이 재앙으로 하나의 현실이 마무리된다. 인간으로서는 혼자 싸워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전능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자 되었다는 큰 음성이 나왔다. 하나님이 되었다 하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에서 이 땅 위를 향해 전달한다.

계16:18

(2) 번개 음성 뇌성

계16:18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① 번개 음성 뇌성

이 순간에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다. 번개는 성령의 역사, 음성은 자비의 역사, 뇌성은 진노의 역사다. 한 현실이 종료되고 일곱째 재

양에 해를 받지 않고 초월한 사람은 칭찬과 존귀를 받을 것이고 일곱째 재앙에 걸려 모든 것이 주저앉았다면 다시 출발해야 한다.

② 큰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난다. 한 현실이 끝나면 그 현실을 위해 존재한 하늘과 땅과 모든 인간과 움직임 전부는 그 현실과는 끝이 난다. 이것이 보통 큰 변동일까?

③ 최후의 큰 지진

역사 최후의 큰 지진은 하늘과 땅이 전부 창조의 첫 순간처럼 그 재료인 물질 원소로 돌아간다. 이보다 큰 개혁은 없다.

④ 보이지 않는 지진

오늘 우리에게는 한 현실이 끝난다 해도 하늘도 그 하늘, 하늘의 별들도, 해와 달도 그대로다. 그리고 땅도 그대로 계속 있다. 그 현실을 위해 존재하고 움직인 면을 기준으로 보면 이 모든 것도 세상의 종말과 같은 성질로 끝이 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현실씩 종료시키며 최종 마지막을 향해 운영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에 어떤 기회도 없는 역사 최후가 되면 불신자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 천지개혁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지진이어서 큰 줄을 모르고 지나간다.

계16:19

(3) 큰 성

계16:19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① 세 갈래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 현실의 최종 순간의 승패를 위해 준비된 이 성의 모든 건설과 구조가 세 갈래로 갈라져 성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이 세상으로 하나 된 최종 최고의 단합체, 그것이 세 더러운 영들이 세 면으로 협작을 해서 만든 것이니 세 갈래로 갈라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

② 천하 임금들

또 그 현실에서 만들 우리의 신앙 성공을 막으려고 14절에서 천하 임금들을 모두 모았는데 그 각각 나뉠대로의 세계를 갖고 있는 그 임금들의 성들도 전부 무너진다.

③ 분쟁

더러운 귀신들과 그 귀신에 붙들린 죄악 세상의 별별 임금들과 세력들이 우리의 구원을 막고 나설 때는 하나로 뭉치지만 우리의 승패가 결정되면 그들이 비록 하나님은 없다 해도 그들끼리라도 하나 되어 작은 단합을 하고 작은 평화를 가지며 작은 행복이라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다. 영계에서 쫓겨날 때부터 음부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악령들은 그들이 활동할 수 있게 허락된 기간과 범위에서는 한 몸으로 움직인다. 또 우리를 삼키기 위해 역할을 분담할 때는 마치 자기들끼리 싸우며 나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우리를 연단하는 현실이 끝나거나 역사의 마지막 단계가 완료되면 그

들끼리도 이제 영원토록 분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자기중심인 악의 최종이며 영원 후이다.

④ 캄캄한 흑암

유1:13⁷¹)에서 이렇게 그들에게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결말을 말했다.

⑤ 큰 성 바벨론

큰 성이라 함은 이미 14:8에서도 ‘큰 성 바벨론’을 말씀했고 17:5에서도 ‘큰 바벨론’이며 18:2에서도 ‘큰 성 바벨론’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 역사의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 현실에 모든 세상이 가장 부러워하는 성공한 세상, 최고의 세상, 최상의 세상, 최강의 세상을 말한다. 제일 크고 성공한 것이 천하 모든 성도의 시선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치게 된다.

⑥ 진노의 포도주 잔

하나님 앞에 바벨론은 ‘기억하신 바 되어’ 하나님은 특별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붓게 된다. 마20:22에서 잔은 고난이다.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붓는다. 견딜 수 없는 날이 시작된다.

계16:20

(4) 진노

계16:20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71) 유1:13,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바벨론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되니 나머지 세상은 그 뒤를 따라 화를 입게 된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함께 묶여 단합된 세력은 한꺼번에 없어지고 따로 떨어져 숨고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인물들과 천하에 든든하게 솟구쳐 오른 어떤 산악도 모두 흔적이 없게 된다. 대장이 망하면 그 밑에 소속된 부하들도 함께 주저앉는다. 남남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복음을 반대하고 신앙을 훼방했다는 점에서는 전부 한 세력이다. 그 역할에 따라 그 위치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처리가 있다.

계16:21

(5) 큰 우박

계16:21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재로 인하여 하나님을 훼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이 때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떨어졌다.

① 한 달란트

한 달란트라면 출애굽 25:39에서 성막의 정금 등대의 무게다. 성막의 제작은 출25장 이하에 상세하게 나온다. 건축과 자연의 균형을 모두 맞추며 제작했다. 그렇다면 순금으로 된 등대라는 점과 떡상과 금단과 비교하면서 성소 안을 비추는 7개의 등잔의 높이와 간격을 생각할 때 한 달란트란 묵직한 규모가 된다. 이렇게 살피는 것이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하는 법이니 가장 안전하다.

② 자연 계시

성경에 없다 해도 성경 기록 당시의 세상 형편과 자연스럽게 맞는 것이 있다면 참고할 수는 있다. 자연 계시기 때문이다. 달란트는 성경에서 애굽, 앗수르, 바벨론, 이스라엘이 함께 사용한 단위이고 신약에도 사용된 것을 보면 로마와 그리스까지 모두 함께 사용했다. 나라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20~30kg 정도로 생각된다.

③ 한 달란트의 우박

이 정도의 우박이 떨어진다면 견딜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자연 상태에서 이런 우박이 떨어지면 견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작성하고 내려보내는 우박이니 이 우박은 인간에게는 전멸의 공포를 준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박 하나하나를 어디에 보내어 어느 정도로 어떻게 파괴할지 정확히 계획한 그대로 보낸다. 이 정도라면 무조건 회개를 할 듯하다. 아니 회개해야 한다.

④ 반발

그러나 귀신이 들어가면 고라처럼 오히려 반발을 한다.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재앙이다. 한 현실을 이렇게 정리해 버리고, 하나님은 다음 현실을 즉시 또 준비하고 진행한다. 우주 마지막 때에는 어떤 여지도 없이 끝이 난다.

- 요한계시록 17장 -

▷ 17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중 계시를 기록하며 성도를 유혹한 음녀 세상

그 현실에서 신앙을 완전히 소멸당한 것은 세상 문화와 인간 지식에 취함

- ▶ 성경 내용 : 음녀, 7머리 10뿔 짐승
- ▶ 계시 내용 : 세상이 하나 됨

계17:1

9. 음녀 (17:1-6)

1) 세상 내면

계17:1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 세상은 음녀

① 물 위의 음녀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음녀’를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이 16장에서 성도의 신앙의 기회를 전부 삼켜 버렸다. 앞으로 다가올 다른 현실을 위해 미리 교육하는 것이다. 16장까지에 오기 전에 17장과 18장의 음녀와 바벨론을 미리 공부했다면 대접 재앙을 초월하여 대접 재앙에 당할 것도 없을 뻔했다.

② 싸울 대상

16장까지를 통해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싸울 우리의 대상은 외부적으로 볼 때는 세상이고 그 세상 뒤에 있는 사단이다.

③ 연단

하나님은 영계에서 말씀을 통해 이 모든 세상과 현실을 우리를 말씀으로 씻고 고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 가는 연단에 사용하고 있다. 결과는 복이고 우선 보기에겐 생사를 건 전쟁이다.

④ 세상

이 전쟁에 우리와 직접 맞부딪히는 세상이란 어떤 존재인가? 세상

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 내어 세상과 하나를 만들어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우리를 끌어당긴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마음을 뺏고 우리의 노력과 시간을 가지려 한다. 세상에 준 것만큼 지옥으로 버려지고 하나님께 붙들린 것만큼 천국으로 가져간다.

⑤ 악령

악령과 성령이 우리와 세상을 각각 대치하고 얽혀 살도록 하면서 배후에서 악령은 악령을 따라가자 하고 성령도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

⑥ 위협

세상은 우리를 힘으로 강제하지는 못한다. 택자요 중생된 우리는 하나님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도 강제력은 금지를 시켜 놓았다. 그래서 사단은 강제할 수 있는 것처럼 위협만 할 수 있다.

⑦ 사단의 전법

사단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법은 우리를 잘 달래어 우리가 스스로 사단을 따라나서게 하는 것이다. 오늘 땅 위에 사는 기간 우리는 육체와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세상을 너무 좋고 아름답게 만들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세상에 몰입되어 천국을 준비할 우리의 시간과 모든 기회를 우리 스스로 세상에 바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법이다. 강한 아버지의 아들을 힘으로 납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둘이 친구가 되어 그 아들이 좋아서 스스로 가출한다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⑧ 유혹

여기서 세상은 성도에게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 우리를 끌어내고, 우리는 부자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맡길 나라를 오늘 생전에만, 오늘 각 현실별로 준비해야 할 일정이 있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예전에는 부잣집 아들을 유혹하여 그 아들의 좋은 기회를 전부 말아먹는 여자를 음녀라고 했다.

(2) 음녀의 정체

① 많은 물

세상이 나를 가지려 할 때 음녀로 나타났고 그 세상을 자세히 보니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죄악 세상이 그의 무대와 활동처로 그를 돕고 있다. 말씀만 벗어나면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이 많다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 주님의 뜻에 얽매어 살면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없다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하나님 동행을 주력하다 보면 세상을 늘 긴장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 좋은 세상을 왜 그렇게 떨며 사는가? 세상이 우리를 다독이며 그러지 말라 한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 보지도 않았는데 왜 당장의 천국인 세상을 외면하느냐며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재촉한다. 이 말을 듣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원래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살던 곳이고 그 곳곳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도 잘 안다. 아직도 사귀었던 친구들이 많고 그곳에만 가면 항상 내 마음이 편하다. 교회는 아직도 남의 옷처럼 좀 그렇고 하나님은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 답답할 때가 많다.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마다 눈앞에서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놓치고 또 당하지 않아도 될 억울함이 너무 많으니 옆에서 계속 논질을 하는 세상이 과거보다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② 음녀가 받을 심판

음녀 같은 세상은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하지는 못한다. 천사는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나, 세상은 그 심판을 보지 말고 지금 당장을 생각하라 한다. 오늘 땅 위의 모든 종류의 유흥이 모두 다 그런 성질이다.

③ 음녀 연구

일단 17장은 우리에게 복으로 기록해 준 말씀이다. 우리는 음녀의 배경과 그의 받을 심판에 주력하자. 그러면 음녀를 멀리할 때 도움이 된다. 자꾸 연구하면 인식이 바뀌며 인식이 바뀌면 취향도 바뀔 수 있다. 아주 바꾸면 음녀인 세상을 초월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좋기는 하나 억지로 누르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계17:2

(3) 땅의 임금들

계17:2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① 그로 더불어 음행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잘난 사람들, 제일 성공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범위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임금이 되면 세상을 품고 세상으로 하나가 된다. [그가 불신자면 음녀 문제를 따질 것도 아니지만 원래 만든 인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을 음녀로 삼고 하나님은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고,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뭐든지 자기 인생과 자기 범위에서 자기가 임금이 되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면, 자기가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총장이 되어 자기 세계를 임금처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과 천국 때문에 자기의 세상 지위는 그 지위에 잠깐 있다 떠날 나그네처럼 조심스러워하고 속으로는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천국만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 땅 위에 임금의 위치에 오른 사람치고 그런 사람은 없다. 땅의 임금들이 그들의 위치와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상관없이 자기의 세상을 음녀로 삼아 세월을 보내고 있다.

② 음행의 포도주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임금은 물론 세상을 사는 모든 이들이 세상의 음녀 노릇에 헤어날 수 못하고 모두 세상을 품고 세상에 붙들려 세상과 하나 되어 세상을 살고 있다. 땅에 거하는 자는 살아 생전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을 잃고 하늘을 잇고 세상 식으로 세상을 사는 경우를 말한다.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지만 그 속의 소원은 천국이 아니고 그 속의 간절함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땅에 사는 자들이다. 이들이 하나님과 천국의 소망에 간절하지 않으면 그냥 무심코 살까? 아니면 다른 종교를 하나 만들어 세상을 초월할 수 있을까? 만일 다른 종교를 만들었다면 그 종교는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 가능할까? 세상을 초월하자고 출발한 것이 불교인데 세상을 벗어난 줄 알았으나 오히려 더 깊은 세상 어느 한 구석에 들어가 세상을 떠났다면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호국 불교라면서 칼을 들고 나서는 것으로 그렇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나님께 붙들리고 천국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임금이든 일반인이든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은 세상을 벗 삼아 살게 되고, 벗 삼아 살다 보면 세상과 아주 하나가 된다.

③ 포도주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포도주는 세상 지식을 말한다. [하나님과 천국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세상과 물질은 실존이며 천국과 하나님은 생각이 만들어 본 허상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이 세상에 빠져 세상을 많이 점령하고 세상만 보고 열심히 사는 것이 현실주의며 이것이 값진 인생을 만든다며 세상에 좋은 것으로 만족을 시키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했으니 음행이며, 하나님을 떠나도록 생각을 바꿔 놓았으니 취한 것이다.]

계17:3

(4) 성령에 감동

계17:3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① 광야

성령의 감동으로 광야로 갔다. 광야에 가서 다시 보니 음녀가 잘 보였다. 광야는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곳이며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이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게 정을 주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은 천국을 가기 위해 거쳐 가는 남의 나라니 나그네가 되어 세상을 살면 세상이 잘 보이게 된다.

② 붉은 짐승

다시 보니 음녀 노릇을 하며 우리의 시선을 끌고 마음을 빼앗는 세상이 붉은 짐승을 탔다. 교회를 삼키려고 분노했던 12장의 용, 그 사단의 집념을 가지고 있는 짐승,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원래 인격

은 없고 맹수성을 타고 앉아있다.

③ 참람된 이름

이 짐승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름이 가득하다. 세상을 이렇게 하겠다, 인류를 이렇게 만들겠다, 기술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소리들이 모두 참람된 소리며 그런 결과물이 참람된 이름들이다.

④ 일곱 머리 열 뿔

역시 여기도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하나님과 견줄 만한 사상, 인간으로서는 못 할 것이 없다고 큰소리치는 힘이 열 뿔이다.

⑤ 음녀, 짐승

음녀도 세상도 짐승도 꼭 같은 세상이다. 참사람의 인격이 없는 면이 강조되면 짐승이고, 성도의 마음을 뺏으면 음녀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세상이다.

계17:4

(5) 옷

계17:4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① 자주빛과 붉은빛 옷

하나님을 떠난 세상, 물질계 오늘이 전부인 줄 아는 세상, 이 음녀가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자주빛은 왕과 귀족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색이다. 붉은 옷은 분노의 색이니 겉으로는 성도를 유혹하여 끌어당기지만 그 속에는 성도의 신앙을 죽이려는 살해의 의도를 가진 행위다.

② 금 보석 진주

금은 영원성을, 보석은 보배성을, 진주는 보석 중에서도 고통 속에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모든 것으로 치장한 세상이 믿는 우리에게 부귀영화, 매력, 보배성 모두를 보여주며 우리를 끌어당긴다.

③ 문화

성도의 마음과 시간을 전부 빨아 버리는 세상, 그 세상의 어떤 면이 그럴까? 전체적으로는 세상인데 세상이 가진 문화를 말한다. 문화 건설. 편리하고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건설해 놓은 이 땅 위의 모든 문화들, 그 문화의 건설이 바로 음녀다. 그냥 좋을 뿐이 아니라 금처럼 장구하여 영원불변의 발전만 있을 것 같고, 진귀한 보배들이 넘쳐나니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④ 금잔

이 음녀가 손에 금잔을 가졌다. 영원성의 잔을 가졌다. 술이 들었으니 먹으면 취하는 세상 사상이다. 인간의 지식은 성도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술이다. 가증한 것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 이것을 마시게 되면 신앙의 원래 사상과 정신을 차릴 수 없고 신앙의 원래 걸음을 걸을 수가 없다. 진리의 걸음과 영감의 판단과 대속의 생활은 잊게 된다.

⑤ 가증한 것

가증한 것이란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인간이 인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있다. 인간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못 할 것이 없는 것처럼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키고 철학과 각종 학문이 뒷받침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본다. 음행의 더러운 것이란 믿는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뺏는 것이며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⑥ 미혹의 세상

성도의 마음과 인생을 모두 빼앗는 세상과 세상의 문화와 그 문화 건설이 음녀가 되어 오늘 인류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준다며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과 하늘나라는 물리치고 세상 속에 빠져 세상의 안락과 복락을 지금부터 누리자고 한다. 하나님의 지식은 물리치고 인간 지식이 믿는 우리를 세상에 취해 버리게 하는 술이다.

계17:5

(6) 그 이마에 이름

계17:5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① 금잔의 이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이마는 음녀의 이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이마는 금잔의 이마다. 음녀는 성도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세상의 문화다. 그 세상 문화의 손에는 술잔이 들려있고 그 술잔은 금잔이다. 금잔이니 영원불변으로 안에 담은 것을 지켜낸다. 안에 담긴 술은 인간의 맹정신, 옳은 정신, 원래 정신을 취해

서 돌아 버리게 만드는 것이니 인간 지식이다. 이 금잔의 이마 곧 이 금잔의 사상을 보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적혀 있다.

② 비밀

성도를 끌어다가 세상에 깊이 빠뜨린 인간 지식을 들여다보니 비밀이라 한다. 무슨 비밀? 여기에 빠지면 죽는다. 그렇게까지 좋아서 난리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성도의 매 현실이 하늘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를 전부 빼앗아 가는 도적이며 원수며 사단이다. 뭐가 있기는 있는가? 실체도 없는, 그냥 무저갱이다. 빠지면 헤매다가 죽는다.

③ 큰 바벨론

또 큰 바벨론이다. 하나님 없이 좋은 세상이다. 좋기는 좋지만 멸망 받고 심판도 크게 받아야 한다. 성도의 마음을 세상 문화로 빼앗아 간 그 인간 지식이 바로 이 세상에서 성도의 마음을 빼앗아 간 음녀들의 어미가 되며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것이 인간 지식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정체다.

계17:6

(7) 피에 취함

계17:6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① 피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을 이용하여 천국을 마련해야 할 성도들의 신앙의 생명,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살아야 하는 그 생명을 세상과 하나 되어 살해한 피가 많고 또 예수님의 대속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의 생애를 세상에 빠져 잊어버렸으니 그 피를 얼마나 삼켰는지? 성도가 세상 문화와 세상 지식에 신앙의 생명과 대속의 생애를 빼앗긴 피, 교회와 각 교인이 매 현실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생명을 세상에 뺏긴 것이 너무 많으니 그 피에 마음껏 취했다.

② 탄식

요한은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탄식한다. 어떻게 세상의 이런 문화가 성도의 이런 중생의 은혜와 진리로 살 기회와 대속으로 살 참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도 많이 삼켰을까? 이 정도의 세상에 주님의 대속을 빼앗겼을까? 그렇게도 세상이 좋은가?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도 가지고 싶을까? 하늘의 것과 도저히 비교를 할 수 없는 허무한 것에 어떻게 모두 영생을 스스로 내어 주고 땅의 사람이 되었을까? 요한의 탄식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한다.

10. 일곱 머리 열 뿔 짐승 (17:7-18)

계17:7

1) 왜 기이히 여기느냐

계17:7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1) 세상에 빠짐

천사가 기이히 여기는 사도 요한에게 기이히 여길 것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 알고 보면 그럴 것도 없다. 미치면 제정신이 아닌 법이다. 왜 세상에 그렇게 빠져버렸는가?

(2) 일곱 머리 열 뿔

음녀가 타고 있는 세상이라는 이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다. 이 일곱 머리의 세상 사상이란 하나님의 지식처럼 완전해 보이고 열 뿔은 능치 못함이 없어 보인다.

(3) 현대 과학

현대 과학이 요즘 못 하는 것이 있을까? 못 하는 것이 없어 보인다고 정말 전능과 전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상과 능력을 최대치로 허용하고 계신다. 우리의 신앙을 마음껏 흔들여 볼 수 있게 하여 우리를 최대한 잘 연단하고자 함이다.

(4) 세상의 내막

여기서 천사는 성도의 혼을 빼놓는 세상의 내막을 알려준다. 정체를 알아야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계17:8

2) 짐승 같은 세상

계17:8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1) 세상 문화의 유혹

성도의 신앙을 전부 빼앗아 가는 짐승 같은 세상, 그 짐승이 세상의 문화를 음녀 역할을 하게 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인간 지식으로 믿는 사람을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 성도가 가야 할 하늘나라를 아주 잊어버리게 만든다.

(2) 인간 지식

그 인간 지식 속에 들어 있는 사상은 성도를 세상으로 빼앗아 가는 모든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을 만들어 낸다. 가증한 것과 땅의 음녀들의 모체가 바로 인간 지식이다.

(3) 짐승의 정체

우리를 삼키는 이 짐승의 정체가 이제 자세히 밝혀진다. 알고 보니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다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세상 자체는 항상 바뀌지 않고 늘 성도의 신앙만 노린다. 그런데 나올 때마다 모습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세상이 어제와 다르고 오늘 세상이 내일 세상과 다를 줄 알고 기대를 하거나 오판을 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이 그 정체를 속이려고 그 모습을 바꾸면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지만 믿는 사람은 세상이 그 모습을 몇 번 바꾼다 해도 세상은 세상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된다고 세상이 신앙을 상대할 때 다른 마음을 가질 리가 없고, 공산주의가 망하고 민주주의로 바뀐다고 교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세상이 그 모습을 바꿀 때는 우리를 삼키는 방법만 달라질 뿐이다.

계17:9

3) 우리가 가질 지혜

계17:9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짐승의 일곱 머리는 우리를 유혹할 음녀 같은 그 세상이 앉은 일곱 산이다. 이것이 세상을 파악하여 앞으로 세상을 상대할 때 믿는 우리가 가질 지혜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어떤 사상으로 무엇을 주장해도 그것은 이 땅 위에 있는 인간들의 것이며, 그 인간들이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세상을 배경삼고 있다.

계17:10

4) 일곱 왕

계17: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1) 일곱 왕

일곱 왕이기도 하다고 했다. 세상에 우뚝 솟은 유력한 인물이 산이다. 그 유력한 인물을 배경 삼고 그 인물을 근거 삼아 하는 일이란 하나님만 바라보지 말고 유력한 인간의 이런저런 지도를 받으며 살자는 것이다. 또 일곱 왕이라 했으니 왕은 일반 모든 사람을 모두

통치하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이 일곱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부족함이 없을 듯이, 또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도 있을 듯이, 세상의 곳곳이 모두 한 세상으로 협력하고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 일곱 왕이 함께 우리의 신앙을 대적한다.

(2) 다섯은 망했고

그런데 일곱 머리인 일곱 왕들을 보니 그 중에 다섯이 망했고 하나는 아직도 있으며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고 아직 보이지 않는다. 알고 보니 세상이 가진 모든 머리들이 한 쪽에서는 망하고 한 쪽에서는 여전히 버티고 있으며 하나는 곧 나타나서 다른 왕을 대신하거나 나란히 왕 노릇을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성도에게 세상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고 복잡하게 만들어 혼동을 준다.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일본도 북한도 한국도 세계 어떤 나라와 회사와 정당과 학계를 막론하고 세상에서 머리 노릇하는 것을 7이라는 숫자에 맞춰놓고, 이들이 한쪽에서는 없어지고 한쪽에서는 새로 나타나고 한쪽에서는 버티며 그대로 지속하는 것도 있지만 모두는 꼭 같은 세상, 하나의 세상이다. 세상의 어떤 것을 봐도 그것을 별것이라고 보는 순간 신앙은 세상에 삼켜진다.

계17:11

5) 여덟 번째 짐승

계17:11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 번째라 했다. 일곱이 아니라 여덟째니 이것은 정말 다른 것인가 했지만 이것조차 알고 보니

일곱 중에 하나다. 그런데 어떤 세상이든 세상은 마지막에는 모두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무저갱에 넣었다가 풀어 놓으면서 우리를 기르시는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다.

계17:12

6) 열 뿔

계17:12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열 뿔도 마찬가지다. 열 뿔의 뿔은 힘이다. 머리는 사상 면으로, 뿔은 힘으로 살피면 된다. 세상의 모든 힘을 10이라는 숫자로 총합을 했다. 힘을 가진 별별 왕들이 있지만 아직 이들이 자기 나라를 확고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고 지옥으로 모두 몰아넣으면 그곳에서 하나님 없는 어두움의 나라를 만들어야 그들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우리를 기르는 데 필요하여 일시 사용할 뿐 그들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완성되지 못하게 한다. 다만 우리를 기르기 위해 우리를 압제해야 할 때가 있어 세상 나라에 오늘을 마치 그들의 나라가 된 것처럼 일시 맡긴 것이다. 시간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제한적으로 왕 노릇을 하게 한다.

계17:13

7) 단합

계17:13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세상의 온갖 사상들과 힘들, 세상의 온갖 것들의 임금들이 결국은

똥똥 뭉쳐 신앙의 단체인 교회와 믿는 우리의 신앙만을 삼키는 뜻에는 하나가 된다. 세상의 배경이며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뜻이 그렇기 때문이다. 세상의 각양각색 모든 세력과 사상이 전부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 신앙을 삼키는 이 한 목적을 위해서는 세상이란 하나다. 세계 대전이 1차 2차 발생했다고, 오늘 미국과 중국이 목숨 걸고 싸운다고, 오늘 경제 체제와 별별 목숨 걸고 싸우는 세상의 종교들과 사상들이 하나 될 리가 없어 보이나, 사단 때문에 하나로 뭉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우리와 우리의 신앙을 상대한다.

계17:14

8) 어린 양

계17:14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1) 빼내심, 부르심

그럴 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니 세상이 어떻게 하나 되어도 이길 것이나, 문제는 우리들이다. 어린 양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들이 택하심을 받고 중생의 은혜를 받아야 일단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된다. 빼내심은 선택이다. 택함은 받았으나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중생시키는 것을 부르심이라 한다. 선택과 중생은 인간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

(2) 중생 이후

중생이 되면 중생된 영이 우리 마음에 신앙으로 살자고 제안을 한다. 이때 악령은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살 만하고,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이 편하고 좋으니 그냥 세상으로만 살자고 속삭인다.

(3) 자기의 결정

이때 진실을 가지는 것은 각자 자기의 결정이다. 이 부분은 주님이 개입하지 않고 기다린다. 택함받고 중생 받은 사람이 매 현실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진실을 쥐고 살겠다면 주님이 책임을 지지만 세상으로 나가겠다면 그 기회 그 시간 그 심신의 요소들은 세상과 하나 되어 우선은 좋아 보이니 영원히 지옥 불로 들어간다.

계17:15

9) 음녀가 앉은 물

계17:15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1)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천사가 세상의 정체와 변모하는 전법을 알려준 다음에 하나를 덧붙인다.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음녀가 1절에서 많은 물 위에 앉았었는데 그 많은 물을 다시 들여다보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었다.

(2) 통치

이것들이 많은 물을 형성하고 음녀를 떠받들고 있었다. 백성은 각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이다. 무리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함께 하는 이들이다. 열국은 세상의 별별 나라 전체를 말한다. 방언은 각

사상들을 말한다. 세상의 모든 집단, 성향, 운동, 사상들이 전부 겉으로는 다른 것 같아도 속으로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삼키는 운동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 음녀를 밀어준다.

계17:16

10) 세상의 약점

계17:16

내가 본바 이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 격려

천사가 세상의 약점을 하나 보여주며 우리를 격려한다.

(2) 자멸

13:3에서 짐승의 일곱 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이란 완전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 준 것과 같다. 알고 보니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대적할 때는 푹푹 멍처 하나지만 결국은 세상의 모든 힘들은 물론 세상 스스로 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 버릴 것임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세상 그들끼리 싸워 스스로 모두 자멸하게 만들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기대할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 되지 않도록 가르친다.

(3) 조절

역사적으로 세상은 신앙을 박해할 때 푹푹 멍처 하나가 되어 끝까지 갈 것처럼 보였으나 또 그들 스스로 싸워 아주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을 보여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단합이 절대

적 단합이 되는 것은 아님을 보인다. 하나님은 서로 싸우게 하지 않으려 하면 그럴 리가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조절하신다.

계17:17

11) 최종을 향한 계속

계17:17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사단이 매 현실에서 교회와 우리 신앙을 침노하고 그러기 위해 그들끼리 단합과 역할 분담도 하며 별별 일을 다 하지만 그들끼리 싸워 망하게도 하면서 또한 다시 한 뜻을 가지고 저들의 나라들을 세상의 짐승에게 몰아주어 다시 우리를 삼키려 한다. 이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 놓은 최종을 향해 계속된다.

계17:18

12) 바벨론

계17:18

또 네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세상의 문화 발전이 음녀가 되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땅의 임금들이 부러워하며 본을 받고 또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이것이 바벨론이며 이 바벨론이 바로 세상 음녀의 대표다. 그리고 18장에서 이 바벨론을 하나 예로 들어 세상이 음녀가 되어 우리 신앙을 삼키는데 어떤 구조와 어떤 면을 가졌는지를 가르친다.

- 요한계시록 18장 -

▷ 18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중 계시를 기록하며 음녀 세상의 대표인 바벨론

바벨론의 본질과 내면을 자세히 기록하여 다음 현실에서 바벨론을 배격할 것

- ▶ 성경 내용 : 바벨론
- ▶ 계시 내용 : 대표적 세상

11. 바벨론 (18:1-24)

계18:1

1) 바벨론, 대표적 세상

계18:1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1) 큰 권세를 가진 천사

① 큰 성 바벨론

17장에서 매 현실마다 우리의 신앙을 세상으로 끌여가는 음녀인 세상과 그 세상이 짐승의 본질로 우리를 삼키는 모든 수단들을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를 삼키는 세상은 어떤 종류의 어떤 모습이라도 사단의 기관인데 세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세상을 ‘큰 성’이라고 했고 그 이름을 ‘바벨론’으로 정확히 표시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천하 모든 종류의 세상을 모두 포함하고 그 내막을 파악할 수 있는 본보기로 삼았다. 바벨론을 보여주는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했다.

② 큰 권세를 가진 천사

살다 보면 주변에 익어지며 시야가 바뀌어 좁아지기 쉽다. 믿는 우리는 늘 하늘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 유한한 세상에 살면서도 무한을 소망해야 하고, 사람을 접하고 살지만 하나님을 함께 봐야 한다. 바벨론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성이니 땅 위에 사는 인간으로서 바벨론을 접하다 보면 그 속에 파묻혀 바벨론의 실체를 잊기 쉽다. 아무리 크고 위대해도 이 땅 위의 도시다.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했으니 우리에게 하늘의 사람이 되어

하늘에서 이 땅 위의 것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친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를 보내셨다. 이 땅 위에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먼지 하나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영계와 하나님보다 먼지만한 것이 커 보이고 광대한 하나님과 영계는 먼지처럼 보이게 된다. 이 시각, 이 시야, 이 시력을 바꿔야 바벨론을 적어주는 이 말씀이 복음이 된다.

③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천사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하나님을 심부름만 해도 그 심부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왕이 높기 때문에 왕을 모신 주변의 신하가 높아 보인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나무 막대기지만 모세 때문에 이 막대기는 전능이었다.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움직였기 때문이다. 천사에게 큰 권세를 맡기고 그로 인해 온 땅이 환하여지는 이 천사가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파묻히기 쉬운 바벨론이 어떤 곳임을 알려주고 있다.

계18:2

④ 무너졌도다

계18:2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힘센 음성으로 무너졌다고 외치고 있다. 큰 권세와 영광의 천사를 보내어 힘센 음성으로 천하제일의 바벨론이 성도의 신앙을 매 현실마다 삼키고 있어 그 행한 값을 그만큼 더 강하게 갚게 된다고 전

한다. 롬2:6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강박하면 강박한 대로, 천하제일이면 천하제일 큰 화로 갚는다.

⑤ 바벨론의 파멸

바벨론이 이 땅 위에 최고라 해도 인간이 땅 위에 건설한 것인데 그것이 영원불변이겠는가? 또한 참새 한 마리와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는 마10:29에 주권의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을까? 자연 상태로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믿는 우리와 천하에 보이시려고 하셨으니 바벨론의 파멸은 어떤 인간이 봐도 천벌을 받았다 하도록 파멸의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 가신다.

2) 바벨론의 역할

(1) 큰 성 바벨론

① 귀신의 처소

파멸의 과정과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일부러 파멸되는 모습을 만들고 또 적고 계신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모조리 파멸시킨 위대한 세상이며 대표적인 음녀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 귀신의 처소였다는 이유를 적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만사가 좋은 바벨론이었으나 신앙의 사람의 신앙을 삼키는 귀신 노릇만 했으니 귀신의 처소였다. 귀신이 큰 세력으로 죄를 짓게 할 때는 사단의 이름을 붙이고, 우리를 생활 속에 소리 없이 작은 죄를 짓게 할 때는 귀신의 이름으로 적는다.

②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이라고 했으니 대속으로 씻어 사죄로 살게 한 성도가 매 현실에서 죄를 이기고 말씀으로 살아야 성도의

행위와 생각과 생활을 씻는 것인데 바벨론에 묻히고 빠져 말씀으로 씻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이 금하는 생활과 생각을 하여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이렇게 더럽게 만들 때 우리 마음을 여러 면으로 오판하게 하고 오도를 했으니 더러운 영이라고 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바로 바벨론이니 하나님 없는 세상이 크고 잘 건설되어 많은 사람이 모였다면 이런 결과로만 사용된다. 인간들이야 문화 건설, 지식 증대, 안전과 행복의 도시라고 바벨론을 부러워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역사 면에서 보면 귀신 노릇에 더러운 영의 본부가 된다.

③ 새들

큰 성 바벨론은 떠돌이 신세의 새들이나 가득 모이는 곳이다. 새는 한 곳에 있지 못하는 변동성을 말한다. 하나님과 진리에 붙들리지 않고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움직이는 면을 말한다.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 한 분이 원인이며 변치 않는 진리가 기준이므로 미개 시대나 오늘이나 지역과 가정과 인간의 형편과 사정이 달라도 하나님과 진리 면에서 보면 늘 하나다.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인간 세계는 하나님과 진리의 불변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철학, 어느 가치관, 어느 강대국, 어느 문화에 기준을 잡아 놓아도 그 기준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새처럼 정처를 정할 수 없다.

계18:3

(2) 음녀

계18: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① 음행

이런 바벨론이 믿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 버리니 음녀 노릇을 한 것이다. 음녀 노릇이란 음행이 되며 그 음행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 우리를 유혹하여 곁길로 끌여가는 방법이 인간 지식으로 인생관, 생사관, 고락관, 영생관, 존재관을 바꾸는 바람에 성도들이 하나님과 천국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묻혔다.

② 포도주

어떻게 멀쩡한 교인이 세상에 끌려가도록 생각도, 판단도, 정신도 모두 바뀌었는가? 사람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술이다. 맛있는 포도주다. 마실 때는 사람이 마셨는데 마시고 나니까 이제 술이 그 사람을 마셔 버렸다. 술이 시키는 대로, 술이 가르치는 대로 생각과 행동 모두가 바뀐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간 그 인간 지식을 포도주로 상징했고 그런 인간 지식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니 '진노의 포도주'가 된다.

③ 만국의 무너짐

만국이 무너졌다. 불신 세계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이미 그렇게 되었다. 믿는 우리가 신앙으로 건설해야 하는 신앙의 세계들, 교회들이 활동해야 하는 현실들, 전부가 다 바벨론에게 무너져 내렸다. 초대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허락받게 되자 로마 제국의 중심에 그 모습을 드러냈고, 로마 제국 안에서 천국을 전한다고 공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의 화려함과 웅장함에 매료되어 로마 제국에게 로마 교회의 마음이 다 빼앗긴다. 그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에게 바벨론 노릇을 하니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아주 붕괴시켰다. 이런 사례가 몇 개나 될까? 무수하다. 믿는 우리와 우리들이 함께 모여 복음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살고 있는 현실들이 만국인데 만국이 무너졌다. 세상 속에 던져진 교회가 자기 세상을 말씀으로 점령한 경우는 아직은 역사 세계에 단 한 번도 없다. 칼빈이 5백년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잠깐 말씀으로 점령한 적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교회가 세상만 보면 자기 사명과 생명 역사의 환경을 뺏긴다. 그래서 무너졌다고 한다.

④ 땅의 왕들

땅의 왕들도 바벨론으로 음행했다. 불신자들이야 당연하고 믿는 우리까지도 뭔가 남들을 지도할 정도의 위치를 가지게 되면 그 위치에서 말씀으로 자기 현실을 깨끗하게 씻지 않고 오히려 그 환경에 삼켜진다. 교단의 간부가 되고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오히려 그들을 향한 세상식의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바벨론적 요소들이 눈에 보여 교권 행사에 재미를 붙이고 사람들의 추종에 흐뭇하여 몸은 교회에 있고 속은 세상이 된다.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로 이름을 내건 목사치고 그 국가와 그 사회에 마음을 뺏기고 한통속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가?

⑤ 땅의 상고들

땅의 상고들이란 이 세상의 장사를 말한다. 바벨론을 중심에 두고 사고 팔며 거래를 하다 보니 점점 재산이 많아진다. 세상이 너무 좋아 굳이 천국을 사모할 것도 없고, 인간의 문화 건설에 만족을 하니

하나님을 찾아 나설 것도 없다.

계18:4

3) 바벨론의 죄

계18: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1) 바벨론의 죄

① 내 백성아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는 매 현실을 통해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바벨론의 매혹에 빠져 하늘나라를 잊고 우리의 눈과 마음에 바벨론만 가득 차고 넘치니 하나님이 하늘의 눈과 기준으로 하늘에서 다른 음성을 통해 바벨론에 빠져 자기 현실을 허송하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아' '하나님의 사람, 하늘나라의 백성들아' 바벨론은 너희의 나라가 아니며 너희가 눌러앉아 편히 살고 즐길 장소가 아니니 얼른 그런 인식에서 빠져나오라 한다.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 자리를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진노하고 때릴 터이니 바벨론에 마음을 뺏기는 주변 사람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 때문에 재앙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재앙 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말이다.

② 현실은 항상 종말

세상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늘나라가 없다. 세상에서 마련하지 않은 것을 죽은 뒤에 마련할 수는 없다. 세상에 배우고 고치고 마련한 기능과 실력과 인격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활동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험하든 바벨론처럼 너무 좋아 보이든 우리는 우리 세상을 천국 마련에 사용하는 일념으로 살아야 한다. 또한 이렇게 마련할 기회는 매 현실을 통해 한 번뿐이니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항상 종말이다. 이 면 때문에 재림을 전제로 적은 계시록이 우리의 매 현실에 늘 해당이 된다.

계18:5

(2) 하늘에 사무침

계18:5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① 하늘에 사무침

바벨론의 죄는 이미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쳤다. 하늘나라에 온 모든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세상이 바벨론의 모습과 실력과 재주를 가지고 성도의 기회를 앗아가는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때 모두가 애를 태운다.

② 필벌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두고 갈 땅에서 우선 행복하고 풍요롭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이 불의며 그 불의를 기억하신다고 했다. 기억하신다는 말은 잊지 않고 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필벌을 말하고 있다.

계18:6

(3) 대가

계18:6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① 갚음

그 값을 갚을 때는 바벨론이 우리의 신앙에 던진 그대로 바벨론에게 대가를 갚게 한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의 시선을 뺏어 올 때 했던 행동들을 그 내용과 질과 분량에 따라 낱낱이 모두 갚아준다. 또 믿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뺏을 때 인간 지식으로 흘렸으니 우리를 세상에 취하게 만든 방법과 내용에도 갑절로 갚는다.

② 처벌

이미 뺏긴 현실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다음 현실에서는 바벨론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처벌을 한다. 갑절로 갚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보다 아주 무겁게 벌을 받아 죄를 지어 얻은 수입과 벌을 받아 손해 본 것을 계산해 보고 다음에는 죄를 지을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 만일 몇 배를 더 갚아야 그렇게 느낄 상황이면 당연히 몇 배를 추가할 수도 있다.

③ 유괴 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바벨론이나 그 바벨론에게 당한 교인뿐 아니라 역사와 주변 다른 관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짓되 하나님의 자녀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은 유괴와 같은 것인데 유괴죄는 대충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과 죄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특별히 조치하는 것이 적지 않다.

계18:7

(4) 바벨론의 내면

계18:7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① 성공한 세상

바벨론의 내면을 적고 있다. 바벨론은 세상이며 제일 성공한 세상이다. 그냥 일등이 아니라 바벨론이 마음먹은 대로 모두 다 이룬 세상이다.

② 피조물

그런데 이 바벨론도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니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존재한다. 천국에 갈 택자가 아닌 존재도 창조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만든 주인이시므로 운영적으로 결말적으로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버렸지만 피조물이 하나님을 상대로 욕을 하거나 싸우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훼방하는 것은 그 피조물의 존재 역사적으로 봐도 아니 될 일이다. 더구나 세상은 에덴 동산의 범죄로 하나님의 구원 대상에서 쫓겨났다. 그렇다면 바벨론이든 어떤 세상이든 그들끼리는 잘났고 못났다는 면으로 경쟁도 하고 싸울지라도 늘 조물주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서라도 고개를 들지 않아야 하고 또 죄송해서라도 낮을 들지 않는 것이 맞다.

③ 여황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를 여황이라 하며 과부가 아니니 애통할 일이 없다고 큰소리다. 여자는 머리가 있어야 하는데 여황이니 머리가 필요 없고 다른 여자들은 머리가 필요하여 과부라 하지만 자기는 자기가 머리가 되니 더 편하고 좋고 낫다 한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살 수 있도록 자유성과 능력을 준다 해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하나님은 세상을 버려도 세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조심해야 하고, 주님은 바벨론을 버려도 바벨론은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까짓 하나님과 주님은 없어도 된다고 스스로 여황이라 하며 오히려 신앙의 사람들을 끌어간다. 하나님은 이런 께썌한 짓은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④ 영화와 사치

바벨론이 주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사치스럽게 했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는다. 영화롭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바벨론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이고 사치라는 말은 자기를 치장했다는 말이다. 11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천하가 바벨론을 부러워하고 예찬하고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바로 이런 모습과 위치 때문에 바벨론은 성도를 유혹한 죄가 제일 컸고 그 대가를 받아야 했다.

계18:8

4) 바벨론을 심판

계18: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1) 심판

① 지배권

이 땅 위의 세상은 마치 무제한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만은 우리의 신앙을 삼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제2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김으로 세상의 지배권은 다시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운용한다. 성도의 신앙을 기르기 위해 사단에게는 위협과 유혹의 방법만 주지 강제권을 주지 않고, 또한 사단이 세상을 운영할 때 필요에 따라 그 방법과 시기와 내용을 주님이 통제한다.

② 파멸

사단이 이 땅 위에 인간들이 가장 매료될 세상을 만들도록 두셨고,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최고의 세상을 지켜보다가 이 바벨론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필요하면 주님은 바로 파멸시킨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의 다른 현실에서 또 다른 바벨론이 필요하면 다시 그렇게 되게 하시고 또 절반짜리 바벨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리 되게도 한다.

③ 각자 싸울 바벨론

역사의 바벨론은 한 번 지나갔으나 오늘 매 현실에서 믿는 모든 사람이 자기 내면의 신앙을 예수님의 대속으로 건설하는 과정에 각자 싸워야 할 바벨론은 그 이름과 그 모습과 그 내용이 전부 다 다르다. 본문의 바벨론은 이 모든 종류의 바벨론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만 적고 있다.

④ 파멸

여기 8절에서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없애 버렸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는 재앙을 쏟아부었고 파괴에도 남은 흔적은 불로 태워 원래 모습도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가 주님이며,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최후 심판을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다. 앞으로 어떤 현실에서도 세상을 향해 결눈질하지 말고 오로지 전능하신 주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다.

계18:9

(2) 재앙

계18:9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① 울고 가슴을 치

바벨론이 천하의 영화와 사치를 누릴 때 바벨론에 붙어 살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의 마음과 생활, 그 속에서 즐거워했던 우리의 생활, 그리고 이 세상에 붙어 곳곳에서 자기대로 왕이 되어 살던 생활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고 울고 가슴을 치게 된다. 불신들은 말할 것도 없다.

② 재앙

오늘 이 땅 위에 마음을 두게 되면 믿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세상조차 재앙을 당한다.

③ 흉년

눅15장에 둘째 아들이 찾아간 먼 나라, 그 나라는 그 나라 나름대로 살아갔을 터인데 둘째 아들이 입국함으로 뒤에 흉년을 당하게

된다. 그 흉년에 돼지를 치며 돼지 열매를 훔쳐 먹어야 하는 지경에 이른 둘째 아들이 그 잘나가던 때가 그립고 그 나라의 번영했던 때를 그리며 흉년에 그 나라가 망한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혀 가슴을 치고 울 것이다. 그 나라와 함께 자기도 망했다. 그 과정을 겪고야 둘째는 비로소 돌아올 마음을 먹는다. 그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니었다.

④ 세상을 치심

믿는 사람의 생각 하나가 잘못되고 우리의 걸음 하나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까지 심하게 때리게 된다. 참 미안한 일이다.

계18:10

(3) 화 있도다

계18:10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① 평가

세상에 두려울 것 없고 부러울 것 없다고 큰 소리 치던 가장 잘난 바벨론을 확실히 주저앉히자 비로소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온다. ‘화 있도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렇다. 그것이 하나님 떠난 세상의 한계며 마지막이다.

②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다. 인간의 눈과 인간의 수준에서 볼 때 바

벨론은 세상에서는 큰 성이었고 인간에게는 위대했다.

③ 견고한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그렇다. 이 땅 위에 인간들끼리의 실력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은 불패요 불변일 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대자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렸다. 인간이 바벨론을 헐려 했다면 시간이라도 걸렸을 것이며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니 순식간에 끝이 나 버렸다.

계18:11

(4) 애통

계18:11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① 땅의 상고들

땅의 상고들이 바벨론 때문에 애통한다. 상고는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알아보는 귀한 상품들을 파는 장사꾼이다. 상고들이 바벨론에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사오기도 하면서 이익을 챙겼다. 이것이 무역이고 이것이 오늘 21세기 천하를 역사 이래로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 현상이 2020년 3월의 코로나 전염병 하나로 순식간에 중단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손을 대면 복잡할 것 없이 그냥 끝이 난다. 상고들이 더 이상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두고 얻을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애통한다.

② 애통

믿는 사람은 원래 세상 것으로 수입을 보는 일은 관심이 없어야 했

다. 한 현실이 지난 다음에 천국에 가져갈 것이 있으면 수입이고, 천하를 가지고 정권을 가졌다 해도 천국에 가져갈 것이 없으면 수입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오늘 세상을 기준으로 얻으려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자기가 마련할 수입이 없어졌다고 애통을 한다.

계18:12

계18:12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5) 얻을 것

바벨론이라는 세상, 세상 중에 제일 위대하고 좋은 세상을 통해 믿는 사람이 얻을 것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이야 세상에서 가장 얻을 것이 많으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상관없는 것들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사고 팔며 세상을 영똥하게 살았을까? 우리가 매 현실에서 세상의 어떤 품목에 눈과 마음과 시간과 정력과 기능을 소진했을까?

5) 바벨론의 상품

(1) 귀중품

① 금

금은 역사 이래 어느 지역 어느 시대에도 늘 제1의 귀중품이다. 변치 않는 불변성이 있고 가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최고의 장식품과 소장품과 활용품이다.

② 은

은은 금보다 싸지만 그 대신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금과 함께 다닌다. 깨끗한 순결성을 가진 보배다.

③ 보석

보석은 돌인데 일반 돌이 잡석이라면 귀한 돌은 보석이다.

④ 보배성

성경의 금은 불변성, 은은 성결성, 보석은 귀한 인재를 말한다.

⑤ 매매

바벨론은 세상 나라니 신령한 세계의 이런 보배성은 모르고 이 땅만 아는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과 은과 보석을 상품으로 매매했다. 최상의 금을 사려면 바벨론으로 가면 되고, 최상의 은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 바벨론이며, 바벨론은 이 땅 위에 모든 이들이 갖고 싶은 세상의 최고 귀금속 귀중품을 가진 곳이다. 오늘의 뉴욕이 그렇다. 세계 곳곳 어디든지 최고의 귀금속 귀중품을 보유하고 매매하는 곳은 다 그 사회의 가장 중심부다.

⑥ 진주

진주는 고난을 겪으며 만들어지는 보석이다.

* 은혜와 저주의 양면성

바벨론의 문제는 금을 가졌기 때문에 죄가 되고 허물어 버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두고 갈 땅의 금으로 영원히 변치 않을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성도의 시간과 마음과 활동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다.

금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렇게 악용되면 저주의 물질이 된다. 땅에 속한 금을 볼 때마다 하룻밤 나그네의 세상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저렇게 가치가 있으니 영계의 영원불변으로 변치 않는 믿음을 보배로 삼아야 하겠다고 결심을 더 강하게 만들며 그 금을 사용하거나 팔거나 사거나 참고를 해서 신령한 세계의 영원 불변성에 노력했다면 그 금은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불태울 때 없어지지 않고 천년왕국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존속되어 세상에서 자기를 복 되게 사용해 준 그 성도를 영원히 환영하고 그 성도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한다. 바벨론의 금은 성도의 시선을 세상으로 뺏는 데 사용되든지, 영계 영생의 기능과 실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든지 양면을 가졌다. 바벨론이 성경과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세상이 된 것은 위대해서도 아니고 소중한 금은 동을 많이 보유하고거나 거래를 해서도 아니다. 금이 죄라면 금광업은 죄가 될 것이다. 그 사용 때문이다.

바벨론의 은도 그렇다. 은을 볼 때마다 주님 주신 대속의 깨끗을 한번 더 기억하여 사죄로 살고, 칭의로 사는 하루에 도움이 되고, 자기 생각까지 씻으며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데 참고가 되어 도움이 되고, 그 은을 팔고 사면서 버는 돈으로 연보를 하며 가족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었다면 복이다.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부모 자체가 죄는 아니다. 자연의 은혜 기관이다. 부모를 볼 때마다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연구하고 부모에게 아쉬운 점이 보이면 그런 잘못이 없는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을 더욱 사모한다면 부모도 복이 된다. 그러나 부모가 실력이 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줄어들거나 부모의 잘못을 겪으며 이런 부모를 만들어 줬다며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면 그 부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를 대하는 나의 자세와 접촉이 잘못이다.

금과 은이 쇠라면 보석은 돌이다. 각종 보석을 사고 팔면서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그 보석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기 몸을 잘 단장하여 복되게 처신하고 그 보석을 매매하여 그 돈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그 보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또 보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에 맞게 나를 다듬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나를 배치하는 문제를 잘 참고한다면 자연계시가 되어 성경과 신앙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남의 여자의 마음을 훔치는데 보석을 사용하고 흥포 입은 부자처럼 하나님 대신 자기를 화려하게 만드는 외식에 사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다닐 때 사용하는 보석이 되면 하나님 앞에 미운 물건이 된다.

(2) 의복

① 세마포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 바벨론의 상품이다. 세마포는 입기 편한 옷이다. 성경에 굵은 베옷은 죄인이 입는 불편한 옷이다.

② 자주 옷감

자주 옷감은 왕이나 귀족이 입는 것으로 권위를 상징한다.

③ 붉은 옷감

붉은 옷감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화려한 색이다. 금과 은

과 보석으로 꾸미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파는 옷이나 옷감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고 부러움을 사며 존귀하게 알아줄 수 있다. 천하에도 이런 옷들이 있지만 바벨론의 상품들은 뭐든지 최상품들이다.

④ 복된 옷

바벨론의 총리까지 된 '다니엘'처럼 그런 옷을 입고 그런 귀중품으로 단장을 해도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다리오 왕에게 국사에 흠과 점이 없도록 하여 장차 기도 때문에 사자 굴에 들어갈 때 총리의 제복이나 옷차림 문제에 걸려 죄인이 되지 않도록 했다면 이 옷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사자 굴에 들어갈 때 장애가 되지 않도록 했으니 복된 옷이 된다.

⑤ 자색 세마포

에8:15에 모르드개가 입은 옷이 자색 세마포였고 아주 큰 금 면류관을 썼는데 그 면류관은 많은 좋은 금에 온갖 보석과 진주가 주렁주렁 달렸을 듯하다. 에2:17에서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면서 면류관을 썼고 5:1에서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서 그 나라 안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구했다. 구원이었다. 다니엘과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살았던 곳이 바로 구약의 바벨론 나라 또는 그 바벨론을 이었던 시대였다. 이들의 온갖 옷감과 금은 보석은 구원에 사용된 은혜들이었다.

⑥ 행위

세마포를 접하거나 입게 되면 계19:8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한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과 진리에 맞는지 살펴야 한다. 자주 옷감을 볼 때는 눅16:19 흉포 입은 부자가 자색 베옷을

입고 자기 위주로 살다 음부에 고통받은 것을 기억하여 이 땅 위에 서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하늘에서는 영원히 자색 옷의 영광 가운데 살 것을 각오한다면 이 또한 우리가 매 현실에서 복되게 이용할 옷이다. 붉은 옷의 화려함도 마찬가지다.

(3) 장식품

① 장식품

귀중품과 의복에 이어 생활 속에 비치하는 그릇과 내외장의 장식품들이 나오고 있다. 각종 향목은 향기 나는 나무고 각종 상아 기명은 상아로 만든 그릇들이다. 값진 나무들은 각종 내외장의 목재들이며 진유와 구리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들은 모두 그릇이다. 이런 그릇들은 생존을 위해 먹는 사료용 그릇이나 서민들의 그릇이 아니라 멋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자랑하는 고급 장식품들이다. 그릇이 좋으면 음식도 더욱 빛이 난다. 먹는 것은 음식이나 음식을 잘 먹게 하는 것이 그릇이다. 말씀이 신앙의 양식이지만 예배의 순서와 방법은 그릇과 같다. 각종 그릇들도 잘 살피면 모두 복되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생의 할 일

인간이 하나님과 천국을 모른다면 이런 것들을 만들고 갖추고 꾸미고 자랑하는 것 외에 인생이 할 일이 무엇일까? 그런데 안 믿는 이들이야 그렇지만 이런 장식품에 믿는 사람까지 신앙의 기회와 힘이 나뉘며 모두 빼앗긴다면 이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미움이 어떨까? 앞날이 창창한 자녀가 주변을 맴도는 여자의 치장에 눈을 팔고 아까운 시간과 건강을 낭비할 때 그 부모가 가지는 격분을 생각하면 된다.

③ 자기 단장

이런 장식품을 상대할 때도 우리가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라는 딘전2:9을 기억하며 바벨론 같은 세상의 유혹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보며 더욱 신앙의 투쟁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인격의 단장에 주력하면 다 참고할 만하다.

④ 자세

출25장부터 성막을 만들고 29장에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들어가는 각종 장식품을 생각해 보면 바벨론의 모든 물품들 그 자체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그 유명한 스바 여왕이 왕상10:1에서 솔로몬을 방문하고 4절 이하에서 솔로몬 궁전과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감탄을 했다. 바벨론의 각종 장식과 상품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을 직접 훼파해 버린 것은 그 성전을 상대한 행동과 자세와 결과 때문이다.

⑤ 진유

장식품 중에 진유는 구리를 말하고 세상에 널린 것이 구리다. 금이나 은과 달리 구리는 다루기가 쉽고 합금을 하면 성질과 사용처가 아주 다양해진다. 구리의 함유에 따라 청동 황동 백동으로 분류되며 성경에는 놋 주석 구리 등의 이름으로 나온다. 우리가 금속에 전문 지식이 없고 또 2천 년 전의 현황을 알기 어려우니 이럴 때는 약간 범위를 넓혀 살펴야 오류를 피할 수 있다. 성경 해석은 전문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일반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정도로 살펴보면 충분하다. 그 정도 범위에서 깨닫고 있다가 나중에 더 세밀한 것을 알게 하실 때 더 깊이 들어가면 된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연

구하는 기본 방향이다.

⑥ 연단

일단 성경의 구리는 곳곳에 연단의 의미를 가진다. 구리는 거의 합금으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에 달구고 식히며 타격을 가해야 빛이 나고 좋아진다. 계1:15에서 주님의 발을 빛난 주석 같다고 했다. 고난을 통과하신 주님의 걸음이라는 뜻이다.

⑦ 동

진유도 그렇다. 계1:15에서 주석과 원래 같은 단어다. 동을 말한다. 그런데 동을 더욱 값지게 사용하려고 합금 형태로 만들어 풀무에 단련을 많이 한다.

⑧ 놋

놋 종류를 볼 때 우리는 만유주 하나님이나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땅 위에서 걸어가신 주님의 발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의 걸음은 평생 고난이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무한의 형벌을 받았다. 그런데 오늘 나의 발걸음 하나가 연단이 싫고 풀무불의 열기를 피하려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용될 귀한 단련을 피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참고하면 왜 이것을 사고 팔았다고 문제가 되겠는가.

계18:13

(4) 향

계18:13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① 향료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들은 생활 속의 각종 악취를 제거하여 즐겁게 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말씀한다. 생명이 생존을 하게 되면 생활 속에 각종 악취는 피할 수 없다. 이럴 때 각종 향들이 뉘지 모르게 분위기를 좋게 한다. 마리아의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을 향기롭게 준비한 것과 구약의 성전 생활을 보면 이런 것은 모두 필수품들이다.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가 문제다. 요셉의 13년 고난이 풍긴 향은 매우 짙게 멀리 퍼져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

② 향의 종류

향의 종류에 관해서는 예술의 세계처럼 경제나 생활 수준이 서민에 속하는 사람들은 평소 사용을 잘 하지 않아서 모를 수 있다. 세밀하게 사용해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밀하게 연구하면 복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앞서 깨닫고 나갈 때 신세를 지든지 그런 사람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신앙의 악취를 제거하는 향의 종류들 정도로 기억해도 불편은 없다.

③ 용도

향은 일반적으로 넓게 사용된다. 성도의 기도를 향이라 했다. 계피는 독특한 향을 강하게 낸다. 아주 특수한 경우의 악취를 제거한다. 향료는 우리나라와 별 상관이 없다 한다. 우리가 잘 모르면 세월 속

에 그냥 두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현실을 줄 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리면 된다.

④ 향유와 유향

향유와 유향은 성경에 많이 나온다. 향유는 향이 나는 ‘기름’이다. 유향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향인데 기름의 형태다. 성경의 기름은 성령의 감동을 말씀한다. 성령의 역사가 향으로 나타나면 유향이 될 것이고, 기도의 내용이 성령의 역사라면 향유가 될 수 있다. 크게 말할 때는 성령의 기름 역사와 성령에 붙들린 기도의 향을 가지고 강조하거나 중심이 되는 면을 강조했다.

(5) 음식

① 감람유, 고운 밀가루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은 음식들이다. 좋은 음식들을 잘 먹고 마셔 힘을 얻은 다음 어떻게 사느냐? 죄 짓는 에너지로 삼아 남들을 죄 짓게 한다면 처참하게 무너져야 하는 죄에 이용물이 된다.

② 신령한 양식

반대로 포도주를 통해 주님의 대속의 피를 생각하고 감람유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 연구하고,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말씀을 곱게 잘 갈아서 전부 소화를 잘하게 말씀을 연구하면 신령한 양식이 된다. 밀가루는 어린 사람들까지 쉽게 잘 먹고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가공의 말씀 전달이 되겠으니 성경 교재도 포함될 수 있다. 밀은 그냥 양식의 기본 상태니 일반적으로 전하는 말씀이다.

(6) 전파

① 소, 양, 말, 수레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제일 마지막에 말 씌웠다. 소와 말과 수레는 운송 수단이다. 죄를 지을 재료를 많이 운반하면 소가 되고 빠르게 운반하면 말이 된다. 양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도 양순하게 따르고 종들은 뭐든지 민첩하게 시키는 대로 잘 움직일 것이다. 죄를 짓는 데 모두 편리하다.

② 사람의 영혼들

영혼들은 자기 주인인 산 영을 찾지 못하고 해매면 하나님 대신 바벨론이 그들의 신이 되어 맹신할 수 있다. 바벨론의 죄가 전달되고 수행되는 데 필요한 것이 되면 바벨론을 불사를 때 전부 타야 한다.

③ 신앙에 유익

바로 궁전에서 모세와 요셉이, 바벨론 궁전에서 다니엘과 포로 되어 간 선지자와 의인들이 이 모든 종류의 귀금속, 의복, 장식품, 향, 음식과 전파 수단들을 복되게 사용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이것들을 신앙에 유익된 것으로 사용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바벨론에 포로 되어 간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 주역 중에 느헤미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하던 일이 왕의 느2:1에서 왕의 앞에서 술을 받들어 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술을 시종하던 그 자리에서 가나안 천국으로 돌아가는 일념을 보였고 그 기회를 통해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데 왕이 모든 조처로 도왔다. 기독교는 염세주의인 현실 도피주의도 그렇다고 현실 타협주의인 속화주의도 아니다. 하나님과 천국을 향해 걸어가며 주신 현실에서 복되게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하나님과 천국을 잊게 하고 잃게 한다면 가차 없

이 끊어 버릴 뿐이다. 현실과 현실에 담긴 그 자체는 비록 바벨론과 바벨론에 넘치는 상품과 각종 자랑거리라도 죄가 아니다.

계18:14

6) 바벨론의 애가

계18:14

바벨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 진노

① 바벨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

그런데 바벨론은 이 모든 장점과 자랑스러운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모든 성도가 자기 현실에서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세상 바벨론으로 쏠려 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바벨론이 일반인의 생활 차원을 넘어서서 조물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심하고 경배적인 자세를 가졌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자세를 버린 것을 가르쳐 ‘바벨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이라고 했다.

② 각종 열매

바벨론이 가지고 싶었던 각종 열매들, 결과들, 결실들, 실적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걷어치워 버렸다.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맛을 주지 않으면 맛있는 것이 있어도 맛이 없게 되고 또 맛있는 것 자체를 없애 버리면 맛을 찾으려 해도 안 된다.

③ 맛있는 것, 빛난 것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이 땅 위에서 가지고 싶은 각종 성취감과 남다른 만족감이 맛있는 것들이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빛난 것들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생의 요소를 절단 내 버린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을 그 현실이 끝나면 없애 버린다. 이런 것을 알고 나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이들은 비록 믿지 않을지라도 믿는 이들이 잘 믿도록 응원하고 환영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인 이 세상에서라도 잠깐 더 낮게 사는 길이다.

계18:15

(2) 핍박 세력의 말로

계18:15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바벨론을 주저앉힐 때 바벨론과 바벨론 주변에서 또는 멀리서 바벨론과 연결을 가지며 바벨론으로 덕을 보던 이들과 그들이 바벨론을 배경으로 사고 팔던 모든 상품들을 통해 좋아하던 이들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며 무서워한다. 하나님이 무서워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핍박한 세력과 국가와 인간들은 그 말로가 일반과 다르게 하여 표시를 내시는 것이다.

계18:16

(3) 화 있도다

계18:16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① 착시

그들조차 ‘화 있도다’를 외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가려 놓으니 바벨론이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대신하고 천국보다 나은 지상낙원을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착시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바벨론과 관계가 있는 다른 이들까지 그 입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부정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을 모르면 ‘천벌을 받았다’는 말이라도 나오게 한다.

② 추억

그들이 바벨론의 영화로웠던 때를 기억한다. 그래서 12절에서 바벨론에서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던 모습을 꼬박꼬박 헤아려 가며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다음 현실에서는 우리들에게 바벨론에 두 번 당하지 않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심판을 하시나 그 심판조차도 성도인 우리에게는 더 나은 신앙의 발전을 위한 교재와 재료로 사용하시니 주님은 과연 생명의 주님이시다.

계18:17

(4) 하나님의 처리

계18:17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① 예고 없이

그렇게까지 튼튼하게 쌓아 올리고 백방으로 방어막을 치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에 보험까지 완벽하게 가입한 바벨론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각 전문 분야들이, 바벨론에 들어간 믿는 사람들이 그들

처럼 자기를 만들고 세상에 안주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처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바로 끝을 내 버린다.

② 방심

예고는 6장에서 일곱 인을 헤아려 가며 펼칠 때부터 다 나왔었다. 8장과 9장의 나팔 재앙에서도 설마 하며 방심한 우리의 잠든 심령 때문에 마치 갑자기 붕괴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평소 깨어 있는 사람은 자기를 핍박하고 유혹하며 하나님 앞에 큰소리치는 세상을 볼 때 바벨론이 비록 크지만 하루아침에 처리하실 것이라고 알지 바벨론을 께찮을 것으로 인정해 본 적이 없다.

③ 멸망

일시간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보고 있다. 바벨론이 자체와 주변뿐 아니라 멀리서도 전부 연결하며 그 범위를 한량 없이 넓혀 왔기 때문이다.

④ 바다

17절의 바다란 단 세계로 갈라놓은 경계의 역할을 포함한다. 이 세계와 저 세계가 별세계가 되어 따로 살며 다른 삶을 살았는데 이것을 엮고 묶는 데 머리 되는 사람이 선장이니 오늘 인터넷 업자들을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선원이라면 이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그래도 선장과 선원이 아니라 한다면 선장과 선원들 때문에 자기가 갈 수 없는 세계를 구경하는 선객에서는 빠질 사람이 없다. 천하를 다 돌아다녀 봐도 바벨

론 같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성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능가한 문화 세력은 없다.

계18:18

(5) 뱃사람

계18:18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바벨론과 다른 곳을 비교해 가며 과연 바벨론은 크다, 위대하다, 볼만하다, 이곳에 가서는 살 만하다고 천하에 소문을 전하고 퍼뜨려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다 준 것이 바로 이 뱃사람들이다. 이들의 눈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불붙는 연기를 직접 보게 해 주시며 이런 큰 성이 어디 있으며 이렇게 위대한 성이 없는데 이렇게 망해 버렸다고 똑똑하게 인식을 시키고 있다.

계18:19

(6) 티끌

계18:19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들의 구경은 남의 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이 바벨론을 다니며 구경도 하고 돈도 벌고 또 바벨론에서 묻어 나온 것도 있으며 앞으로 그곳에 가서 살 노년을 계획했든지 아니면 조기에 그 중심에 들어앉아 그 영광을 누리고 싶던 마음이 절실했다면 바벨론의 잿더미는

그들의 소망을 주저앉히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생각과 미래가 담긴 그들의 머리에 재를 티끌을 뿌리는 것이며 이제 이 생각은 재가 티끌이 되어 소용이 없게 되었다. 절망이다. 바벨론을 겪어 봤으니 어떤 세상을 다시 만들어 이렇게까지 좋게 할 수 있을까? 그 낙심이 지대할 것이다.

계18:20

7) 성도들의 찬가

계18:20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1) 잿더미

① 호소

바벨론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된다.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잿더미가 된 바벨론을 건너다보고 애통하며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소망이 끊어져 비통해한다.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있는 또 한편의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그 바벨론에 시달리며 그 바벨론 때문에 먼저 부분적으로 자기를 바친 성도들의 신앙들은 하나님 앞에 앞서 가서 제단 아래 엎드려 피 흘린 고난을 신원해 달라고 계6:10에서 호소하였다. 그런데 조금 기다리니 나머지 동무들과 형제들도 모두 수가 차야 한다는 바로 그때가 되었고 이때를 위해 미리 외친 선지자들과 그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지도했던 사도들은 바벨론을 잿더미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있다.

② 매 현실

이 바벨론으로 다시는 다른 바벨론이 없다면 주님이 직접 오시는

역사 최종의 순간이나, 오늘도 우리에게는 매 현실이 이런 성질로 지나가고 있다.

계18:21

8) 천사의 마무리

계18:21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1) 한 힘센 천사

① 큰 맷돌

한 힘센 천사를 보내 주시며 우리의 눈을 또 열어 주신다.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넣었다. 다시는 밖으로 나올 수 없다. 바벨
론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다.

② 매 현실

이것이 우리의 매 현실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한 현실이
끝나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붙들어 간 세상은 비록
바벨론처럼 보여도 그 현실이 끝남과 동시에 소용이 없다.

③ 음부와 지옥

그 바벨론은 영원히 음부로 던져지며 훗날 지옥으로 이어진다. 두
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

④ 단번의 현실

성도는 한 번 중생되면 남은 평생은 수없는 현실이 반복되는 것처럼

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현실도 두 번은 없다. 늘 구성과 운영과 환경과 역사가 다 다르다. 생각 없이 대충 보기 때문에 늘 같아 보일 뿐이다. 우리가 욕심과 관심이 없다 보니까 생각 없이 보는 것이다. 보여주는 계시를 보고도 보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다. 계시가 어렵거나 현실이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의미 없는 자기를 만들고 있다.

계18:22

(2)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계18:22

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① 거문고와 통소 나팔 소리

거문고 타는 자들과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바벨론에서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들 재주로 세상에 별별 것을 가지고 거문고의 가락을 만들고 세상을 즐기며 통에다 바람을 불어 올려 나오는 이런저런 묘한 한구석에 몰입하는 이들. 천하를 향해 들으라고 떠드는 광고도 모두가 우리 구원을 위해 복되게 사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 구원의 훼방과 유혹에 사용되었다면 그 현실이 끝날 때 그 현실에 담긴 이 땅 위의 세상적 기쁨과 즐거움과 화음과 각종 전문적인 재주는 맷돌이 바다에 빠져 다시 나타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끝이 난다.

② 세공업자

바벨론에는 각종 귀금속과 장식품의 재료들이 많았다. 각종 인재와 기술과 인간들의 문명 문화들이 가득 모였다. 그것을 마음대로 다루는 이들이 세공업자들이다. 인재를 만들고 기르고 각인시켰던 일도, 그리고 맷돌을 돌리며 바벨론 사람들이 먹고 살게 했던 기본적인 제공도 모두 끝이 난다.

③ 종말적 현상

이것이 말세지 말이며 오늘 매 현실의 종말적 현상이다. 믿는 사람이 늘 이런 세상임을 알고 산다면 세상에 붙들리고 싶어도 정이 가지 않고 욕심이 갈 리 없다. 생각 없이 살다가 주변에 휩쓸리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신과 사명과 영생을 잊어버리고 잊으면 결국 자기 신앙의 보배와 기회를 잃어버린다.

계18:23

(3) 빛이 없음

계18:23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취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① 현실

이제 바벨론에는 다시는 등불이 비취지 않을 것이니 어떤 빛도 없다. 그 현실은 되돌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한 현실이 완전히 지나가면 진리의 빛인 전도의 복음도 전해지지 않는다.

② 큰 구렁

부자가 음부에 가서야 모든 것을 알았지만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왕복이 되지 않는다. 한 번 종말이 되면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없다. 세상이 아는 신랑 신부의 소리도 없을 것이고, 매 현실을 통해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구원의 사랑도 또 우리가 주님을 애모하여 찾는 사모의 기도도 주어지지 않는다.

③ 복술

알고 보니 바벨론을 무대로 천하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며 세상에서 천국을 사지 않고 세상에서 세상만 사고 팔며 거래했던 이들은 이 땅에 각 곳을 주도하는 왕들의 주변 사람들이었다. 바벨론의 재주가 굉장했으나 주님이 보실 때는 복술이다. 하나님과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니 이것은 꾀였을 뿐이다. 이 땅 위에서 인간에게 당장에는 통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전부다. 실제로 이 땅 위에 일반 인간으로서는 그 꾀에 속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물며 믿는 사람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늘을 팔아 바벨론의 한 곳을 차지하거나 바벨론을 접하며 매매하며 혜택을 보려 하는데, 만국의 누가 미혹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중생되고 진실한 사람이 아니면 다 미혹되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

계18:24

(4) 경고

계18:24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① 선지자들

그런데 알고 보니 바벨론의 곳곳에는 이 바벨론을 경고하며 바벨론이 망할 세상이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길과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고 외친 선지자들이 바벨론 때문에 바벨론 안에 피를 흘렸다.

② 성도들

자기 믿음을 지켜 자기를 바벨론에 넘겨주지 않으려 했던 성도들도 바벨론과 싸우고 끌려가지 않으려다 피 흘려 수고하고 희생당한 부분이 많다. 심지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도 알고 보니 바벨론적인 세상에 당한 피였다.

③ 지옥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그냥 둘 수 없다. 성도의 한 번뿐인 현실의 구원 기회를 빼앗았다면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지옥불로 태워질 것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바벨론의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 때 바벨론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2020년 현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자.

7. 말세를 정리

19~21장

1. 심판 개시 (19:1-10)
2. 하늘에 백마 탄 자 (19:11-21)
3. 천년왕국 (20:1-10)
4. 백보좌 심판 (20:11-15)
5. 신천신지 (21:1-8)
6. 새 예루살렘 (21:9-27)

- 요한계시록 19장 -

- ▶ 성경 내용 : 하늘의 허다한 무리와 백마 탄 자
- ▶ 계시 내용 : 심판

▷ 19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중 교회를 기록하며 음녀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

그 현실에 신앙 기회를 빼앗은 바벨론 세상을 철저히 심판하여 다음을 경계

계19:1

1. 심판 개시 (19:1-10)

1) 모든 현실의 매번 정리

계19:1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① 최후 정리

19장에는 역사 세계의 최종 모습과 함께 매 현실의 최종적 정리 모습을 적어 주셨다.

② 큰 음성

‘이 일 후에’ 바벨론의 최후를 보여주신 다음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물질계 세상으로 이곳에는 물질로 된 존재들만 있다. 지금 영계 하늘나라에는 영물들이 있고 이곳도 모든 존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영계 하늘나라는 더욱 많다. 성경에서 그 나라의 모든 존재는 주로 천군 천사로 표시한다. 천군 천사만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그 나라를 적으면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해 줄인 것이다. 짓먹이 아이에게 천체 물리학이나 국제 정세를 설명하면 차원과 범위가 달라 설명을 해 봐야 알아듣지 못한다.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 맘마, 쉬’ 등의 생활단어 몇 개가 시급하다.

③ 허다한 무리

여기서 그냥 허다한 무리라 했다. 앞서간 성도들만 해도 허다한 무리가 된다. 택한 백성 전부와 그들 속에 성화된 심신의 요소와 기능들의 목소리만 해도 허다하다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가 되어 이 땅 위에 붙어 사는 우리를 깨우친다. 오늘도 늘 하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 마음과 자세와 노력의 방향을 바꾸자.

④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소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며 ‘호산나’는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이다. 성경에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적었으니 이 정도의 뜻은 ‘아멘’처럼 기억해야 할 상식이다. ‘기도한 이대로 이루어 주소서’라는 뜻이다.

⑤ 구원과 영광과 능력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과연 그렇다. 구원이 주님에게서 나오며 그 구원의 과정과 훗날을 보면 만유주의 도성인 신과 사할 대속의 영원한 희생은 우리와 만물이 찬송하고 감사할 뿐이니 정말 순수한 영광이다. 땅 위의 영광은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으로는 억압이거나 손해 본 이들이 질시하고 욕을 하는 수치들이다. 왕의 행차가 겉으로는 영화롭지만 어가를 메고 있는 일꾼들은 무겁다고 속에서 욕을 하지 않을까? 일꾼들이 왕 때문에 덩달아 자부심을 느낀다면 거기에 끼이지 못한 구경꾼들이 속으로 시기하지 않을까? 따지고 따져 보면 완전자가 아닌 존재의 영광은 이렇게 제압과 눈물과 시기를 밟고 끌어모은 그 위에 맹수의 포식 후 부르짖는 영광이다. 능력은 자존자의 목적을 이루어 낸 힘을 말한다. 찬송할 일이다.

계19:2

(2) 옛사람

계19:2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① 처리

이 목적을 위해 이용된 것들,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바벨론에 들어붙어 바벨론화가 되고 바벨론에 안주했던 내 속의 옛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 내 것이니 악성과 악습의 옛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이것을 구명하여 하늘나라에 가져가야 할까? 아니면 내 것이니 주님의 피 앞에 내 손으로 먼저 처단해야 할까?

② 의로운 심판

오늘의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아 옳은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으나 주님의 심판이 닥치고 모든 결과가 명확해지면 제 정신을 차리게 되어 있다. 주님의 속성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③ 피 값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땅 위의 모든 인간 문화를 심판하시며 주님의 종들이 바벨론에 잡히지 않으려다 흘린 피, 또는 신앙으로 건설해야 할 생명의 요소들이 바벨론에 삼킴으로 내버려진 피, 어떤 피든지 그 피에는 피 값이 있다. 그 피 값을 오늘 매 현실에서 우리가 미리 씻어 돌아설 수도, 방어할 수도, 살릴 수도 있으나 한 번 현실이 지나가 버리면 바벨론에 속한 것은 전부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해야 한다. 주님의 피에 씻기지 않고 반대되는 것 전부를 지옥에 영원히 버려야 천국이 천국 된다.

계19:3

(3) 연기

계19:3

두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 매 현실에 한 번 주어지는 기회, 그 기회에 영생의 것으로 바뀌면 영원히 다시는 변동 없이 영생의 것이 되고, 그 기회에 한 번 사망의 것이 되면 영원히 불태우는 지옥으로 던져지고 그 고난의 연기는 영원무궁하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훗날을 느끼며 단번의 기회를 잘 살면 우리의 매 현실은 복되게 사

용되어질 수 있다.

계19:4

(4) 경배

계19:4

또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① 하나님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 지금까지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만 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가린 것이 거둬지며 열리게 되니 계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라 한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주권자와 운영자였다.

② 24 장로

이십사 장로는 하나님께서 맡기는 자기 식구를 책임지며 순종했을 뿐이다.

③ 네 생물

하나님과 이 장로들 사이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었으니 모든 면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점을 네 생물로 표시했다.

④ 경배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종들, 그리고 그 사이를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한 신앙의 생명 역사가들이 함께 하며, 이 모든 구원의 역사와 심

판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 한 분의 역사였으므로 모든 것이 마칠 때 장로들과 생물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나이다. 앞으로도 이루어 지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은 전부 구원의 성취니 완전성이요 불변성이요 단일성이라 감탄할 뿐입니다!

계19:5

(5) 음성

계19:5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왔다.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이! 이들 속에는 24 장로들도 네 생물도 모두 포함된다.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했다. 찬송은 감사의 노래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온 몸과 마음을 울리며 나오는 한 편이 노래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존성 완전성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려고 목적을 정한 것이 구원이다. 그 구원이 이루어진 그 현실을 만들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발표가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다.

계19:6

(6) 화답

계19:6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① 하늘의 합창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에 화답하여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 같은 소리들이 나온다. 하나님을 모신 영계의 영물들과 천군 천사와 모든 만물이 함께 하는 하늘의 합창이다.

② 자기중심

오늘 세상은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야욕이 다르고, 한 나라의 통치자와 그를 넘어뜨리려는 반대자의 절규가 다르며, 한 사람의 마음조차 별별 생각으로 서로 치고 따지고 난리들이니 이 땅 위의 모든 소리와 지옥의 소리는 자기 중심으로만 존재가 전부 부딪혀 깨지고 끄집어내려 뺏으려는 파열음이다.

③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이 나라의 만 존재는 모두가 한 분 하나님 중심이니 단일의 성질이고, 완전예 속한 일부분들이니 한곳에 모아 놓아도 전부가 조화롭다. 감사가 나오기까지 지나온 각 존재의 역할과 받은 은혜가 다른데 한곳에 모으니 화음이 되어 합창이 되는 것이다.

④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또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이 나온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

⑤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었고 운영하시니 주님이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다. 한 개인의 하나님이면 다른 이들은 밀려 나갈 것이니 그들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겠는가? 오늘 이 땅 위에서 바벨론의 세상 문화는 남의 것을 밟고 나를 중심으로 나 좋게 형성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너도 나도 하나님과 다른 것은 벗어 놓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만 사상도, 욕심도, 생각도, 습관도, 말도, 행위도 바꾸고 갖추어 만들었으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된다.

⑥ 전능

이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아무리 우리 편만 모여도 여우 한 마리 들어오면 토끼들의 동산은 생지옥이 된다. 아무리 강해도 사자들이 모인 곳에 배가 고프면 그들끼리 경쟁을 하고 피를 봐야 한다. 전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시니 하나님의 뜻은 전부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

⑦ 영원한 복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감사와 평안은 이런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하고 넘어설 때 가능하다. 우리에게 알리지 않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알리는 것도 있다. 하나님이 전능자임을 적은 것은 이것은 알려 주는 계시니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전능자의 통치는 영원무궁토록 변함도 고장도 없다. 로마 제국의 통치도, 천주교 교황의 종교 통치도, 여론과 민주화로 통치하는 오늘의 자유국가의 번영된 통치도 전능이 아니므로 미개하던 그 시기나 오늘이나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사실 알 수 없다. 전능자의 통치만이 영원한 복이다.

계19:7

(7) 영광

계19: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① 즐거움

따라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겠고 우리가 크게 기뻐해야 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그분 덕분이니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모두가 필연이며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 땅 위에서는 전능이 아니니 싫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을 끌어다 모아 놓았고 그러니 그 안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고 복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없다.

②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 만유주 하나님은 도성인신으로 희생하시고 신인양성일위로 다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실 때는 무형의 완전자라 우리가 접근도 인지도 할 수 없었다.

③ 인성의 주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부활 후에도 그 몸을 신령하게 바꾸어 그대로 계시니 이 인성의 주님을 우리는 붙들 수 있고 모실 수 있고 닮을 수 있다.

④ 신령한 몸

인간의 부부는 육체로 하나 되는 것이 전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부

활을 하게 되면 시공의 제한을 받던 물질의 차원을 넘은 신령한 몸이 된다. 그렇게 되면 마22:30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으니 이 땅 위의 인간 부부라는 사이는 없어진다. 우리 모두가 천사들과 같게 된다.

⑤ 어린양과 하나

이런 우리가 어린 양과 혼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오늘 물질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희로애락이 어린 양과 하나 되는 면을 말한다.

⑥ 바벨론의 유혹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은 그 현실을 통과하면서 바벨론이라는 세상은 어린 양의 방식, 그 사상, 그 생각, 그 희로애락으로 살지 말고 바벨론의 부귀로 바꾸어 영화롭게 살라고 유혹한다. 어린 양과 바벨론을 양쪽에 두고 그 현실에서 바꾸고 고치고 가질 자기 내면의 요소들과 기회들을 어떻게 했는가? 바벨론을 향했다면 거기에 관련된 요소들은 그 현실이 끝나면 그 현실에 바벨론으로 존재하고 그 바벨론 주변에 붙었던 것을 정리할 때 함께 불에 태우도록 버려질 것이다.

⑦ 어린 양의 혼인

그 현실에서 바벨론의 유혹을 떨치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과정에 없애지고 손해 본 요소들과 연단된 실력은 전부 어린 양과 같아졌으니 그 부분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과 하나 된 상황이다. 이것이 한 현실이 끝날 때마다 어린 양과 하나 된 것이 결정체로 나온다. 이 면을 어린 양의 혼인이라 하는 것이고 그 아내

가 예비된 것은 이런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⑧ 재림 최후 순간

재림의 최후 순간에는 역사의 모든 그런 사람의 그런 면이 총합 될 것이고, 오늘은 모든 믿는 사람의 매 현실이 끝날 때마다 이런 정산이 있다.

계19:8

(8)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계19:8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도 하더라

① 빛나고 깨끗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주님의 대속의 피 공로에 맞는 우리의 생애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어린 양의 대속이 도성 인신의 희생이므로 빛나는 것처럼, 이 대속의 피 공로에 감사하여 이 땅 위의 어떤 문화와 인간 지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벨론에도 시선을 뺏기지 않은 우리의 그 자세 그 투쟁 그 승리가 하늘나라에 서는 빛나는 승리가 된다. 그리고 대속의 피 공로에 비취 볼 때 더러운 것이 없으니 깨끗한 것이다.

(2) 세마포

세마포는 아주 가는 실로 짠 옷이다. 한 순간 순간이 가로로 펼쳐질 때 한 행위 행위들이 세로로 엮인다. 이렇게 매 순간을 긴장하고 조심하며 대속 받은 성도가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한 세월에서 세마포 옷이 짜여져 나온다. 이 세마포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

늘나라에서 신령하게 변화된 우리는 세상처럼 얼굴을 씻고 옷으로 몸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때 옳은 행위들이 그 인격을 빛내게 된다.

계19:9

(9) 기록

계19: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① 청함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하라 한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마25의 열 처녀 비유에서 믿는 모든 사람은 청함을 받았다.

② 쫓겨남

그러나 준비할 수 있던 대낮에 바벨론으로 놀러 다니며 바벨론으로 치장하고 바벨론에 취해서 준비하지 못한 이들의 행위는 어린 양과 비교했을 때 너무 다르고 더러워 어린 양과 하나 되는 그 율타리 안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 쫓겨났다. 그 행위들은 전부 지옥에 태워지도록 버려질 수밖에 없다.

③ 구원 분량

주시는 대낮의 해가 있는 기회에 한 방울씩 자기 내면을 바꾸고 고치고 내던져 마련한 총량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자기의 구원 분량이다.

④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결정과 이런 최종 판단과 영원히 이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토록 변동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며 하나님의 세계가 바로 이렇다.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며 목적을 정할 때부터 그러했다.

계19:10

(10) 엎드려 절

계19:10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① 경배의 절

이 모든 말을 전하는 천사 앞에 요한이 엎드려 절을 하려 했다. 절도 절 나름인데 요한은 경배적인 절을 하려 했다.

② 천사

하나님의 본체는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하는 천사는 피조물이니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지만 천사가 한 점 착오 없이 그대로 심부름을 하니 이 땅 위의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심부름꾼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할 지경이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바르게 살면 우리가 그런 천사 같이 된다. 나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보다 더 차이가 나지만 우리를 지켜보는 만물은 우리를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여길 것이다.

③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천사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린 양과 하나 된다 해도 영원토록 어린 양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다.

④ 순종하는 종들

사도 요한과 요한의 이 계시록을 읽으며 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처럼 생생하게 그대로 믿고 순종할 역사의 모든 교인들은 모두가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들이다.

⑤ 우리의 신분

경배할 이는 영원무궁토록 하나님 한 분이고, 천사도 사도도 요한도 우리는 모두가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할 종들이다. 우리는 신분이 올라갈 때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어린 양과 동급이 되고 한 몸이 되는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가? 우리를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피조물이다.

2. 하늘에 백마 탄 자 (19:11-21)

계19:11

1) 심판주

(1) 백마 탄 자

계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① 하늘 열림

이런 대화 중에 또 하늘이 열린다. 이 땅 위에 살지만 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로서 나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시선도 마음도 소망도 하늘을 향해야 복이다.

② 백마와 탄 자

‘백마’와 ‘탄 자’가 나온다. 계6:2에 나온 일곱 인의 첫째 인에서 나온 복음 운동이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어린 양이 피 흘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시작된다. 그 역사의 처음과 전체의 중심이 바로 말씀의 복음 역사였다.

③ 충신과 진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받은 것 다하면 충신이고 옳고 바른 하나님을 끝까지 잡고 나가면 진실이다. 말씀으로 씻는 운동에는 주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진실만 있으면 나머지는 말씀이 알아서 하신다.

④ 전능의 말씀

말씀 자체가 전능이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었고 어린 양의 대속으로 펼쳐지는 복음이므로 이 말씀은 전능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충성을 보태야 도움이 되는 그런 불완전하거나 약한 말이 아니다.

⑤ 공의의 심판

그가 공의로 심판을 하며 싸워나가는데 12절에서 16절까지 설명을 보니 바로 계1:13에 나타난 그 주님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빈틈없이 자신을 내던질 때는 ‘어린 양’이었고, 우리를 인도하며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원형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인자’였다. 지금은 심판주로 오셨다.

계19:12

(2) 눈이 불꽃 같으니

계19:12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① 불꽃 같은 눈

그 눈이 불꽃 같으니 그 앞에 숨고 가리고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말씀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이다.

② 면류관

그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다. 어떤 바벨론 속에 어떤 성도와 어떤 세상이라도 이 말씀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그들을 복음으로 불러냈고 복음으로 씻어 나갔다.

③ 이름

이름 쓴 것이 있으나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역사요 행하신 사역이다. 누가 알겠는가?

④ 모세

시90:11에서 모세는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 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라고 했다. 신34:10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 후에는 다시 없으니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알았지만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여러 면 중에 그 진노 하나를 두고 다 알 수는 없다고 했다.

⑤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도 보고 만진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른다. 아예 모르고 있다. 모르니 이렇게 겁 없이 살고 있다. 요한은 계1:12에서야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자 죽은 자 같이 되어 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안 것도 아니다. 한 차원 더 알 때마다 그렇게 된다.

계19:13

(3) 하나님의 말씀

계19: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① 말씀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름을 적어 놓았는데 왜 12절에서는 그 이름

을 모른다 했을까? 여기 13절의 ‘말씀’은 요1:1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위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창조한 바로 그 말씀이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자존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리는 일환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말이 알려 주는 면을 빌려 그 이름을 ‘말씀’이라 표시했다. ‘말씀’이라고 문패를 달아 놓았으니 이 글은 읽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보이고자 하는 것은 자존하신 하나님이니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 모른다고 해야 맞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수고하신 주님의 숨은 공로를 알 도리가 없다. 조금 알려 주면 그때마다 그 정도만 알 뿐이다. 그것도 우리 수준에서 알 뿐이다. 세 살 젓먹이가 어머니의 고생을 알 수 없다. 알려 준다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세 살짜리 조차 알 수 있는 것을 조금 말을 한다 해도 세 살짜리 수준에서 아는 것이지 그 속에 든 것을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

계19:14

(4) 하늘 군대

계19: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① 백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고 있다. 요1:1말씀이 말씀으로 창조하고 1:14에서 말씀이 사람 되어 왔다. 계5:1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말씀을 5:7에서 어린 양이 받아 열면서 6:1부터 말씀이 전개되며 흰 말이 질주를

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주님이 이제 19:11에서 백마를 타고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셨고 그 뒤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도 모두 백마를 타고 나간다.

② 성결의 역사

주님의 심판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깨끗하지 않은 것은 전부 처리하니 성결의 역사, 깨끗의 역사, 말씀으로 된 것만 남기는 역사다.

계19:15

(5) 날카로운 검

계19:15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주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말씀과 다른 우리 안의 부분은 전부 도려내어 지옥으로 불태우게 보낼 것이고 아예 불택자는 이 검으로 그 인간 자체와 그 인생 전부를 칠 것이다. 또한 현실에서 말씀에 맞선 만국은 경제 세계든 군사 체계든 학문의 건설이든 이 검으로 전부 치고 또 쇠막대기 철장으로 계2:27에서 질그릇을 깨뜨리듯 박살을 내버리고 말씀에 맞섰던 모든 것은 포도 열매를 밟아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이겨 버리듯 밟을 것이다.

계19:16

(6) 만왕의 왕

계19: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① 심판의 주님

이 주님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라 했으니 주님의 모든 행위와 걸음이 때 현실이 끝나고 나면 심판의 주님으로 거침없이 완료한다. 주님의 자비는 현실이 아직 남아 있거나 다음 현실을 기다리는 지금 구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재림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떤 죄인도 어떤 지경에서라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신자도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그때는 심판의 주님만으로 봐야 한다.

② 처벌

교사는 시험지가 배부되는 시험 날 전까지는 시험에 점수를 올려 주려고 사력을 다 한다. 그러나 일단 시험장에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입구에서 소지품부터 낱알이 뒤지고 만일 눈빛만 이상해도 바로 퇴실을 시키고 0점으로 처리하며 처벌한다.

계19:17

2) 심판 처리

계19: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가 나온다. 계속해서 하늘의 기준에서 하늘에서 본 하

늘의 음성이 우리가 사는 땅 위로 전달된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는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이며 현실이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이 세상을 주권 운영하는 하늘에 두고 사는 것이 맞다.

(2) 큰 음성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라 한다. 매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큰 음성은 바벨론에 붙들려 신앙의 기회와 자기 내면을 허송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결과를 보여 주며 돌아서라는 호소다.

(3) 공중의 새

공중의 새는 눅17:37에서 주님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하신 그 새들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하필 독수리라 한 것은 살육과 정처 없이 떠돌며 그 뿌리가 없는 것을 말한다. 바벨론은 이 땅 위에 그렇게 견강(堅強)했고 영원무궁할 것처럼 보였으나 알고 보니 떠도는 새들이 먹어 치울 먹잇감일 뿐이었다.

계19:18

3) 왕들의 고기

계19:18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론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① 왕으로 산 생애

왕들의 고기를 먹는다. 왕으로 산 생애를 먹어 치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날들이 왕이며 그

고기는 그렇게 산 결과이며 그렇게 살았던 생애다. 그런 생애나 결과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표시하고 있다. 그 몸은 그 왕의 전부다. 그 전부는 헛일이며 내버릴 생애였다. 공연히 왕처럼 살며 죄만 지었다.

② 장군들

장군들은 세력을 말한다.

③ 장사들

장사들은 이 땅 위에 살며 두고 갈 땅의 것으로 수입을 보는 경제를, 말들은 이 땅 위에 별별 운동들을 말한다.

④ 그 탄 자들

그 탄 자들은 그런 운동을 주도하고 누린 혜택들을 말한다.

⑤ 자유한 자들

자유한 자들은 바벨론의 그런 음녀 행동에 자기 마음으로 합류한 자들이다.

⑥ 종들

종들은 마지못해 끌려다닌 이들이다.

⑦ 심판 처리

무론대소하고 모든 자들이 그 현실에 관련된 생애와 기회와 그들의 활동 전부를 다 심판으로 처리했다.

계19:19

4) 전쟁

계19:19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① 대적

이런 가운데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마지막으로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를 대적한다. 그러나 이미 그 현실에서 쓸모가 없게 된 이들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과 싸운다고 무슨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회개

이들은 죽기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회개할 기회조차 받지 않았음을 보일 뿐이다.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한 마디만 해도 회개를 쏟아 놓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회개를 한다.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면 자기가 더러워 저절로 그렇게 된다.

③ 절실함

그러나 믿어 가는 세월 속에 귀신이 회개의 절실함을 줄이며 습관으로 만들게 되면 어느덧 회개라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사람이 병든 자기 몸에 익어져 고질병이 낫기 원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나올 가능성이 없으면 몰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④ 싸우는 요소

믿는 우리에게는 늘 회개의 길이 열려 있다. 그런데 내 속에도 부분

적으로 끝까지 회개치 않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에게 마지막까지 싸우는 요소들이 있다. 싸워서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은 예정 가운데 구원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고 영원히 버릴 부분이다. 이런 모습은 20:7의 천년왕국 끝에도 또 일어날 일이다.

⑤ 자유성

그러나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의 자유성으로 우리를 기르기 위해 세상이 교회를 이기게도 하시고 주님이 쫓겨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⑥ 공의

그러나 그 기회가 지나간 지금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과 우리 속에 그런 요소는 저희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알고 끝까지 지옥을 향한 그들의 걸음을 계속하고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 지옥의 영원한 흑암 속으로 확실하게 넣어 주신다. 그것이 공의요 그것이 불신자의 소원이니 그 소원을 영원무궁토록 이루어 주시는 무서운 '자유의 세계'다.

계19:20

5) 유향불 못

계19:20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향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① 짐승이 잡히고

이제 지금까지 신앙의 사람의 신앙 요소를 유혹하고 위협하던 이 세상, 그 짐승이 잡혔다. 여기까지가 하나님 없는 세상에 주어진 한 계다.

② 거짓 선지자들

세상이야 원래 그렇지만 그런 세상에 앞잡이가 되어 형제 종들을 몰아와서 세상의 멸망에 빠뜨렸던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그동안 행한 이적들은 평소에는 큰 기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정체와 본색이 다 드러나고 보니 이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속으로는 짐승의 표를 받았으니 그의 소속은 세상이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중생 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섞여 살며 비슷하게 생긴 자기 모습으로 성도들을 끌고 슬금슬금 세상으로 데려가서 짐승에게 넘겼다. 내 속에 들어 있는 불신의 마음과 말씀을 대적하는 요소들도 나의 신앙의 살아날 좋은 기회와 부분들을 그렇게 넘겨 버렸다. 겉보기는 교회와 나의 신앙 행위들인데 그 속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편인가 적인가? 적이었다. 암약을 했던 것이다. 이들이 우리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이적으로 미혹을 했었다.

③ 유행불 못

이 돌을 산 채로 유행 불 붙는 못에 던졌으니 이곳이 지금은 음부요 훗날은 지옥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없는 세계다. 하나님이 없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구원으로 상대하지 않는 곳이다. 유행이라는 가장 뜨거운 고통, 불이 붙는 것은 영원히 소멸을 시키는, 못이란 음부요 지옥으로 이어진다.

계19:21

6) 심판

계19:21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① 새

성도의 신앙을 절단 낸 짐승, 그 앞에 신앙을 몰고 와서 삼키게 한
거짓 선지자, 이 둘은 주님의 심판의 칼에 1차로 즉시 처단되고 그
뒤처리는 사망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덮어 버린다. 눅17:37
에서 주님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하신 그 심판이
다. 현실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피동되고 그들의 편이 된 것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 요한계시록 20장 -

▷ 20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중 교회를 기록하며 매 현실의 천년왕국을 소개

매 현실이 끝날 때마다 신앙으로 통과한 요소는 사단이 침노할 수 없는 낙원

▶ 성경 내용 : 마귀의 무저갱, 천년왕국, 백보좌심판

▶ 계시 내용 : 천년왕국

계20:1

4. 천년왕국 (20:1-10)

1) 무저갱 (20:1-3)

계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1) 천년왕국의 집적

① 1천년 훈련 기간

세상의 최후에는 이 땅 위의 사단을 무저갱에 가둬놓고 영계의 천국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천년왕국에서 1천 년간 훈련한다.

② 매 현실 개별 봉함

그 최후의 천년왕국 이전에도 우리의 생애 도중에 매 현실마다 한 현실이 끝나면 끝이 난 현실에 관련된 세상은 내용적으로 종말로 마무리하고 마무리된 현실의 모든 것은 최후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봉함된다. 시간과 행위만 되돌릴 수 없고, 그 시간에 관련된 모든 존재는 그대로 존속이 된다고 생각하나 인물이나 모든 만물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일단락되고 다음 현실에는 다음 존재처럼 존재한다. 이미 끝난 현실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7절에서 모두 불러 놓고 최종 처리할 때까지는 활동하지 못한다. 최후 재림 후의 천년왕국 때까지 역사 세계의 모든 날들을 통해 그때마다 기회가 끝이 난 것을 개별적으로 봉함하며 그 쌓여진 분량이 최후 천년왕국 때 함께 열려진다.

③ 천년왕국의 진행

여기 천년왕국의 진행은 최후 재림 때를 기준으로 살피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며 진행되는 천년왕국은 내용적으로 비교하면 좋겠다.

④ 무저갱 열쇠, 큰 쇠사슬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쇠사슬은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게 묶는 것이고 무저갱은 사단을 가두어 나다니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곳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매 현실마다 벽을 세우고 칸칸이 따로 구분하고 계신다.

계20:2

(2) 사단의 이름

계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이 사단의 이름은 여러 가지다.

① 용

용이라 할 때는 큰 권세를 가지고 활동할 때를 말한다.

② 뱀

뱀은 에덴동산에서 간교하여 죄를 짓게 할 때를 말한다.

③ 마귀

일반적으로 죄를 짓게 할 때는 마귀라 한다.

④ 사단

사단이라는 이름은 대장 노릇을 할 때 사용한다.

⑤ 하는 일

어떤 모습 어떤 활동을 해도 우리를 죄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천국을 잊게 만드는 일에는 모두가 하나다.

⑥ 1천 년 결박

사단을 잡아 1천 년을 결박한다. 한 현실이 끝나면 천년왕국의 1천 년이 끝날 때까지 활동을 하지 못한다. 한 번 끝난 현실에 대한 처리는 이미 물질계를 떠나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세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적용되는 오늘의 1천 년과 시공을 초월한 천년왕국의 1천 년을 수치적으로 더할 수는 없다. 둘을 합해서 성경은 그

냥 '1천 년'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천년의 세월을 기억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우리의 구원 단계는 현실이 끝날 때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사단의 활동은 중단된다고 일단 정리하면 된다.

계20:3

(3) 무저갱

계20: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① 사단

사단을 무저갱에 던져 잠가 버렸다. 지나간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으로 넘어갔다.

② 천년 동안 평안

최후 천년왕국의 천년 동안은 온 우주와 우리 성도가 활동할 기간에 관련된 만국이 모두 평안할 것이다. 오늘 현실이 마무리되면 오늘 현실과 관련된 것만 마무리되고 평안하게 된다. 오늘 순교한 사람은 오늘 이후부터는 평안히 쉬며 어떤 만국의 요동도 그와 상관이 없다. 매 현실의 마무리도 그렇게 된다.

③ 잠간 놓임

그러나 1천 년이 끝이 나면 잠간 놓이게 된다. 사단을 묶어 놓은 1천 년 동안 우리가 주님과 충분히 하나가 되었고 이 하나 된 상태를 다시 사단을 풀어 시험을 한 후에 영생의 천국이 고정된다.

계20:4

2) 천년왕국 (20:4-10)

(1) 천년왕국

계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니

① 택자 부활

주님의 최후 재림이 오면 이미 그 현실을 지난 이들, 먼저 죽어 앞서 낙원에 간 이들, 그리고 우리 모든 택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불 택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② 심판 권세

자기 인생과 자기 현실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긴 이들과 그들 속에 이긴 요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쥐고 있다.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님에게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맡겼고, 예수님은 어린 양을 따라 현실과 세상을 마무리한 우리에게 심판하는 그 권세를 다시 맡겼다.

③ 신사참배

신사참배에 실패한 행위를 심판할 때 심판의 제1선에는 신사참배를 꼭 같이 겪으며 승리한 성도와 그 행위가 나설 것이다. 세상에서는 심판대 앞에서 과장과 허위와 은익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선 이 심판대 앞에는 하나님도, 천사도, 만물도, 죄인도, 의인도 모두가 과거

를 눈앞에 펼쳐놓고 서로 겉과 속을 함께 본다. 그래서 긴 말이 필요 없고 대화도 필요 없다.

④ 왕 노릇

천년왕국에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과 세상이 짐승으로 활동할 때 이를 대적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 행위들이 왕 노릇을 할 것이다. 또 자기 현실에서 굶어도 짐승에게 자기 사상과 처리를 맡기지 않은 택자들과 그들의 승리한 요소가 천년왕국 내내 벵후3:10~13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된 하늘과 새 땅으로 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 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활동할 연습을 하게 된다. 살아 생전, 또는 지난 현실에서 바르게 살아 자기 속에 쌓아 둔 의의 기능들만 가지고 주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 전부는 한 몸이 되어 단일체로 활동할 날을 위해 예행 연습을 한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한다 했으니 제사장이 되어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해결하고 이끌고 수고하는 연습이며, 선지자로서 다른 사람과 만 존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훈련을 하고, 왕이 되어 만물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도록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연습한다.

⑤ 말과 실상

최후 천년왕국 때는 최종 연습이 될 것이고 오늘은 먼저 성화된 기능이 다음 현실에서 다른 요소를 이끌며 연습한다. 신령한 세계의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말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시행이 되는 나라이므로 앞서 간 종들은 제단 아래 엎드려 기도를 통해 호소하는데 이 호소, 이 발언, 이 말의 증거가 곧 실상이며 역사가 된다. 히11:4에서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까지 말을 하고 있

다. 무슨 말을 할까? 단순히 이 땅 위에 저 원수들을 때려 달라는 말일까, 후손들이 피 흘려 죽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응원에 그칠까, 아니면 그 호소는 전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실상이 되고 실탄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까. 육체를 입고 오늘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말과 실상이 같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 또는 우리 속에 지난 현실을 통해 승패가 나뉘어 말씀의 것이 된 우리의 요소는 이미 하늘의 것이 되어 오늘 우리처럼 헛말을 하지 않는다.

계20:5

(2) 첫째 부활

계20: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① 불택자 대기 상태

나머지 죽은 자들 곧 불택자들은 천년왕국 동안에 살지 못하고 심판을 받기 위해 대기 상태로 들어가며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한다.

② 홀연히 변화

살전4:17에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 있던 이들은 썩을 몸 그대로는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살아 있는 상태에서 고전15:50 말씀에 따라 죽은 자들이 홀연히 변화를 하듯이 51절에서 살아있던 육체가 순식간에 죽고 부활하는 과정을 통과한다.

③ 첫째 부활 - 택자 부활

이미 죽어 있던 이들의 부활과 함께 모두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 이 첫째 부활은 택자들만의 부활이며 영생을 받아 영원히 천국으로 이어지는 부활이다.

계20:6

(3) 복되고 거룩한 자

계20: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① 복

첫째 부활은 복이 있다고 했다.

② 심신 요소

오늘의 현실마다 그 현실이 끝날 때 말씀으로 바로 살다 끝난 우리 심신의 요소들은 주님의 최종 재림 때 죽어 있던 자기 몸이 부활할 때 그 몸속에 다시 편입된다. 재림 전에 죽은 성도의 그 몸과 몸의 기능은 세상에 남겨지고, 그 마음과 마음의 의의 기능은 낙원에서 예수님의 최종 재림을 기다리고, 마음의 기능 중에 죄의 기능은 음부에 버려진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모든 성도가 부활하면 부활한 성도의 마음은 영광 함께 이 땅 위에 두고 간 자기 몸과 몸의 기능을 찾아 갖고 깨끗하고 신령하게 부활할 것이다.

③ 기능의 차이

영은 중생될 때 다시는 죽지 않는 영으로 중생되었으니 모든 사람

의 영은 같다. 마음은 각자 죽을 때 마음의 의의 기능이 차이가 있어 낙원에서조차 이미 마음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몸은 누구나 땅에 두고 가는데 이 몸의 기능은 몸이 부활할 때 의의 기능만 찾아 부활한다. 부활한 성도의 심신은 실력과 성화 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죄나 사망에 속한 요소는 전혀 없다.

④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 함은 교리적으로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

■ 1차 생명

아담을 죄 없이 만들었으니 이것이 1차 생명이다.

■ 1차 사망

아담의 범죄로 아담과 전 인류가 죄로 다 죽으니 이것이 1차 사망이다.

■ 2차 생명

예수님의 대속으로 믿는 사람은 살아 가다가 영이 중생을 하니 이것이 2차 생명이다. 이 중생된 영은 그 사람의 몸이 죽어서 장례를 치른다 해도 그 몸과 함께 묘지로 가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몸이 죽을 때 영은 낙원으로 간다.

■ 2차 사망

이 중생된 사람이 믿은 이후 세상을 살면서 매 현실에 자기 몸과 마음이 중생된 영에게 순종하면 그 심신의 요소는 중생된 영과 하나가 되어 성화된 기능이 된다. 그러나 만일 그 현실에서 죄를 지으면 그 몸과 마음의 요소는 살아날 기회를 잃고 죽게 되니 이를 둘

째 사망이라 한다. 이렇게 둘째 사망이 된 것은 존재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라는 뜻이다.

■ 택자들만 해당

이 둘째 사망은 불택자에게는 없다. 믿는 우리에게 살아 생전 매 현실에서 자기 심신의 요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죽어야 하는지 판정이 나는데 영원히 버려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한다.

■ 매 현실마다

이 둘째 사망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자기 내면에서 매 현실마다 판정이 계속된다. 둘째 사망이란 마귀가 매 현실에서 우리의 심신이 죄를 짓게 해서 그 심신의 요소들을 죽게 만든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 둘째 사망은 한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또 인류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다시는 우리 택자에게 생사를 두고 판정하지 않는다.

■ 재림 후 제사장

주님이 재림하면 택자에게는 다시는 사망 문제가 없다. 오히려 부활한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천하를 다스린다. 죄 없이 살자고 우리가 앞에 선다. 죄야 당연히 없겠지만 죄 없이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의인으로 살자는 활동을 할 것이다. 법무부가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해서 감옥에 넣지만, 법무부가 더 좋은 방향으로 활동을 하려면 국민이 법을 미리 잘 알고 잘 지켜 법 때문에 질서를 지켜 모든 국민과 사회 전체가 더 좋아지는 일을 해야 한다.

■ 천년왕국-발전적 훈련 기간

천년왕국은 죄와 싸우는 기간이 아니다. 죄를 넘어서서 말씀으로 살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발전적 훈련 기간이다.

계20:7

(4) 번식인종

계20:7

천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1천 년 동안 주님을 머리로 삼고 천하의 택자들이 전부 한 몸으로 속달이 된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든 불택자들이 전부 죽고 1천 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일부 불택자는 죽지 않고 천년 왕국에서 번식하며 천하를 채울 정도가 되는데 이를 번식인종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짐작할 때 걸으려는 믿는 사람처럼 살았으나 내용적으로는 아예 복음과 상관없는 이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여호와의 증인에 모두 마음을 많이 둔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속이 없고 그들 스스로 부활조차 부인한다. 성경으로 단정은 할 수 없다. 1천 년이 지나 훈련 기간이 충분히 지나고 또 번식 인종이 천년왕국을 채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단을 무저갱이라는 옥에서 풀어 나오게 한다.

계20:8

(5) 곡과 마곡

계20: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렇게 되면 사단은 천년왕국인 이 지상에 나와 예전처럼 활동을 하는데 불택자 중에 살아남아 번식한 사람들, 곡과 마곡이라고 이름

을 붙여 놓은 이들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을 앞세워 다시 택자들을 삼키려고 싸움을 할 것이고, 천년왕국은 죄와 마귀와 사망이 없으니 그들의 숫자는 엄청날 것이다.

계20:9

(6) 기록 이유

계20:9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① 곡과 마곡의 소멸

부활한 성도는 그들이 이길 차원도 아니고 또 천년 동안 주님과 혼련한 실력까지 갖추고 있어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싸움이 붙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소멸시킨다. 더 이상 혼련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② 기록 이유

그렇다면 이런 기록은 우리에게 미리 적어 줄 필요가 없을 터인데 왜 계시록에 기록을 했을까?

③ 격려와 소망

오늘도 매 현실이 지날 때마다 우리에게 지난 현실에서 성화된 기능은 이런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며 다음 현실에서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싸우라는 주님의 격려와 소망이다.

④ 오늘

오늘 세상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약하기 때문

에 주님이 빨리 도와주지 못하고 우리 내면의 실력이 갓출 때까지 그릇을 채우라며 기다린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도우심이 아주 늦다.

⑤ 즉시 처리

천년왕국이 끝날 때는 머리되신 주님과 몸된 우리의 관계가 정확히 하나 된 상태여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나타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상황이 되면 주님이 빈틈없이 바로 즉시 처리를 해 버린다. 출생 몇 달인 아이는 보는 것과 생각과 손발이 따로 움직인다. 성인이 되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을 동시에 한다.

⑥ 곡과 마곡의 처리

곡과 마곡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진을 포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태워 버리니 성도들은 미처 싸우려 갈 틈도 없었다. 성도들의 사랑하시는 진이란 주님이 머리 되시고 성도들이 백성이 된 상태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진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시공간에 어떤 빈틈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바로 처리를 했다.

계20:10

(7) 마귀의 처리

계20: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한, 마지막으로 한 번 활동할 기회를 받은 마귀가 붙들려 유황 못에 던져진다. 세상 내내 우리를 삼키려 했던 죄

악의 세상인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암약한 교회와 우리 안의 모든 세상 요소가 거짓 선지자다. 이것들을 영원히 불태우는 곳이 유향 불뿔이며 유향이란 가장 뜨겁고 흑독하다는 뜻이다. 유향은 불을 켜는 성냥과 화약의 원료로 사용되며 냄새도 고약하다. 가장 견딜 수 없는 불이다.

이사야 11:6-9

6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계20:11

4. 백보좌 심판 (20:11-15)

1) 백보좌

계20: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가 있다. 계4장에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았다. 이번에는 흰 보좌다. 하나님이 원래 목적인 원형에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아

더럽혀지지 않았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역사 세계 전체를 최종적으로 분리한다. 그 앞에서는 땅도 하늘도 설 수가 없다. 오늘 우리에게 땅은 한량없이 넓고 하늘은 측량조차 못하나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개미 한 마리 만드는 수고나 천지를 만드는 수고나 차이가 없다.

계20:12

2) 불택자 심판

계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① 불택자 부활

이 땅 위에서 살아간 모든 불택자 전부를 살려 낸다. 택자는 천년왕국 전에 이미 부활을 했으니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② 생명책과 행동록

책들이 펴 있다. 택자와 불택자를 적은 생명책과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행동록이다. 시공을 초월한 영계인데 종어로 된 책이 필요할까? 전산 출력된 기록물일까?

③ 심판

하나님이 목적을 정할 때부터 택자는 먼저 있었다. 이들은 천년왕국 전에 부활했고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제 불택자들을 모두 살려내어 영원히 지옥으로 보낸다.

④ 죄의 기능

불택자들과 그들의 평생의 행위 전부를 함께 담아 지옥 불로 보낸다. 이때 택함 받고 중생 된 우리의 심신이 생전에 만들었던 죄의 기능은, 우리가 죽을 때 음부에 먼저 보내졌다. 이 죄의 기능들도 불택자와 함께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진다.

계20:13

3) 사망과 음부

계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① 사망과 음부

하나님이 물질계 우주에서 진행된 모든 인간과 행위들을 전부 불러 모을 때 죄악 세상 속에 묻어 둔 죽은 행위는 바다가, 하나님 없는 세계에 묻혀 있는 것은 사망이, 그들을 그 동안 태우던 곳인 음부가 그 가운데 있던 것 모두를 내어준다. 바다와 사망과 음부는 각각 다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던 배경,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이 배경으로 삼은 곳을 말한다.

② 구원의 구별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을 구별하지 못하면 11절의 백보좌 심판은 불택자를 지옥에 보내는 최후 최종의 가장 두려운 심판이라고 보게 된다. 그런데 12절에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표현을 보니 이는 불택자뿐 아니라 믿는 우리가 매 현실에서 또는 생전에 세상에서 잘못 산 심신의 행위를

지옥으로 분리하고 버려지는 면도 포함되어 있다.

③ 죽을 때 분리

그런데 믿는 우리의 마음속 불의의 기능이 분리되는 것은 예수님의 최종 재림과 천년왕국이 끝난 뒤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 벌써 분리된다.

눅16장의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 죽은 사람의 사후를 미리 기록했다. 몸은 각각 땅에 두고 갔는데 거기 보니 대화가 있고 처리가 있으며 고통과 호소가 있다. 마음의 기능이 이미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다.

계20:14

4) 물질계와 영계의 음부

계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① 물질계와 음부

인간 속에 지옥으로 보내져야 하는 모든 것이 13절에서 정리되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들었던 물질계와 영계의 음부는 어떻게 되겠는가? 음부도 이때까지를 위해 임시 준비된 것이니 이제 지옥으로 합해진다.

② 사망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 놓았던 사망 자체도 불못에 던져진다. 천국에 가는 택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을 수 있는 그 어떤 환경도 가능성도 없어진다.

계20:15

5) 불못

계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가 영원히 유향 불못으로 던져진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만 생명이다. 하나님께 속하고 연결되어 움직인 것 외에는 영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 심판

- 이 세상에서 두 번

- 1) 홍수심판 : 지나간 홍수심판을 보고 불심판 준비 (구원도리)
- 2) 불심판 : 주님 재림하실 때, 언제일지 모름

- 부활 후 심판 때에 두 번

- 1) 백보좌 심판 : 죄에 대한 벌의 중량을 따지는 것
- 2) 그리스도 심판 : 상급의 중량을 따지는 것

- 요한계시록 21장 -

▷ 21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중 교회를 기록하며 우리가 들어 갈 천국의 모습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모습을 보여 주며 오늘 때 현실에서 소망과 충성을 부탁

이 땅 위에 모든 과정이 끝났다. 19장에서는 최후 심판을, 20장에서는 천년왕국까지를 모두 거쳤다. 21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던 영계의 영생을 보여 주신다. 이날을 바라보며 오늘 세상에서 미리 그 나라에 맞춰 살라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면서 오늘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미리 돌아볼 원형이다. 자동차 설계도는 차량이 고장 났을 때 원래 설계도와 맞춰 평소 고치고 참고하라는 뜻이다.

- ▶ 성경 내용 : 신천신지, 새예루살렘
- ▶ 계시 내용 : 영생의 나라

계21:1

5. 신천신지 (21:1-8)

1) 영원 교회

계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1) 태초 창조

1절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1장의 태초에 창조한 하늘과 땅이다.

(2)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역사 마지막에 재림하면 벰후3:10 말씀대로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리고 나면 13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계20장에서 이미 사단은 무저갱에 갇혔고 천년이 지난 뒤에는 지옥에 던져진다. 바다도 없어졌다. 죄악의 세상은 이제 다시 볼 수 없다.

계21:2

2) 새 예루살렘

계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진리로 다스리며 모든 택자가 사는 곳이다. 보이는 예루살렘은 구약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성전이 있고 왕이 있었다. 오늘도 전쟁 중이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차지한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은 육체의 이스라엘이 아닌 신약이다. 거룩한 성,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고 하나님만 다스리는 성,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천국을 말한다.

(2) 땅 위로 내려옴

이 예루살렘이 땅 위로 내려온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물질계인 이 우주는 지상 낙원이 된다. 아담에게 처음 만들어 준 곳 그러나 이제 가치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 아담의 에덴동산은 어릴 때이며 죄만 없을 뿐이었다. 이제는 있던 죄를 없앴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 주님이 피 흘려 죽음으로 신인양성일위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 되었다. 또 아담은 죄만 없었으나 시공을 초월하고 부활한 우리는 이 신천 신지에서 주님과 연결과 주님과 동행이 지극하다.

(3) 교회와 성도

이 땅 위에 살다 간 모든 성도가 주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가 되었다. 이날을 위해 준비한 것은 천하 모든 성도가 살던 생애 중에 죄로 잘못된 것은 다 없었다. 그리고 적든 많은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맞으며, 주님께 합격된 것으로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정성과 충성만 모았다. 주님은 남편과 같고, 우리는 신부와 같은데 믿고 간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 주님에게 신부가 남편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모든 희로애락을 하나로 삼는 것처럼

하나 된다.

(4) 신령한 면으로 하나 됨

오늘의 육체와 죄 아래 이성 문제를 빼고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면으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된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매 현실에서 만들었고 그것만이 주님 재림 때 온 우주 물질계가 없어질 때 주님 앞에 서게 된다. 주님을 모시고 부활한 천하 모든 교회가 하나 된 상태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진 이 땅 위에 펼쳐진다. 여기까지는 새롭게 된 물질계 이 우주의 새 출발이다.

계21:3

3) 통치

계21: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영계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으로 표시된 하나님의 보호를 베풀어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 땅 위에서도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맞서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만 받을 것이다.

계21:4

4) 모든 눈물을 씻기심

계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① 눈물

이제 죄 문제는 완전히 없어졌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이날을 위해 매 현실 세상에서 18장의 바벨론이 유혹해도 거절을 했고 13장의 세상이 맹수성으로 위협하고 용의 세력으로 우리를 삼키려 했어도 이날을 소망하며 견디느라고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옛사람도 내 속에 있는 나의 일부다. 맹장을 수술해서 끊어내고 암세포를 제거해야 살지만 그것이 나갈 때는 웃으며 떠나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 그로 인해 고통도 있고 나의 일부를 잘라 내는 아픔도 있었다.

② 위로

그 모든 것을 이제 아버지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위로한다. 다시는 사망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다.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를 중생시킬 때 영원불변으로 연결을 시켰고 주님 오실 때 영원불변의 믿음이 된 요소만 살렸기 때문이다.

③ 2차 창조의 완전성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은 모두가 죄로 인한 것인데 죄가 없는 나라이니 이런 것은 저절로 없어진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창1장의 천지 창조는 1차 창조며 처음 것이다. 이것을 2차 창조인 중생을 위해 사용한 후 재림 때 처리했다. 1차 창조는 변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으나 2차 창조의 것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대속으로

만들었으니 영원불변이며 완전성과 절대성을 가졌다.

계21:5

5)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21:5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한다.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며 이 목적을 위해 1차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재림까지 그 모든 현실이 2차 창조를 위한 과정이었다. 만물을 새롭게 하여 다시는 죄와 마귀와 사망으로 더러워질 리가 없도록 했으며 우리에게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며 기록하게 하셨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계21:6

6) 이루었도다

계21: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① 알파와 오메가

이제 ‘이루었도다’고 하셨다. 우리의 매 현실은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기를 목표로 한 하나의 과정이며 방법이다. 우리는 어떤 현실이든 소망이 있고 담대해야 한다. 계1:8에 이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하신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목적을 정했고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며 앞으로

그 목적의 더 온전함을 위해 영원무궁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자존자니 외부 다른 존재 때문에 바뀔 리가 없고, 영원 불변자니 세월 속에 계획의 변경도 없고, 완전자니 어떤 걱정도 할 것이 없다.

② 값 없이 줌 - 전적 은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샘물은 완전자 하나님의 영원하고 끝없는 생명의 은혜라 값을 주고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전적 은혜다. 전적 은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뿐이고 그 감사가 나올 때 영광이라 한다.

계21:7

7) 이기는 자

계21: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런 세계를 주신다고 했다. 매 현실에서 바벨론의 유혹을 이기고 짐승의 맹수성 위협을 이기고 주님께 목숨을 맡겨 놓고 인내로 따라간 자기 요소만 이런 나라의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아버지 되어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며 기르고 보호하여 아들 된 우리를 아버지 닮은 인격자와 실력자를 만들어 아버지가 맡은 영계의 모든 위치와 업무를 모두 맡긴다.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면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근접치에 도달할 것이므로 만물이 볼 때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내면은 항상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같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계21:8

8) 들어올 수 없는 것들

계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당연히 죄의 기능이니 한 현실이 지날 때마다 전부 음부를 통해 지옥으로 보낼 기능이 된다.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특별히 거론을 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영원한 지상 낙원의 형편을 보여주며 이 땅 위에서 매 현실에서 특별히 미리 준비할 문제다.

(1)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다. 지금 매 현실에서 짐승 같은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 만유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하지 못하고 세상에게 위협을 느낀다면 이미 그 현실에서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으로 짐승의 표시가 있었다. 이 나라를 주시며 다시 두려워하지 않도록 먼저 말씀했다.

(2)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말씀했다. 이런 나라가 설마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두고 갈 땅의 것에 미련을 뒀다면 이 나라를 마련했을 리도 없지만 특별히 그런 자를 두 번째로 지목하며 오늘 매 현실에서 그 나라를 사모할 때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버리라 한다. 믿음은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3) 흉악한 자

흉악한 자들도 출입 금지다. 자기중심으로 악하게 산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본질이요 본성이 된 이 나라에 들어와도 저절로 튕겨져 나간다. 아예 들어 올 수도 없다.

(4) 살인자

살인자들도 안 된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주님은 우리를 이런 곳에 두시려고 생명을 바쳤는데 우리가 인간적 미움으로 우리의 사람을 이 나라로 인도하지 않은 그 심보, 그 자세, 그 신앙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요소가 하나라도 이 나라에 끼어들어 온다면 이 나라가 바로 미움과 분쟁으로 싸우는 생지옥이 될 것이다.

(5) 행음자

행음자란 세상이 좋아서 주님을 밀어낸 사람이다. 그런 마음과 생각과 생애는 이 나라에 들어 올 수 없다.

(6) 술객

술객들은 진리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꾀와 수단으로 만사를 해결하려는 자들이다. 진리의 이 나라에는 이 땅 위의 술객의 술수는 들어와 봐야 할 일도 없고 들어오면 이 나라를 더럽히게 되어 출입이 금지된다.

(7) 우상 숭배자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생사화복을 주는 것이 있다며 남몰래 다른 것을 의지했던 자들이다. 이들도 이 나라에는 들

어울 수 없다.

(8)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도 들어오지 못한다. 거짓말은 구원에 해가 되는 말이다.

9) 유행 불못

마음도, 말도, 자세도, 행위 하나까지도 모두 조사하여 잘못된 것은 미리 유행 불못으로 다 보냈다. 보내놓고 오늘 우리에게 남은 매 현실에 특별히 주의하라고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 여덟 가지는 모두 유행불 못에서 영원히 타게 된다. 이를 위해 지옥을 만들었다.

계21:9

6. 새 예루살렘 (21:9-27)

1) 예루살렘 도성

계21:9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1) 7대접 재앙의 천사

바로 이 시점에 일곱 대접 재앙을 가졌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 준다면 요한을 불렀다. 왜 하필 일곱 대접 재앙을 맡은 천사인가? 주님과 다른 것을 무조건 소멸시켰던 천사니 그 재앙은 우리로부터 떼어 버릴 것을 제거하는 천사였고, 그 떼어 버릴 세상 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사단이였다. 일곱 대접을 가진 천

사는 우리를 매 현실마다 최종적으로 정결하게 만들었던 천사다.

(2) 신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란 신인양성일위의 주님이다.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하여 주님의 것이 된 사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이다. 영원토록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주님으로 모든 기쁨과 복을 누릴 존재를 보여 준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생활과 행위와 인격을 이렇게 만들라는 명령이다.

계21:10

2) 크고 높은 산

계21: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이 크고 높은 산으로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다. 성령에 붙들려야 볼 수 있게 올라갈 수 있고 보이는 세계다. 인간의 자기 수준으로는 보여 주셔도 보지 못한다.

3)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 준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고 준비하던 우리 목표다.

계21:11

(1) 하나님의 영광

계21: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목적
하고 창조로 만들고 오늘까지 만사를 다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수
고와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그 감사가 영광이다. 하나님은 홀로
자주, 완전, 사랑의 하나님이므로 참 영광은 하나님만 가졌다. 다른
존재에게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받아 심부름하는 과정에
연계 된 것이니 하나님으로 발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인 되지 않
은 영광은 없다.

(2) 성의 빛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또 벽옥과 수정 같이 맑다.
그 성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중생된 우리의 성화된 내면만 들어
가서 순종할,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할 그 나라다. 이런 나라인 그
성의 빛은 천하 어떤 보호와 성에 비교해도 홀로 탁월하고 비교될
것이 없으니 귀한 보석이다. 보석은 잡석 가운데 귀한 돌이라는 뜻
이다. 벽옥과 수정은 맑은 보석이다. 여러 특별한 면들 중에서도 하
나님의 원래 모습 그 은혜를 가리지 않는 면을 나타낸다.

계21:12

4) 크고 높은 성곽

계21: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1) 영원한 보호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외부의 침노가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방어와 보호가 극진하고 완벽하다는 뜻이다. 그 나라에 무슨 도적과 원수가 공격해 오겠는가? 공격을 대비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뜻이다.

(2) 열두 문

성곽에는 열두 문이 있다. 이 나라에 들어올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들어올 문이다. 오늘도 매 현실에 내가 들어갈 천국의 문은 따로 열려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의 성공이며 매 현실의 성공인데, 대학 문을 들어가느라고 영계의 자기 천국 문을 버려 둔 사람의 그 마음은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3) 들어갈 수 없는 이유

미리 이 문을 보여 주는 것은 매 현실이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고 있다. 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다시 거슬러 계18장으로 가 보니 바벨론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진귀한 상품에 눈과 마음과 손발을 다 매어 버렸으니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계13장에서는 죄악 세상이 삼키려는 바람에 두려워 포기를 했다.

(4) 12 천사

문에는 열두 천사가 있어 들어가고자 해도 자격이 없으면 막아 버린다. 이 문으로 들어가려고 바벨론을 떨쳐버리고 죄악의 세상과 도덕의 세상까지를 벗어난 이들은 천사들이 문을 열어 들어가게 한다.

(5) 12 지파

열두 문들 위에 12지파 이름들이 있다. 우리에게 맡긴 자기 신앙의 계통이다. 우리에게 맡긴 자기 신앙의 반열을 찾아 들어가는 곳이다. 아무 곳이나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다.

계21:13

5) 동서남북 각 세 문 - 균형에 맞게

계21:13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1) 지파

동서남북의 사방에 세 개의 문들이 있다. 어느 지파가 어느 방향에 어느 문을 맡고 있을까?

① 동편

이미 민2장의 출애굽 때부터 성막을 중심으로 동편 해 돋는 곳에 진을 칠 지파는 유다가 중심에 서고 잇사갈과 스블론이 함께했다.

② 남편

남편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함께했다.

③ 서편

서편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함께했다.

④ 북편

북편에는 단, 아셀, 납달리가 함께 했다.

(2) 12지파의 순서

이 땅 위에서 미리 본 하늘나라의 완전한 성전을 그려본 에스겔은

겔48에서 영원한 나라의 지계를 12지파로 나누며 순서를 적었다. 이 순서를 살피려면 12지파별로 성경 전체를 먼저 적고 살피면 된다. 여기서는 따로 이름들을 적지 않았으나 지파별로 위치와 사명이 다른 것은 우리 몸에 머리와 몸과 팔다리가 있고, 머리에도 듣고 보는 부분이 다른 것과 같다.

(3) 자기 연구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약해 보이는 것은 더욱 아름답게 하는 관계라고 고전12:22 이하에서 설명한 것으로 자꾸 연구를 해 보면 하늘나라의 나는 어떤 위치,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감당할 것인지 짐작하는 데 별로 불편이 없을 것이다. 마 18:18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했고 갈6:7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 말씀이 있다. 남을 연구하기 전에 자기를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와 관련된 사람을 연구하면 우리는 오늘 세상에서 그 나라 준비에 바빠 세상에 관심을 둘 시간도 없을 것이다.

계21:14

6) 기초석

계21:14

그 성에 성곽은 열 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1) 12 사도의 이름들

그 나라에는 기초석이 있다. 하늘나라 건설의 초석들이다. 그 기초석에 어린 양을 따라 신약의 첫 길을 걸어간 12 사도의 이름들이 있다. 들어오는 문의 구약의 계통의 12 지파 이름은 신앙의 출생적

성장적인 면을 말한다. 12 사도의 이름들은 이 나라의 건설적 발전적인 사명의 면을 말한다.

(2) 우리 위치와 사명

그 사도들의 수고와 역사 위의 어느 한쪽에 우리 위치와 사명이 있다. 엡2:20에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며 하늘나라의 이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는 과정에 우리는 각자 자기 위치를 묵상하며 오늘 그 위치의 그런 돌이 되기 위해 자기를 다듬을 때다.

계21:15

7) 금 갈대

계21:15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1) 지팡이 같은 갈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 갈대가 나온다. 계11장에서 이미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남들은 허무하게 봐도 우리는 10장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만들고 그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잘 구별하여 참된 신앙을 만들어 갔다면 이 본문의 영원한 예루살렘 성에 맞는 나는 이미 준비가 되었어야 한다. 11장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쥐고 척량했으나 당시에 속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금 갈대로 척량해도 틀림이 없도록 미리 자신을 살폈어야 했다.

계21:16

8) 네모 반 듯

계21: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 이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 모습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편파와 왜곡이 없다. 돌아가지 않으며 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말씀에 따라 어떤 면으로 봐도, 언제 봐도, 누구에게라도 늘 한결같다.

(2) 1만 2천 스타디온

그 성을 척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며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았다. 계14:20에서 스타디온은 606자 길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한 피가 1,600스타디온에 퍼졌고 여기 우리의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은 12,000스타디온이다. 멸망의 요소보다 구원의 요소가 7배는 더 된다는 것이 소망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렇다 해도 나는 다를 수 있다. 총수를 보며 개별적으로 소망을 갖자.

계21:17

9) 성곽-144규빗

계21:17

그 성곽을 척량하매 일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성곽을 척량하니 144규빗이다. 성곽은 외부 보호를 뜻한다. 12 X 12 = 24,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한 총수다. 144,000명으로 택자 전부를 다 포함한 것과 같다. 구원의 계통과 사명의 분담을 곱하면 되는 수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호를 미리 보여 주며 오늘 땅 위에서 믿음의 계통과 사명의 분담으로만 오늘 내가 걸어가고 내가 맡고

있는 사명의 보호를 믿고 나가자. 그런데 이 척량은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노력해야 할 우리의 목표다.

계21:18

10) 성곽 - 벽옥

계21: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 벽옥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다. 벽옥은 맑고 깨끗한 보석이다. 세상의 외곽은 안을 볼 수 없게 해야 안전하다. 안과 겉을 다르게 위장을 하고 숨겨야 하고 과장을 해야 한다. 하늘나라는 감춘다고 감춰지지도 않는다. 완전의 나라이고 단일의 나라니 감출 수도 없다.

(2) 공회 행정 공개 이유

공회의 행정을 공개로 운영하는 이유도 이 나라에 가서 보면 땅 위에서 교인의 눈을 가리고 목회를 하거나 교회들의 눈을 피한 교단의 내막이 결국은 세상에서도 탄로가 나지만 세상에서 끝까지 감추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깨어 보여 주신다. 그 나라에서 깨질 것은 이 땅 위에서 미리 깨고 고치는 것이 지혜롭다.

(3) 정금

그 성은 정금이니 영원 불변성으로 만들었다. 역시 맑은 유리 같으니 외부의 성곽도, 그 안에 성도 모두 다 이중이 없고 왜곡이 없는 완전의 나라다.

계21:19

11) 기초석

계21:19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세째는 옥수요 네째는 녹보석이요

(1) 열두 개의 보석

다시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을 살피고 있다. 각가지 보배는 각가지 인재를 말한다. 잡석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물, 그 인내, 그 용기, 그 충성, 그 지혜, 그 사랑이 모두 귀한 보석들이다. 여기 19절부터 21절에 열두 개의 보석들이 있는데, 나라마다 보석들의 분포에 따라 색깔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색을 중심으로 적은 본문을 참고할 때는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짐작 정도에 그치는 것이 진리를 공부하는 자세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오늘까지 세계의 보석을 제일 잘 안다. 우리는 가난하기도 하고 또 출토가 별로 없어 일반 서민으로서는 거의 모르는 분야다. 다만 성경에서 특별히 설명한 보석을 먼저 살피고 나머지는 세월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는 기회를 따라 각자 연구하면 좋겠다.

보석은 지금 대부분 영어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함께 소개한다. 원문 자체가 다르거나 일반인이 잘 모르는 희귀 보석은 소개하지 않는다. 다음 자료는 성경의 원문과 같아서가 아니라 대략 짐작하는 하나의 참고다. 성경이 아니라 어떤 분이 찾아본 것이니 다를 수 있다.⁷²⁾

72) <https://cafe.naver.com/dolpeople/9020>

① 벽옥 (碧玉)

첫째 기초석은 또 벽옥(재스퍼, jasper)이다. 벽옥은 청색이다. 청색은 하늘의 색으로 특히 맑을 때의 색이다. 그래서 청색은 청명함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맑은 그대로를 말한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첫째 기초석이다. 우리 내면에 이런 장점을 먼저 찾아 먼저 기초로 삼고 그 위에 건설을 하자.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다.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원래의 모습을 먼저 찾아 그 위에 건설을 하자.

② 남보석 (藍寶石)

둘째 보석은 남보석(사파이어, sapphire)이다. 남색은 파란색과 보라색 사이다.

③ 옥수 (玉髓)

셋째는 옥수(칼세도니, chalcedony)로 녹색이다.

④ 녹보석 (綠寶石)

넷째 녹보석(에머랄드, emerald)은 녹색이다. 이미 계4장의 보좌 앞에 있었다. 모든 생명의 기본이 식물이며 식물의 생명력은 녹색이 가장 일반적이다. 더 짙고 열으며 보석의 결정체 모습이 다르다는 정도는 기억하자. 더 잘 아는 분들은 알아서 살피고 잘 모르는 분들은 함께 넘어가자. 먼저 아는 것을 하나씩 찾아내고 남는 것 중에 꼭 있어야 할 특징을 두고 찾다 보면 정확한 진리를 향할 수 있다. 교회 안에 여러 의인들과 종들이 있는데 설교를 잘한다 해도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도록 하는 인물도 있고 설교의 깊이가 진한 경우도 있다.

계21:20

계21: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⑤ 홍마노 (洪瑪瑙)

다섯째 홍마노(사도닉스, sardonyx)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연한 붉은 색이다. 붉은색은 하나님의 진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 가는 과정에서 일곱 인처럼 붉은 말이 나올 때는 진노로 우리의 잘못된 점을 고치기도 하나 계21장의 영원불변의 이 나라에는 더 이상 분쟁이 없고 원수가 없으니 이 열은 붉은 색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희생을 말한다.

⑥ 홍보석 (紅寶石)

여섯째 홍보석(사디우스, sardius)은 같은 강한 붉은 색이다. 홍마노는 색이 연하나 홍보석은 신비롭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가질 신비로운 면과 강한 면을 나타낸다.

⑦ 황옥 (黃玉)

일곱째 황옥(크리서라이트, chrysolite)은 누른 빛깔이다.

⑧ 녹옥 (綠玉)

여덟째는 녹옥(베릴, beryl)인데 옥 각 기둥 모양이다.

⑨ 담황옥 (淡黃玉)

아홉째 담황옥(토파즈, topaz; 노랑, 분홍, 파랑 등)은 투명하다.

⑩ 비취옥 (翡翠玉)

열째는 비취옥(크리스프레이스, chrysoprase)이다. 비취옥은 녹색으로 유명하여 생명성을 말한다.

⑪ 청옥 (靑玉)

열한째 청옥(히아신스, jacinth)은 맑은 색이다.

⑫ 자정 (紫晶)

열두째는 자정(에머시스트, amethyst)이다. 붉은 오렌지색이다. 자정은 자수정으로 모두 일치되어 있는데 자수정의 자색은 권위를 말하고 수정은 투명의 성질이므로 해석은 어렵지 않다.

이런 보석들을 물어보면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석에 대한 연구는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더듬어 맞춰 볼 뿐이고 단정하지 않는다.

(2) 열두 보석 - 우리 신앙 전부

평소 보석을 접하지 않아서 모르면 이런 보석들이 우리의 신앙 인물과 특성을 가르치는 것이니 성경과 자기 주변에서 귀한 신앙들을 열두 가지 정도 찾아보자. 성경의 보석을 모르니 직접 연결을 시키고 또 순서에 따라 은혜를 받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보석을 접하지 못하는 환경을 주셨으니 이 면의 은혜는 직접 주시든지 아니면 이 면은 조금만 알아도 되게 하셨다. 보석들을 잘 아는 사람은 대개 농사와 노동의 기본을 잘 알지 못하여 이런 면의 말씀에 마찬가지로 약할 수 있다. 예녹의 신앙과 노아의 신앙은 모두가 역사의 최고 보석들이나 그 빛깔과 그 특성은 아주 다르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르며 모세와 바울이 다르다. 열두 보석은 우리 신앙의 전부를 말한다. 보석을 직접 알지 못해도 어렵지 않게 이 말씀에서 죽는 날까지 묵상할 은혜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계21:21

12) 열두 문

계21:21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 열두 진주

열두 문은 열두 진주로 되었다. 이 나라를 들어가려면 고난 속에 자기를 보배롭게 만들어야 한다. 문마다 한 진주라 했다. 옆 사람 덕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개별성을 말했다.

(2)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니 불변의 영원성이 맑고 가림이 없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영원히 또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천국에서 걸어갈 때는 가림도 없고 장애도 없으며 곁길도 없다. 천사가 돕고 만물이 환영하며 우리는 각자 맡은 위치와 사명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가 맡은 만물에게 전해주며 끝없이 자라갈 것이다. 고전13:13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했다. 영계 영원토록 이 세 가지는 있다. 이 세 가지 중에 소망이라는 것은 더 자라고 더 자라갈 길이 있다는 뜻이다. 그 자라가는 것은 순종이라는 믿음의 방법으로 자라갈 것이고 자라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실 것이니 이것을 사랑이라 한다. 이렇게 끝

없이 자라가는 길 전부가 정금이니 우리의 이 끝없는 발전은 변함이 없다.

계21:22

13) 성전

계21:22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1) 성전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다. 성전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는 것인데 왜 영계의 이 나라에서는 성전이 없는가?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곳인데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내버리니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모시라 했으나 하늘나라는 그 나라 전부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잊어버릴 요소는 전부 지옥에 버렸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필요가 없다. 그 성이 전부 성전이기 때문이다.

(2) 오늘

오늘 우리가 주일에는 교회를 가고 평일에는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지 않는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 모신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오늘도 주일은 주일로 지키면서 평일까지 주일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예배를 마친 뒤에도 하나님이 두렵고 좋아 그 품에 산다면 돈을 버는 시간도 속으로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땅 위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모신 생활이 되지 않으면 모든 곳이 성전인 그 나라에서도 그 모든 곳을 성전으로 누리지 못하고 공간과 활동에 제한받을

수 있다. 미국 대륙을 전부 준다 해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과 자동차만 운전하는 사람과 자전거만 탈 줄 아는 사람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범위는 전혀 다르다.

(3) 하나님과 어린 양의 희생이 성전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를 주도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희생이 이 나라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니 그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하나님이 되신 것은 어린 양 때문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세상은 없다.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섭섭한 하나님으로 계시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없다 할 정도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와 없을 때, 계신다 해도 내 마음 어디쯤 계시는지 찾아볼 일이다.

(4) 자유의 장소

오늘 내 마음에 모신 하나님이 내 욕심에도 감정에도 계셔서 주 하나님으로 주도하고 계신다면 하늘나라의 모든 곳은 우리의 자유의 장소가 된다. [오늘 내 마음 한 곳에 묶어 두고 내 속을 자유하지 못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나를 스스로 하늘나라 한편에 서서 자유의 나라에서 스스로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며 오늘을 돌아보며 후회하게 된다.]

계21:23

14) 하나님의 영광

계21: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1) 하나님 중심

오늘 세상과 오늘 교회에는 하늘의 해나 달이 빛을 줘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데 이를 가릴 존재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어두울 곳이 없다.

(2) 부끄러운 구원

이 땅 위에 매 현실에서 자기중심으로 살아 자기를 어둡게 만든 이를 하나님 중심으로 산 의인들이 와서 알려주고 협조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준다. 그러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불편은 없을 것이나, 마음에는 미안할 것이며 부끄러울 것이다. 이것이 고전3:15에서 자기의 세상 생활과 행위가 주님 오실 때 다 불에 타서 지옥으로 보내고 남은 것이 없으면 택자니 천국은 오게 되어 구원은 받지만 옳은 행실로 옷을 삼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부끄럽게 될 것이다. 그 부끄러움은 그가 세상에서 선택한 자유의 결정이었으므로 하나님도 또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잠깐 두고 갈 세상나라의 자기를 꾸미려고 하늘나라의 자기 모습을 영원히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3) 어린 양이 등이 되심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직접 환하게 밝힌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아 그곳에 갔으니 항상 주님의 은혜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주님의 대속에 신세 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무궁 미래까지 늘 주님의 대속을 통해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된다.

계21:24

15) 만국

계21: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1) 만국과 왕

이 나라에서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이 땅 위에 있던 만국과 왕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거나 맞섰거나 진리에서 이탈된 나라는 들어 올 수도 없다. 주님을 모시고 이 땅 위에서 왕 노릇을 한 다윗, 그 다윗을 본받은 우리들은 이 땅 위에서 작고 큰 차이는 있으나 모두 왕들이었다.

(2) 주신 범위

또 각자에게 주신 범위가 있었으니 우리를 모으면 만국이 된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자기 범위를 잘 다스려 하나님 앞에 섰다면 또 우리가 왕 노릇을 잘한 면이 있다면, 그 배경과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전부 주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린 양의 피 흘려 희생하신 값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전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나라로 가져온다. 또 이 나라에 들여다 놓아야 그것이 제대로 살기 때문에 들어온다. 물고기는 물에 던져 줘야 살고 나무는 흙에 묻어 줘야 사는 것과 같다.

(3) 종류

주일학교 반사가 작은 왕이요, 주일학교 부장이 큰 나라를 가진 왕이다. 반사를 하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보이지 않는 왕국이다. 왕도 만국도 종류가 많다. 세상에는 이웃 나라의 공격이 있고 영토의 잠식이 있으나 시공을 초월한 나라는 남이 해할까 염려 없이 오늘 준비할 수 있다.

계21:25

16) 성문

계21:25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성문은 있으나 닫지는 않는다. 도적과 원수와 이 성에 맞지 않고 불편할 존재와 행위는 전부 지옥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내 속에 몇 %나 저 성에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인가? 내 시간, 내 실력, 내 소유, 내 사상을 낱알이 지금 따져보고 바꿀 것이 있으면 오늘이 바꿀 기회다. 오늘 바꾼 것은 들어갈 수 있으나 그날이 되어 후회하면 돌이킬 기회가 없다. 이 성에는 밤과 낮이 없다. 안과 밖이 같다. 너와 내가 같다. 공산주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영원히 한량없이 큰데 성질이 하나요 기쁨이 하나요 이치가 하나니 이색됨이 없어 하나다. 오늘의 낮은 오늘의 밤과 다르다. 그래서 사람의 눈빛도 방어도 활동도 갑자기 달라지지만 그 나라는 사명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할 일이 달라도 의인이 밤에는 도적이 되는 일이 없고 성 안을 탐하여 성 밖에서 훔치려 들어갈 일이 없으니 낮 밤에 따라 문을 여닫을 필요가 없다.

계21:26

17) 영광과 존귀

계21:26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 나라의 모든 택자가 이 땅 위에서 마련한 영광과 존귀를 모두 가지고 들어온다. 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고 주 하나님께 가져와야 더욱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기 때문이다. 주인에게 돌려 드리며 주인에게 다시 빌려 누릴 것이다.

계21:27

18) 세상 것은 들어오지 못함

계21: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1) 속된 것

무엇이든지 속된 것은 들어오지 못하니 이 속된 것은 세상 것을 말한다. 이 땅 위에서 사용하던 자기중심의 것, 말씀을 떠나 마련한 것, 그렇게 익힌 것은 전부 던져 놓고 들어와야 한다.

(2) 가증한 것

가증한 것도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 아니라도 된다는 것이 가증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것만 들어온다.

(3)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도 들어오지 못한다. 구원에 관계없고 구원을 해친 말이 거짓말이다. 평생 자기가 말한 것 중에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

까? 이것이 영원한 나라의 자기 언변이 될 것이다. 아나운서 출신의 목회자인데도 하늘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고 말할 줄 모를 상황이 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와 실력만 들어온다. 오늘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를 주님의 피 흘린 대속에 맞춰 놓아야 한다.

Ⅲ. 결론

8. 영생의 모습

22장

1. 영생의 모습 (22:1-5)
2. 기록한 이유 (22:6-7)
3. 경배 대상 (22:8-9)
4. 임박, 증거, 당부 (22:10-20)
5. 결론 (22:21)

- 요한계시록 22장 -

▷ 22장 의미

계시, 하나님, 교회의 3가지 중 계시를 기록하며 계시록 전체를 우리에게 부탁

매 현실은 항상 최종 말세이므로 늘 말세에 살고 주님을 현실마다 모시라 말씀

▶성경 내용 : 영생의 모습, 계시록 기록 이유, 경배 대상, 임박 증거 당부 축복

▶계시 내용 : 부탁

계22:1

1. 영생의 모습

22:1-5

1) 영계의 생활

계22:1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1) 생명수의 강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 하늘나라의 중심을 흐르고 있다. 하늘나라에도 물이 흐를까? 영계는 시공을 초월했다. 물질계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나라를 그리며 준비하고 소망을 갖도록 기록했다. 시공을 초월했으니 모습과 형태에 매이지 말고 그 속에 들어 있는 뜻과 성질을 살펴야 한다.

(2) 완전성의 은혜

오염 없고 섞인 것도 없고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전하니 생명수의 강이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왔으니 어떤 은혜가 나왔을까? 탄광에서 흐르는 물이면 시커먼 석탄물일 것이고, 공장에서 나온 물이면 폐수일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자시니 완전성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흘러나올 것이다. 영원한 나라에 어디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는 기록하지 않았다. 대략 그리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필요한 것을 주시되 완전성으로 주시니 부족이 없고 고장 없이 주시는 것은 확실하다. 여기서 그 나라를 그릴 때 오늘 이 땅 위의 모습에서 죄와 마귀와 사망적인 것을 제하고 비교해 보면 참고가 된다.

(3) 비유

[땅에서 출발하여 조금씩 신령한 면으로 살펴보는 방법은, 우선 아이를 향해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것은 모두다. 완전한가? 그래도 이 땅 위에서는 완전식품이라 한다. 문제는 어머니의 식사가 오염되면 모두에도 영향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사람을 처음 전도하여 기를 때를 비교한다. 감리교에서 전도를 하면 감리교 행정과 교훈과 분위기가 전해진다. 감리교는 완전한가? 장로교라면 흠도 점도 없

을까? 이 면이 장점이면 꼭 저 면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살 그 나라에서는 정말 완전식품의 모유와 완전 교육과 모든 환경을 통해 아이를 기르듯 신앙의 사람에게 침례교식 감리교식 장로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성으로 바로 직접 공급을 하게 된다. 교훈에 흠이 없고 행정과 체계에 조금도 문제가 없다. 오로지 좋은 환경에서 바르게만 자라 간다. 오늘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인들의 예배와 생활이 얼마나 보기 좋고 살기 좋고 안팎으로 은혜가 넘칠까?]

(4) 솔로몬 시대

이 땅 위에서도 잠깐씩 하늘의 모습을 살짝 비춘 적이 있다. 솔로몬 때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사용했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이 했다. 만국은 배우러 왔고 오면서 그곳의 특산물로 예물을 드렸다. 정신이 현황한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을 모신 신하가 되고 싶었다.

(5) 완전성의 은혜

오늘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면은 하나님의 완전성의 은혜 때문이다. 인간적 감성, 세상 기준, 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나 정말 진리적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좋아 보이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일부를 조금 보여 주신 것이다.

(6) 요셉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민족 노예며 죄수 출신이나 왕이 안심하고 나라를 맡겼다. 귀족, 서민, 이방인들까지 요셉의 처리에 감탄했고 요셉에게 감사했다. 요셉 때문에 요셉의 일족을 모두 모셔와 높이고 싶었다. 가장 좋은 땅을 내어주고 싶었다. 역지가 아니고 마

지못해서도 아니며 힘에 눌려서 그런 것도 아니다.

(7) 짐작

하늘나라는 이 땅 위에서 이렇게 마련한 요소만 가지고 들어간다. 시공의 제한도 없고 악령의 유혹과 사망의 공포도 없고 죄악의 장애도 없는 상태에서 더욱 더 그렇게 하라고, 그런 택자의 그런 요소만 모아 놓은 곳에서 이번에는 보좌의 하나님의 완전성의 은혜가 마음껏 제공된다. 요셉과 솔로몬의 완전성의 통치 모습에 이 땅 위의 여러 한계와 제한을 없애 버린다면 하늘나라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겠다.

(8) 어린양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를 또 말씀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것이 된다. 영원토록 그 피를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의 단일성과 영원불변성과 하나님의 지식 지혜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의 모든 속성이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어린 양을 통해 넘치면 어떤 나라가 되며 어떤 모습이 될까?

계22:2

2) 생명나무

계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1) 길 가운데

길 가운데로 흘렀으니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걸어갈 우리

의 영생 길을 말한다. 그 영생의 길에 필요한 은혜가 이렇게 넘치니 그 길은 찬송하며 걸어갈 영광의 길이다.

(2) 생명나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자라고 결실을 맺으며 요동이 없는 면을 나무라 한다.

(3) 열두 가지 과실

열두 가지 과실을 맺히니 영원히 우리와 만물에게 필요한 결실들이 이어진다. 오늘 땅에서는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인 두 사람이 교회를 나가는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얼마 후에 신앙을 포기하는 수도 있다. 한 사람 전도하여 그 사람의 신앙이 그 교회에 일꾼으로 잘 맺혀지면 얼마나 보람될까? 교회의 경제면을 맡은 인물로 자라고, 교회의 교훈 면을 책임지는 인재로 결실 맺고, 교회의 행정을 맡아 모두를 잘 살피는 기둥이 된다면 이렇게 모든 면으로 자꾸 연관을 지어가며 넓게 생각해 보자. 좌우의 나무니 이 쪽도 저쪽도 모든 면으로 다 구비되어 있다. 편파가 없고 편중이 없어 어지럽지 않고 충돌도 없다.

(4) 달마다 열매

달마다 열매를 맺히니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또 자기들이 필요한 때를 따라 열매를 맺힌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로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도 계시를 두 번 받았고, 보디발 집에서도 가정 만사를 맡는 총무가 되었고,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를 책임진 사람이 되었다. 가는 곳마다 필요할 때마다 열매를 맺혔다. 풍년에도 곡식을 모아 열매를 맺혔고, 흉년에는 곡식을 풀어서 열매를 또 맺혔다. 환

경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은혜로 그 환경과 그곳의 남들을 잘 돌보고 살피서 그들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셉의 그 못된 형들까지도 환영하게 만들었다.

(5) 준비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인가? 오늘 그렇게 나를 만들어야 그 나라에서 더욱 그렇게 끝없이 발전되며 산다. 오늘 만들지 못한 요소와 실력은 그 나라에서 그런 때와 그런 결실과 그런 기회를 주셔도 받아 누리지를 못한다. 쳐다보기만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믿는 우리가 믿은 이후에 목숨 바쳐 해야 할 준비다.

(6) 잎사귀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그로 인해 주시는 때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으로 결실한 것이 주변을 복되게 한다. 이런 나무에 속한 것은 잎사귀 하나라도 널리널리 모든 존재에게 도움이 되고 바른 활력을 찾아 준다. 요셉의 결실로 요셉의 처리는 애굽 밖의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지키며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했다.

계22:3

3) 저주

계22: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1) 저주의 시작

다시 저주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떠난 뒤에 죄를 지어도 잘되는 것은 더 큰 저주다. 이런 것은 이미 지옥으로 다 보내 버렸다. 택자라면 오늘 세상에서 저주 아래의 생활만 할지라도 천국은 가나 세상에서 한 번도 은혜를 전할 실력을 마련하지 않았고 연습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의 천국은 남들이 은혜를 전할 때 쳐다보기만 하고 전하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받아 감사만 하지 함께 전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2) 섬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다. 섬긴다. 노예가 주인 좋도록 심부름하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위해 고생하는 것을 섬긴다고 한다. 하늘나라도 그럴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하고 우리를 구했으니 이것이 하나님 세계의 섬김이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 믿어 신앙의 사람이 되면 뒤에 믿는 이를 위해 주님처럼 수고하라는 것이다. 이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구하여 받고 그 받은 것을 내게 맡긴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피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자이니 우리가 우리 것을 드리고 바쳐 봐야 하나님께서 덕을 보거나 도움이 되거나 가져갈 것이 없다. 하나님의 소원, 그 목적, 그 은혜의 영광의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 내가 있을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함으로 내게 맡겨진 영계의 모든 영물들을 잘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늘 하나님께 청구하러 다녀야 하니 청구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탄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니 늘 머리와 허리와 몸을 숙이며 몸 둘 바를 모르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이런 일을 속아서 하고 억지로 하는 이 땅 위의 모든 섬김이라는 것은 비참한 일이지만, 믿는 우리

가 온 인격과 나를 속이는 것은 원하고 원하는 기쁨과 감사의 자연스런 표시다.

계22:4

4)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

계22:4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1) 대면

우리가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을 볼 것이다. 주님이 사람 되어 왔을 때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주님이 누군지 알아본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음악을 들으며 작곡가의 생각을, 그림을 보며 화가의 마음을 접하고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무형이라 오늘 우리가 보듯이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나라에서는 지식으로 주님을 보고 지혜로 하나님을 직접 접할 것이다. 선으로 사랑으로 의와 거룩과 진실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대면하게 된다. 어린 양도 신인양성일위지만 그분의 부활하신 얼굴을 보는 것은 이 땅 위에서도 죄인들이 볼 수 있었다. 어린 양을 보는 것은 사진을 찍어 나오는 형태의 주님이 아니라 신인양성일위의 수고를 보는 것이 어린 양을 보는 것이고 나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 속에 나를 사랑하신 그 걸음을 가림 없이 보는 것이다.

(2) 그의 이름

그의 이름도 종들의 이마에 있다. 여기 ‘그의 이름’이란 단수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 둘 중에 하나라야 문법에 맞지만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는다. 한 분으로 읽는다. 삼위일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역사한다. 그래서 우선은 어린 양

이고 더 깊은 배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종이며 우리는 어린 양의 종이다. 그런데 어린 양을 붙들어야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애매하면 어린 양을 먼저 붙드는 것이 좋다.

(3) 저희의 이마 - 종들의 이마

‘저희의 이마’는 우리의 사상과 생각을 말한다. 이 땅 위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생각은 오로지 주님의 대속만을 생각해야 한다.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지금 영계에 있다. 이런 사람만 영계에 데려다 놓았다. 오늘 매 현실에서 돈만 생각하고 자기 사욕만 생각하고 자기 명예만을 채워 그 생각뿐인 사람은 그런 이마 속에 생각을 모두 버리고 와야 하니 텅 빈 이마가 된다. 주님이 구원한 성도라는 이름, 주님이 구원한 은혜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주님의 구원만 감사하고 생각하고 살아온 그 이마 그 사상 그 생각을 말한다.

계22:5

5) 다시 밤이 없다

계22: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1) 잠깐

다시 밤이 없다. 역사 세계가 길게 느껴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지극히 짧은 잠깐이다.

(2) 밤

영원 전에도 영원 후에도 밤은 없다. 우리를 위해 오늘 역사 세계에 서만 진리가 거둬져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밤을 주셨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진리가 없어 모두가 밤중이라 할 때도 말씀의 빛으로 자기의 발과 길을 비춰보고 살아야 했다.

(3) 산 요소

빛으로 산 요소만 모아 놓았으니 그 세계는 빛이다. 또 그 빛만 보고 산 인격과 행위만 모아 놓았으니 밤은 있을 수가 없는 나라다. 하나님과 진리가 없는 암흑의 부분이 없는 나라다.

(4) 세상

세상은 어두울 때 등불과 햇빛으로 해결한다. 어두움은 낮이 오면 해결되지만 낮이 오지 않으면 등불을 들어야 한다. 세상 생활은 기쁨으로 불을 켜 등불이라야 한다. 진리의 생활이 필요하면 말씀과 영감으로 살펴야 한다.

(5) 목적 달성

이 나라는 하나님과 진리를 가려 놓은 곳이 없고 온 나라의 전부가 하나님의 품이요 진리의 세계이니 따로 성경을 펼쳐 연구해야 할 곳이 아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영계와 우주의 만물에게 세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전하는 왕 노릇을 한다. 바로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정했던 목적이다. 이제 목적이 달성되었고 영원히 끝없이 그 목적을 향해 더욱더 나아간다.

2. 계시록 기록의 목적 (22:6-7)

1) 기록한 이유

계22:6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1) 권위성

이 모든 말을 기록하라 한다. 신실하다 한다. 말하지 않아도 신실한 말씀이요 영원불변의 진리다.

(2) 기록 이유 - 준비

왜 기록하라 하는가? 그날에 가서는 준비하지 못한다. 요한을 통해 미리 적어 보게 하여, 오늘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 전에, 그 나라의 내용을 살펴, 오늘 준비하라는 것이다.

(3) 우리 할 일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가서 살 나라니 오늘 그냥 기다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운영되는 나라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벰후3:11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피난법을 마련하여 주님의 재림 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때 생존법에 그치는가? 오늘 이 땅 위에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그날에 피난하려 한다면 그 생각도 풀어져 지옥으로 가야 한다.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모습과 내용을 미리 살펴 미리 이렇게 살아야 그렇게 산 것을 재림 때 태우지 않고 모아서 영계로 가져오게 하고 영계에서 이런 생활을 하게 한다.

(4)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 요한에게 전하고 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으로 표시한 것을 보니 선지자들이 전하지만 선지자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선지자 속에 은밀히 역사하는 그 영을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표시했다. 보이는 것으로 전부를 삼지 말고 보이는 것 속에 있는 볼 수 없는 하늘나라를 오늘도 사모하고 마련하라는 것이다. 오늘은 볼 수 없으나 내일은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준비는 오늘만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준비는 불신자나 인간의 욕안으로 볼 수 없는 하늘나라를 보는 것이다. 선지자가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볼 수 없는 하늘을 알려 주고 있다.

(5) 속히 될 일

오늘도 매 현실은 지나간다. 그 현실이 지나갈 때마다 이런 하늘의 영원한 생활이 결정되고 후에 보충하거나 변경을 할 수 없이 고정되니 ‘결코 속히 될 일’이다. 매 현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다. 크게 보면 한 사람의 어린 때와 청년 때와 노년이 지나간다. 지나가면 손을 댈 수 없다. 청년 때를 다시 나누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렇게 크게 나누면 그 속에 들어 있는 작은 것은 다 흘러 없어진다. 작은 것이 많이 없어지면 큰 것은 빈 자루만 남는다. 한 주간 단위로는 볼 수 있어야 한다. 주일을 중심으로 7일을 주셨다. 한 주일을 바로 지켜 한 주간이 바로 되도록 점검해 보자. 그리고 한 주간 단위가 연습이 되면 매일로 자기를 점검하고, 매일을 점검하면서 매 순간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

계22:7

(6) 속히 오심

계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은 속히 온다. 매 현실마다 온다. 마16:28에서 열두 제자에게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했고, 행1:9에서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제자들은 그들 생전에 주님이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바쁘게 복음을 전했다. 마 20:21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남들을 자기 멋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를 요구했다. 그 생각 그 인격 그 생활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늘에 들어가서 안 되는 땅의 것이다. 오늘 매 현실이 계속 지나가고 있다. 주님은 쉴 새 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7) 예언의 말씀

그 주님이 오시면 계시록의 일곱 인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의 일들이 전개되고 그 가운데 세상은 짐승과 바벨론으로 우리를 삼킬 것이라며 계시록에 기록해 주셨다. 그것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다.

(8)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현실은 주님의 재림이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이다. 이 현장에서 되어진 대로 하늘나라가 영원무궁토록 펼쳐질 것이니 어린 양으로 살고 그 주님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야 교회다.

3. 경배 대상 (22:8-9)

계22:8-9

8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계22:8

1) 우리에게 주신 신분

(1) 목격자

요한이 이 모든 것을 천사를 통해 보고 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을까? 천사는 자기 주관으로 가리고 섞지 않고 전달한다. 따라서 천사를 통해 받은 것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과 같다. 자연스럽게 요한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노력해야 할 목표다. 전적 하나님의 것을 전하고 내 것은 조금도 섞지 않게 되어 받는 이가 나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았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거짓말과 설득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가로채는 잘못이다. 천사는 잘 전했고, 또 요한은 영안이 밝아 천사를 통해 전해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받았다.

2) 하나님께 경배하라 - 유일한 경배의 대상

(1) 경배

지금 천사와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요한이 경배하려 엎드렸다. 천사는 요한에게, 천사나 사도 요한이나 다른 선지자들이나 우리는 모두 피조물이며 하나님을 모시고 심부름하는

존재라고 일깨운다. 요한도 알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느꼈던 것이다.

(2) 목표

이 모습이 영원한 나라의 목표다.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만존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접하는 다른 존재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착각할 정도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순간도 놓지 않게 된다.

(3) 사단의 타락

사단이 타락한 것은 창조 초기에 바로 이렇게 심부름을 하다가 자기가 종인지 하나님인지를 착각하고 유1:6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다가 쫓겨났다.

계22:10

4. 임박, 증거 (22:10-20)

1) 임박 22:10-13

계22:10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 매 현실이 종말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면서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했다. 매 현실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는 재림이며 계시록 전체의 내용에 따라 영원이 바로 결정된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 있

게 되었으나 이 말씀을 그렇게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뒤로 미루게 되면 인봉된다.

계22:11

(2) 기록

계22:11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① 가속도로 진행

주님의 피로 대속하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말세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든지 가속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실제 역사 세계의 발전도 눈이 어지러울 만큼 빠르다. 과거 수천 년에 이를 것이 지금은 자고 나면 바뀔 정도여서 앞날에 대한 예측조차 어렵다. 또 한 사람의 인생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빨라진다. 단12:4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고 했고 지식이 더한다고 했다. 도서관의 책이 더해지는 것처럼 인간의 지식이 단순하게 누적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활용까지 빨라지고, 오가는 교통이 빨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오가며 전하고 받는 내용이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나쁜 것은 더욱 나빠지게 된다.

② 불의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의인데 갈수록 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된다. 역사 이후에 현재 자기 현실이 가장 불의한 때다. 또 개인적으로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난날의 어떤 때보다 현재가 더 세멋대로 되며 갈수록 더욱 악화된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다.

③ 더러운 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 더러운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더러운 정도는 더욱 심하게 된다.

④ 의로운 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더욱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는 더욱 깨끗하게 살게 되어 양쪽의 격차는 아득하게 멀어진다. 그 멀어지는 공간적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계22:12

(3) 속히 올 것

계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다시 우리에게 속히 올 것이며 일한 대로 갚아 준다 했다. 오늘 매 현실이 내일 우리의 영생의 모습이다. 이 둘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이 신앙이며 함께 봐야 세상에 속지 않는다. 오늘의 세상과 내일의 영생을 따로 떼어 놓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붙들려 하늘을 다 잃어버린다.

계22:13

(4) 영원불변

계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① 영원불변

다시 주님의 영원불변을 말한다. 영원 전 자존하신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매 현실에서 우리를 돕고 지켜보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변치 않고 우리를 길러가실 그 하나님이다. 사람은 그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또 환경은 그대로이나 사람 자체가 변한다. 그러나 완전자 절대자 불변의 단일성의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②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다. 시작과 그 끝을 가진 분이다. 왜 세 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변치 않으시니 변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존하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시작한 일이고 영원 불변으로 가게 되는 한 길이니 이 땅 위의 환경과 자기의 상태에 따라 복음으로 자기를 씻고 준비하는 일에 변동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다.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매어 주는 말씀이다. 시작을 하신 하나님이 끝을 보실 것이다.

③ 완전의 목적

완전자가 완전의 목적을 정하였으니 그 목적이 바로 나 자신이다. 지극히 허무한 나인데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 없는 세계를 겪게 한 후 다시 원래 자리로 갖다 놓고 이제는 어린 양의 피를 감사하며 어린 양과 함께 영원히 변치 말고 가라는 것이다.

계22:14

(5) 두루마기

계22:14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① 빠는 것

두루마기는 우리의 행실이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을 어긴 죄의 행위를 버리고 말씀으로 살면 죄가 빠져나간다. 내 마음대로 산 불의를 빨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것, 하나님과 원수된 나의 내면을 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세상만 보며 산 절망을 씻어 버리고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안팎의 행위를 빠는 것이다.

② 생명나무

이렇게 사죄와 칭의와 화친과 소망으로 우리의 행위를 빨아야 생명 나무에 나아간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열매를 맺는 영생으로 산다. 또 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인격과 행위와 실력이 된다.

계22:15

계22:15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③ 개들

개들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고 했다. 나를 씻을 때 입으로 물어뜯은 과거를 살피자. 주로 말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평생을 돌아보면 대개 사람은 말을 가지고 남을 친다. 약3장에 그 사례를 자세히 모아 뒀다.

④ 술객

술객들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진리가 아닌 세상 방법이 모두 술수요 그렇게 사는 자는 술객이 된다.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뜻으로 충성하여 되는 것도 있다. 그런데 불신자의 상술로 기업경영으로 회원 모집의 방법으로 했다면 이런 방법은 술수요 이런 목회자는 술객이 된다. 신학도, 목회도, 가정도, 건강도 모든 면으로 우리의 방법론을 살펴야 한다.

⑤ 행음자

행음자들은 세상에 시선과 마음을 뺏긴 자다.

⑥ 살인자

살인자는 남의 구원을 돌아보지 않은 자니 남을 사랑하지 않은 자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면 미움이 생긴다. 미워하는 자는 요일3:15에서 살인하는 자라 했다. 주님은 피 흘려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하는 일을 마다한다면 어린 양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서로가 맞지 않으니 서로의 천국이 다르다.

⑦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의 다른 것에게 생사화복을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 한 분으로만 생사화복의 영원을 맡기고 사는 나라에 그 반대되는 사상이 들어오면 하늘나라도 또 충돌을 해야 한다. 그래서

들어올 수도 없고 들여보내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도 생사화복이 있다고 하려면 스스로 하늘나라를 거부하고 지옥을 가야 맞다. 그래서 알고 보면 지옥이란 가기 싫은데 만유주의 힘으로 강제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평생을 세세히 살펴 그가 원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판별해서 그 소원대로 해주는 것이다. 말씀을 어기는 것이 좋다니까, 이익이 된다니까, 즐겁다니까, 그리고 그 현실을 기어코 그렇게 본인이 끝을 내 버렸으니 자유의 나라에서 어떻게 분류하고 보내야 하겠는가?

㉔ 거짓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이 전부라는 자, 구원이 좋으나 나 좋은 대로 해야 좋은 신앙이라며 속을 슬쩍 바꿔 놓는 자 이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구원에 유익되지 않은 그 말이 전부 거짓말이다.

5. 예수님과 교회⁷³⁾ (22:16-20)

계22:16

1) 재촉구, 재확인

계22: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 나 예수

73) 엡1:21의 교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계시록에서 주님이 친히 ‘나 예수’로 자신을 말씀한 것은 22장의 이 마지막이 처음이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이름이다. 계시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다. 내가 구원이다! 그렇다. 주님만 구원이다. 잊지 말자.

(2)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고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하는 말씀이다. ‘내 사자를 보내어’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가 깨달도록 보여주고 안내하고 외치라고 모든 천사를 다 동원하였다. 오늘도 매 현실에서 내 마음은 물론 사건 속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어느 한 곳도 천사가 돕지 않고 비워 둔 곳은 없다.

(3) 증거하게 하였노라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볼 수 있도록, 보기 좋도록, 계시로 모든 것을 보여 주셨다. 그렇다면 봐야 한다. 보여 주는데도 보지 않으면 길은 하나뿐이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야 한다. 돌아설 수도 있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 돌아서면 지금 현실에서 바로 주님과 함께 이 현실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

(4) 다윗의 뿌리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싸우면 항상 이기고 점령하는 그 유명한 다윗, 그 다윗의 뿌리가 바로 주님이다. 주님이 오시기 위해 먼저 다윗을 보내고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가르쳤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을 보낸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다. 모두 우리 구원 때문이다.

(5) 광명한 새벽별

‘곧 광명한 새벽별’이 주님이다. 새벽별이 뜨면 해가 나온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없이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 우리를 연결하고 안내하여 영원히 하나님으로 살게 한 분이 주님이다.

계22:17

2) 성령과 신부

계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데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 성령과 신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한다. 주님의 대속을 우리 마음과 생활 속에 소리 없이 감동으로 심어 주고 인도하는 분이다. 신부는 주님과 하나 될 완전한 교회다. 내가 들어가야 완전한 신부가 된다. 나 하나가 빠지면 천하 택자와 성도의 옳은 행실이 다 모여 있어도 장애자가 된다. 내가 있어야 할 위치, 내가 맡을 사명, 내가 영원히 할 나의 일이 있다. 주님은 믿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기르신다. 사람이 많다고 자기 하나를 슬쩍 빼지 말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많다고 자기의 가치를 낮추면 안 된다. 발톱이야 보는 사람도 하는 일도 없어 보이나 그 발톱이 없어지면 온몸이 힘들다.

(2) 듣는 자

듣는 자도 오라 한다. 이 말씀이 신앙 양심의 귀를 통해 들리면 듣는 자다. 들리면 순종하면 된다.

(3) 목마른 자

목마른 자도 올 것이다. 중생된 사람은 이미 영이 살아났기에 아무리 밥을 먹어도, 아무리 지식과 명예를 채워도 영이 만족할 때까지는 뭔가 차지 않아 애가 탄다. 목이 마르다. 이 목마름은 주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과 정죄로 오지 않고 복음과 생명으로 오는 어린 양으로 나오는 생명수 이것으로만 해결된다.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주신다. 오늘의 물질계 강물은 많이 퍼내면 줄어든다. 바닷물도 그렇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한 신령한 세계의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인도와 은혜의 세계는 무한이다. 퍼내고 사용할수록 더 많이 주신다. 받는 사람이 받을 실력이 있고 또 감당이 되기 때문이다.

계22:18

6. 말씀의 권위성

1) 더하지 말 것

계22:18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때 현실에 필요한 것을 정확무오하게 또 일점일획도 가감 없이 모두 기록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외에 자기 생각으로 또 이 땅 위에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 보태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여 손해만 되고 헛일만 될 터이니 어떤 것도 더하지 말라 했다. 준비하지 못한 자기 생애를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도록 보태는 것도 안 된다. 또 이 예언으로 준비할 방법을 주셨는데 다른 방법을 더해도 안

된다.

계22:19

2) 제하지 말 것

계22:19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 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또한 이 예언에서 말씀을 했는데도 너무 가혹하고 아쉽고 무섭다고 말씀을 빼고 깎고 줄이면 그 빠진 말씀에 맞춰 준비할 하늘나라의 자기 실력과 자기 위치와 자기 준비는 사라진다.

계22:20

3) 속히 오리라

계22:20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 속히 오리라 - 마지막 말씀

계시록 1장에서 22장 여기까지를 증거하신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다.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다.

(2) 재림에 대한 말씀

그래서 계시록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재림을 알리고 보이시는 '계시'다. 그분이 이 시간도 각자 마음과 생활에 와 계신다.

(3) 우리 할 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구원의 주님이 구원을 가지고 매 헌
실마다 오시겠다는데, 좀 늦게 오라고 문 밖에 세워 둘 것인가?

(4)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계시록에 적어 주신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또 속히 오리라 하시니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그리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의요 우리가 할 일 전부다.

(5)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주권 운영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매 현실에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씩 살려 나가시
는 주님이 예수님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진심의
손을 들어 그 품에 안기자.

계22:21

7. 결론 (22:21)

계22: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매 현실에 주시는 구
원의 역사다.

2)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택한 모든 백성과 우리 심신 속속들이 내면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요한의 심정을 나의 심정으로 삼고 우리가 우리 현실에서 늘
이 마음으로 살자.

3) 아멘

‘아멘’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사요 안부요 우리의 소원이요 우리의 전부다.

부록

부록1. 총공회 말세론

부록2. 요한계시록 장별 정리

부록1. 총공회 말세론

- 계시록 : (건설구원)의 급박한 말씀
- 말세 : 주님 부활 승천 순간부터 (신약) 시대 전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25:34)

■ 종말의 순서

1. 예수님의 공중 재림

- 1) 앞서 죽은 택자들의 부활
 - 마음과 영은 낙원에서 대기 중
 - 재림 전에 죽은 택자의 육신의 부활

- 2) 재림 순간 살아있는 성도들의 홀연한 변화
 - 죽는 순간 순식간에 부활

- 3) 지상 세상의 완전 재편
 - 변질된 세상 물질계는 완전히 태워 해체하여 정리
 - 변동치 않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구성
 - 모든 불택자는 사망 (소수의 번식인종만 남겨진다.)

2. 예수님의 지상 재림 / 천년왕국

- 1) 재림 후 택자들의 예비기간
 - 지상 재림의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통치 연습

- 2) 악령의 활동 중단 기간

- 1천년간 악령이 무저갱에 결박됨
- 악령과 죄로 인한 상황이 없어
- 침노가 없고 죄로 인한 단명, 해함, 상함도 없음

3) 변식인종

- 재림시 남겨진 불택자들
- 천년왕국의 일반 백성으로 천년왕국 최종시점에 이르면 변성하여 온 지면에 널리 퍼짐
- 유일한 재림 이전의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

3. 천년왕국의 종료

- 무저갱의 악령이 최종적으로 풀려남
- 악령에게 조종된 변식인종들이 성도들을 해하려 함
- 전투도 필요 없이 부활한 성도들이 승리
- 악령은 영원히 지옥에 던져짐

4. 심판

1) 시공적 도식으로 본 심판의 진행 순서

① 공심판

- 천하 모든 사람을 한 자리에 모아 택자와 불택자를 분리
- 불택자는 지옥으로, 택자는 천국으로 분류

② 사심판

- 천국 문 앞에서 택자 개개인의 준비에 따른
- 실력, 기능, 상, 영광의 정도를 평가받음

2) 실질적 심판의 단계

① 불택자에 대한 공심판

- 천년왕국이 끝나면 불택자 전부가 부활
- 불택자도 무한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

- 전부 지옥으로 보내짐
- ② 택자들에 대한 심판
 - 중생의 순간 택자들의 공심판은 완료
 - 개인 죽음의 순간이 실질적인 택자들의 사심판, 곧 그리스도의 사심판

■ 말세

- 개인 종말 : 내가 죽는 그날이 각자의 종말이다.
- 단번 기회: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 미래뿐 아니라 매 순간마다 계시록의 말씀은 진행되고 있다.

■ 택자의 죽음

- 육은 땅에 남겨진다.
- 죄의 기능들도 이 땅 위에 남겨진다.
- 마음과 영은 낙원으로 옮겨 간다.
- 옳은 것 즉 의의 기능은 낙원으로 갖고 간다.
- 죽는 순간이 택자의 실질적 사심판이다.

부록2. 요한계시록 장별 정리

■ 장별

1장 (서론) - 말세 교회를 위해 주신 계시

- ① 계시 :1
- ② 하나님 :4
- ③ 교회 :20

2장 (교회) - 실상을 보여 바른 교회 요구

- ① 에베소 :1 - 처음 사랑
 - ② 서머나 :8 - 지사 충성
 - ③ 버가모 :12- 이름 굳게
 - ④ 두아디 :18- 사업 주의
- (3장)
- ⑤ 사데 :1 - 내면 죽음
 - ⑥ 빌라델 :7 - 열린 교회
 - ⑦ 라오디 :14- 죽은 교회

4장 (영계) - 소망을 보여 영원 건설 참고

- ① 열림 :1 - 하늘: 미리 보임
- ② 주님 :2 - 보좌: 주님 위치
- ③ 성도 :4 - 24 장로: 천국 성도
- ④ 영물 :6 - 네 생물: 영계 구성

5장 (성경) - 모든 영원 건설은 오직 성경

- ① 인봉 :1 - 성경:1내용 인봉
- ② 위임 :5 - 예수로만
- ③ 복음 :8 - 3 찬양: 성도와 생물, 천사, 만물

6장 (역사) - 말씀대로 전개 될 말세 역사

- ① 복음 :1 - 백마
- ② 분쟁 :3 - 적마
- ③ 사망 :5 - 흑마
- ④ 재앙 :7 - 청황
- ⑤ 호소 :9 - 영혼의 기도
- ⑥ 전멸 :12- 천지 진동

7장 (성도) - 구원의 계통에 승리의 성도

- ① 환란 통제 :1 - 사방 바람
- ② 구원 계통 :5 - 열두 지파
- ③ 승리 성도 :9 - 흰옷 성도

8장 (재앙) -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 ① 준비 기회 :1 - 반시 기회
- ② 기도 역사 :3 - 기도 상달
- ③ 1 나팔 :7 - 피 섞인 우박
- 2 나팔 :8 - 불붙은 큰 산
- 3 나팔 :10 - 타는 큰 별
- 4 나팔 :12 - 해달별 1/3

(9장) - 2가지 나팔

- 5 나팔 :1 - 떨어진 별 하나
- 6 나팔 :13 - 유브라데 네 천사

10장 (준비) - 우주적 환란에 승리할 방법

- ① 성경 준비 - 무기
- 모습 :1 - 작은 책
- 성취 :7 - 이룰 것
- 각오 :9 - 먹을 것

(11장)

- ② 교회 척량 - 내부 단속
- 내부 조사 :1 - 갈대 척량
- 증언 순교 :3 - 두 증인
- (일곱 나팔:15)

(12장)

- ③ 해 입은 여자 - 구원 계통
- 교회 준비 :1, 해산 여인
- 악령 대적 :3, 삼킬 용
- 신령 전쟁 :7
- 교회 핍박 :13

13장 (세상) - 우리 싸울 원수인 죄악 세상

- ① 바다 짐승 :1
- ② 땅의 짐승 :11

14장 (승리) - 승리한 성도와 세상의 심판

- ① 성도 :1
- ② 세 천사 :6
 - 1 천사 :6
 - 2 천사 :8
 - 3 천사 :9
 - 4 천사 :14
 - 5 천사 :17

(15장)

- ③ 유리바다 :2

(16장)

- ④ 7대접
 - 땅 재앙 :2 - 1대접
 - 바다 “ :3 - 2대접
 - 물 “ :4 - 3대접
 - 해 “ :8 - 4대접
 - 짐승보좌:10- 5대접
 - 유브라데:12- 6대접
 - 공기 “ :17- 7대접

17장 (세상) - 세상의 주인 악령과 그 핵심

- ① 유희의 세상 :1 - 음녀
- ② 7머리 10뿔 :7 - 짐승

(18장)- 바벨론

- ③ 대표적 세상 :1 - 바벨론 심판

19장 (종말) - 역사 세계의 심판과 마무리

- ① 하늘의 찬송 :1
- ② 심판주 :11
- ③ 심판 처리 :17

(20장)

- ④ 천년왕국 :1
- ⑤ 백보좌심판 :11

(21장)

- ① 신천신지 :1
- ② 새예루살렘:7

22장 (결론) - 영생의 모습

- ①영계 :1
- ②계시 :6
 - 권위성 :6, 16
 - 필요성 :10
- ③결론 :21

■장별

<p>1장 - 계시, 7교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p> <p>① 계시 :1 ② 하나님 :4 ③ 교회 :20</p>	<p>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세 교회 위한 구원 계시</p>	<p>서론</p>
<p>2장 -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p> <p>① 에베소 :1 - 처음 사랑 ② 서머나 :8 - 지사 충성 ③ 버가모 :12- 이름 굳게 ④ 두아디라:18-사업 주의</p>	<p>말세 교회의 실상을 통해 바른 교회가 될 것</p>	<p>본론 ①교회(말세 교회)</p>
<p>(3장) -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p> <p>⑤ 사데 :1 - 실은 죽음 ⑥ 빌라델 :7 - 열린 교회 ⑦ 라오디 :14- 죽은 교회</p>		

<p>4장 - 천국, 24장로, 영계 영물</p> <p>① 하늘 :1 - 미리 보임 ② 보좌 :2 - 주님 위치 ③ 24장로 :4 - 천국 성도 ④ 주변 :6 - 천국 모습</p>	<p>천국의 영생을 받은 교회의 영원한 모습</p>	<p>②천국(의 실상)</p>
<p>5장 -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 책, 7인</p> <p>① 성경 :1 - 내용 인봉 ② 예수 :5 - 예수로만 ③ 찬양 :8 - 복음 운동</p>	<p>교회의 구원과 말세의 전개는 성경을 계시</p>	<p>③성경(말세의 전개)</p>
<p>6장 - 6인(백마, 적마, 흑마, 청황마, 영혼, 진노)</p> <p>▶말씀의 역사</p> <p>① 백마 :1 - 복음 운동 ② 적마 :3 - 살해 운동 ③ 흑마 :5 - 사망 운동 ④ 청황 :7 - 재앙 운동 ⑤ 영혼 :9 - 호소 운동 ⑥ 재앙 :12 - 천지 진동</p>	<p>세상의 모든 종류의 운동들의 실상</p>	<p>④운동 (1)일곱 인(기준)</p>

<p>7장 - 4천사, 인 맞은 12지파</p> <p>① 사방 바람 :1 - 환란 통제 ② 열두 지파 :5 - 구원 계통 ③ 흰옷 성도 :9 - 승리 종들</p>	<p>세상과 재앙 속에 성도 계통과 승리의 원인</p>	<p>◁신앙 계통</p>
<p>8장 - 기도, 7번째 인 = 나팔 재앙, 4나팔</p> <p>① 일곱째 인 :1 - 재앙 시작 ② 기도 상달 :3 - 기도 역사 ③ 첫째 나팔 :7 - 피 섞인 우박 둘째 나팔 :8 - 불 붙은 큰 산 셋째 나팔 :10 - 타는 큰 별 넷째 나팔 :12 - 해달별 1/3</p>	<p>성도에게 기도를 먼저 주시고 나팔 재앙 시작</p>	<p>(2)7나팔(광고) ▶1재앙</p>
<p>(9장) - 2가지 나팔</p> <p>닷째 나팔 :1 - 떨어 진 별 하나 엿째 나팔 :13 - 유브라데 네 천사</p>		

<p>10장 - 작은 책을 먹음</p> <p>① 성경 작은 책 :1 이룰 것 :7 먹을 것 :9</p>	<p>5장에서 받은 성경을 이제는 양식 삼을 것</p>	<p>◁성경</p>
<p>(11장) - 성전 측량, 7번째 나팔</p> <p>② 교회 척량 갈대 :1 두 증인 :3 (일곱 나팔:15)</p>	<p>교회부터 구별하여 내부 단속</p>	<p>◁교회</p>
<p>(12장) - 해를 입은 여자</p> <p>해산 여인 :1 삼킬 용 :3 신령 전쟁 :7 교회 핍박 :13</p>	<p>신약교회 출발의 계통</p>	

<p>13장 - 바다 짐승, 땅 짐승</p> <p>① 바다 짐승 :1 ② 땅의 짐승 :11</p>	<p>죄악 세상</p>	<p>▶죄악 세상</p>
<p>14장- 14만 4천인, 3천사, 구름 위에 앉은 이</p> <p>① 성도 :1 ② 세 천사 :6 1 천사 :6 2 천사 :8 3 천사 :9 4 천사 :14 5 천사 :17</p>	<p>승리의 성도들</p>	<p>◁승리 신앙</p>
<p>15장- 7천사, 유리바다</p> <p>① 유리바다 :2</p>	<p>신앙 전투</p>	<p>(3)7대접(일시) ▶2재앙</p>

<p>16장- 7대접</p> <p>① 1대접 :2 - 땅 ② 2대접 :3 - 바다 ③ 3대접 :4 - 물근원 ④ 4대접 :8 - 해 ⑤ 5대접 :10 - 짐승 보좌 ⑥ 6대접 :12 - 유브라데 ⑦ 7대접 :17 - 공기</p>	<p>신앙 전투</p>	<p>(3)7대접(일시) ▶2재앙</p>
<p>17장- 음녀, 7머리 10뿔 짐승,</p> <p>① 음녀 :1 - 유혹의 세상 ② 짐승 :7 - 7머리 10뿔</p>	<p>세상이 하나 됨</p>	
<p>(18장)- 바벨론</p> <p>① 바벨론 심판</p>	<p>대표적 세상</p>	

<p>19장- 하늘에 허다한 무리, 하늘에 백마와 탄 자</p> <p>① 하늘의 찬송 :1 ② 심판주 :11 ③ 심판 처리 :17</p>	<p>승리한 성도들</p>	<p>⑤종말 심판</p>
<p>(20장)- 마귀의 무저갱, 천년왕국, 백보좌심판</p> <p>① 천년왕국 :1 ② 백보좌심판 :11</p>		<p>천년왕국</p>
<p>21장- 신천신지, 새예루살렘</p> <p>① 신천신지 :1 ② 새예루살렘:7</p>		<p>영생</p>
<p>(22장)- 영생의 모습, 계시록 기록 이유, 경배 대상, 임박, 증거, 당부, 축복</p> <p>① 영계 :1 ② 계시 :6 권위성 :6, 16 필요성 :10 ③ 결론 :21</p>		<p>결론</p>